

건축사

1999 8 Vol. 364

칼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우리의 건축교육

작품리뷰 광주과학기술원

테마기획 지역건축탐방 10 - 서울 (삼)

해외건축 프랑스 건축이론의 전통과 20세기의 건축 (7)

設計 CONCEPT의 充實한 行動 파트너

효성드라이비트

효성드라이비트를 다양한 건축물에 친숙한 공법으로 적용하여 새로운 건축문화를 창달해 주신 건축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존 외벽단열 및 마감재의 획일적 적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저희 효성은 드라이비트공법의 도입개척자로서 그리고 업계 선두주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하며, 이미 알고 계시는 드라이비트의 장점과 새롭게 전개되는 효성만의 특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능적 재료로서의 부가가치가 탁월합니다.

건축비용의 현격한 절감과 30%이상의 에너지절약으로 드라이비트의 실용성과 경제성은 여타 재료의 주종을 불허하며, 최근에는 외단열마감재의 영원한 과제로 여겨왔던 오염문제를 완벽히 해결한 내오염 마감재를 개발함으로써 적용한계를 초월하는 개가를 거두었습니다.

공신력 높은 업체로서 본분을 다합니다.

효성드라이비트는 국내 외벽단열업계에서 유일하게 사용 자재 일체(절착제, 마감재, 유리섬유 MESH, EPS Board, 내오염마감재)와 숙련된 시공력을 Total로 공급하고 사후 품질을 철저히 보증하는 회사이며, 이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KS, ASTM(미국공인규격), ISO 9002등 품질관리상의 공신력 있는 규격을 준수하고 이의 인증을 획득한 신뢰받는 회사입니다.

새로운 영역을 끊임없이 개척합니다.

노후된 건물의 개보수에 최적인 외벽단열 및 내부마감공법은 공법 고유의 특징점 외에 효성의 창조적 기술개발과 환경친화적 기업정신의 실천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건축주에 제공하고 있으며, 용인에버랜드 등 자유롭고 섬세한 조형성이 요구되는 건축물의 시공을 통해 축적한 몰딩시스템(EM)의 Know-How와 내외장겸용 광범위 마감재인 유로스 타코를 보급함으로써 드라이비트의 고급화, 고품격화를 실현하였습니다.

항상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서비스를 아끼지 않습니다.

효성드라이비트는 외벽디자인 및 Coloring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IDEA를 제공하고, 제반 기술지원 서비스에 있어 일선직원들은 물론 경영진까지도 건축사 여러분의 문의를 직접 받고 즉각적인 응답을 드리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영진 직통: 02-518-3011)

이제 효성은 10년 이상 축적된 총체적 역량과 설계자의 의도를 먼저 생각하는 MIND를 바탕으로 작품의도를 100% 이상 표현할 수 있는 충실한 행동파트너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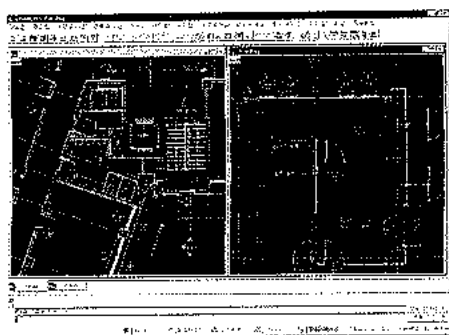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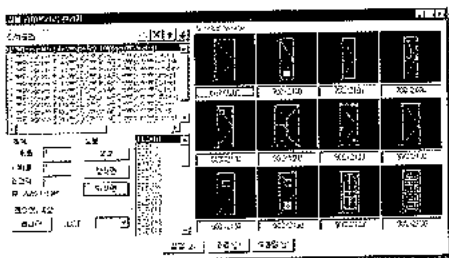
효성드라이비트(주) 대표이사

金 承 培

건축설계 전문가를 위한



건축표준 라이브러리를 내장한 건축설계 전용 CAD - uniARCH



UniARCH는 삼성SDS의 UniCAD 커널을 바탕으로 개발된 건축설계 전용 한국형 CAD S/W로 기존의 건축 설계용 3rd Party 프로그램 및 외국산 건축 설계용 CAD S/W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국내 실무에 적합하고 기능과 속도를 향상시켜 작업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UniARCH는 건축분야의 설계전문가를 위한 최적의 CAD시스템입니다.

- UniARCH는 여러개의 도면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복잡한 도면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UniARCH는 Windows의 TrueType 글꼴을 모두 사용하며, 다양한 서체를 제공합니다.
- UniARCH는 다양한 File Format을 지원하며, 동적인 미리보기(Dynamic Preview)로 손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 UniARCH는 사용자 정의의 심볼 라이브러리 기능과 도면작성시 필요한 다양한 건축요소들을 생성합니다.
- UniARCH는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UniARCH가 제공하는 환경에서 개발이 쉽고 빨라집니다.

최적의 CAD시스템 - UniARCH



CAD 자주독립 UniARCH 815 특별판/정식판

- 판매대상 : 건축사협회 등록회원
- 판매기간 : 1999년 8월 14일까지 한정판매
- 판매가격 : 특별판 220,000원 / Copy(VAT포함)
정식판 577,500원 / Copy(VAT포함)
- 특별판 공급조건
 - 사용보증기간 : 2000년 8월 15일, 보증기간내 Upgrade는 무상지원
 - 정식판 전환기간 및 가격 : 특별판의 보증기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Upgrade 시에는 정식판으로의 전환이 필요
 - 5Copy 이상 구매시 분할납부 가능: 계약시, 1개월후, 2개월후
각각 40%, 30%, 30%
 - 반납가능: 특별판 사용증 불만족시 1999년 10월 15일까지
- 교육 : 기본교육은 집합교육, 전문교육은 교육비 처리
- 매뉴얼 : 최초 1Copy에 1권, 추가 3Copy당 1권 추가지급



UniCAD

- UniCAD는 통합된 명령어로 입력은 적게, 작업속도는 빠르게 하기 하나의 시스템에서 여러개의 도면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UniCAD는 하나의 도면에서 부동 데이터를 생성, 수정할 수 있으므로 조립도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 UniCAD는 선택된 요소에 따라 치수의 종류를 결정해 주므로 치수 기입시간을 줄여 도면작업 속도가 빨라집니다.
- UniCAD는 복잡한 도면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어떤 그래픽 드라이버에서도 UniCAD를 사용할 수 있어 그래픽 속도가 아주 빨라졌습니다.
- UniCAD는 설계도면에 다양한 글꼴을 사용할 수 있으며, OLE2의 복합문서 기능을 사용하면 Engineering 문서 작성이 쉬워집니다.

www.unicad.co.kr

◈ 국가검정 CAD자격증 제도 공인 CAD S/W 선정 ◈ 교육부 국정교과서 CAD실습 Tool 선정 : 서울시 건축사 협회 공인 CAD ◈ 경북 실내건축 디자인 협회 공인 CAD

공인 대리점

경인 에카비전 (02)598-0567 이너테크 (02)552-491 캐디인스 (02)881-7805 SOS Eng. (02)2638-0685 신축COM (0331)221-7755
 타이즈마인 (02)3445-7797 선우정보 (0342)751-0058 조형건축사 (0348)944-7188 대전 (주)해성 (042)633-5171 캐드토폭 (042)636-1159
 부산 포원정보 (051)315-7004 하나시스템 (051)328-7227 창원 경진정보 (0551)275-5258 케이엔아이 (0551)260-5341 대구 모아정보 (053)745-6999
 월드캐드컴 (053)566-0160 광주 아룸테크 (062)527-3834 경동시스템 (062)228-5900 무진 (062)265-4300 전주 컴퓨터랜드 (0652)71-5010
 ◈ 쉽게 쓰여진 UniCAD를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주)홍일아트 (02)2275-5575

SAMSUNG

삼성SDS



AutoCAD 2000



▶ **Heads-up-Design** · 다중 설계 환경에서는 단일 세션에서 다중 도면을 열고 객체 및 연관 데이터를 다중 도면간으로 복사, 이동하고 속성 복제 가능 · AutoCAD DesignCenter를 사용하여, 열린 도면이든 닫힌 도면이든 또는 지역 도면이든 원거리 도면이든 상관없이 어떤 도면에서도 구성요소를 현재 AutoCAD 도면으로 끌어놓을 수 있음 · 신속 수치기입(QDIM)을 사용하여 간단히 형상을 선택하여 원하는 수 만큼 자동으로 치수를 작성할 수 있음 · 획득점, 임시 구성선 및 연장과 평행 객체스냅 모드가 포함되어 있는 AutoSnap과 PolarSnap의 객체 스냅 추적을 하나의 지능적 도구로 결합시킨 AutoTrack을 사용하여 객체를 가시적으로 작성하고 위치시킬 수 있음 · 부분적 열기를 사용하여 도면과 외부참조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열고 편집 가능 · 부분적 열리기를 사용하여 도면과 외부참조에서 필요한 구간만을 동적으로 열릴 수 있음 · 내부 편집을 사용하여 마스터 도면 파일에서 블록이나 외부참조 파일 직접 편집 가능 · 3D Orbit을 사용하여 렌더된 모형과 와이어프레임 모형을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회전하고 Zoom할 수 있음 · 가려진 와이어프레임과 Gouraud를 포함하는 다양한 음영처리 모드에서 형상 편집 가능 · 각 뷰포트마다 사용자 좌표계(UCS) 정의 가능 · 새로운 뷰 대화상자에서 사용자 정의 뷰를 복원하고 저장 가능 · 향상된 접근성과 유용성 · 객체 특성 윈도우 대화상자에서 모든 객체 특성을 수정하거나 볼 수 있음 ·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도면층 특성 관리자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선 가중치, 플롯 유형 및 도면층 플롯/플롯 안함 특성에 접근할 수 있으며, 화면 표시 영역을 2배 이상 확대하여 도면층 이름 표시 가능 · 아디셔널 오른쪽 클릭을 하여, 문맥 감지 단축 메뉴 표시 가능 · 신속 선택 대화상자에서 지정된 특성을 가진 모든 객체를 검색하고 선택 가능 · 도면특성을 사용하여 도면 파일에 설명적 정보를 포함시키고 검색 가능 · dbConnect 도구를 사용하여 모든 데이터베이스 연결 관리 가능 · 분수 편집, 대문자화 및 행 간격을 포함하는 개선된 문자 지원을 통한 명료한 도면 작성 · 최대 255문자까지 기호 이름 사용 가능 · 제 설계된 치수 유형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치수를 설정할 수 있으며, 미리보기 화면에는 변경된 설정값이 자동으로 반영 · 새로운 경계 해치 대화상자에서 해치를 미리 볼 수 있음

▶ **확장된 도달 범위** · 열기, 저장 및 Appload 대화상자에 들어있는 간편한 탐색기를 사용하여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음 · 새로운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AutoCAD 객체에 하이퍼링크 부착 가능 · 플롯할 수 있는 상태이며 안전한 DWF(drawing web format)도면을 인터넷으로 전송 가능 · 다른 이름으로 저장 출력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DXF 파일 형식이 통합되었으며, AutoCAD 파일에 대한 완벽한 데이터베이스 교환이 지원됨으로서 DXF 파일을 읽을 경우, 읽는 시간이 빨라져 효율적으로 작업 가능

▶ **효율적인 출력** · 임의의 닫힌 객체로부터 사각형이 아닌 뷰포트를 정의하거나 정렬할 수 있음 · 여러 대화상자를 통해 객체나 도면층에 선 가중치 지정 가능 · 단일 도면 내에 다중 도면공간 배치 가능 · WYSIWYG인쇄 미리보기와 새로운 플로팅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실수를 줄일 수 있음 · 마법사와 템플릿을 사용하여 쉽게 플로팅/제치 시작 가능 · AutoCAD 단위로 폭과 높이를 입력하여 OLE 객체의 축척 설정 가능 · 사용자화와 확장성 증대 · ObjectDBX API를 사용하여 AutoCAD 형상과 모델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능적 설계 객체를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 작성 가능 · ObjectARX API를 사용하여 모든 AutoCAD 2000 객체에 대해 사용자 응용프로그램 작성 가능 · Visual LISP 통합 개발환경을 이용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가능 · AutoCAD 도면에서 다중 VBA 프로젝트를 작성하고 올리고 포함 가능 · AutoCAD ActiveX Automation API의 완전하고 강력한 확장성을 통해 COM을 사용, 사용자화 가능

▶ **강력한 기술 구조** · 훨씬 빠르게 파일 열기와 저장, 블록 작성 및 객체 편집 작업 가능 · ACIS 4.0 모델링 엔진으로 우수한 성능, 안정성, 정확성, 모각기와 MDT 소프트웨어와의 개선된 상호운용성 획득 · AutoCAD 2000은 윈도우 98/95 및 윈도우 NT 4.0 로고와 호환되므로 상호운용성을 증가시키고 배우는 시간을 줄여줌 · 실시간 초점 이동과 줌을 포함하여 인텔리마우스 좌표 입력 장치 기능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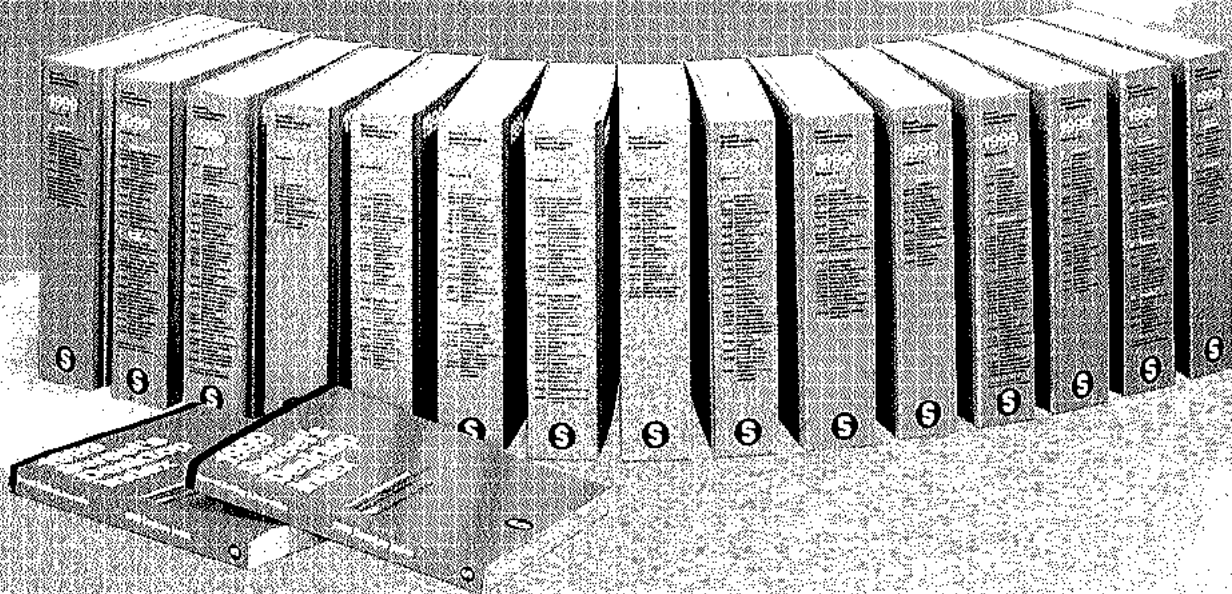


AutoCAD Visualization Su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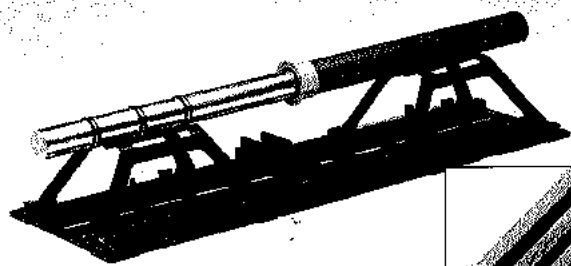
AutoCAD 2000+3DS VIZ R2 통합 패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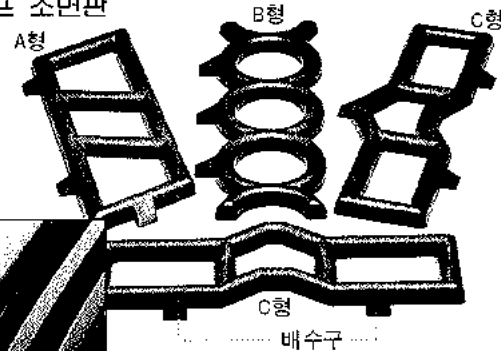
Sweet's General Building & Renovation Catalog File(G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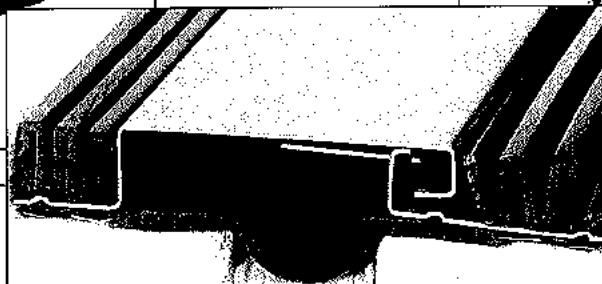
DOWEL BAR ·
CAP · CHA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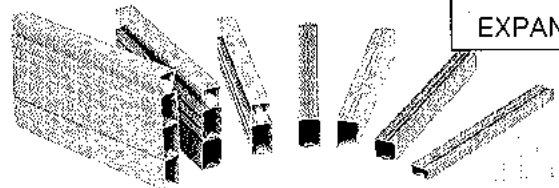
램프 조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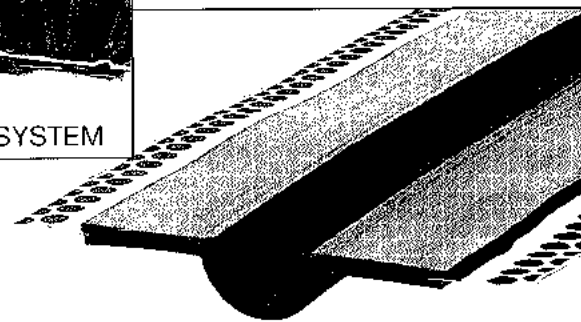
EXPANSION JOINT SUS COVER SYSTEM



신축줄눈



EPDM 지수판



Sweet's Catalog File 한국대리점

타우상사 02-3272-2318, 2320

신축줄눈, EPDM지수판, DOWEL BAR · CAP · CHAIR, 램프 조면판, EXPANSION JOINT.

(주)타우 대일산업
TEL:02-3272-2311(代) ~ 3

DETAIL 디스켓 무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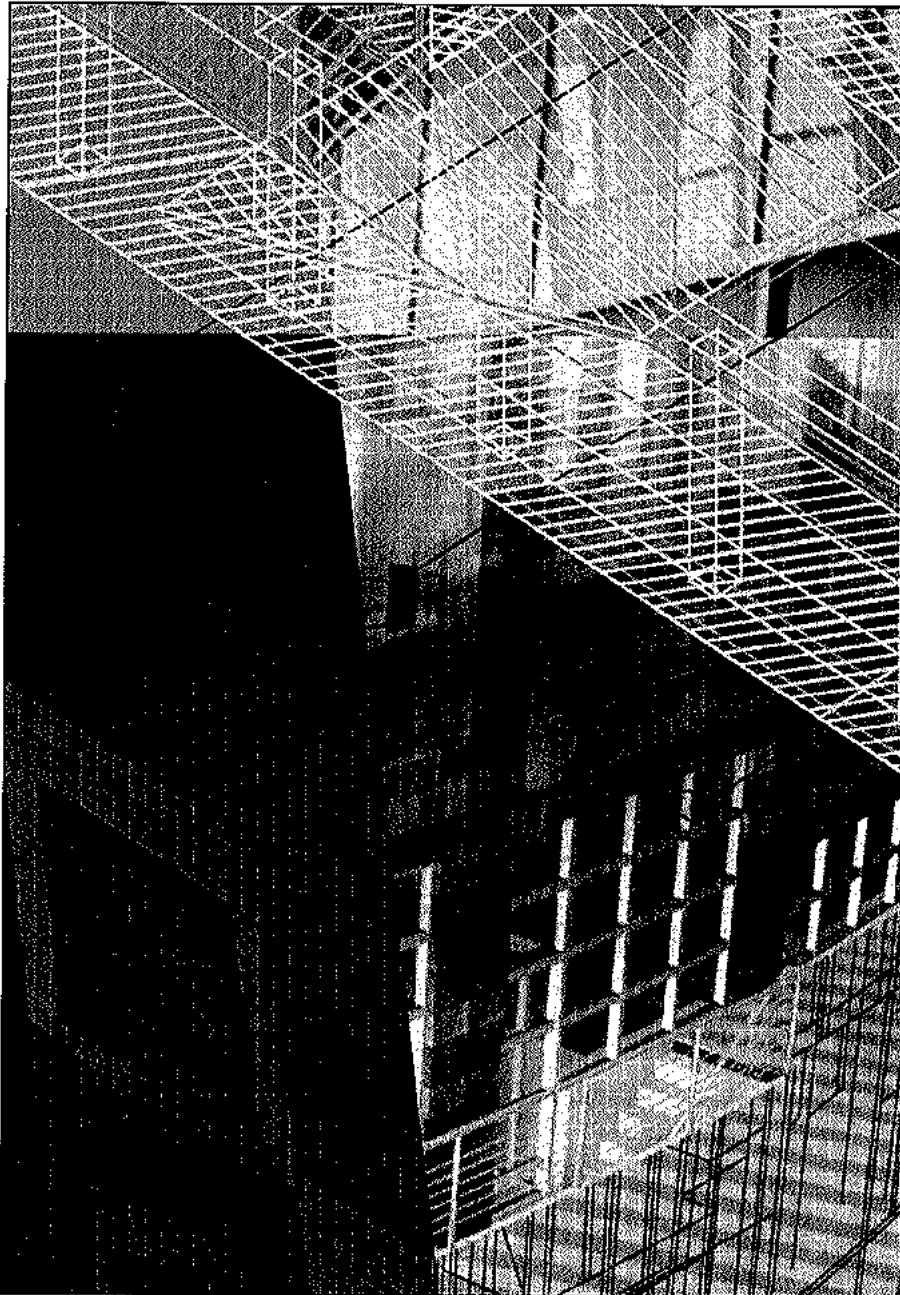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6 삼부빌딩 17층
TEL : 527-0790 FAX : 527-0799
www.autodesk.co.kr

DESIGN
YOUR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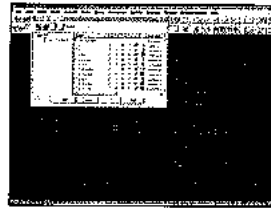
三位一體!

개념설계에서 실시설계, 공사용 도서작성까지 건축설계 작업을 하나로 끝내줍니다!



AutoCAD Architectural Desktop R2

공사용 도서작성만 되던 기존의 건축설계 소프트웨어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초기 개념설계에서 마지막 공사용 도서작성까지 건축설계의 전과정에 걸쳐 활용의 폭을 넓혔을 뿐 아니라 실시설계 작업도 객체지향(Object ARX)기술을 도입, 대폭 단순화 시켰습니다. 창문을 불러와 사이즈를 변경하고 변경된 위치에 넣는 작업이 한 번에 끝납니다.



주요특징

- 건축관련 사용자 인터페이스
- Model Explorer를 이용해 더욱 순위위진 Mass Study
- 유형기반 AEC 객체 지원
(벽체, 문, 창호, 기둥, 계단, 지붕...)
- 문맥 감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나열되는 팝업 메뉴
- 도서양식을 표현하기 위한 뷰 시스템에 의한 뷰 종속적인 객체 표현
- 건축요소와 관련된 각종 일람표 및 보고서 작성

ADT Visualization Suite

ADT R2+3DSVIZ R2 통합 패키지

ADT로 작업한 3차원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편집, 렌더링, 애니메이션화 하여 통합 프리젠테이션 환경 제공

- 풍부한 재질 및 조명효과
- ADT파일과의 완벽한 호환
- Panoramic 렌더링 지원
- DWG Linking 및 ObjectARX™ 애플리케이션 지원
- 수백가지의 AEC 객체 샘플 및 유연한 3D 객체 스냅

건축가를 위한
신개념 AutoCAD

건축/엔지니어링/측량 협력업체

(주)건캐드 584-6480, (주)리온테크시스템 569-1814, (주)에너텍 2271-1781, 한국씨아이.엠(주) 515-3167

Architectural Desktop

ADT

日本 MULTI 社 누설전류계 전문

건축감리 • 전기감리 • 소방감리 장비 판매중

활선상태에서 절연저항을 누설전류계로 비교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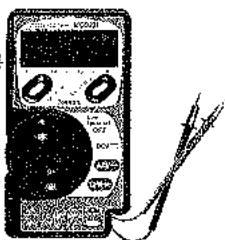
MULTI DIGITAL CLAMP METER 2100(φ55AC)

- AC 0.01 ~ 2,000A
- AC 1m ~ 600V
- DC 0.1m ~ 600V
- 0.1Ω ~ 200mΩ
- 도통, 다이오드
- AUTO OFF 0, H
- 260(φ55AC/DC)
- AC 0.01 ~ 2,000A
- DC 0.01 ~ 2000A
- AC 0.1mV ~ 600V
- DC 0.1mV ~ 600V
- 0.1Ω ~ 40mΩ
- 주파수 1Hz ~ 1,000Hz
- 도통, 다이오드
- DATA HOLD AUTO OFF



- AC500V
- DC 500V
- 저항 302M
- 다이오드 도통
- AUTO OFF
- DH
- BARGRAP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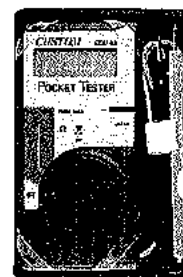
MDC 007
일본 MULTI 社



3244
HIOKI



CDMO3
CUSTOM



누설전류계 Multi 140
φ40 m/m 0.01mA ~ 300mA
누전사고예방



유압식 단자 압착기
9H-150(14" ~ 150")



전선압착기(유압식)
EP 430(Y-35)



유압식 철타권공기
SH-10(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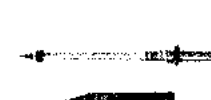
MULTI 누설전류계 MCL-800D
φ80 m/m 0.01mA ~ 1,000A
누전사고예방



유압 압착기 12호 A
(14" ~ 325")



유압 수동 펌프 HP 700A



특고저압검전기



MULTI 누설전류계 340
0.001 ~ 200 mmA
φ40 m/m 0.01mA ~ 200 mA



DIGITAL 소음계(1350) 조도계 YF-1065
35-130db 0.1 ~ 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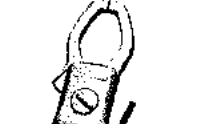
비접촉식온도계
ST31 32 ~ 400°C
ST6Lx -32 ~ 500°C



비접촉식온도계
-50 ~ 500°C UT-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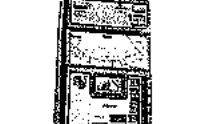
DIGITAL 절연저항계
250V 50M 500V 100M 1,000V 2,000M
MIS-3D



DIGITAL 폭콘 온도 매터
234301 650V 1,000A



접지저항계 3235



다기능계측기 MET500



절연저항계 3213A
500V 1,000M 1,000V 2,000



절연장갑



50,000V 내전압시험기



후크온식 접지저항계



특고압 COS조작봉
3단4M 5단6M

KYORITSU



접지 저항계 디지털
4105 0 ~ 2000 Ω



접지저항계 410 20-1,000 Ω



온도계
2007 600A 750V
2002 1000A 750V



절연저항계
3165 500V 1,000M
3166 1,000V ~ 2,000M



절연저항계(3123) 10,000V

취급회사 제품



KYORITSU
MULTI 누설전류계
IZUMI 압착기

KIKUSUI 내전압 시험기
MUSASH O.T 테스트
HIOKI 계측기

국산

메가 흑크메타 아쓰테스타 소방장비 차압계

YOKOGAWA 기록계

내전압 시험기 제작전문
(주)현대전기 계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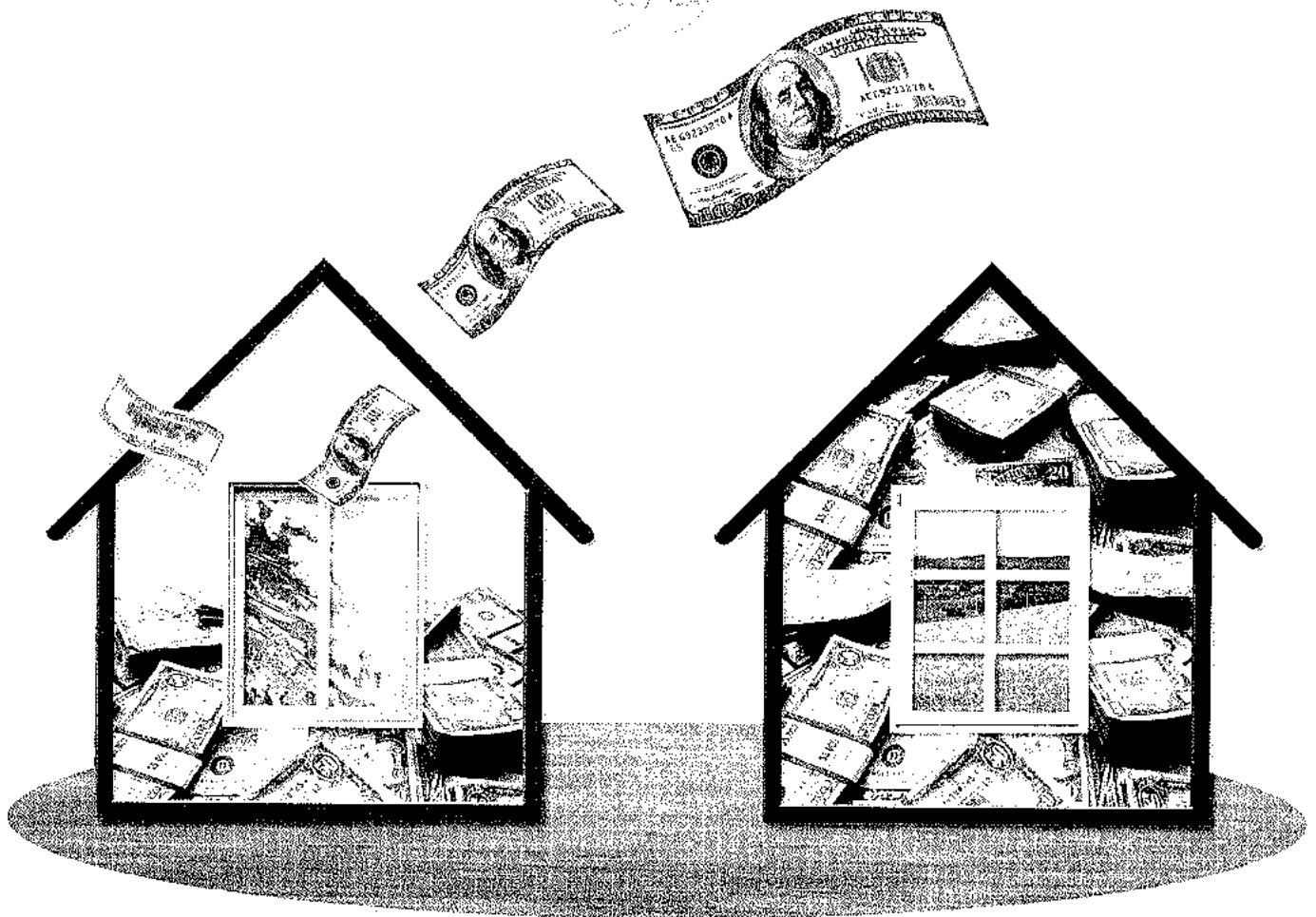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99-1
TEL : (02)2279-0427, 2278-3944
FAX : (02)2273-8758



고효율 에너지 가리지
인증번호 (에너지 관리공단)

주 해강윈스타

창문으로 새어나가는 달러 해강 수퍼사시가 막아드립니다



에너지 절약형 독일식 시스템 창호 해강 수퍼사시는 다년간의 연구와 노력 끝에 국내 최초로 100% 국산화를 실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시스템 창호를 최고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 여러분께 한발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다격실 구조와 밀폐성 높은 EPDM 가스켓, 복층유리를 사용하는 해강 수퍼사시는 단열, 방음효과가 탁월하며 윙열기 개폐방식의 도입으로 공기의 자연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과학적인 환기방식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연구개발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설 것을 약속 드립니다.

해강 수퍼사시 구입 및 문의처

■서울 사무소 및 전시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8-2 남경빌딩 2층 TEL: (02)548-4041(대) · FAX: (02)543-3647

■본 사: 충남 천안시 목천면 지산리 236번지 TEL: (0417)557-9687 · FAX: (0417)557-96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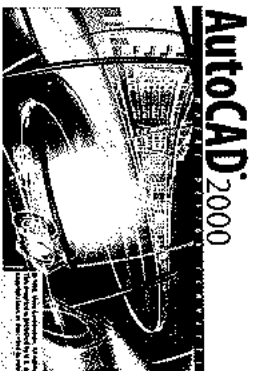
■부 산: (051)501-9006	■강 남: (02)3442-0657	■강 북: (02)2264-5506	■대 구: (053)551-1770	■송 파: (02)544-7104
■인 천: (032)431-6732	■의정부: (0351)877-3808	■안 성: (0333)656-7504	■천 안: (0417)575-8196	■대전2: (042)633-5591
■대전1: (042)485-2071	■강 동: (02)474-1661	■라 인: (02)552-3530	■마 산: (0551)51-0011	■제 주: (064)748-4811
■서 부: (02)322-6812	■울 산: (052)248-0900	■안 양: (0343)471-7084	■서 초: (02)575-3845	

건축CAD 신제품 Pyramid2000

피라미드2000은 기존의 건축설계사무를 대폭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사용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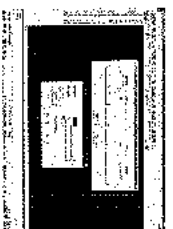
피라미드2000은 AutoCAD R14, AutoCAD2000
IntelliCAD98을 지원합니다.



도면별 주요특징

- 실시간 업데이트 프로그램(Realtime Updated Program)
- (주)부림캐드네트웍의 전용 인터넷 사이트 운영
- www.adpro.co.kr로 접속하여 피라미드2000 클릭
- 피라미드2000의 설치 및 버그 접수 및 수정 확인
- 웹사이트를 통한 프로그램의 라이브 업데이트
- 각종 캐드 유틸리티 및 유용한 건축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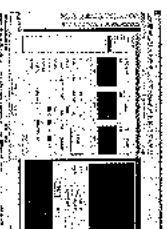
- 효율적인 스타트업(Efficient Startup)
- 스타트업에서 프로젝트와 디렉터리 관리
- 세도면에서 도면별 파일명 자동 설정
- 도면별 매뉴얼에 의한 작업의 효율화
- 도면의 축척 및 등지크기 자동 설정
- 프로젝트 네트웍 연결 동시 작업 가능



- 카멜레온형 환경설정(Channelonic Environment Setup)
- DXF를 이용한 솔리드 보의 자동 적도 가능
- 바닥설계 및 천장 마감의 자동 적도 가능
- 창문과 문, 기와 등의 자동 적도 가능
- 단면제도의 역전 자동화 프로그램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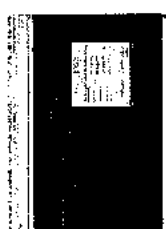
- 프로젝트별 초기 환경설정(Initial Setup of Each Project)
- 프로젝트 시작시 작업내용을 미리 설정하는 기능
- 건물 개요와 층수 및 층고 설정 가능
- 벽체선 및 문, 창문 초기 작업 환경 설정 가능
- 보와 기둥 등의 구조요소 초기 작업 환경 설정 가능
- 작업시 설정 변화선택으로 반복작업의 효율화 추구



- 다용도 건축된 평면 작업(Powerful Floor Plan)
- 미리 정의된 벽, 문, 창문 등의 요소 사용 가능
- 자질별로 분리된 벽체선 정의 및 적도 가능
- 모든 공사 조건에 동작하는 벽체선 자동 수정 가능
- 기둥과 동시에 적도되는 문과 창문 그리기 가능
- 각 실의 미간까지 표기되는 설명 적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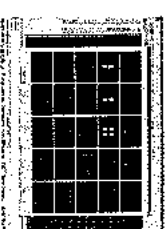
- 다양한 커튼월 기능(Variou Curtain Wall Function)
- 어떤 유형의 커튼월이라도 적도 가능
- 커튼월을 중앙선 구간별로 기호 공작에 의해 정의
- 커튼월의 창틀 세부 설정 가능
- 폴리 중심선 선택 옵션에 의한 전체 틀본 기능
- 신그라기 적도 옵션에 의한 구간별 등분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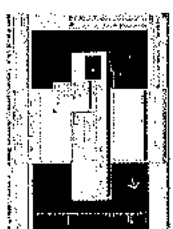
- 편리한 치수 작업(Convenient Dimension)
- 치수 유형을 예인과 서브로 분리해서 관리
- 외부 치수 그리기와 내부 치수 그리기 가능
- 부른 확대도면의 축척 다른 치수 그리기 가능
- 인출치수 표기에 의한 MC 치수 그리기 가능
- 기존의 치수를 안쪽치수 형식으로 변경하는 기능



- 자동화된 단면요소 작업(Automatic Section)
- 단면 솔리드 및 보 자동 그리기 가능
- 바닥 마감 재질별 설정과 자동 그리기 가능
- 천장 마감 재질별 설정과 자동 그리기 가능
- 발코니, 피라미드, 드라에어러 자동 그리기 가능
- 목발기초, 풀기초, 메트기초 자동 그리기 가능



- 다양한 입면 작업(Various Elevation)
- 종고 설정에 의한 종고 중심선 자동 적도 가능
- 다양하고 편리한 입면 문과 창호 적도 가능
- 입면도 정중의 각종 기호 적도 가능
- 사용자 정의하는 입면 심볼 설정 가능
- 입면도 종고 기준 자동 복사 기능



- 전문화된 배치도 작업(Professional Site Plan)
- 지적확대 기능과 면적 보정 기능
- 도로 후퇴선 적도와 거리정리 기능
- 구역도 면적 산출 기능
- 주차장 그리기와 주차대수 산출 기능
- 조경개요 및 수목수령표 적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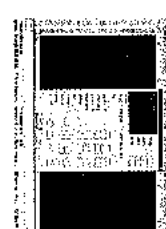
- 자동화된 실내재료마감표 작업(Automatic Finish Table)
- 실내재료마감표 양식 자동 그리기 가능
- 설명에 따른 재료미간 정의와 그리기 가능
- 사용자 설정 실내재료마감표 적도 가능
- 실내미간 상세번호 자동 기입 가능
- 마감성세도 자동적도 가능 및 사용자 정의 가능



- 모듈화된 창호일람표 작업(Modious Door & Window List)
- 창호일람표 양식 자동 적도 가능
- 창호일람표 양식대로 자동화된 문, 창호 적도 가능
- 사용자가 정의하는 모듈화된 문, 창호 정의 가능
- 사용자가 정의하는 창호일람표 양식 정의 가능
- 커튼월과 연속창의 창호일람표 적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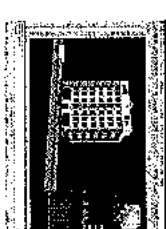
- 빠른 구조평면 작업(Rapid Structure Floor Plan)
- 벽체 기둥부 자동 적도 가능
- 벽체 기둥부 부호 자동 적도 가능
- 보, 거더 자동 적도 가능
- 종벽, 보, 거더, 기둥, 슬라브 부호 자동 적도 가능
- 구조 평면 전용 치수 기입 기능



- 완전 자동 배근 리스트(Full Automatic Structure Steel List)
- 보 리스트 완전 자동화 적도 가능
- 기둥 리스트 완전 자동화 적도 가능
- 기둥 리스트 완전 자동화 적도 가능
- 슬라브 리스트 완전 자동화 적도 가능
- 길배근 상세도 자동 적도 가능 및 사용자 정의 가능



- 3차원 모델링 및 컨버팅(3D Modeling & Converting)
- 효율적인 3차원 객체화 설정 기능
- 벽체, 문, 창문을 비롯한 도면요소 3차원 적도 가능
- 2차원에서 적도한 도면요소 3차원 컨버팅 기능
- 3차원 심볼과 사용자 정의 3차원 심볼 추가 기능
- 편리한 3차원 레이아웃 도구 기능



- 3차원 프리젠테이션(3D Presentation)
- 화면 분할 기능과 분할 도면 동시 출력 기능
- 평면 투시도 생성 기능
- 원근 투시도 생성 기능
- 워킹 애니메이션 기능
- 클리핑 애니메이션 기능



IntelliARC

※ 8월 24일 화요일 2시부터 4시까지
대한건축사협회 강당에서
공개설명회가 있습니다.

건축설계지원소프트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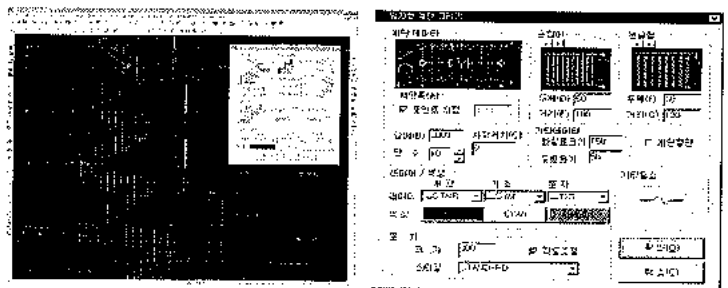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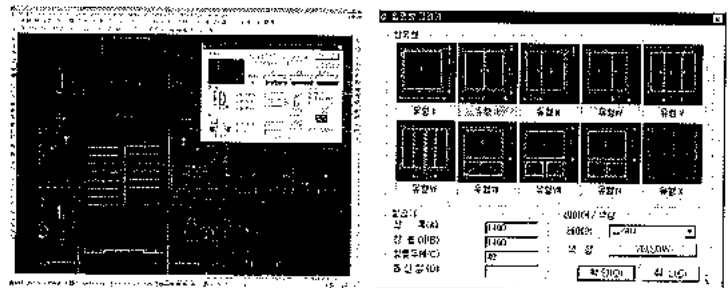
IntelliARC는 IntelliCAD를 국내 건축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CAD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설계
작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건축 전용 설계 지원 소프트웨어입니다.

주요기능

- IntelliARC Tools (건축설계 지원 도구)
- IntelliARC Utility (건축설계 응용 도구)
- Symbol Library (아파트 및 건축물 도면요소)
- User Library (사용자-예약 심볼 블록 DB)
- Drawing Manager (도면의 View & 도면관리)
- IntelliARC CAD 한글 (자체 CAD 한글 지원)
- IntelliARC Interface (IntelliCAD, AutoCAD 호환 및 설계자원의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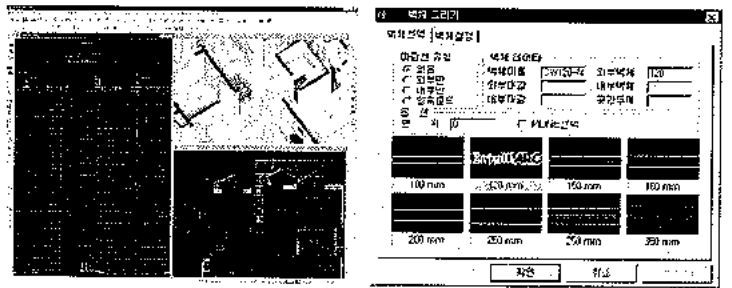
적용분야

- 건축물 설계
아파트, 상업건축물, 주택,
주상복합건물, 철골, 공장, 인테리어



IntelliCAD

- AutoCAD R11~R14와 완벽에 가까운 호환
- AutoCAD와 동일한 형식의 메뉴 채택
- 대부분의 Autolisp 프로그램은 변형없이 작동가능
- 동시에 수 많은 DWG 파일 Open하여 작업가능
- 진한글내장



건축사를 위한 특별판 프로모션

IntelliARC98+IntelliCAD98 ➡ ₩1,645,000

₩350,000 ➡ IntelliARC98+IntelliCAD98+진한글
(IntelliARC 2000 / IntelliCAD 2000 무상 업그레이드)

- 프로모션은 8월31일까지이며 이후는 정상가격 환원합니다.
- 설치비, 전문교육비는 실비이며 사용자 선택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가 별도입니다.

다이나웨어 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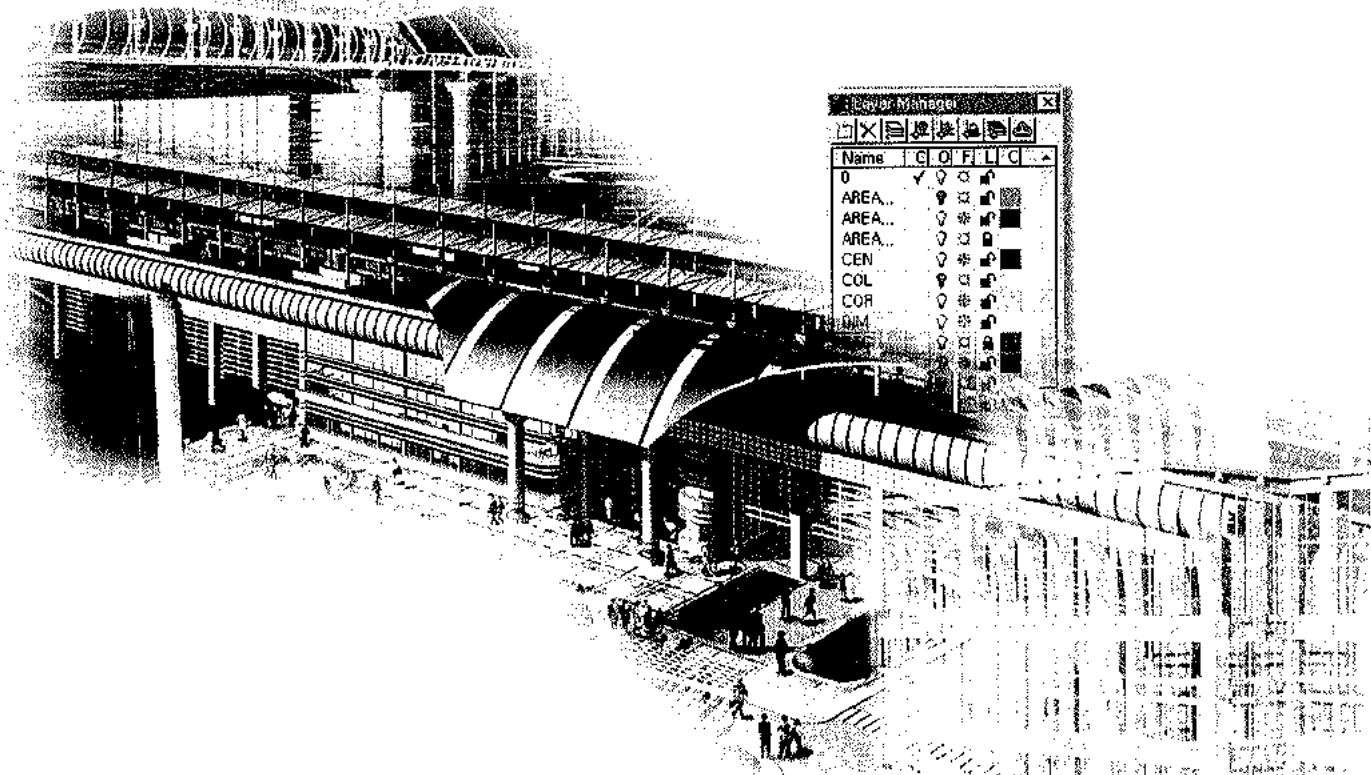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2동 53-22 3F
TEL:02-2214-0586 FAX:02-2244-0386
E-mail:iarc (천리안,하이텔,유니텔)
http://user.chollian.net/~iarc

IntelliCAD는 Visio사의 등록상표입니다. AutoCAD는 Autodesk사의 등록상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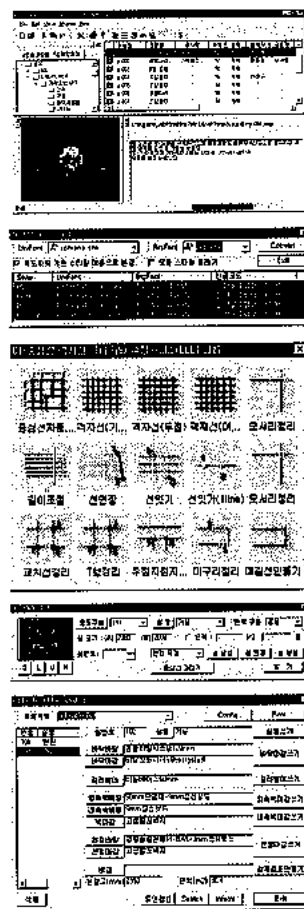
서울/경인총판: (주)인텔리시스템 (02)323-0286 인포월드(02)406-0440 누리컴시스템(02)557-3664 솔바테크놀로지(02)585-7595 이지웨어 (02)3663-8851 인터캐드(02)3463-2450 태성엔지니어링(02)679-1804
플릭정보(02)851-1198 해룡엔지니어링(02)3141-2492 해인정보통신(02)558-0220 인천:두리시스템(032)821-4380 경기:명인컴퓨터(02)877-7361 자이로소프트(032)654-6070 의정부:진시스템(02)354-0786 분당:4
차원시스템(0342)707-0486 고양:월드CNS(0344)963-8938 안산:캐드포커스(0345)494-3855 충남북/대전:CMS(0431)272-1024 천안:클릭컴퓨터(0417)568-5797 전북:미르(0652)277-2171 전남:하이테크정보
(0662)81-7000 광주:동서정보시스템(062)383-1182 경북/대구:명성컴퓨터(053)422-7780 포항:해광캐드(0562)77-4404 구미:비루시스템(0546)473-5566 경남/부산총판:대창캐드 픽스(051)636-3740 창시스템
(051)293-5180 울산:영창캐드(052)281-0243 현대오토시스템(052)275-8911 전주:한빛정보시스템(0591)759-7222 창원:대성EDM(0551)294-3234 마산:대광전자(0551)295-1617

CADPOWER 21

RELEASE 9.0



21세기의 건축설계 "CADPOWER"가 책임집니다.



건축인의 관심과
사용자의 요구를
제일 소중하게 여깁니다.
10년동안 개발한
CADPOWER는
건축인 모두의 것입니다.

CADPOWER 21은 오랜 경력의 건축설계전문가 집단과 최고의 프로그래머 그룹이 만나 다시 태어났습니다. 실무자 중심의 개발환경과 사용자 정의에 의한 CAD 환경구축으로 설계업무에 더 큰 만족을 드립니다.

CADPOWER 21의 특징

- 건축 실무자 중심 개발
- 작업의 효율성
- 명령어의 통합
- 단순화
- 타프로그래밍 사용자들을 위한 배려
- 새로운 모습(새기능)

CADPOWER 21의 세특은 이

- 계획설계 지원(Object ARX Base)
- 명령어의 단순화와 통합화
벽, 문, 창, Dimension, Layer
- 사용자 Menu 구성
명령어 그룹별 관리, 사용자 정의 가능
- 동적인 수정과 일괄처리에 의한 마감재 작성
마감재 DB구축, 사용자 정의에 의한 마감표 정의, 여러 개의 도면을 선택, 일괄적인 수정 가능
- MC설계 지원
"공공건축물 MC설계 지침"에 따른 MC설계 지원
- 도면관리 지원
설계작업 정보를 도면과 통합적으로 관리, DB구축
- 타프로그래밍 사용자들을 위한 기능
Text Convert 기능(사용자 정의 폰트로 변경)
Layer Control
Onekey(타프로그래밍과 호환)
- 기존 CADPOWER 기능 강화(DRS, CC, MMD, WAL...)
- TEXT편집 가능, Arc(벽, 면적)지원
- Autocad R14 이상에서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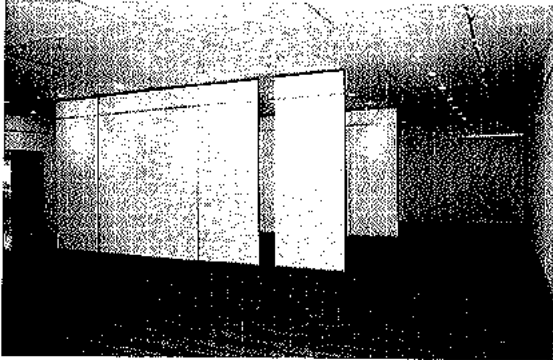
 (주) 건 캐 드
GAUN CAD CO., LTD.

137-071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427-6 갑목빌딩 4F
Tel: 584-6480 Fax: 587-1803
http://www.ait.co.kr e-mail: info@gauncad.ait.co.kr

최현준
김라 명환과 함께
(주) 건캐드에
보내주세요. CADPOWER 21
에 대한 배포CD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건축과 문화와의 만남을 위한 전시공간 「Architect's Gallery」가 개

관을 맞았습니다.



건축사협회 회관 1층에 문을 연 아키텍트 갤러리는 60여평(198㎡)

규모의 현대적 감각의 전시공간으로 밝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최신의 조명시설과 이동식 중간벽체를 설치하여 전시규모

및 특성에 따라 원하는 공간을 개성있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전시장 대관안내

또한 저렴한 대관료(1일 5만원, 부가세

별도)로 건축인은 물론 관련단체나 학생,

일반인들이 부담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축분야 외에

도 다양한 예술문화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전시공간입니다.

건축인 작품활동을 알리는 공간으로, 일반인에게 건축과 문화 체험

의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길 바랍니다.

대관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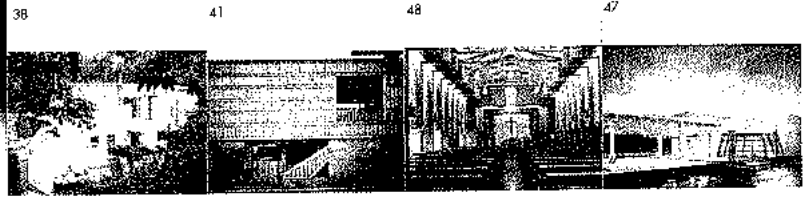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대한건축사협회 총무팀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2번출구 150m 지점)

전화 02-581-5711~4 팩스 02-586-8823



광주과학기술원(김기웅 作)



발행인: 이의구
 편집·기획: 편찬위원회
 위원장: 장양순
 위원: 김정희, 조인숙, 조현균, 최동규
 편집·취재: 정호상, 조한국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1965년10월23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주소: http://www.kira.or.kr
 E-mail: hsjoung@kira.or.kr
 hkjo@kira.or.kr
 U. D. C: 69/72(054-2): 0612(519)
 인쇄인: 이봉수/정문사 (02)2266-4556
 광고: (주)이두컴 (02)518-6856

Publisher: Lee Eui-Koo
 Editorial Member: Chang Yang-Soon, Kim Joung-Hwoe, Cho In-Souk
 Cho Hyun-Goon, Choi Dong-Kyu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U. D. C: 69/72(054-2): 0612(519)
 Printer: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칼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우리의 건축교육	김병현	18
작품리뷰 / 광주과학기술원	대담: 미완의 도시적 캠퍼스 비평: 청결에 대한 집착	김기웅 김봉렬 조희철	20 27 33
회원작품	구피빌주택 임거당 솔마루주택 동교동 상진빌딩 서울대학교병원 영안실 복현성당 아주파이프공업(주) 사옥 숙명여대 여학연구소 서교동 466	방철린 김효만 한진수 이충언 · 김광섭 (주)삼우설계 서보광 · 이종환 안상구 · 정승덕 유승룡 한경호 · 김형년	38 40 42 44 46 48 50 52 54
작품노트	메디슨 기숙사	김상경	56
연구	복고주의의 두얼굴(1)	박영호	58
기고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건축적 고찰	여영호	66
테마기획 / 지역건축탐방 ⑬ - 서울(상)	북촌의 옛길과 도시한옥 서울의 강남: 새로운 도시구조와 건축 서울의 근대건축(개화기~1945) 탐방 역사적 도시속의 새로운 건축문화	편집디렉터/손세관 송인호 류중석 김정신 최왕돈	71 72 79 85 95
해외건축	프랑스 건축이론의 전통과 20세기의 건축(7)	김미상	101
건축마당	건축만평 협회소식 건축계소식 해외잡지동향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1999년 6월분)		110 111 113 119 125

Column		
Rethinking Our Architectural Education: A practioner's view	Kim Byung-Hyun	18
Review / Kwangju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Kim Kee-Woong	20
Interview The Incompleted Urban Campus Project	Kim Bong-Ryoul	27
Critique Obsession for Purity	Zo Hitchul	33
Works		
Kupabal Residence	Bang Churl-Lin	38
Lim Geo Dang	Kim Hyo-Man	40
Solmaru Residence	Han Jin-Soo	42
Sangjin Building	Lee Chung-Eon & Kim Kwang-Sub	44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Funeral Chapel	Samoo Architects & Engineers	46
Bok-hyun Catholic Church	Seo Bo-Kwang & Lee Jung-Hwan	48
Office of Aju Pipe Industry Co.	An Sang-Gu & Jung Seoung-Dok	50
Linguistics Research Center of Sukmyung University	Yu Seung-Ryong	52
Seokyo-dong 466	Han Kyung-Ho & Kim Hang-Nyeon	54
Design Note		
Medison Guest House	Kim Sang-Kyung	56
Study		
Restoration with Two Faces(1)	Park Young-Ho	58
Feature		
Architectural Consideration for Super Tall Building	Yeo Young-Ho	66
Theme Study /		
Visiting Regional Architecture [3]: Seoul	Son Se-Kwan	71
The Old Streets of Pukchon(The North Village) and Urban Hanok(Traditional Korean Housing)	Song In-Ho	72
Kangnam of Seoul: New City Structure and Architecture	Ryu Joong-Seok	79
Architecture of Seoul in the Modern Era:		
From the Early Modernization Period to 1945	Kim Jung-Shin	85
New Architecture Culture in the Historical City	Choi Wang-Don	95
Overseas Architecture		
The Tradition of Theory in French Architecture and the Architecture of 20th Century(7)	Kim Mi-Sang	101
Architects' Plaza		
Cartoon		110
KIRA News		111
Archi-net		113
Overseas Journal		119
Statistics		125

한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임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517-3371 · 강동구건축사회/484-6840 · 강북구건축사회/903-3425 · 강서구건축사회/604-7168 · 관악구건축사회/884-0048 · 용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684-5828 · 노원구건축사회/333-6076 · 동대문구건축사회/323-6213 · 동작구건축사회/3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6251 ·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북구건축사회/8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3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종로구건축사회/737-3090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7358 · 도봉구건축사회/290-5723 · 성동구건축사회/232-3355 · 금천구건축사회/856-1588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6980~5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6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74-8836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42)933-8902 · 평택건축사회/02)634-56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46)563-2337 · 부천시 지역건축사회/032)63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42)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2)634-4121 · 안산건축사회/0345)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43)449-2898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51)657-6149 · 이천시지역건축사회/0336)635-0545 · 생북지역건축사회/0333)657-6149 · 오산시건축사회/0330)375-88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35)336-0140
- 강원도건축사회/0361)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91)653-7371 · 삼척지역건축사회/0364)531-8709 · 속초지역건축사회/0392)633-3061 · 영월시지역건축사회/037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71)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61)26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1)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75)732-5752 · 서천지역건축사회/0443)649-3863 · 홍주지역건축사회/0441)847-3082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 공주지역건축사회/0416)9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62)934-3367 · 부여지역건축사회/0463)9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55)1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7)561-46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51)8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52)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954)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971)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53)652-3765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 무주지역건축사회/0631)272-3545 · 순천지역건축사회/09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2)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2)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지역건축사회/053)6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61)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6)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7)432-3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81)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82)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71)8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72)534-5560 · 영월지역건축사회/0583)334-8256 · 철곡지역건축사회/0545)91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62)244-8025
- 경상남도건축사회/0551)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8)635-6810 · 거창지역건축사회/0598)943-6093 · 김해지역건축사회/0523)334-68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1)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27)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30)833-0779 · 강산지역건축사회/0523)384-3030 · 진주시지역건축사회/0591)741-6403 · 산해지역건축사회/0553)542-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7)8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85)89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1)752-3248
- 제주지역건축사회/064)733-5301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우리의 건축교육

Rethinking Our Architectural Education: A practioner's view

김병현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장

by Kim Byung-Hyun

지난 6월의 UIA 북경대회에서 건축 직업에 대한 국제권장기준이 채택되고 이에 따른 건축교육 프로그램도 제시되면서 우리의 건축교육 개선은 그 시급함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다. 그 동안에 국내 학계와 건축계에서도 이에 대하여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이미 상당수의 학교도 이에 대처한 학제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학제 개편을 포함한 우리 건축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러가지 조치로 이제는 더 시간을 끌 수가 없다. 그러나 교육 년 수가 증가된 5년 또는 4+2 등의 학제와 외국 모델을 따른 프로그램의 채택만으로 그 동안 너무 오랫동안 쌓아 온 우리 건축교육의 무력증과 비만증이라는 만성질환이 치유될 수 있을까? 학제 개선은 당연히 실행되어야 할 가시적인 제도이다. 그렇다고 교육의 개선이 학제개편에만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인가?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는 우리 교육을 이렇게 밖에 만들 수 없었던 많은 여건,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이해와 태도의 전환이 따르지 않는 한 교육 년 수만 늘린다고 그 제품의 질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 건축교육이 당장 극복해야 할 과제는 건축적능이라는 특성상 교육과 실무라는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할 영역을 억지로 격리시켜 놓고 있는 우리의 관행과 전문교육과 직업 훈련을 혼돈하고 있는 건축계와 사회의 건축교육에 대한 불이해이다.

먼저 겸직금지제도에 따라 대학이라는 성역에 묻혀 있는 귀중한 인적자원을 생각해 보자. 수많은 인재들이 그것도 오랫동안의 최상의 교육과 수련기간을 거친 전문인들이 대학 교직을 선택하였을 때 이들은 건축가리키보다 건축학자, 설계 교육자로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안주하면서 현실과 격리된 데서 오는 급속한 정신적, 전문적 노화현상을 보여 왔다. 이런 현상은 이 인재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 못하는 아쉬움을 뒤로하고도 우리 건축교육에 근본적인 문제를 만들고 있다. 물론 교육에만 전념하는 이론가, 연구가도 있어야 하겠지만 100% 이들에만 의존해야 하는 우리의 교육에 문제가 있다. 젊은 학생들과 같이 성장하지 못하는 교수들로만 이루어진 학교에서 살아 있는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사업주나 행정부처에 자문위원이나 심사위원으로서의 사회참여는 이들이 추구해야 할 건축의 본질적 가치와는 무관한 교육이나 전문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행위이다.

학계와 업계의 분리는 유능한 건축가의 교육 참여를 어렵게 하는 또 다른 교육의 문제를 만들고 있다. 이들 건축가들이 학교로 가져올 수 있는 건축의 현실문제를 학생 특히 고학년 학생들이 다룰 기회가 없음은 우리 교육을 더욱 현실과 멀어지게 하고 있다. 학과 업의 분리는 현업 건축계에도 크게 악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는 학교의 현업 지원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잃고 있다. 우수한 현업 건축가가 반복되는 현실과의 싸움에서 거리를 두고 어느 기간 동안 대학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사고와 가치의 발견을 통한 건축가의 재생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았다. 최근에 와서 서울의 일부 학교에서 현업 건축가인 초빙교수를 중심으로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 기대를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 실무 건축가의 지속적인 교육 참여에서 대학은 우리의 건축에 대한 비평적 담론의 장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새로운 사고에의 전환을 유발시키는 원동력을 가진 집단이 될 수 있음은 그만큼 강력한 전문교육기관이 되게 할 것이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환경 속에서 사회에 대한 건축가의 직능 자체도 재평가 재정립 하여야 할 새로운 현실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다. 팽배해 있는 우리 사회의 상업주의와 소비주의, 심화되는 빈부격차의 환경에서 그것도 더욱 격심해 가는 국제적 경쟁 속에서 건축이라는 직능으로 한평생을 우리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학생에게 이를 어떻게 준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가? 건축의 프라이어리티도 많고 다루어야 할 분야도 많은 것처럼 학교도 각기 구체적 교육 목적과 방법, 프로그램으로 재 정비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117개의 대학에서 매년 만 명에 가까운 졸업생을 양산하고 있는 우리 건축교육이 개편되어 앞으로 몇 개의 전문교육기관에서 몇 사람의 졸업생을 배출할지는 좀 시간을 두고 관망해야겠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전문교육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야 하겠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많은 전문인들이 학교에서 배운 몇 가지 기술 또는 기량으로 한평생을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음을 오늘의 현실이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다. 앞으로의 전문성이란 어떤 고정된 대상에서 보다는 융통성과 적응력, 다시 말하면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을 재생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고 보면, 건축 교육도 어떤 특정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 능력보다 학생 개인의 단단한 지적 기초와 가치 체계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1985년 당시 하버드 디자인대학원 건축과장으로 있던 건축가 헨리 콕(Henry Cobb)이 월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 기념 강연 중 건축과 대학교육에 관하여 말하였다.

「본인은 대학내에서 차분하게 추진할 수 있는 복합적인 한가지의 연합체 활동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바로 학문과 사변적 연구와 건축 업무 사이의 상호 연관성에서 오는 강력한 상호 보조 기능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구체적 해답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기보다 좋은 질문을 던지는데 그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현업 건축에 영향을 주고 또 반대로 이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이것으로 현업 건축을 주도한다는데 목적을 두지는 않습니다. 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은 이를 바로 비평적 담론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건축의 앞날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유익한 활동은 우리 대학이 당연히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활동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모든 전문교육에 내재해 있는 본질적인 문제 -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고도의 기술은 훈련으로 습득할 수 있으나 반면에 이 기술력을 이끌고 갈 정신력을 손상하게 된다는 점 - 를 우리 자신이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김기웅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삼정디앤지

Designed by Kim Kee-Woong

건축개요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광산구 쌍암동 광 주첨단과학 산업단지 1블럭
대지면적	339,784.06㎡
건축면적	23,093.46㎡
연면적	74,893.87㎡
건폐율	6.80%
용적률	18.86%
규모	정보통신공학동 - 지하1층, 지상5층 기전공학동 - 지하1층, 지상5층 환경공학동, 생명과학동 - 지하1층, 지상5층 신소재공학동 - 지하1층, 지상2층 교육연구지원동 - 지하1층, 지상3층 행정동 - 지하1층, 지상5층 학생회관, 식당동 - 지하1층, 지상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라멘조, 조적조
외부마감	벽 - 0.5B 붉은벽돌 치장쌓기+두께35 벽돌 타일, 두께30 화강석물갈기 지붕 - 두께120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아스 팔트원굴, 동판거열접기, 두께60㎜ 연성스처로폴
설계담당	이종길, 홍성욱, 정재훈, 김윤상, 강성구, 윤 웅권, 권소라, 박동진, 박형진

Location Kwangju Advanced Science District Block no.1,
Oryung-dong, Buk-ku and Ssangam-dong, Kwangsan-ku,
Kwangju

Site Area 339,784.06㎡

Building Area 23,093.46㎡

Total Floor Area 74,893.87㎡

Building Coverage Ratio 6.80%

Gross Floor Ratio 18.86%

Stories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Center - 5 Stories,
1 Basement Floor

Electronic Engineering Center - 5 Stories, 1 Basement Floor

Center for Environmental Engineering & Biotechnology - 5
Stories, 1 Basement Floor

New Materials Research Center - 10 Stories, 1 Basement Fl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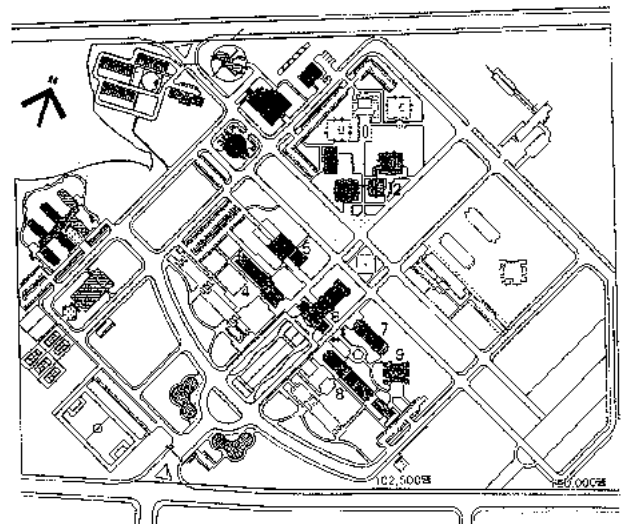
Education & Research Support Center - 2 Stories, 1 Basement
Floor

Administration Hall - 3 Stories, 1 Basement Fl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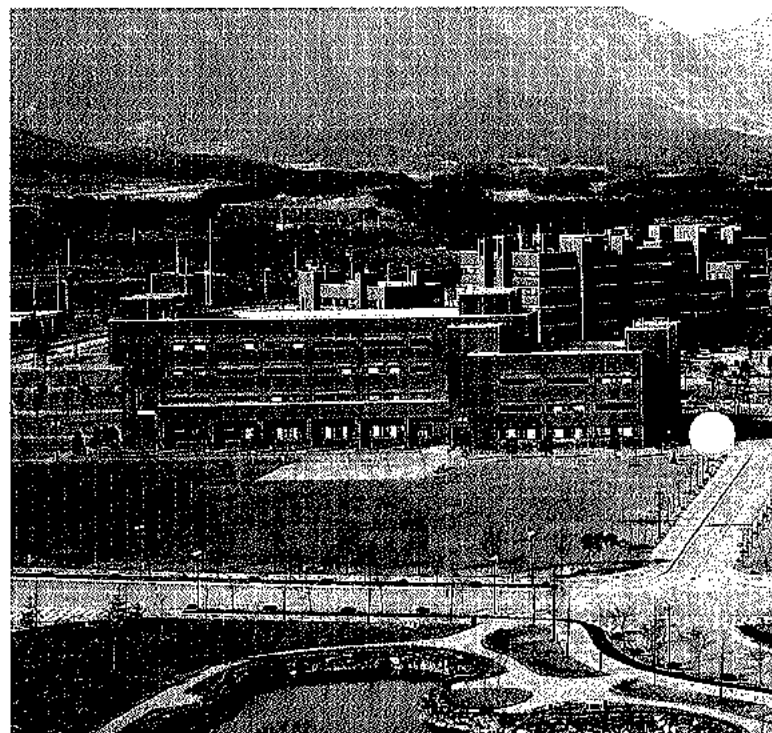
Student Hall, Cafeteria - 3 Stories, 1 Basement Fl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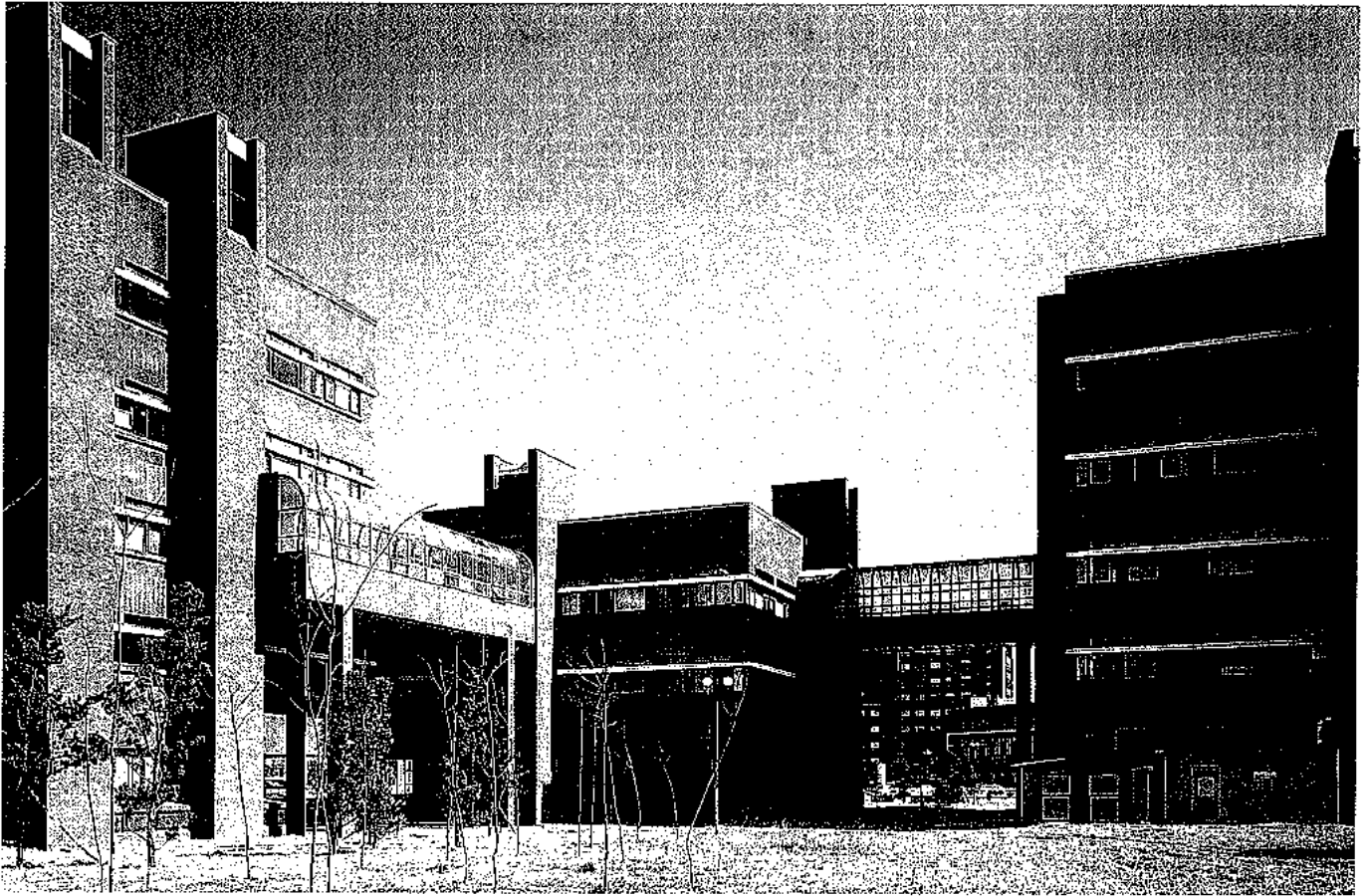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Steel Structure(Gymnasium)

Design Lee Jong-gil, Hong Sung-uk, Chung Jae-hoon, Kim
Yoon-sang, Kang Sung-gu, Yoon Yong-kwon, Kwon So-ra,
Park Dong-jin, Park Hyung-j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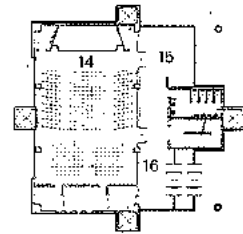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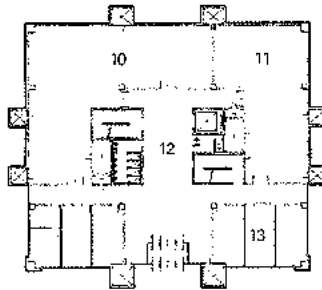


종합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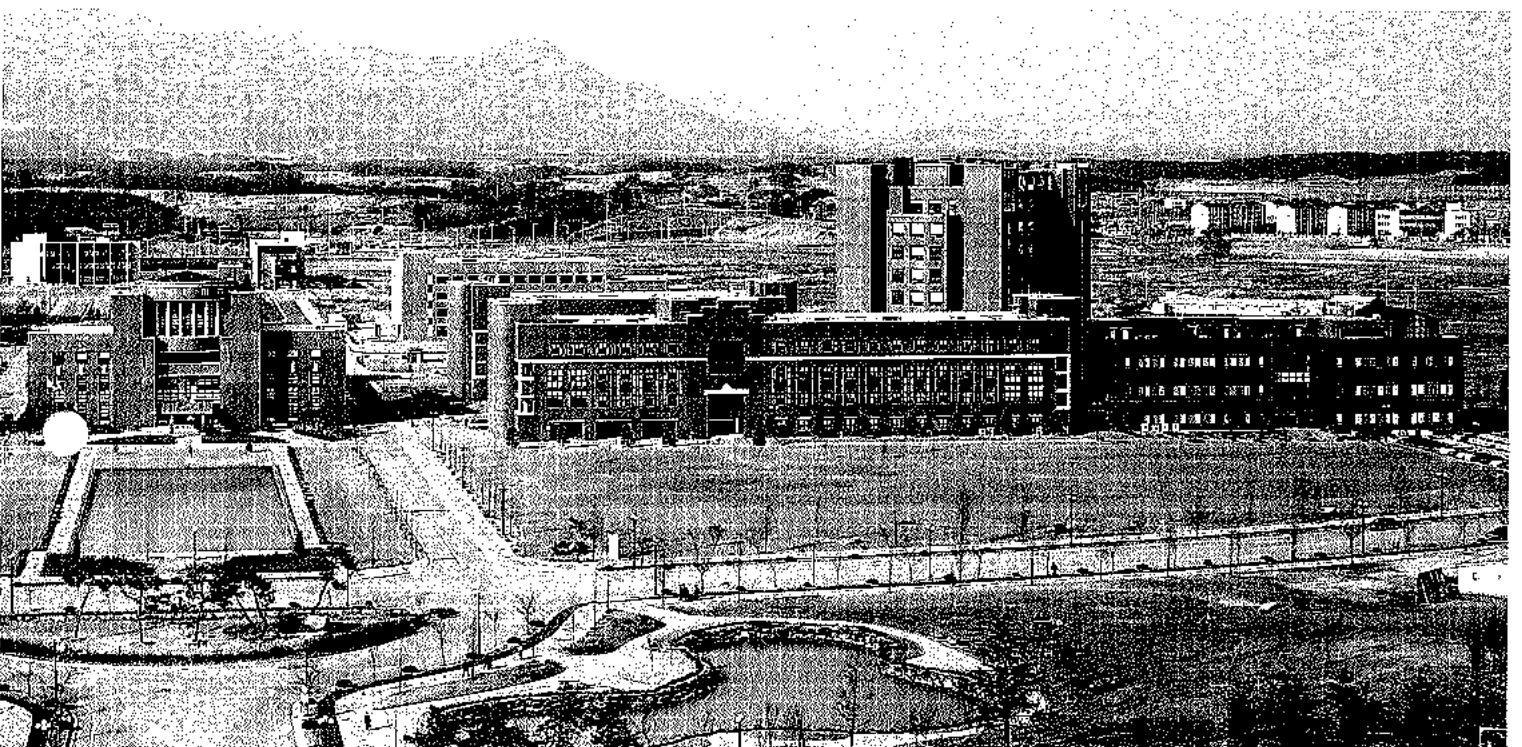




1. 정문
2. 정보통신공학동
3. 학생회관
4. 기정공학동
5. 교육연구지원동
6. 행정지원동
7. 환경공학동
8. 생명과학동
9. 산소제공학동
10. 반도체실습실
11. 전파실습실
12. 로비
13. 교수연구실
14. 공동강의실
15. 휴게실
16. 화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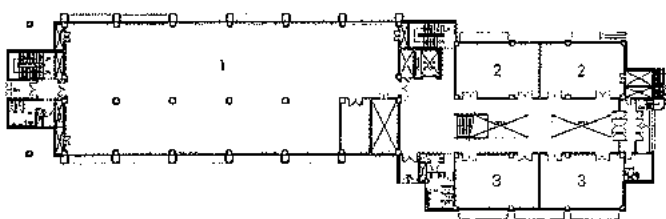


정보통신공학동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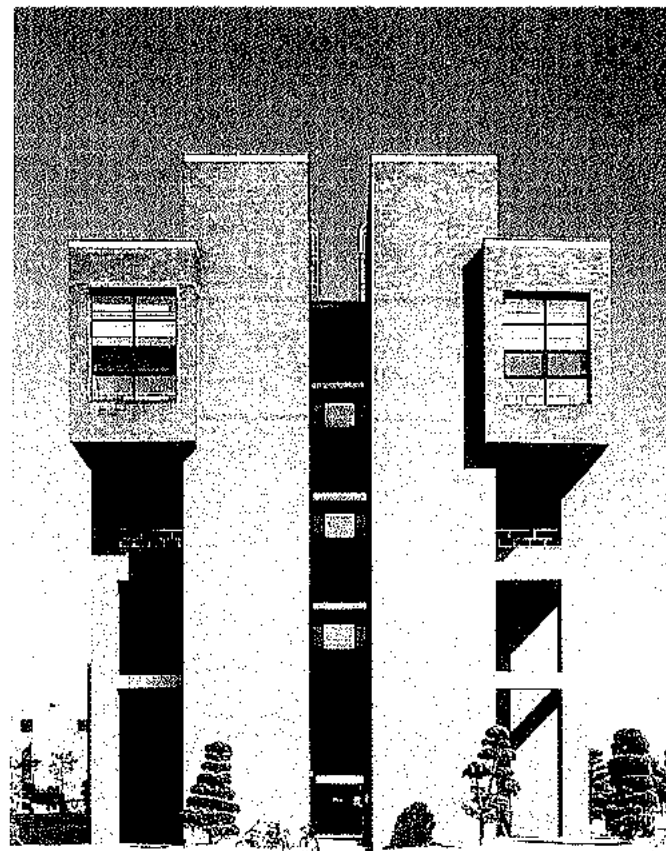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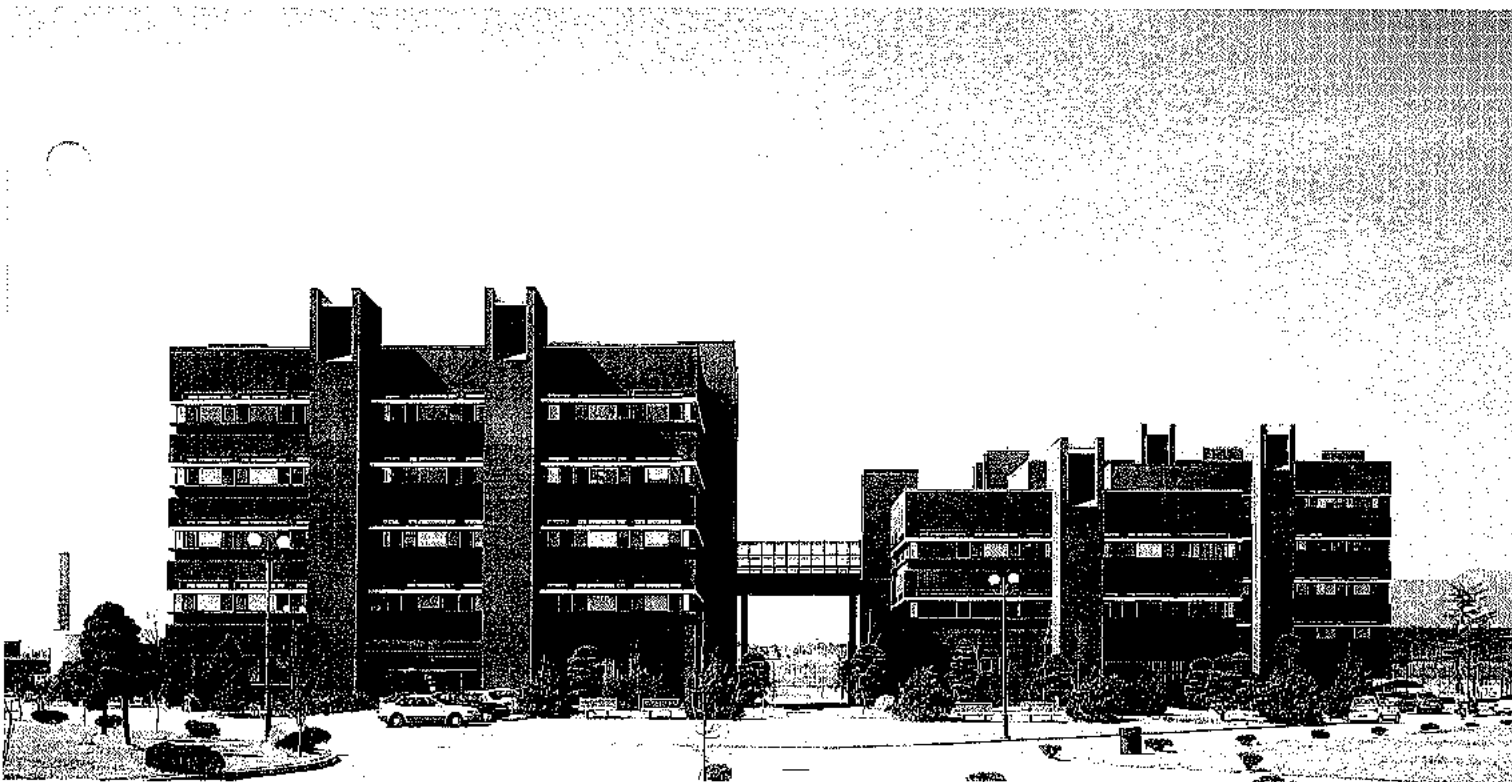
금호정보통신연구소와 정보통신공학동 사이로 본 연결통로



기전공학동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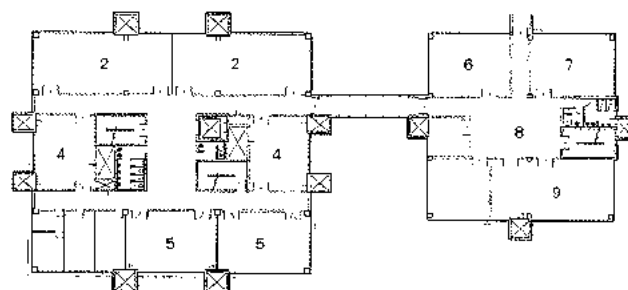


기전공학동 서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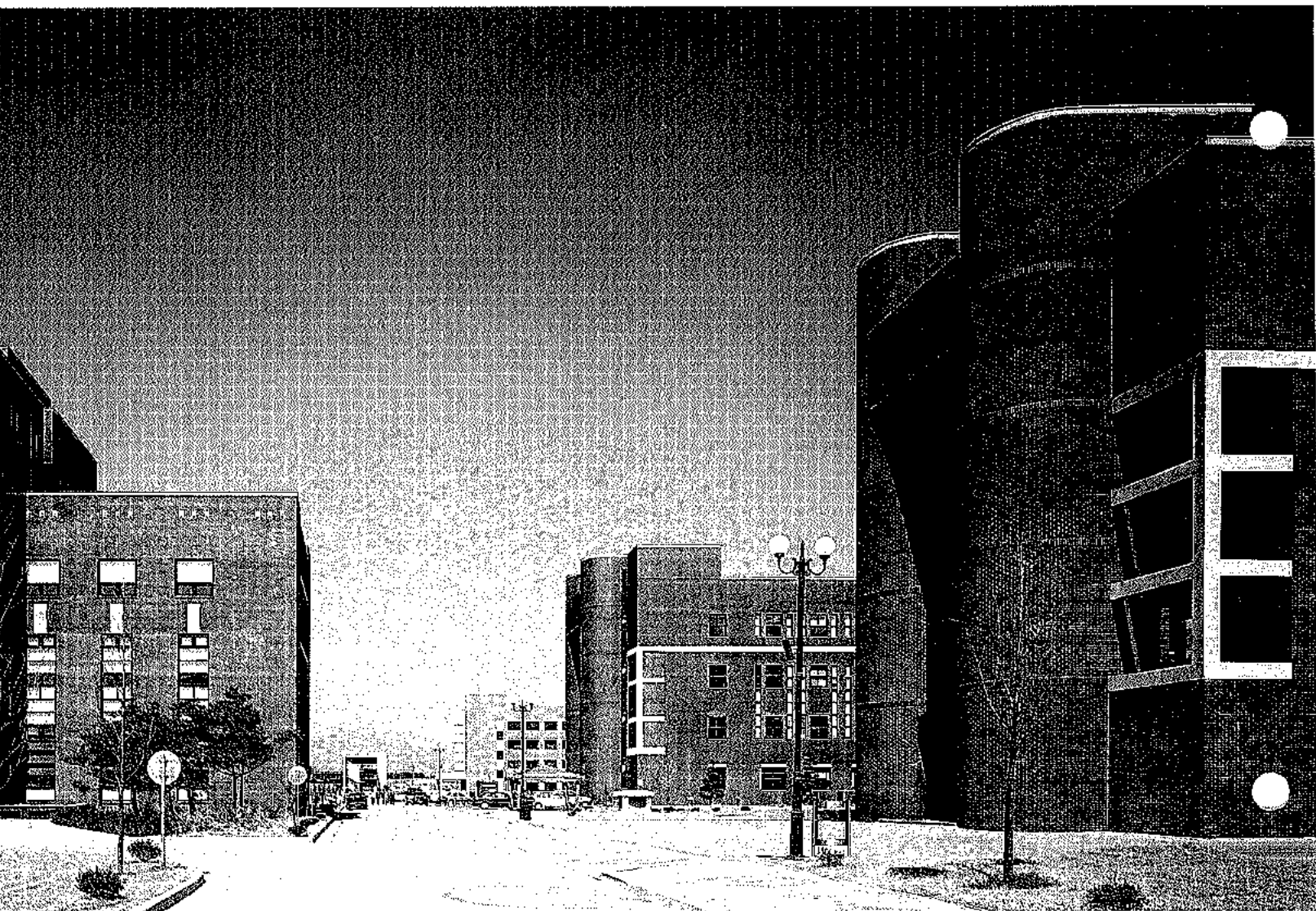


정보통신공학동 남측전경

1. 실험실
2. 강의실험실
3. 공동강의실
4. 프로젝트실험실
5. 교수실
6. 학과사무실
7. 휴게실
8. 출
9. 교수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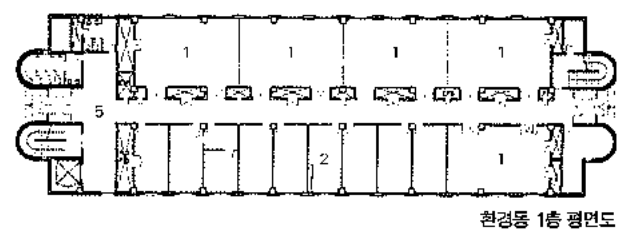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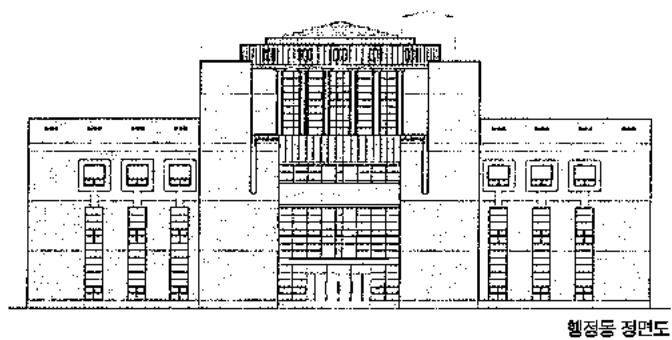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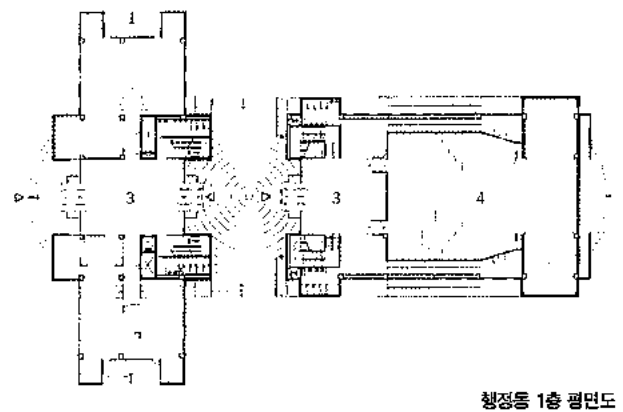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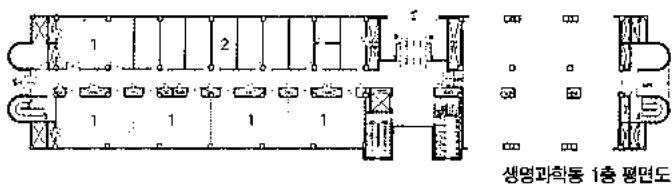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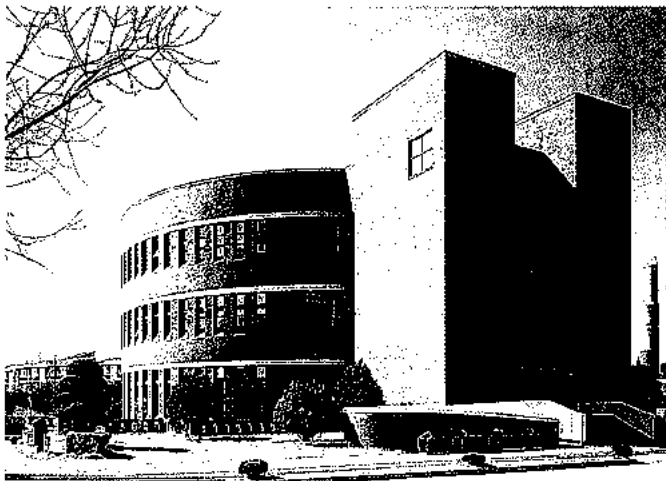
정보통신공학동 기준층 평면도



좌측부터 행정지원동, 환경공학동, 생명과학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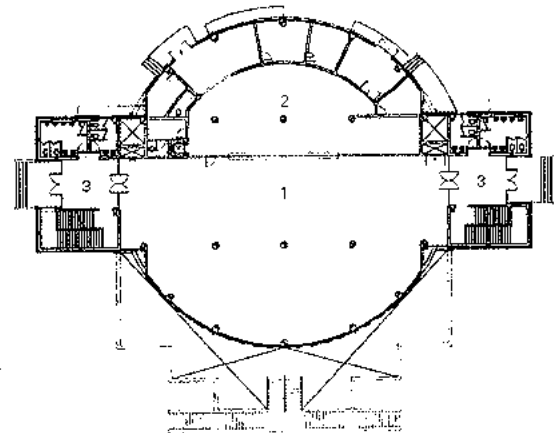
1. 교수실형식
2. 교수연구실
3. 로비
4. 강당
5. 홀





행정지원동과 신소재공학동

학생회관 미술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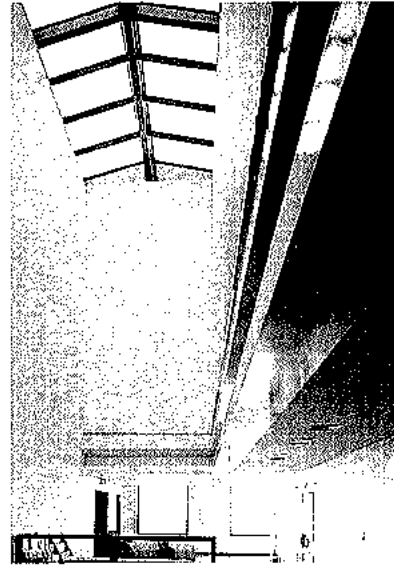
- 1. 학생소방
- 2. 휴반
- 3. 복

학생회관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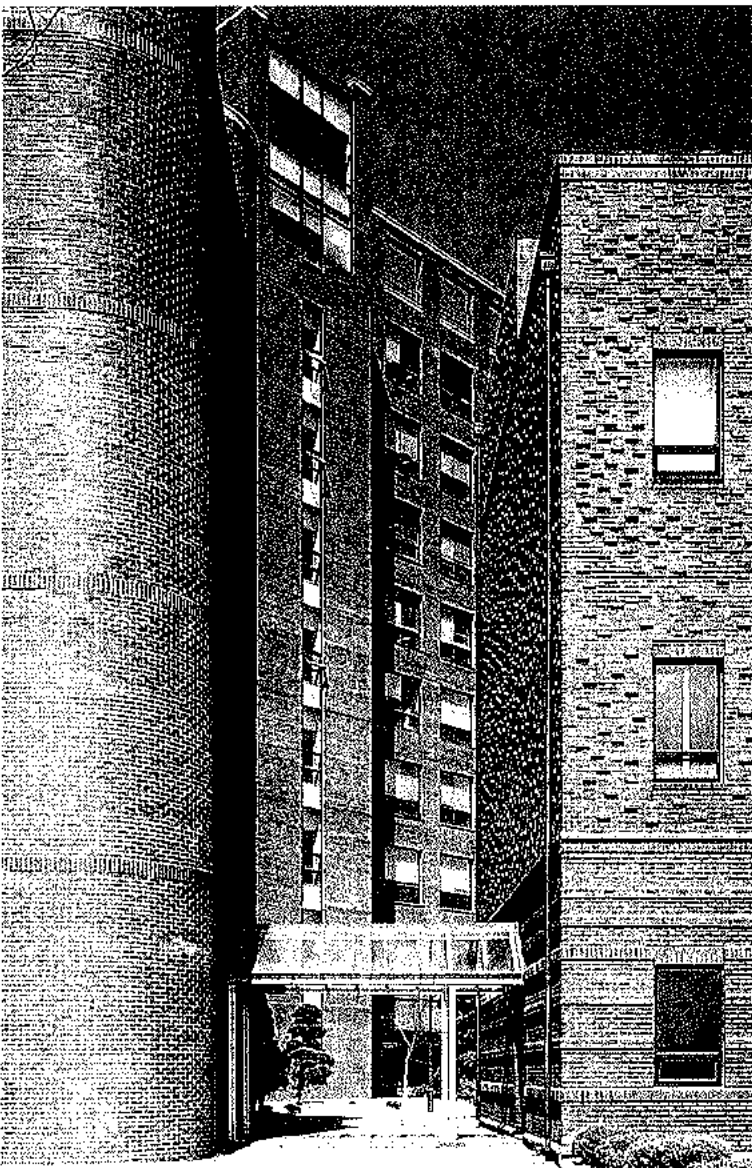




세미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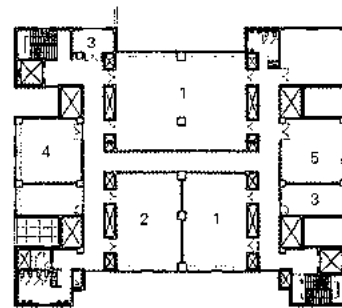


휴게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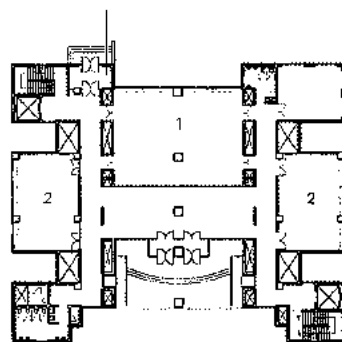


생명공학동과 금호생명 과학연구소 사이공간을 통해 신소재 공학동이 보인다

1. 실험실
2. 강의실
3. 휴게실
4. 학과집합실
5. 학과사무실



신소재공학동 2층 평면도



신소재공학동 1층 평면도

미완의 도시적 캠퍼스

The Incompleted Urban Campus Project

건축사 / 김기웅(종합건축사사무소 삼정디앤지)

대담자 / 김봉렬(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Kim Kee-Woong vs. Lee Bong-Ryoul

일시 / 99. 7. 23. (금)

장소 / 삼정디앤지



대담광경(왼쪽: 김기웅, 가운데: 조희철, 오른쪽: 김봉렬)

김봉렬 _____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3년전
쫘 준공된 광주과학기술원은 어떤 부분은 대지에 비해서 조밀
한 느낌을 주고, 또 어떤 부분은 벌어져있는 느낌을 줍니다. 이
것이 집중적인 배치계획을 의도하신 것인지, 또는 건물의 분산
을 의도하신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원래 현상안을 보
게됐습니다. 원래 현상안하고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원래 현
상안에는 적절한 규모, 적절한 건물간격이나 배치로 대지를 완
전히 장악을 한 것으로 보여졌는데, 지금 현재는 땅이 너무 넓
다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처럼 현상안과 실제가 차이가
나게 되었나요?

김기웅 _____ 첫째 이유는 프로그램이 달라
진 것입니다. 맨처음에는 대학원과정과 학부과정이 같이 되어
있었는데 대학원만을 먼저 짓기로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산
부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포항공대 수준으로 해달라는 요구였
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죠. 세 번째로는 재료를 벽돌로 해달라
는 요구였습니다. 원래는 알루미늄 패널로 제안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현상 당시는 대지전체가 25만평이었는데 실제로는 10만
평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달라진 것입니
다. 다시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기존의 가로는 유지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야 증축을 할 수 있으니까요.

김봉렬 _____ 근본적으로 안 자체가 바뀐 셈
이 되었는데요. 대학캠퍼스 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화사계
획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시설물들이 결
정됩니다. 교육연구동이 서쪽에 있고, 동쪽에는 완전히 주거지
역으로 계획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학원만 만들어지
는 과정에서 동쪽땅은 확보도 안됐고 학부가 만들어졌기 때문
에 결국은 대학원의 교육과 주거, 학부가 들어서면 학부의 교
육과 주거로 갈 수밖에 없는 복잡한 과정속에서 일어난 변화에
어떻게 건축적으로 대응하셨는지요.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김기웅 _____ 글썽요. 프로그램이 완전히 달
라졌으니까 기존에 이미했던 현상안은 나누어 쓰게 돼 있어요.
특별한 가로망이 있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었으면 잘 들어가지
않을텐데 격자식으로 도시같이 해놨기 때문에 이용을 차차 할
수가 있다고 생각했죠. 나머지는 완전히 다시 한 것입니다. 이
미지나 내용면에서...

김봉렬 _____ 현상안의 가로망은 도시적인
방법으로 작은 도시를 구성하듯이 가로망을 구축했는데 거기
에 건물들도 인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숫자도 줄고
프로그램이 바뀐 상태에서 기존 현상안의 가로망에 바뀐 건물
들이 들어가니까 좀 어색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김기웅 _____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부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미 확보된 대지에 일부분을
분리, 배치했습니다. 물론 각 건물의 위치도 원래 의도했던 것
과는 차이가 났습니다. 주어진 프로그램에서 4개의 공학부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김봉렬 _____ 재료도 변했다고 말씀하셨는
데 원래는 과학기술원의 분위기에 맞게 경쾌하고 밝은 이미지
를 주기 위한 알루미늄 패널이라든지 매스 전체도 상당히 유연
해서 첨단과학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매스
들이 상당히 평범한 형태로 바뀌고 재료도 붉은 벽돌로 바뀌고
내부의 전문적인 공간도 있었을텐데 그것이 소거가 되는 과정
에서 결국 나타나는 형태는 과학기술이라는 냄새보다는 묵직
한 신학교라는 느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가운데 어느 부분은 축소해야 되고 또는 포
기해야 되는 스케일, 공간, 형태, 재료, 디테일 등등 해서 어떤
포기나 변화의 과정에서 또는 새롭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김기웅 _____ 원래 실험동이 주가 되니까 실험동의 개념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학부공용시설과 교수실험실이 한 유니트로 되어있는 등 마다에 따라서 학사중심, 연구중심, 강의중심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단면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윗부분은 호화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기금적 일부분을 피로티로 처리하려면 사실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또하나 벽돌로 주재료를 선택한 것은 대학이라는 이미지의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김봉렬 _____ 대학이라는 것은 웬지 오래된 것 같고, 전통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 그것이 지역민들의 비람이더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군요.

김기웅 _____ 예, 그런 인상이 짙었습니다. 또 하나는 형태를 여러 가지로 했지만 어떻게 보면 단조롭게 보입니다. 기능은 단순한데 형태적으로 크고 작은 수평 수직이 있어서 오히려 복잡하게 보일 것이라해서 한 사람이 일정시간 내에 설계한 느낌보다는 여러 사람이 상당한 시간을 두고 설계한 것 같이 하라는 지침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면은 대충 정해진 가운데 입면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써야했습니다.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극복이라기 보다는 건축주의 요구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봉렬 _____ 한꺼번에 지어지는 건물을 여러 사람이 또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된 것 같은 물론 그것이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좋을 수도 있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건축 윤리적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붉은 벽돌이라는 재료가 강해서 형태의 변화라고는 했지만 잘 안보이거든요. 통일성은 강조되지만, 다양성은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특히 생명동하고 신소재공학동의 분위기가 예상외로 고층화되면서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는 결국 다양한 디테일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디테일을 아끼면서 다양성을 만들어 낸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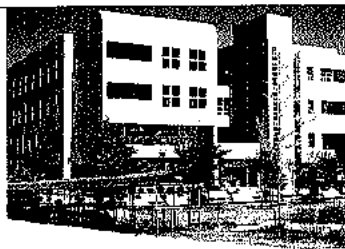
김기웅 _____ 구조는 라멘조이지만 재료가 벽돌이기 때문에 벽돌디테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로티가 잘 안된 이유가 있고, 일반적인 조적조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봉렬 _____ 기전공학동을 보면 측면에서 보이는 매스가 돌출된 것은 달마회관의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김기웅 _____ 벽돌의 경우는 재료 자체가 굉장히 투박하기 때문에 디테일을 구사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출콘크리트나 유리식으로 하다보니까 디테일에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김봉렬 _____ 오히려 한 건물단위로 볼 때는 원래 삼정의 디자인이 세련되고 비례도 좋은 면도 보이기 때문에 디테일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 캠퍼스의 특징이 대지가 완전한 평지라는 점인데, 원래는 산도 있었는데 정지작업을 한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대학 캠퍼스의 보기 드문 융통성이 많은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이 때 건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지면과 건물이 어떻게 접지를 하는가일 것입니다. 원래 현상안에는 대부분의 지면을 공공적인 면으로 활용하는 안이었는데 완공된 안에서는 건물이 완전히 지면에 밀착이 돼 있거든요. 보통 단이 있어서 건물이 지면보다 약간 올라가는데 여기에서는 거의 같은 면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확장성 또는 서로간의 관계들이 강조될 때는 타당한 또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이지만 과학기술원에서는 그런면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내외부는 완전히 별개의 공간인데 의도적으로 땅에다 밀착시켰을 때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갈 때 소위 말하는 위계가 느껴지지 않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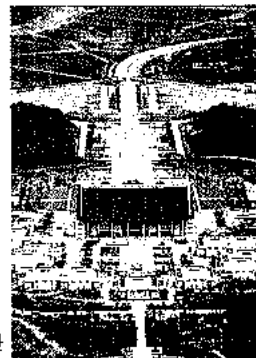
김기웅 _____ 그 부분은 누가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벽돌을 사용하라는 전제와 기능이 전부 같은 실험실 위주의 주어진 조건에 순응하는 대신 건물주변의 조경에 신



전북대 도서관



매헌기념관



독립기념관

경을 써 실험을 하다 밖을 내다볼 때 얻을 수 있는 기능에 충실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층에 로비가 있고, 휴게실이 있고, 식당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외부와 연결이 되는데 조건 자체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조경이 아직 조성되지 못했습니다. 숲에 붉은 건물이 들어가야 하는데 붉은 땅에 붉은 건물이 들어가서 의도했던 이미지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죠. 기능적으로 동선상으로는 왔다 갔다하는 것이 없더라도 시각상으로는 연결되게 되어 있는데 견해에 따라서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죠. 그것은 태생적인 한계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풍납동합숙소(원환은행)와 같이 기둥으로 해서 피로티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면적문제 등으로 어려웠습니다.

김봉렬 _____ 실질적인 문제에 가서 제약이 걸리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도 그 속에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만들었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

김기웅 _____ 동감입니다. 기왕에 이렇게 했으니까 정말로 기존의 재료라든가 예산상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었지 않나 지금도 생각합니다.

김봉렬 _____ 학생회관의 형태를 볼 때 당연히 내부는 메자닌 플로어도 있고 공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케이크를 자르듯이 돼있고, 또 1층의 비례나 높이도 식당으로는 적합치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웅 _____ 같은 생각입니다. 1, 2층을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좀 더 시원하게 입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김봉렬 _____ 현상안에 보면 매스들이 둥글둥글하게 처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 작품들에서도 곡선이 많이 등장하고 그 곡선이 자유로운 곡선이 아니라 상당히 정제되어 있는 기하학적인 곡선을 많이 쓰는데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습니까?

김기웅 _____ 지금은 생각이 다르지만 이 작품을 할 때는 항상 모티브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고, 대전에 있는 과학기술원과 광주에 있는 과학기술원은 기본적으로 달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남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그 지방에는 대나무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대나무같은 이미지를 주 모티브로 삼았어요. 물론 이론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것은 풀어가는 방법의 차이라고 봅니다. 컬러계획도 전체를 푸른색으로 하면 우스우니까 일부를 녹색으로 한다든가 또는 형태에서 대나무같은 라운드를 해둘려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실증을 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어디서 본 것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김봉렬 _____ 원래 현상안이 바뀌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원래 현상안의 간략한 개념을 말씀해 주시고, 초기개념에서 실현하지 못한 아쉬운 부분과 반대로 실현은 하였지만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웅 _____ 초기 마스터플랜은 대지의 폭이 좁고 길기 때문에 중심이 짧아서 매스를 45도로 찍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폭을 좀 깊게 하기 위해서죠. 대부분 인위적이고 대지 성격상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쉬운 점은 본래 안이 실행이 안된 것이고 그것이 실행됐다면 느낌이 달랐을 것입니다. 도로망은 필사적으로 고집을 했습니다.

김봉렬 _____ 이 정도 규모의 마스터플랜을 하면 대부분 많은 건축가들이 도시적인 차원이 아니고 단지계획을 하듯이 아기자기하게 공간배열을 하는데 소장님께서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드라이할 정도로 도시적인 스케일을 도입하였는데 오히려 신선하게 보입니다. 오래 전에 올림픽선수촌 할 때도 단지차원이 아니고 도시적인 스케일이나 가로망을 단지에 도입한 것이 신선하게 보였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받아들



MBC 인력개발센터



외환은행 풍납동 합숙소



달마회관

여지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받아들여진 경우죠.

김기웅_____제일 큰 이유가 건물 자체가 동글동글하니까 그것을 불규칙하게 배열했다면 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또 배치도만으로 파악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의 경우 벽돌집이 아주 답답할 것 같은데 실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도면만을 보는 것과 체험적으로 공간을 만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봉렬_____앞으로 증축을 통해 원래 모습에 가까워지리라 생각하고, 새로운 개념의 캠퍼스가 탄생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심 스파인같은 경우에 지나치게 기념비적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관공서를 만들듯이 연못을 배열하고 중심축을 설정하고 광장이 있고 도서관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도시적인 상황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익숙한 계획도시 경우겠지만 대학의 자유로운 분위기에는 상치되는 점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김기웅_____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고정된 것으로 보이지요, 국내외 캠퍼스의 사례를 보더라도 큰 개념은 거의 같았습니다. 동선은 명확하고 단순한 것이 좋으니까 결국은 건물의 변화로 표현의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름데면 캠퍼스플랜이 굉장히 자유롭다면 문제는 심각할 것으로 봅니다.

김봉렬_____그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성장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김기웅_____그렇죠. 일시적으로는 불가능하리라 봅니다. 또 하나는 조경에 변화를 시도했는데 크게는 캠퍼스플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김봉렬_____앞으로 학부가 생길텐데 단순 계산만으로는 지금보다도 두배 이상의 부지가 필요할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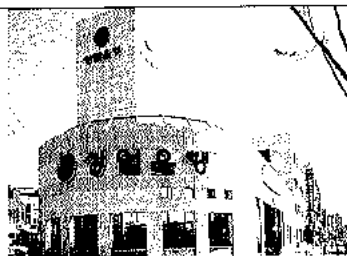
봅니다. 어떤개념으로 확장부분에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대학원하고 학부가 단절돼서도 안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연계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웅_____앞으로 들어갈 것이 학부와 주거부분인데 나머지 대지에 적절히 분리해서 연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들면 원래 계획은 학부와 대학원을 함께 두어 과정의 연계성을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제일 가까운 곳에 학부를 두고 그 다음에 주거부분을 두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지내에 산과 연못이 있었는데 정지작업을 통해서 없애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훨씬 캠퍼스가 정서적으로 여유가 있을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죠. 지금이라도 조정작업을 통해서 보완해야죠. 기존의 마스터플랜을 연장하면서 지역만 학부와 주거부분으로 나누는 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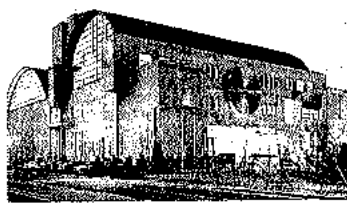
김봉렬_____우려되는 것은 두 개의 대학이 있는 것같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숙사가 양쪽으로 분리돼 있고 생활공간이 지원이 되는 경우에서 통합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될텐데...

김기웅_____그것은 때공원같은 요소가 필요하겠죠. 거기서 나와서 얼굴을 보는 것만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구나 실험의 연계나 공유가 필요할 것입니다. 혹 학부를 지을 때 원래 생각대로 학부와 대학원이 동시에 수용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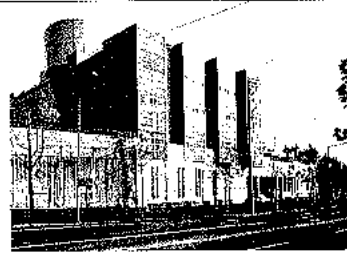
김봉렬_____그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건축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과학기술원과 같은 경우는 연구 중심의 학교거든요. 학부에서는 교육하고 대학원에서는 연구하는 개념이 아니라 학부에서부터 연구를 체계화시킬려면 교수 밑에 대학원생, 학부생으로 팀이 조직이 되어 연구팀이 되어야 하는데 분리된다면 굉장히 차질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실험장비 등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상업은행 용산지점



성동구민 체육센터



국립 영상아카데미

김기웅 _____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있는 시설과 앞으로 들어설 시설을 감안해서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학교측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김봉렬 _____ 삼정건축 20년 동안 건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기념비적인 작품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는 기념성에서 변화가 되면서 상당히 자유로운 건축들, 독립기념관이나 전주시청사보다는 달마회관부터 나오는 몇 개의 작품들이 규범성을 많이 깨버린 것이라고 느껴 집니다. 그러면서도 물론 근본에는 튼튼한 기능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특히 형태의 세련성에는 일관성을 유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전반기에 현상설계나 실현된 것들을 보면 분명히 하이테크한 분위기로 변화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기본으로 깔려있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건축에 대한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철저한 기술과 형태에 대한 세련도 추구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건물의 기능에 따라서 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는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날을 회고하시면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기웅 _____ 잘 봐주셔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어떻게 보면 그 수준까지 못갔을 수도 있죠. 학생뿐만 아니라 기성인들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건축디자인을 머리로 풀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아는데 인식을 하면서도 못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축과가 공과대학에 있는 것,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건축과에 가는 것 등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소설가가 가슴을 탁 치면서 우리는 가슴으로 소설을 씁니다라는 말에 동감합니다. 건축하는 사람이 대부분 머리로 건축을 합니다. 머리는 기억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김봉렬 _____ 머리로 하는 것에 대한 단점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또 이성의 문제, 교육의 문제로 공감은 됩니다. 그렇다면 가슴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표현하기가 힘들

니다. 기본기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소장님께서 건축에 입문하신 이후 나름대로 터득하신 건축을 가슴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김기웅 _____ 건축도 물론 그렇지만 모든 학문도 가슴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에서는 특히 프로그램 단계, 분석하는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프랭크 게리같은 사람도 누가봐도 형태는 지금까지 없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프로그램은 완벽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철저할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것을 계속 버리는 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계속 스케치를 해서 결국은 포기단계까지 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 건축가는 20~30평 주택을 주로 설계를 하는데 하나를 하기 위해서 3개월동안 스케치만 한다고 합니다. 소위 마음을 비우고 가슴으로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 사회에서 배우는 것도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고, 감각도 지금같은 주지적인 것이 아니고 주정적인 것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것이 없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무겁게 가다가 치츄 하이테크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비용, 공기, 산업구조, 사조 등의 변화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수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변화에 무작정 쫓아가기만 하면 비극이 따르기 때문에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느낌과 감동을 줄려면 건물에서 힘이 느껴져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방법으로 무거운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봉렬 _____ 힘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강렬한 전달이면 좋은데, 억압적이고 폭력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거든요.

김기웅 _____ 글썽요. 그것은 좀 달리 생각한 것이구요. 힘이려면 어떤 충격이라고 할까, 동양적으로 말하면 기(氣)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식이 기를 억눌러 왔지만 그것이 모든 것의 근간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전주시청사



국립영화 제작소



대치동 빌딩

없을 것입니다. 학교교육도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뒤떨어집니다.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에너지를 느끼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희철 _____ 이 학교는 대학원 중심이다 보니 교수와 학생의 밀착도 강하고 거의 실험실에서 기거하다시피 하는데 주거동같은 것이 가운데에 있고 연구실험동으로 빠져나가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기웅 _____ 그것은 일반론입니다. 일반론에서는 주거를 분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학생회관은 식당과 도서관을 겸하는데 우리는 학생회관하면 싸글사무실이 있는데 원래는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는 곳과 공부하는 곳은 다르다는 건축주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조희철 _____ 전체 배치 개념에서 부분부분들의 반복 패턴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웅 _____ 그것은 의식적으로 한 것인데, 계획했던 것은 대지전체 25만평 정도에 건평이 7만평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번엔 한 것은 2만평정도 됐습니다.

조희철 _____ 애초의 마스터플랜상에는 학생회관이 가운데에 배치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쪽에 비껴있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김기웅 _____ 학교측에서는 학생회관에 대한 개념이 시끄럽고 거추장스러운 장소로 인식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획안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조희철 _____ 외국의 경우를 보면 마스터플랜이 결정되면 개별동들은 각각의 건축가에게 발주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건물 하나하나를 달리 보

이게 해달라는 다양성을 요구했는데 물론 일관성을 가지고 다양성을 부각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디자인어들이 참여한 혼재된 양상의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패턴의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웅 _____ 마스터플랜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사람을 다르게 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김봉렬 _____ 대학 측에서도 황무지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의 코어가 되는 것은 일관성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최근의 관심사나 건축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되시는 면이나 그동안의 건축인생을 회고해 주시지요.

김기웅 _____ 아까 잠깐 창작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개인적인 욕심 즉 교수는 학문에 대한 욕심, 남에게 잘보여야 되겠다는 욕심, 특히 건축하는 사람들이 강한 것 같아요. 그동안 다른 사람이 하던 설계를 중간에 빼앗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윤리의식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 근본은 욕심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느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은 욕심을 버린 사람입니다. 건축인들이 지금 너무나 작은 욕심에서 못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건축의 미래를 위한 거시적 안목에서 적절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탐욕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틀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창작에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창작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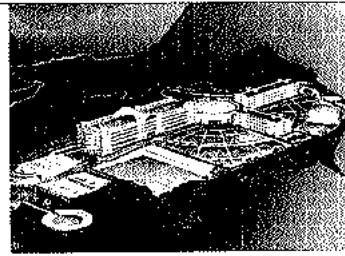
김봉렬 _____ 현재 윤리성의 문제가 건축계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대담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주관광센터



백제 역사 민속 박물관



현대자동차 연수원

청결에 대한 집착

Obsession for Purity

조희철 /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Zo Hitchul

“단 한번도 알맹이는 구한적이 없이, 모든 사물들을 겉 껍질만 보고, 어루만지고, 핏는다.”

“안으로의 여행” 중에서, 송기원(1999)

들어가면서

김기웅 소장이,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한 김봉렬 교수와의 대담 끝머리에 앞으로의 지향이었을까, 미래의 건축가상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말을 불쑥 꺼내면서 그에 대해 함참을 설명하더니, 가져가 한번 읽어보라면서 권한 책에 나오는 구절이다. 사십여년을 건축에 몸담아 오면서 수많은 작품을 남겼던 그가 최근 심취해 있는 것이 모든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니, 참으로 뜻밖이었다. 그 연유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심정적으로는 공감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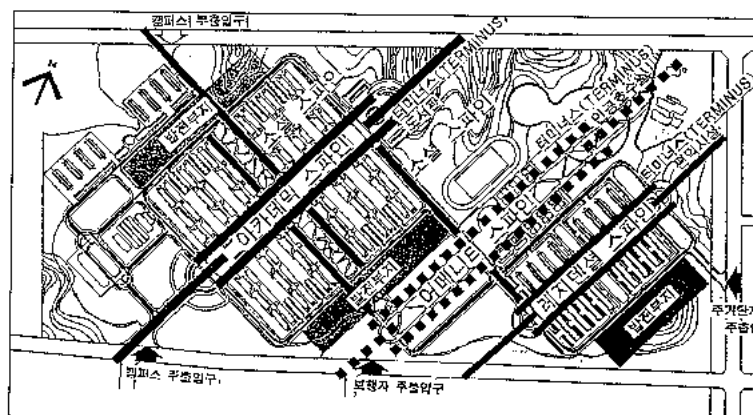
“Never once was the content sought. Only the surface of things are touched and felt.”

from Song Ki-won's *The Journey Inwards*(1999)

Introduction

In the closing of an interview with professor Kim Bong-ryul on Kwangju Advanced Institute of Technology & Science, architect Kim Kee-woong, asked of his future plans or his idea on the architect of the future, unexpectedly mentioned the attitude of ‘emptying one’s heart’, and following a lengthy explanation, offered him a book, from which the above passage was excerpted. It was surprising that architect Kim, after forty years in the architectural profession, should remark upon such a humble perspective. No further inquiries were made on the subject, but somehow we could sympathize with what the architect meant.

In a way, architecture is a web of textile interwoven with our various obsessions. The possessive will of the client is followed by the



원래의 마스터플랜

어찌보면 건축은 여러 집착으로 울이 짜인 직물과도 같다. 우선 건물을 의뢰하는 사람이 가지는 욕심이 있을테고, 그 의뢰를 받아 설계를 하는 사람의 집착도 있을 터이다. 정작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그 건축환경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들을 무리없이 담아내고, 그 활동의 의미를 외적으로 표방하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그 일을 누가 의뢰하고 누가 어떻게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알맹이를 제대로 찾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한다. 그런 점에서 마음을 비운다는 말은 신선하게 와 닿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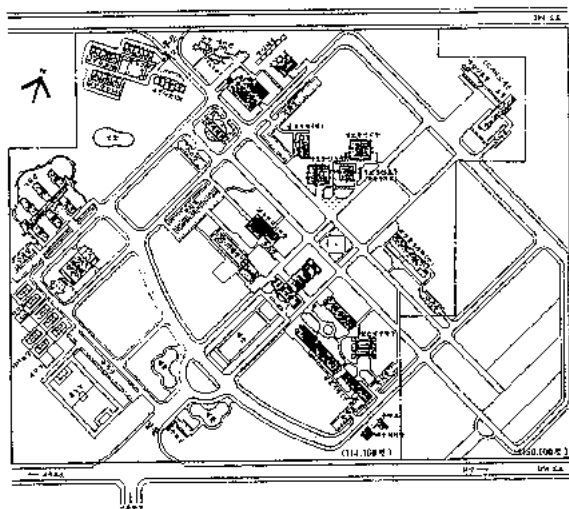
욕심같았으면 그런 관점에 입각해서 광주과학기술원을 보았으면 했지만, 곧 이곳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활동에 얼마나 잘 부응하고 있는가를 보았으면 했지만, 잠시 한번 둘러본 경험으로는 그 알맹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은 뻔한 일이고, 따라서 그 부응정도(내지는 집착정도)를 논한다는 자체도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작가의 작품

obsessive Geist of the designer, but what should really matter is the capacity of the product - the building - to house the diverse activities that will take place, and the transition of the action's meanings into external forms. In this respect, we can close in on, even be given refreshed point-of-view from, the ambiguous remark of the architect.

The Original Masterplan

Passing the tollgate into Kwangju, one comes to a town with the strange name of 'Biara,' from which a ten-minute-ride leads to the industrial district for advanced technology. The region was conceived and built by the former government to promote research activities on science and technology, a field not so characteristic to the region then. In this district is placed the new Kwangju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As the way most other over-ambitious governmental projects end up, the district also found itself soon cut off from government funding, which naturally resulted in the cancellation on the construction of



실현된 마스터플랜

성향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고서 쉽사리 덩발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만 여기서는 몇가지 구할 수 있었던 자료와 답사한 경험을 토대로 알은 글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음을 (그리고 광주에 산다는 죄로 발목이 잡혔음을) 먼저 고백한다.

원래의 마스터플랜

고속도로 광주 틀개이트를 조금 지나 들어오면 비아라는 모한 지명을 가진 동네가 있다. 한자로 飛鵬라고 쓴다. 지명의 유래는 모르겠으나 거위가 퍼덕거리고 날아 다녔던 동네라는 뜻인 모양이다. 그 비아 인터체인지에서 10분정도만 들어오면 첨단과학 산업단지가 있다. 이름 그대로 낙후된 전남 광주 지역에도 첨단과학을 부흥시킬 베드타운을 만들어

various institutes. Other institutes and companies, still willing to move into the district, were also discouraged by the unbelievably high land value, which is in fact a curious point since the region is filled with telephone poles - A research area for advanced technology with telephone poles? They are nowadays hardly visible even in regular residential districts. The region has then been gradually occupied with apartment buildings and amusement quarters. Vestiges of what once had been called 'advanced technology' are seldom, if ever, noticeable.

The Kwangju Institute of Technology was no exception - Plans to develop both undergraduate and graduate courses, in a campus of grand scale that meets the spatial requirements, were suggested in the original design competition. But during the actual execution of the project, fundings were reduced, construction fees decreased, and land purchases also fell short of the original plan. They had no other choice but to lose the undergraduate courses and rearrange the Institute as a graduate school.

The primarily proposed masterplan was on a site with a ratio of 1:2 between its length of shorter and longer sides, which included some

주겠다는 과거 정권의 야심찬 선심행정으로 조성된 단지이다. 바로 이곳에 이 지역 과학진흥의 첨병역할을 할 광주과학기술원이 들어서 있다.

선심행정이 모두 그렇듯 화려한 청사진을 내 걸고 기공식 테이프만 끊고 나면 그 뒤의 일은 대체로 웅두사미 격이 되고 마는 것이 통례인데, 불행하게 여기도 그 경우를 맞고 말았다. 유치하기로 약속했던 시설들은 예산부족으로 하나둘씩 취소되고, 그나마 입주하려는 업체나 기관들은 토지개발공사가 제시하는 턱없이 비싼 땅값에 아이없어 하며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사람들은 그 비싼 땅값에 대해 도무지 납득할 수 없어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주변 가로를 둘러보면 전신주 천지이다. 요사이 어느 주거단지를 보아도 전신주는 찾아볼 수 없다. 지하관로를 묻는 것보다 전신주를 세우는 것이 비용이 더 들어서었을까? 첨단지구에 전신주?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제는 첨단 과학시설보다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와 신혼 유흥지대가 들어서서 첨단하면 광주사람들에겐 여러 아파트 단지중 하나, 혹은 물 좋은 술집 있는 곳쯤으로 각인되고 있다. 첨단이라는 단어가 이처럼 제 대접을 못받고 있는 곳도 없을 것이다.

광주과학기술원도 예외는 아니다. 원래는 학부과정과 대학원과정을 모두 설치할 예정이었고 그 규모에 걸맞는 캠퍼스 부지를 정해 현상에 붙였었다. 하지만 당선안을 뽑아놓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대학원만 우선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되었다. 그 이유는 위에서 말한대로 책정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건축비 및 대지 매입비 확보에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치질이 왔기 때문이다. 당연히 애초의 현상안은 원안대로 실현될 수 없게 되었다.

원래 주어진 마스터플랜상의 대지는 1:2가 조

moundings. The new site, now about half the size of the original with a square shape, is a rather flat area, since the civil engineering division unfortunately exerted what skills they had into evening the ground. The use of the land will become more productive in a most functionalist point-of-view, especially in its layout of the path's grid structure, but before such rationalized reaction we are struck with the thoughtlessness of so roughly handled executions. This sort of tabula rasa will only provide an ideal site to the modern purists.

The striking feature of the original masterplan - the layout of its inner paths in relation to the adjacent roads and its overall partition into two zones - all had clear intentions behind them. The rotation of the inner grid by 45 degrees from that of the neighborhood regions was a natural result to achieve a maximum length of path, to which various future expansions could be added. It would also help to make the buildings closer to the preferred orientation towards the south.

The division of the area into two was to establish the distinction of the academic and the residential, between which an amenity area functions as a buffer zone. Social spines, distributed in small scales across

금 넘는 비례를 가지고 있었다. 지형의 굴곡도 어느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대지의 규모가 원래의 반정도로 줄어 들고 대지의 비례도 1:1 정도로 모양이 바뀌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원래 있었던 지형의 굴곡을 토지개발공사가 평평하게 밀어버리고 만 것이다. 물론 단지 전체의 도로망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라는 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단지 그 무도함에 기가 질릴 뿐이다. 이제 새로운 마스터플랜은 기댈만한 아무런 지형지물 없이 그야말로 맨땅에서 새로 시작해야 했다.

그나마 설계자에게 다행이라면 반쪽짜리 땅만 남았지만 마스터플랜의 골격(도로망)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나 할까? 그 외에는 거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대표적으로, 애초에 대나무에서 모티프를 따와 형상화했던 (아마도 알루미늄 패널로 경쾌한 외장을 갖추었을) 가로누린 원통형의 건물들은 침착한 사각형의 벽돌 조 건물로 둔갑하고 말았다.

원래 마스터플랜의 전체 배치를 보면 한눈에 들어오는 특징이 있다. 일단 주변도로에 대해 사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크게 보아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김기웅 소장에게 45도로 각도를 튼 이유를 물어 보았더니 아카데미 스파인에 여러 교육연구동들을 붙여 나가기 위한 중심의 길이를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라 하였다. 물론 남향배치가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었을 것이다.

크게 구분되는 두 구역은 각각 아카데미 스파인과 레지덴셜 스파인이라는 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축 사이에 어메니티 스파인을 두어 완충 역할을 하도록 하고, 소셜 스파인이라는 것을 군데군데 두어 사람들의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 각각은 중점(터미너스)을 가진다.

the whole Institute, promotes the community value of the region.

The layout within each district seems to have stemmed from an analogy to anthropomorphic shapes. In case of the education and research area, the library, a storage of information, sits where it should be the head of a human. A double spinal chord extends down from it, whose center is occupied by the supporting facilities - management office and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To their sides are added the hands and legs, or the research and lecture centers.

Another order is applied in this structure. It is one often employed in monumental institutes, that is controlled by the main and sub axes. The main axis is unmistakably the academic spine, whereas the sub axis is realized as the green strip that runs across the body of the Institute. The uneasy placing of the main entrance according to the anthropomorphic reading, which aims at a very private part of the human body, can be revised by this comprehension of the masterplan as a combination of two principles. This pattern is also applicable to the residential area.

각 구역내의 배치는 인체에서 유추한 듯하다.

교육연구 구역의 경우, 머리부분에는 모든 정보의 집적장소로서의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아래로 두겹의 책추가 내려뻗으면서 그 축선상의 중앙부에 행정동, 국제회의동이라는 연구지원시설이 배치되고, 그 양쪽으로 팔다리가 불듯 각각의 연구 강의동이 붙는다.

여기에는 또다른 질서도 부과되고 있다. 그것은 통상 기념적인 건물의 배치에서 사용되는 주축과 부축으로 이루어지는 질서이다. 주축은 한눈에 알 수 있듯 아카데미 스파인이고, 부축은 한가운대를 좌우로 가로지르는 녹지띠이다. 따라서 인체의 유추에만 의존할 경우 대지로의 주출입은 인체의 위치상 항문(?)에 해당하는 곳에 자리잡게 되지만 주축 부축이라는 질서체계를 따르면 주축선상에 주출입구가 배치됨으로써 그 정당성을 회복한 셈이다. 이러한 패턴은 거주지역에서도 거의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실현된 건물

현재까지 완성된 부분은 원래 마스터플랜상 교육연구활동지역의 거의 대부분을 포괄하는 지역이다. 거주 지역 등을 위한 대지를 확보할 수 없었던 관계로 대지 왼쪽 부분에 교원숙소와 기숙사, 체육관과 학생회관을 배치하고 있다.

애초에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두겹의 축선상에 연구동을 붙여나가는 방식이었지만 현재는 배치도에 나타나듯 가로형태만 유지되고 있을 뿐 건물들은 거의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배열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타워형의 건물을 배치하면서 또다시 직교하는 가로패턴을 거부하는 제스처를

The Realized Works

The now completed part of the Institute is where the education and research facilities were located in the original masterplan. As it was no longer possible to gain additional site for the residential area, the dormitory, gymnasium and student's hall were placed to the left of the academic region.

As mentioned above, the original scheme was to add research centers to the double axes of the site, but the actual layout of these buildings were mostly independent, with a slight indication of axis by the main road. What was interesting, however, was the placing of the tower building which defies the perpendicularly composed pattern of the road, which was a negation of the very negation that he placed in the first place. It was an indication which indeed 'defied' any simple explanation.

The Main Entrance: As the main axis from the approaching road into the Institute is obliquely placed, a triangular space is created on its entrance that provides a visual commodity. But the search for the destination -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이 부정을 통해 설정한 규칙을 다시 부정하는 마인드를 뭐라 설명해야 할까?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 했던가? 아니면 부정을 집착이라 보고 그 자체를 또 부정하는 네터-네티의 방식으로 보아야 할까?

• 주출입구: 정문을 들어설 때 주축선을 사각으로 틀어 놓은 이유로 전면에 삼각형으로 후퇴된 공지가 만들어져 있어서 급박하지 않고 여유로운 느낌을 준다. 다만 방문할 당시 약속장소였던 본관(행정동)이 어딘지 얼른 눈에 들어오지 않아 정문 수위에게 위치를 물어보는 수고는 면할 수 없었다. 그 이유를 나중에 곰곰 생각해 보니 정문 뒤로 50여미터 떨어져 주축선상에 심어져 있었던 몇그루 소나무 때문이었다. 사실 배치도 상에서건, 혹은 조감사진에서건, 로툰다를 머리에 이고서 둥근 열주로 자신을 주장하고 있는 본관을 알아보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차를 타고 정문에 들어섰을 때 그 눈높이와 시야에서 보이는 것은 비슷비슷하게 즐비한 벽돌 건물과 (알고보니 시야를 가로막고 있었던) 소나무 몇그루였다. 감히 소나무 몇그루 따위가 배치의 핵심을 이루는 본관 건물을 가로막다니! 하지만 소나무에게 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주된 이정표가 되는 건물에 대한 시야를 조금만 확보해 주었다면 당혹감은 많이 해소되지 않았을까 한다.

• 연못: 배치도상에 연못은 주출입구 좌우에 2개, 본관 전면 1개, 교원숙소쪽에 1개가 보인다. 주출입구 좌우에 있는 연못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쳤고, 교원숙소쪽은 가보지 못했고, 본관 전면쪽 연못만 직접 볼 기회가 있었다. 이 연못은 구도와 카메라 높이를 잘 조절하면 전면 건물들이 물위에 반사되어 장관을 보이는 사진을 만들 수 있다. 다만 그런 장관을 보려면 지나 다니는 사람들도 눈높이를 조절해서 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땅바닥에 엎드려 있을 일이 좀처럼 없다는 점이 문제다.

본관 전면에 있는 연못은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주출입구 좌우에 있는 연못은,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오히려 학생회관으로 이어지는 중앙 녹지대 어딘가 적당한 장소에 두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사실 연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매캐한 실험실에서 시달리다 잘 안 풀리거나 잠시 짬이 나는 경우 바람을 쏘아터 바깥으로 탈출한다. 이때 어느정도 무성한 숲과 잔잔한 연못은 그 사람들의 심성을 순화하는데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학생회관: 학생회관은 아직 대학원만 있기 때문에 써클룸보다는 식당, 휴게실 등의 역할이 더 크다. 방문했을 당시 한바퀴 둘러보다 보니 점심시간이 되어 학생회관 뒤편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쪽으로 점심을 먹으러 걸어간 적이 있다. 본관쪽 근방에서 대략 5분정도 못미치는 거리였지만 햇살을 가릴만한 아무 장치도 되어 있지 않아서 곤욕을 치렀다. 물론 하루종일 연구실에만 있는 사람들에게 하루 한번만이라도 기후의 여러 상태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점도 있겠지만, 중앙의 녹지대를 최대한 활용하여 식재라든가 지붕덮힌 통로 등을 두어 따가운 햇살과 눈비를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면 덜 지루하고 흥미로운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기숙사: 기숙사 각동의 배치는 초기 현상안의 배치패턴을 반영하고 있다. 곧 척추를 이루는 중앙 홀/복도에서 각 동이 붙어나가는 방식이다. 1층의 기다란 홀은 복도와 휴게홀의 양면을 겸하고 있으며, 휴게홀 상부는 2층복도 옆을 뚫고 올라가 시원한 느낌을 준다. 다만 휴게홀에서 나오는 소음에 대한 대책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숙사동 전면

the main hall - was not so easy, and the aid of the security guard was inevitable. After some speculation, I realized that the search was difficult because of a group of pine trees that were planted along the main axis, some 50 yards behind the main gate. Looking at the layout drawings or photographs taken from a bird's-eye-view, one can hardly miss the main hall, emphasized from its surroundings by the rotunda and the round colonnades, but once you approach it on the ground, the vista is obscured by the pine trees and some brick buildings that cannot be differentiated from the other. Landscape planning had to be considered in the masterplan of the Institute, from the perspective of an actual visitor.

The Ponds: If my memory serves me right, there are several ponds in the Institute - two to the sides of the main entrance, one in front of the main hall, and another at near the dormitory. The ones at the main entrance were passed without recognition, the one at the dorm I didn't have a chance to come across, but the pond in the courtyard of the main hall, reflecting the overall image of the building when seen from a proper point, was worth the visit.

The symbolical meaning of this pond justifies its presence,

but the ones at the main gate were better to be placed along the green strip, connected to the student's hall. Yet, the idea to have these replications of nature will surely prove to be greatly beneficial to the researchers of the Institute, most of whose working condition is confined to closed laboratories.

The Student's Hall: The hall, as the Institute is yet only for graduate courses, is mainly used as cafeteria and rest areas. At the time of my visit, it got around lunch time and I went to the guesthouse at the rear of the student's hall. It was about a five-minute walk but I clearly missed some sun-blocking shades. It is encouraging that a natural environment is provided for the researchers, but a thoughtful addition of landscape elements, those from the green strip, would have presented a much more pleasant experience of promenade.

The Dormitories: The layout of the dormitories follow the original pattern of the accepted masterplan - one which promotes additional buildings along the spinal hallway. The linear hall of the first floor serves the double function of a corridor and resting area, while the space of the latter penetrates the corridor of the second floor and creates a sense of

자전거가 즐비한 것을 보면 학생들의 이동거리가 걸기에는 만만치 않은 것을 느끼게 한다. 학생회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연구동쪽으로 근접해 배치할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맺음말

사실 인간의 활동들은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는다. 계획각론에 주거에서의 활동을 취침, 취사, 생리적 욕구 해소, 단란, 응접 등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그것을 분리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양식주택에서의 분리방식과 한식주택에서의 분리방식은 다르며, 어느정도 혼재하는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로 캠퍼스에서의 활동도 분류할 수는 있으나 그 활동 각각을 격리하는 방식은 다른 얘기이다.

광주과학기술원의 원래 마스터플랜상의 배치를 다시 보면 단순 명쾌하며, 청결(Sanitized)하다. 교육연구지역과 거주지역은 사각으로 배치된 덕에 서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격리되어 있다. 다만 연결도로를 통해서만 이어질 뿐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실현된 안에서도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도시를 각각의 지역지구로 구분하는 아이디어와도 상통한다. 캠퍼스를 도시의 축소판이라 본다면 다른 방식의 배치개념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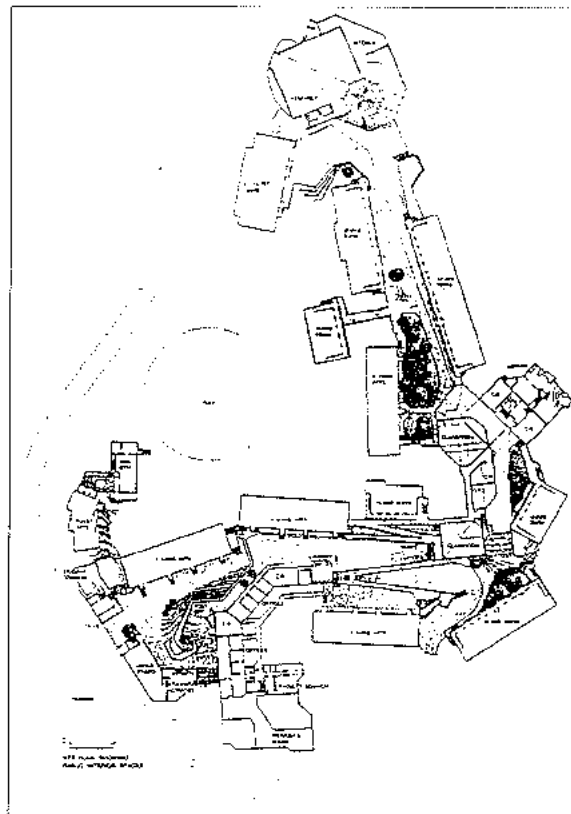
이 점에서 찰스 무어의 크레스지 칼리지의 배치개념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무어는 기숙사와 강의실, 교수연구실을 통합한 배치를 취하고 있으며, 식당과 학생회관은 배치의 정점에 자리한다. 이처럼 청결한 격리의 방식 대신 혼재의 방식을 취한 것은 사실 그가 캠퍼스 내에서 일어나는 활동

voidness.(The protection against the noise from this space is left unsolved.) There is a great number of bicycles parked outside the dormitory, which is an apparent proof of the distances between the facilities. As with the student's hall, one wonders whether there was an alternative choice to place the dormitory closer to the education and research area.

Conclusion

Contrary to what the textbooks of architectural planning teach, human activities cannot be classified into fields such as sleeping, eating, resting, etc. Even if we view it as such, the divisions are again subject to regrouping along the distinctions between traditional and western housings, which itself is no longer an objective criterion. The activities taking place in a campus also oppose sharp categorizations - The architectural method of securing individual spaces is another.

The primarily proposed masterplan of Kwangju Advanced Institute of Technology & Science are at once clear and sanitized. The oblique



찰스 무어의 크레스지 칼리지

의 핵심을 간파한 때문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빈자리에 성격이 다른 활동들도 담을 수 있는 시설들을 둔다면, 그리고 녹지띠 등의 외부공간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면 훨씬 활기에 넘치는 캠퍼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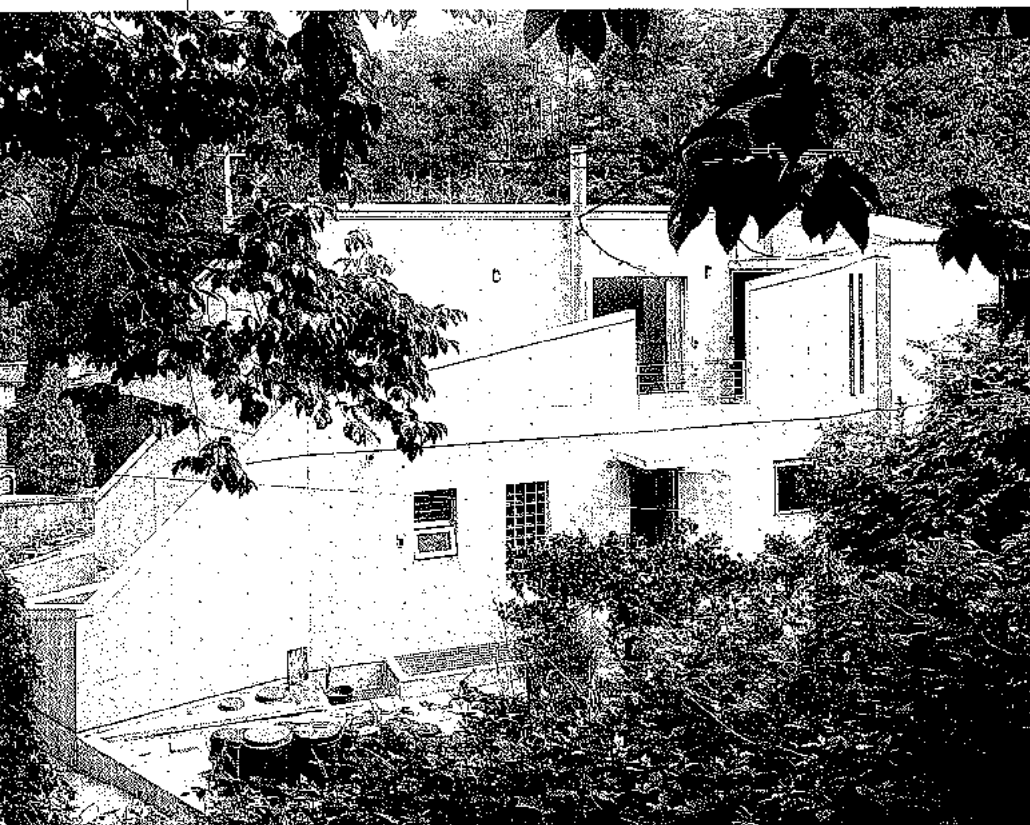
relation between the research area and the residential district prevents any undesired crossings, yet a connecting road leaves open a possibility of interrelation. Such idea survives the process of reduction caused by financial shortages, and can be comprehended by its similarity to the concept of the city as a synthesis of split entities. The analogy of the campus as a scaled-down city, however, could have opened up for ideas much more innovative.

In this respect, Charles Moore's plan for the Kresge College can be an exemplary case. He proposed a scheme which integrates the dormitory, lecture halls and research laboratories, and at its edge placed the cafeteria and the student hall. This chaotic layout, quite contrary to the sanitized plans of most other colleges, is perhaps a result of Moore's profound understanding of the activities which take place within. The Institute of Kwangju, the object of this essay, still has enough spaces and possibilities, and above all the basic resources, to develop into a more vigorous place of research and education.

구파발주택

Kupabal Residence

방철린 / 건축사사무소 인·토
Designed by Bang Churl-L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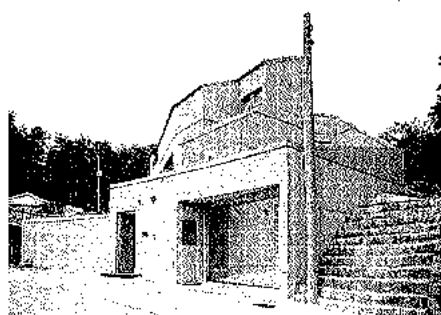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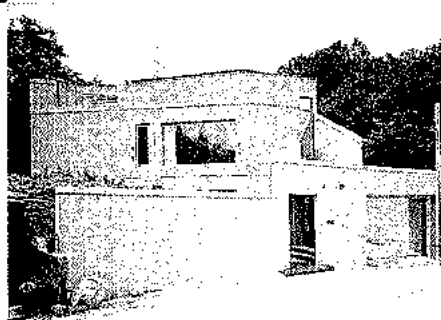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은평구 구파발동 127번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대지면적	145㎡
건축면적	79.26㎡
연면적	181.20㎡
건폐율	54.66%
용적률	124.97%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50mm 단열재 위 석고보드 위 한지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위 발수제 재폼칠
설계기간	1998. 4~1998. 7
공사기간	1998. 8~1999. 6
시공자	범신창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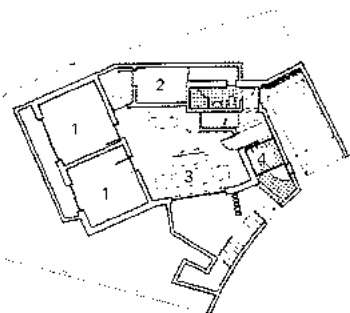
구파발 주택은 땅과 집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연관성 있는 공간을 찾아주는 작업으로부터 설계가 시작되었다. 이 대지는 마을과 산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두 영역 모두와 연관성을 맺을 수 있는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 도시(마을)쪽으로 열린 동쪽 경치는 멀리 북한산에서 시선을 멈추게 하고 남쪽은 서쪽 뒷산에서 흘러나온 낮은 구릉 줄기가 근경을 이루며 동쪽으로 달려나오는 모습이 남쪽마당의 감나무 사이로 펼쳐진다. 부지의 동에 해당하는 서쪽은 대지경계부터 산이어서 나무들 모습이 한그루 한그루 디테일하게 읽혀지는 숲이다.

이 집을 둘러싼 환경적 요소들이 이처럼 다양하게 펼쳐지므로 시방이 갖고 있는 땅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이집과 연관을 맺게 하기 위해 집의 각각의 부분을 모두 다른 환경, 다른 경관을 갖도록 프로그램화 한다. 멀리 북한산을 조망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테라스, 뒷산 숲속의 나무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발코니, 감나무가 있는 마당으로 열려 사색을 즐길 수 있는 툇마루 등이 이 집안에서 프로그램화된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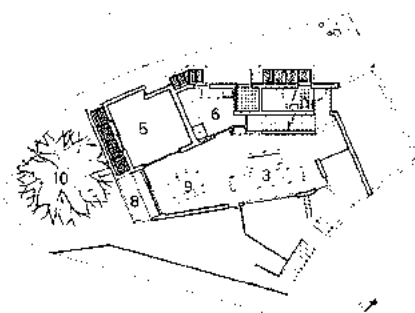
이 집에서 생활의 중심을 이룰 거실은 어떠한 형태의 자세에서도 가족끼리의 대화와 상호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주방, 계단, 2층발코니형 복도, 교차상이 있는 식당, 안방 등과 공간적 연관을 이루도록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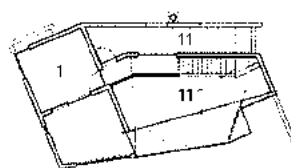
1. 침실
2. 보일러실
3. 거실
4. 현관
5. 안방
6. 주방
7. 욕실
8. 뒷마루
9. 교차상
10. 김나우가 있는 마당
11. 테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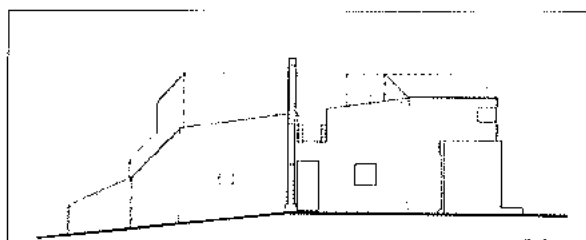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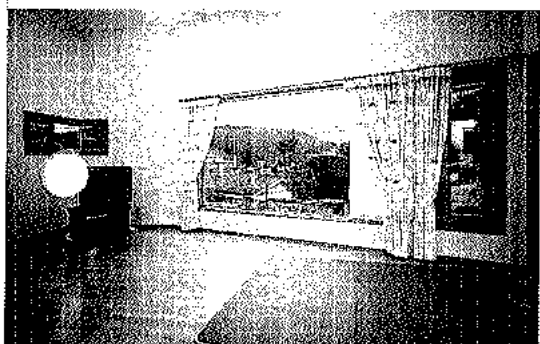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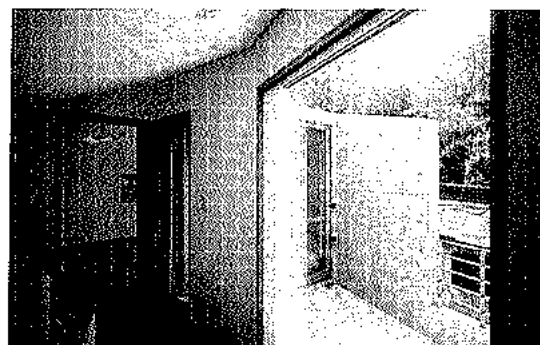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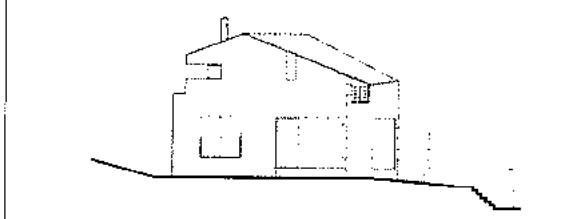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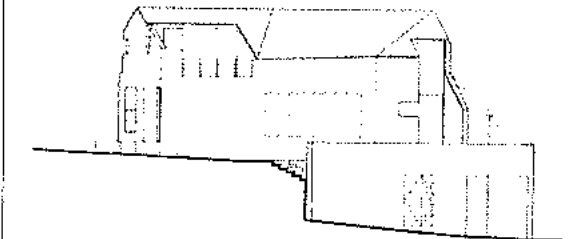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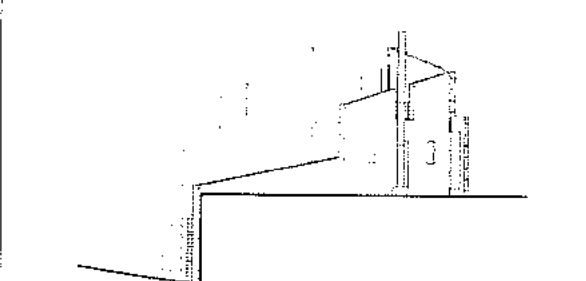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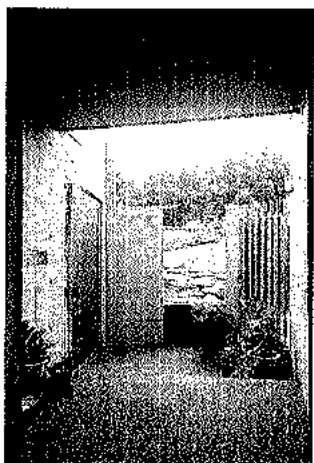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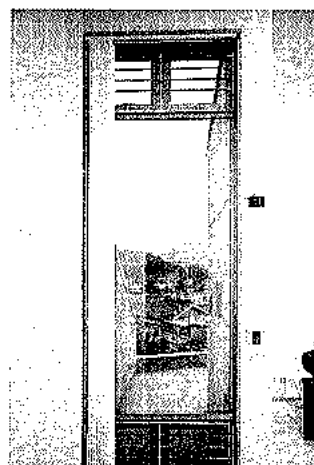
좌측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임거당(林居堂)

Lim Geo Dang

김효만 / 이로재 김효만 건축연구소

Designed by Kim Hyo-Man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03-6

대지면적 231.6㎡

건축면적 107.77㎡

연면적 199.22㎡

건폐율 46.53%

용적률 64.27%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바닥 - 온돌용 목재후로링

벽 - 노출콘크리트, 한지, 색락카,

미송판, 광락카

천장 - 색락카, 한지, 미송판,

무광락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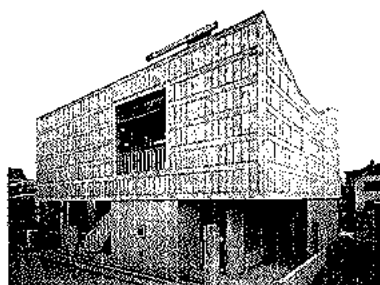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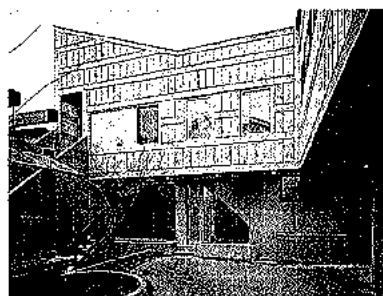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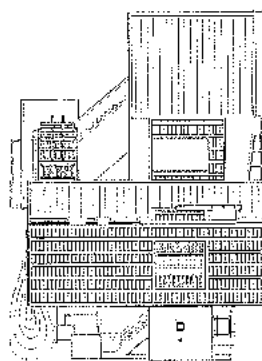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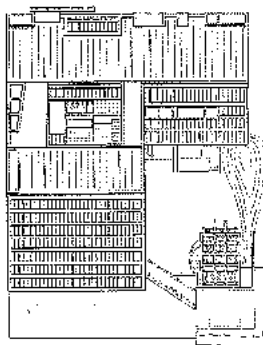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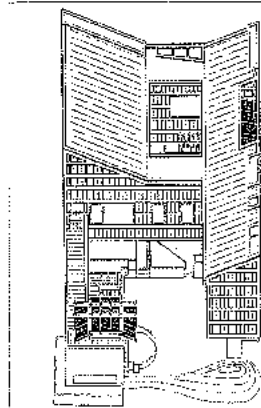
외부마감 바닥 - 검정 통자갈심기, 잔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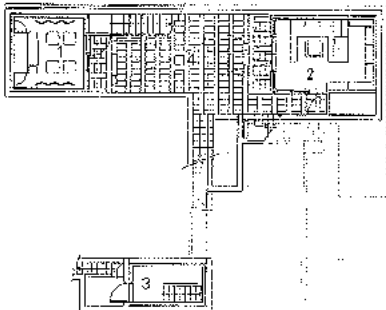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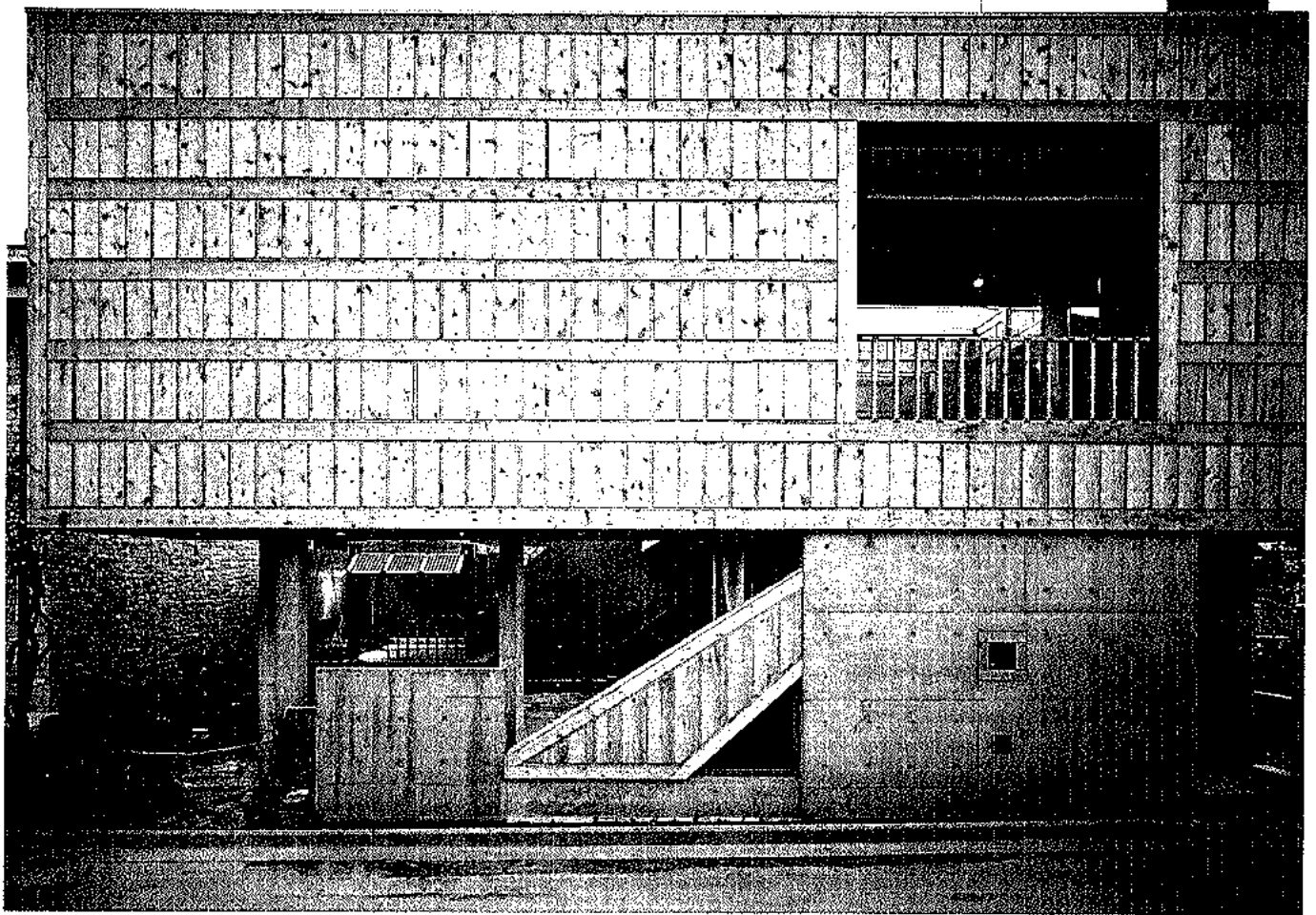
미송판/오일스테인

벽 - 노출콘크리트, 미송판/오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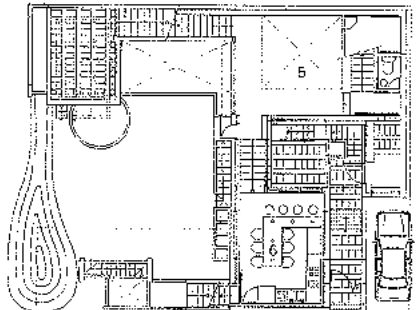
스테인

설계담당 한자원, 오상범, 김한려, 박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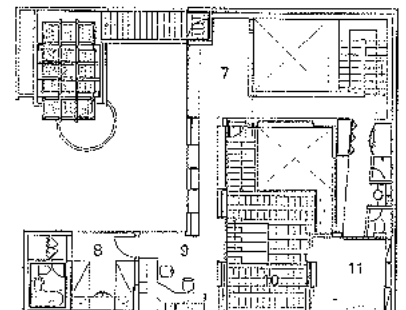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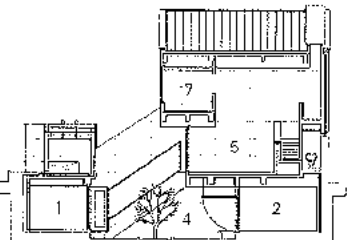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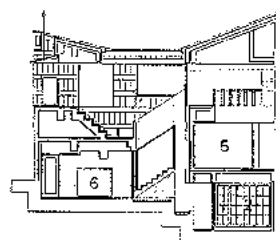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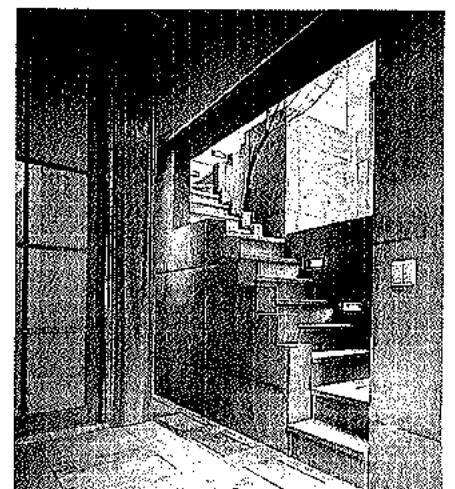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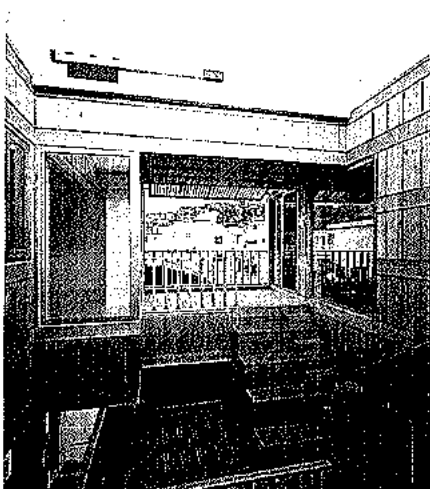


배치도

1. 손님방
2. 서재
3. 다용도실
4. 마당
5. 거실
6. 식당
7. 가족실
8. 어린이 침실
9. 어린이 공부방
10. 욕장 대청이랑
11. 휴안 침실



단면도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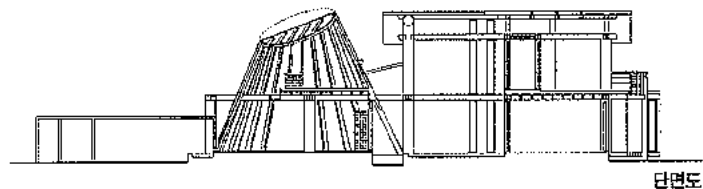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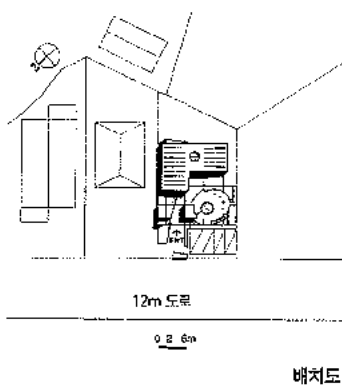


솔마루 주택 Solmaru Residence

한진수 / 건축사사무소 토방(광주)
Designed by Han Jin-Soo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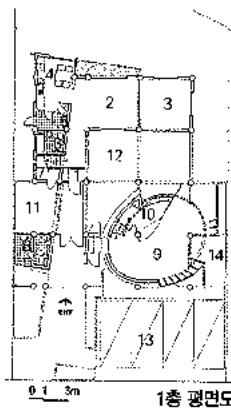
대지위치	전남 담양군 대덕면
지역지구	준농림지역
대지면적	494.00㎡
건축면적	123.03㎡
연면적	179.29㎡
건폐율	24.80%
용적률	36.10%
규모	지상2층
구조	목조
외부미감	외단열시스템, 적삼목
주차대수	5대



전원주택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속에 삶의 안식처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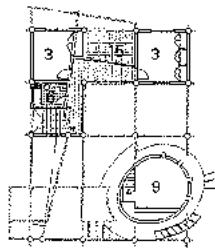
도시근교 한적한 시골마을 아름답리 가로수가 길게 뻗어 있는 좁다란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초등학교와 주변에 논과 밭이 시야에 들어오고 멀리서 광주와 여수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공간과 시간속에 긴장감을 주고 있다.

건축주는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분할된 몇 개의 필지중 하나를 선택해 주거공간과 일부에 조그만 상업시설을 요구했다. 다양한 조건으로서는 그리 크지 않은 대지에 안채의 주거공간과 입구에 별채의 상업공간을 구성해 중앙에 안마당에 움성적 공간으로 만들었고 입구에는 방문객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진입과정에서 주택과 상업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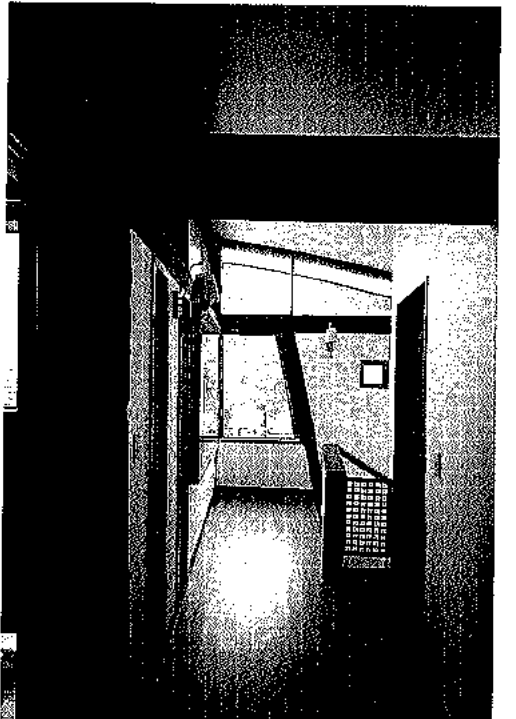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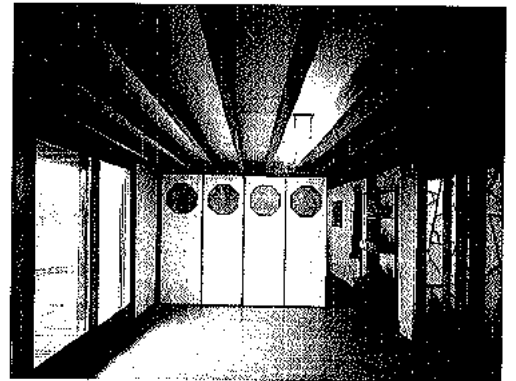


1층 평면도

- | | |
|------------|---------|
| 1. 현관 | 9. 카페 |
| 2. 거실 | 10. 주방 |
| 3. 방 | 11. 화장 |
| 4. 주방 및 식당 | 12. 안마당 |
| 5. 다용도실 | 13. 주차장 |
| 6. 욕실 | 14. 안문 |
| 7. 보일러실 | 15. 마루 |
| 8. 화장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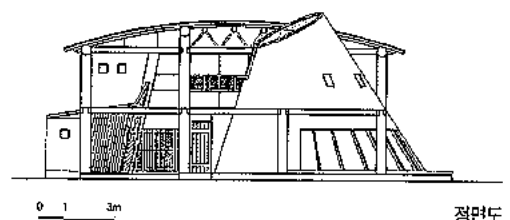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을 방문객들의 움직임을 구분하고 시간속에서 일어나는 선적공간에 따라 매개공간의 다양한 공간변화를 꾀해 건축적 산책으로 인한 리듬감을 주고자 했다.

3.9m 그리드에 의한 주택은 ㄱ자 홑집으로 해 자연환경과 친화적 의미를 주며 1층에 거실과 식당이 하나의 실로 이뤄지게 했으며 인접해 있는 방은 가변적 공간으로 계획했고 2층의 방과 방 사이의 복도는 외부와 반개방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주며 마루를 뒤 외부공간으로 유도해 양호한 조망권과 바람의 흐름은 시원함을 제공한다. 별채의 카페는 2층으로 천장의 자연광 유입에 따른 내부공간의 변화는 빛에 의한 공간의 풍요로움을 주고 있으며 내부에 막힌 곳을 없애고 목재의 구조를 노출시켜 변화된 공간이 형태로 표출됨으로 인한 자연스러움이 조형적 의미를 주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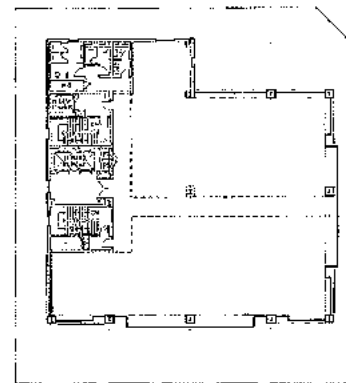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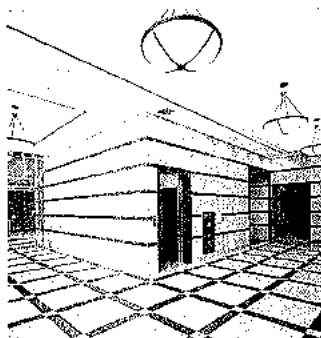
정면도

동교동 상진빌딩 Sangjin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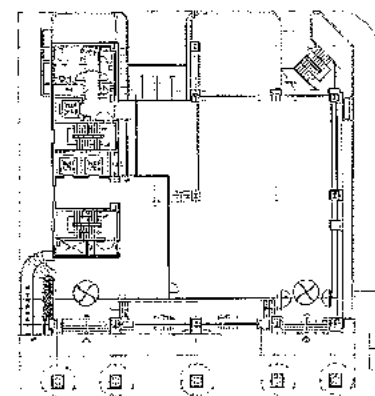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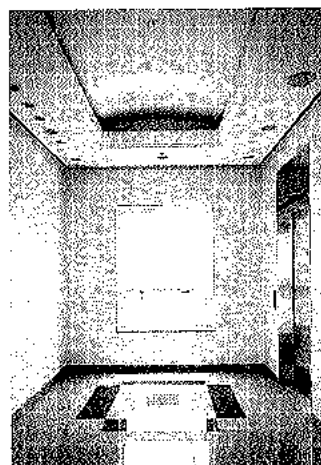
이충언 · 김광섭 / (주)원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Chung-Eon & Kim Kwang-Sub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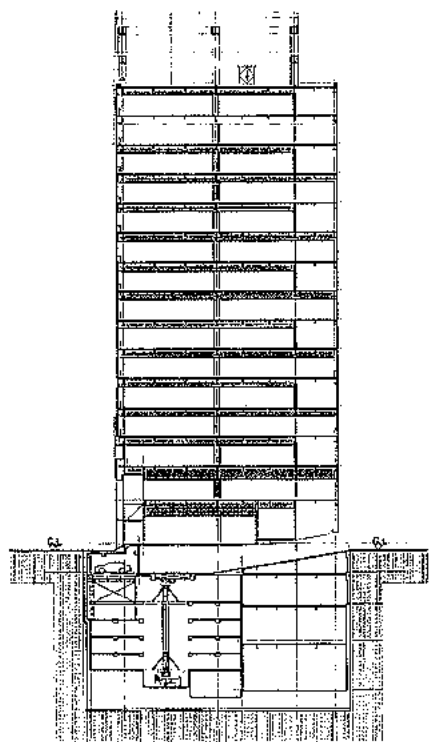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59-1 외 2필지
지역지구	근반상업지역, 주차장정비지구, 2종미관지구, 도시설계지구, 방화지구
용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1,067.60㎡
건축면적	639.17㎡
연면적	12,322.59㎡
건폐율	59.87%(법정: 60%)
용적률	873.71%(법정: 900%)
규모	지하4층, 지상15층
구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주차대수	101대(기계식: 74대, 자주식: 27대)
외부마감	가평석+문경석+칼렌레드/두께 18mm 컬러 복층유리
설계담당	윤영수, 양성수, 지성현, 윤태식
구조	예가구조
시공	LG건설(주)
설비	서일엔지니어링
전기	우신 E &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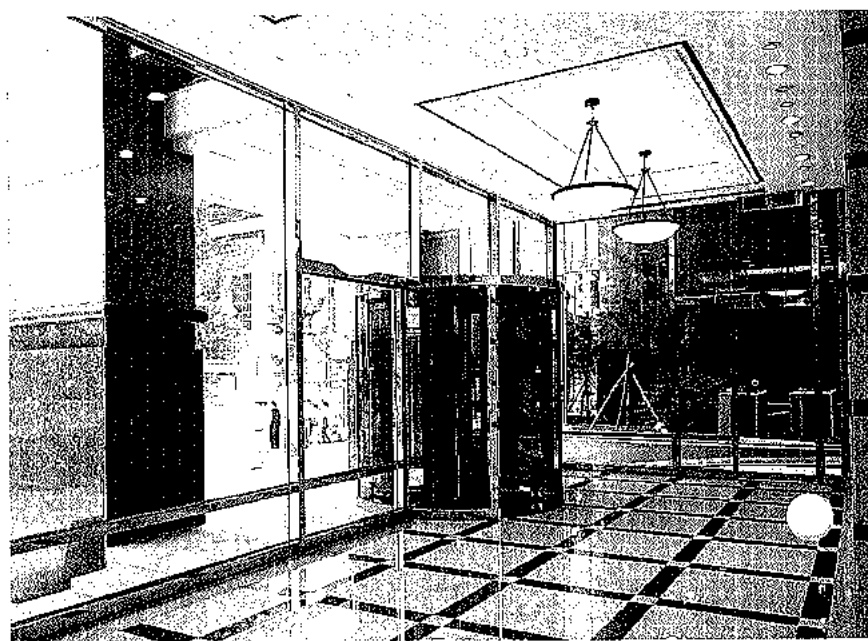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중단면도



위치와 지역성은 건축계획상 디자인 요소에 많은 영향을 준다. 홍대 전철역 입구, 40m 폭의 전면 양화대로를 바라보는 점음과 활기에 찬 공간. 주변의 군소복합건물들이 나름대로의 Context를 갖는 네모반듯한 모퉁이대지에서 이 Project는 시작되었다. 도시설계에 의해 확정되어진 건축지정선과 법규상의 제한요소들로 인하여 이 건물의 Mass와 Volume은 어렵사리 정해질 수 있었고, 대부분의 사무소건축이 그러하듯, 계획의 의도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되었다.

첫째, 사무공간을 중심으로 한 기능과 동선의 합리적인 Lay-Out 구성과 사무능률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는 쾌적한 사무환경의 계획. 둘째, 기존도시경관에 순가능적이면서 동시에 Land Mark적인 요소로 비출 수 있는 입면계획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지하4개층은 기계, 전기실 등의 유틸리티와 승강기 슬라이드식 기계주차를 배치하여 초기계획단계부터 많은 검토와 시간을 할애하였고, 또한 건축주에 대한 투자의 합리적 보상을 고려하여 열원방식은 빙축열 시스템으로 정해졌다. 자사임대빌딩의 성격을 지닌 이 건물은 사무공간의 가변성과 융통성을 고려한 평면을 위하여 편심코아를 배치하였고 이로 인해 3면의 탁트인 조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외관상, 전면저층부기단은 또 하나의 작은 건물Mass를 보여주며 고층부의 Mass를 암시한다. 그 아래서 이루어지는 주출입동선은 내·외부와의 원만한 동선의 연결과 동시에 상징적 주출입 기능이 부여될 수 있도록 커튼월과 조형적인 캐노피로 다듬어졌고, 전면의 공개공지는 전면 가로보행자로 하여금 시각적 여유공간을 갖게 의도하였다.

입면이 가지는 단조로움의 해결과 Landmark적 요소의 결합은 건축심의 단계에서부터 고민한 화두였다. 여러 사례연구와 모델스터디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돌과 유리 그리고, 음각(Shadow)이었다. 문경석과 가정석의 배합에 그보다 진한 칼멘레드를 이용하여 매스의 컨피그레이션이 선명히 드러나도록 계획한 것은 도시환경에서 자라난 에너지의 충만함을 의도한 결과였고, 또한 커튼월과 그로 인해 생성되는 Shadow Box는 그 나름대로 신선함을 찾기 위함이었다.

계획단계부터 서울시 심의와 지하철공사와의 업무조율에 적지 않은 난재를 겪어야 했지만 돌아보면 설계자의 계획의도를 신뢰하여 완공까지 믿음을 준 건축주에 감사하며 사공자와 감리자에게도 아울러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표피는 단순한 면으로 인지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이 도시를 구성하는 하나의 공간으로 발달되었을 때, 커튼월의 Shadow Box에 걸리는 한자락의 그림자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는다. 도시속의 오브제로 이용자들에게 충실한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서울대학교 병원 영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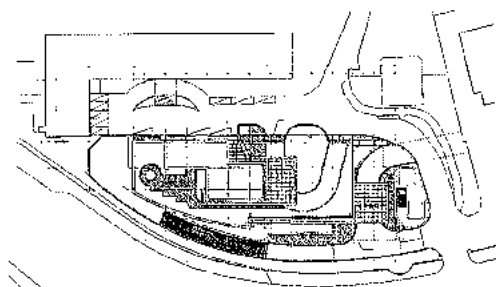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Funeral Chapel

(주)삼우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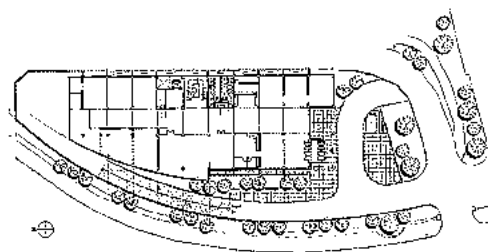
Designed by Samoo Architects & Engineers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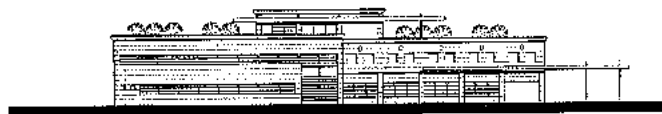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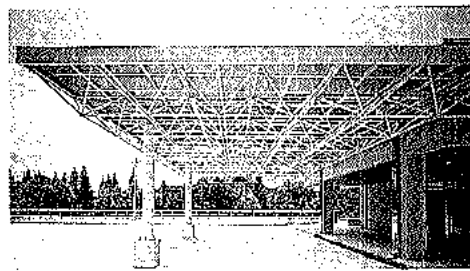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2 외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2종 미관지구, 일부 도시설계지구
대지면적	98,719.4㎡
건축면적	1,382.6㎡
연면적	4,224.6㎡
조경면적	16,996.9㎡
건폐율	21.88%
용적률	75.96%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내부마감	바닥 - 카펫타일, 무석면 비닐타일, 벽 - 무늬목, 석고보드 위 무광 아크릴 페인트, 천장 - 알면 흡음텍스
외부마감	회강석 버너구이, T16 파스텔 목층유리
설계기간	1997. 2~1997. 10
공사기간	1998. 2~1999. 5
사진	영승훈



배치도



기준층 평면도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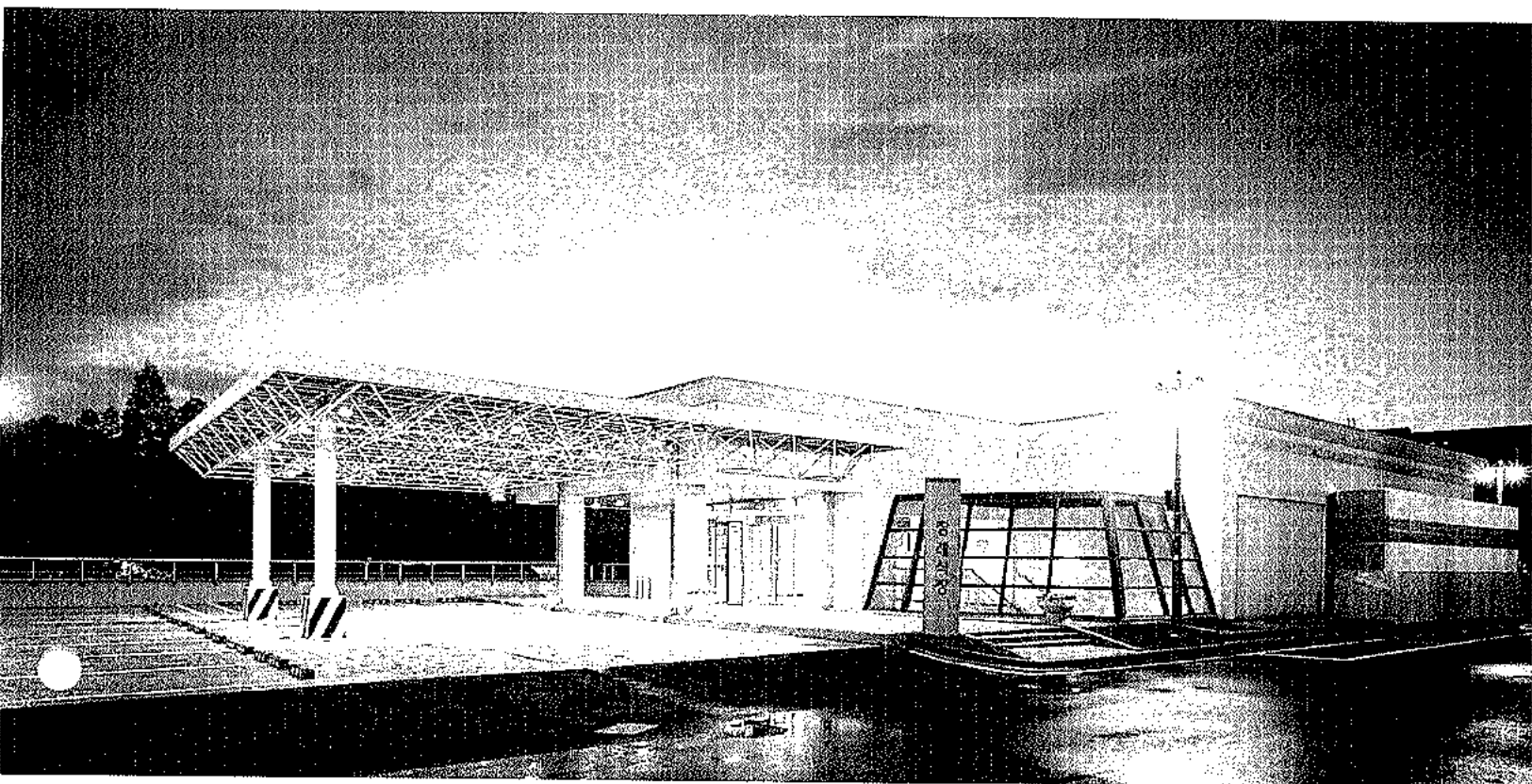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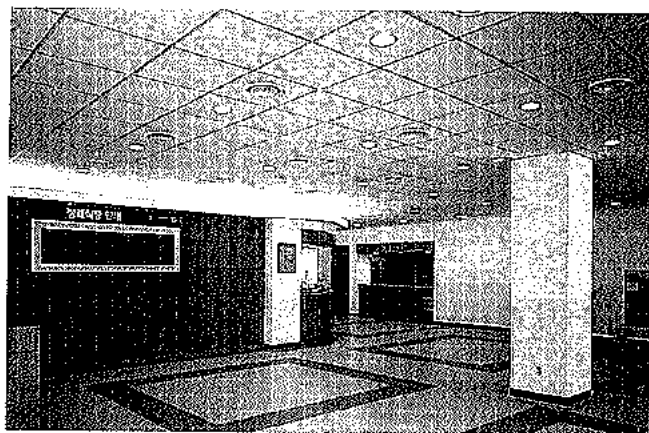
단면도

대부분의 병원 영안실이 실질적으로는 장례식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영안실이 기피시설 내지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병원 영안실은 기피시설이고 혐오시설인가? 지금의 시설이 그러하기 때문에 기피시설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최근에 건축된 몇몇 민간 병원 영안실의 선도적인 역할(?)에 힘입어 - 그러나 이들 역시 지하에 건축되어 있다. - 이러한 인식이 다소나마 줄어들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장애인 복지시설 등 많은 시설들이 공공성을 띠고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할 때 이들 시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주어진 부지 상황은 과감한(?) 결단을 쉽게 해주었다. 10m가 넘는 부지의 고저차는 자연스럽게 영안실의 한 면을 창경궁과 마주하는 대로변에 완전히 노출시킬 수 있도록 해주었다. 부지의 고저차를 이용하여 1층과 3층에 각각 출입구를 설치하여 기존의 병원부분과 외부에서 접근 동선을 처리하였다. 기존 구릉지의 경사면을 연장하

여 노제가 행해지는 지하 앞마당을 대로변의 시선에서 차단하고 옥상 정원을 조성하여 주변환경을 자연스럽게 대지 내로 유입하였고, 동시에 이용자들에게 휴식공간으로 개방하였다. 대학교와 창경궁의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외장재는 화강석을 선택하였고, 또한 권위적 이거나 장엄한 느낌을 줄이고 건물 외형의 직선부와 곡선부의 연결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유리면을 사용, 완충 역할을 유도하였다. 이것은 자연채광을 적극 활용한다는 목표와도 잘 부합되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핵가족화 되면서 장례문화도 변화하였다. 서로가 바쁜 생활에 애전처럼 모두 모여 밤을 지새우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 되었다. 최근에는 정책적으로 별도의 조객실을 두지 않는 병원 영안실도 생기고 있지만 찾아오는 조문객을 접대해야 하는 유가족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다. 따라서 실내설계는 이러한 면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최종 시공단계에서 민원에 부딪혀 투시형 담장이 막힌 담장으로 시공되어 본래 계획처럼 가로변에서 건물을 볼 수 없게 되어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복현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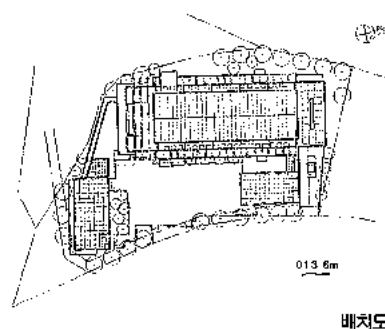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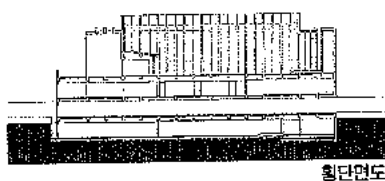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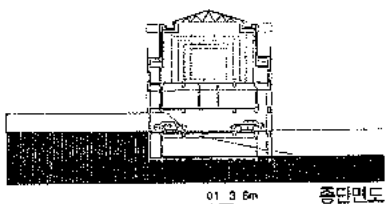
Bok-hyun Catholic Church

서보광 · 이중환 / 건축사사무소 동성건축(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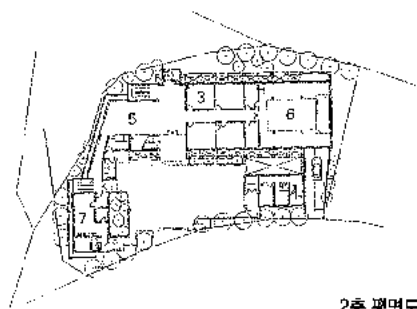
Designed by Seo Bo-Kwang & Lee Jung-Hwan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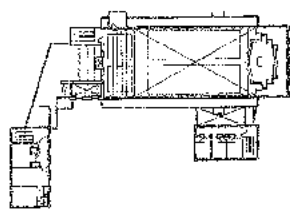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산 21-5
대지면적	1,996.04㎡
건축면적	985.30㎡
연면적	3,750.65㎡
건폐율	49.36%
용적률	148.36%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규모	지상1층, 지하4층
외부마감	벽 - 적벽돌 치장쌓기+노출 콘크리트 리트워 발수제 마감+화강석 버너마감
지붕	동편 지붕잇기
내부마감	벽 - 적벽돌 치장쌓기+모르타르 내부용 본타일
바닥	화강석 물갈기+디렉스 타일
천장	목조 트러스 노출+흡음텍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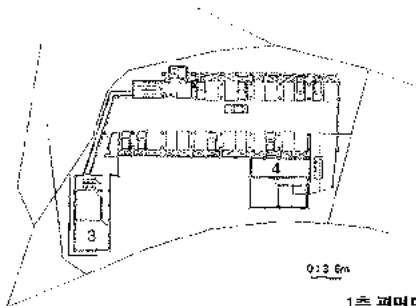
주위에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과 학교, 공단 등이 위치한 도심지의 경사지에 자리잡은 이 성당은 대지의 입지 조건상 종교적인 상징과 도시적인 상징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도시형 성당으로의 계획이 요구되었다. 건물의 배치계획은 주도로의 축인 남북의 축과 진입을 위한 동서의 축을 중심으로 주건물인 대성당을 전면도로의 축에 배치하여 도로에서의 접근을 용이하도록 하였다. 평면계획은 경사진 대지의 조건상 지하 1층, 지상 1층 일부분이 지중매설됨으로써 채광, 환기를 고려한 계획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성당의 출입은 2층에서 시작되도록 하였다. 공간의 성격에 따라 사제관, 수녀원의 출입구를 성당과 분리하여 외부와 연계시키고, 각 건물의 기능을 고려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에 따라 동선을 계획하였다. 기본적인 매스계획은 성당, 사제관, 수녀원의 3개의 매스로 구분된 C자형의 평면을 가진 형태이다. 공간의 적절한 분리를 요하는 수녀님들의 작업공간과 일상적인 생활공간 그리고 사제를 위한 공간들이 핵심공간인 성당을 중심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 앞마당에서 진입하는 2층 만남의 광장은 각 교리실과 연계되는 홀로써 신자들의 천교의 공간이며 3층 대성당 내부로 연결된다. 사제관은 총별로 대성당과 연결되며 수녀원은 두 매스를 결합하는 옥외 브릿지를 통해 대성당으로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입면적으로는 단순하며 절제된 조적벽의 매스와 노출콘크리트의 사용으로 과다한 침탑과 고딕형태의 사용을 탈피함으로써 종교건물이 갖기 쉬운 위압감을 배제시켰다. 건물의 디자인 요소로는 각 매스마다 높이를 달리하여 외부에 변화감을 주었고 대성당의 내부에서 외부로 노출되는 장방형 페턴의 보위에 목조 트러스를 얹힘으로써 보자체가 도리역할을 함으로 우리것에 대한 표현을 유도했다. 또한, 노출보가 기둥과 연결되어 일정한 간격이 반복됨으로 느낄 수 있는 중첩감을 표현했고, 그 사이의 톱라이트를 통한 자연광의 도입은 성스러운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종교건축을 일정한 틀에 얽매어 규정짓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교건축이 가지는 웅장함보다 종교적인 내면성을 표현하고, 이 건축물을 찾는 이들이 그 내면성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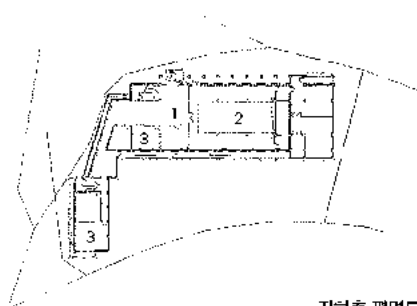
2층 평면도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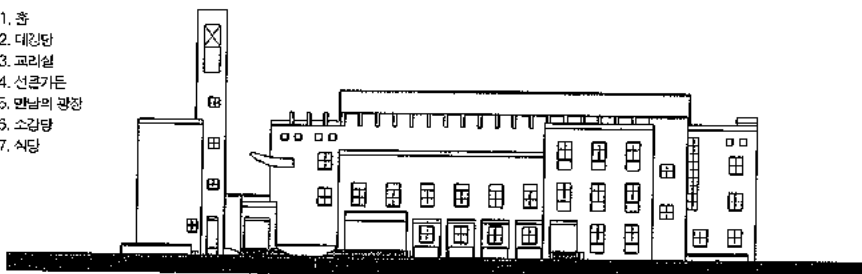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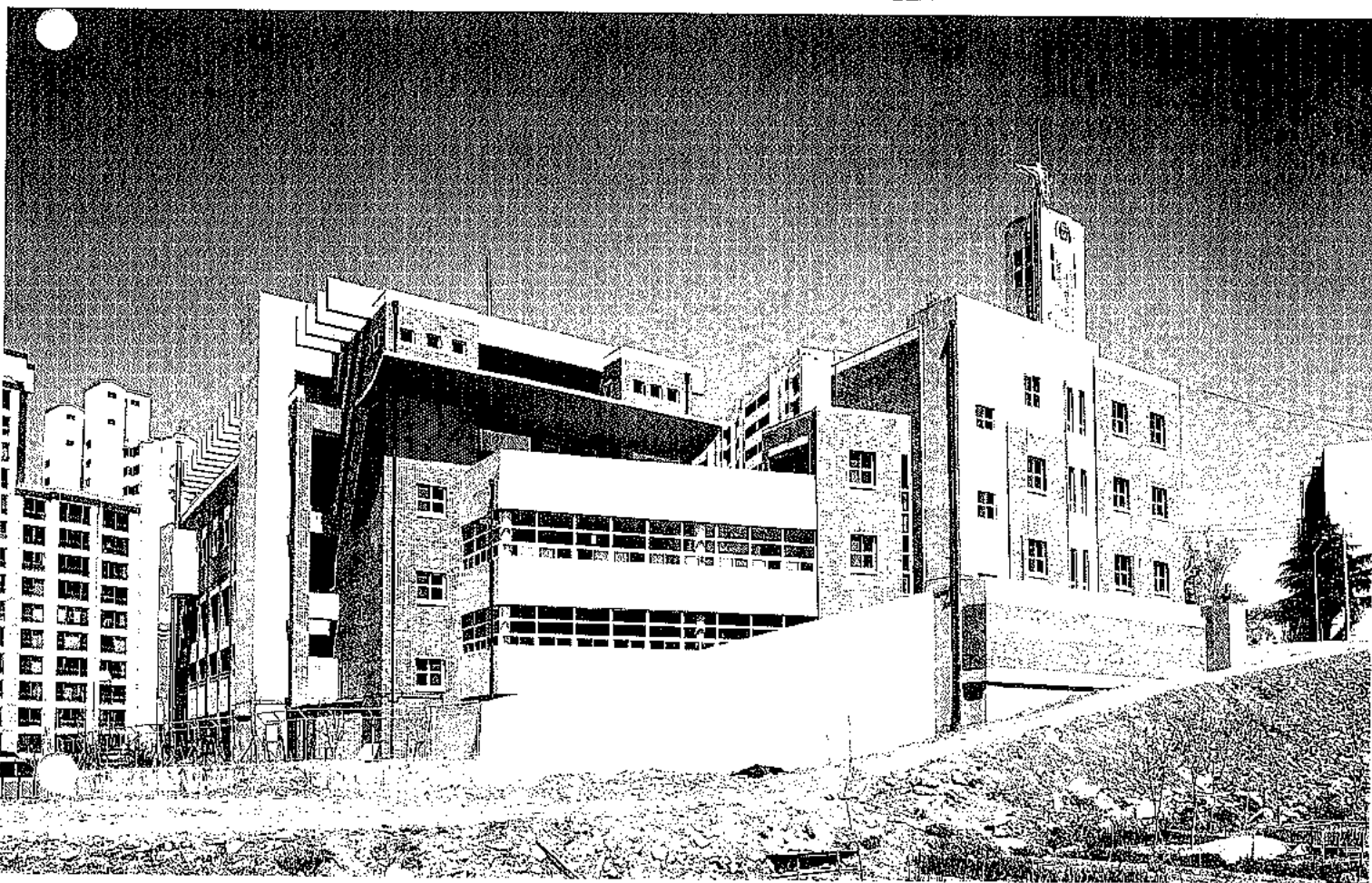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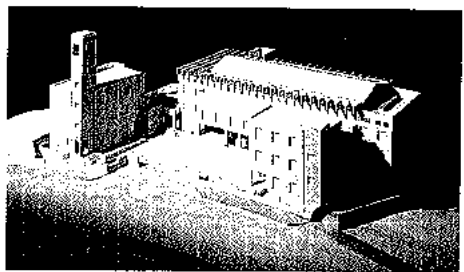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1. 출
2. 대강당
3. 교리실
4. 선공가든
5. 만남의 광장
6. 소강당
7. 식당



0 1 3 6m

정면도



아주파이프공업(주) 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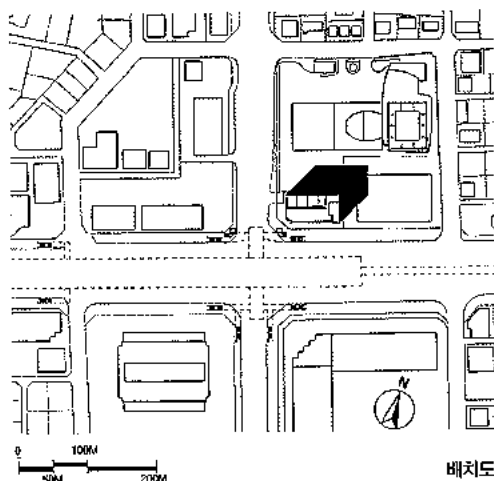
Office of Aju Pipe Industry Co.

안상구 · 정승덕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Designed by An Sang-Gu & Jung Seoung-Duk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9-5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도시설계구역, 1·4종미관지구
대지면적	1,267.30㎡
건축면적	757.89㎡
연면적	22,856.74㎡
건폐율	59.80%
용적률	1,157.59%
규모	지하8층, 지상20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화강석물갈기+옥두기, THK24파스텔복층유리
건축주	아주파이프공업(주)
시공자	두산건설(주)
설계담당	김두진, 백태규, 장성규, 류혜옥, 이상희, 성유미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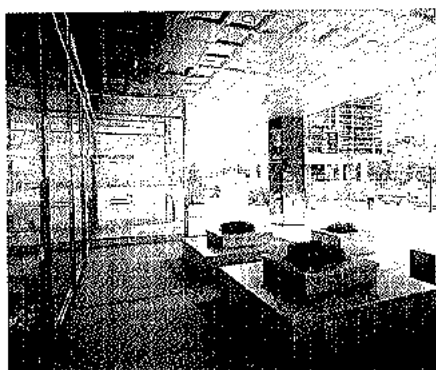
이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강남의 마천루라 할 수 있는 테헤란로 중심부로 노선로와 교차하는 2호선 역삼역에 접하여 동서방향 테헤란로변의 가장높은 지역에 위치하며, 시각적 인지도가 두드러지는 곳으로써 북측 LG강남타워와 동측 현대중공업사옥을 비롯해 도로건너편에는 한국은행 강남지점 및 현대산업개발 빌딩군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이 건물은 주변 건물과의 조화로움 속에서도 독특한 표정을 연출할 수 있으며, 추후 주변건물 완공후 교차로의 강한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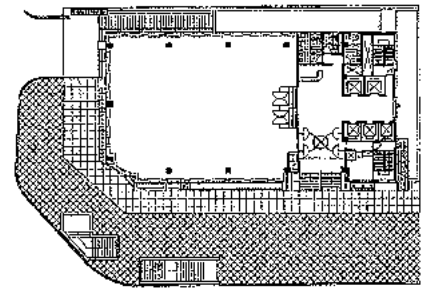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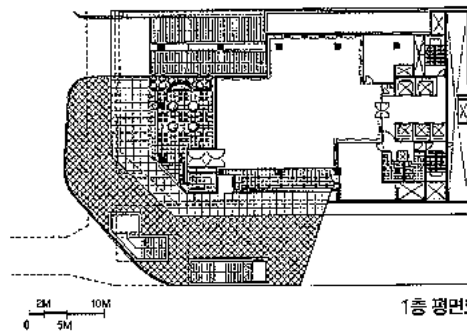
배치계획에 있어서, 건물의 주출입은 대지의 경사를 이용하여 테헤란로측 경사 최고부에서 건물 2층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주차출입구는 낮은 쪽인 노선로측 건물측면에 주차진출입 램프를 두었다. 또한 교차로에 면하여 공개공지를 두어 보행자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옥외계단을 통해 지하1층 아케이드 및 지하철 역삼역과의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평면계획은 대지규모가 작은 관계로 편축코어를 선택하여 일조, 통풍에 유리한 평면형태와 공간활용 및 무주공간으로써의 Office Landscape 계획과 Inte-Ligent화가 용이하도록 7.8m×16.8m의 장스팬을 사용한 구조와 OA Floor를 채택하였다.

입면은 주변의 고층건물군과 조화되고 Landmark적 요소가 표출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검은색 톤의 단순하면서도 통일된 Mass를 구성하고 건물 최상부에 포스트를 설치하여 사옥의 상징성과 인지성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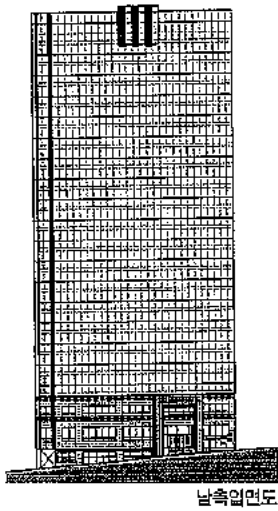
지층은 Black Stone을 사용하여 상하층 Mass를 조화시키고 시각적으로 상부층 Glass Curtain-Wall을 받쳐주는 안정감을 택하였으며, 주출입구 벽면을 돌출시켜 인지성을 확보함으로써 작은부분의 Design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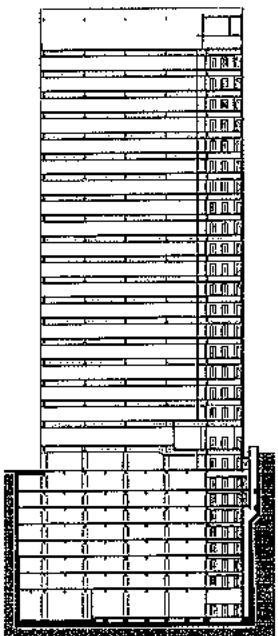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남측외면도



월단면도



숙명여대 어학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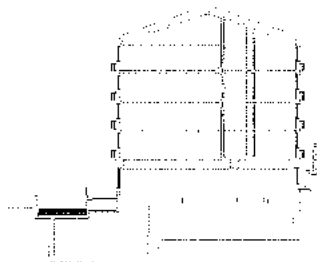
Linguistics Research Center of Sukmyung University

유승룡 / 건축사사무소 (주)웅진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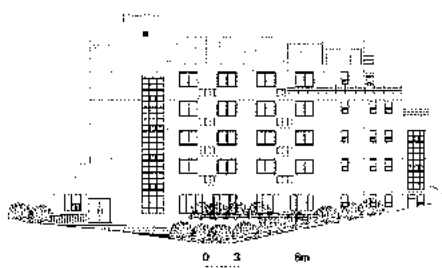
Designed by Yu Seung-Ryong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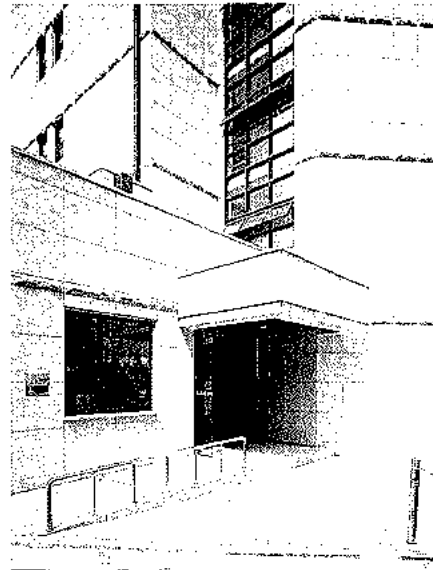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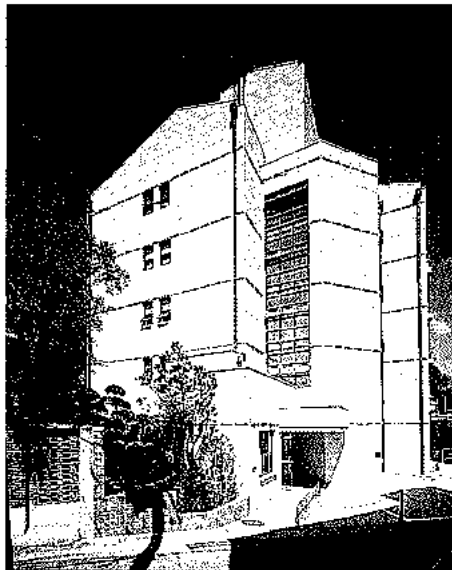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1가
	98-8, 11, 28
지역	일반주거지역
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766.53㎡
건축면적	457.41㎡
연면적	2,533.63㎡
건폐율	59.67%
용적률	263.32%
조경면적	116.01㎡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미감	외벽 - 화강석
	지붕 - 컬러 아스팔트성글
	유리 - 복층 유리
건축주	학교 법인 숙명학원
설계기간	1997. 9 ~ 1998. 4
공사기간	1998. 3 ~ 1998. 12
설계담당	허복권, 김유선
구조설계	일우구조(이춘호)
기계설비	화인(이웅규)
전기설비	하이텍(이현수)



주단면도



정면도



사업부지의 설계를 의뢰받아 현장답사 후 여러 가지 생각에 빠지게 되었다. 예정부지가 학교와 인접되어 있거나 주거시설이 밀집된 곳에 주변과 다소 생소한 어학연구소라는 교육연구시설을 설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건물의 내부기능은 요청된 용도에 충실하도록 하고 건물의 외관은 주변의 주거시설과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설계의 접근방향을 설정하고 상세계획에 착수하였다.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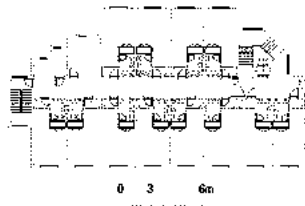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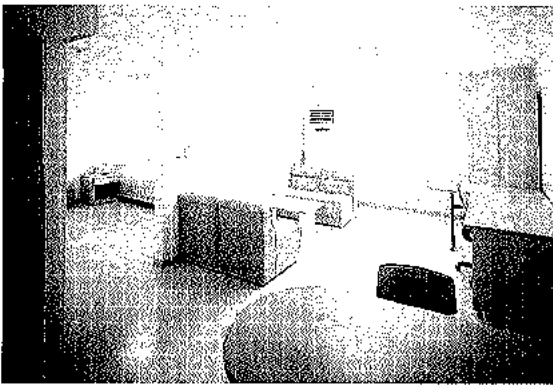
대지조건은 강북의 주거밀집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좁은도로와 비정형 경사부지로써 이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배치계획과 대지 고저차를 이용하여 차량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건물주변에 필요한 조경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건물의 필로티 부분과 인접하게 하여 계획건물과 외부공간이 잘 연결되도록 하였고 주변건물과 친화적인 조화감을 갖게 하였다.

평면계획

건물의 코어부분을 입구에 근접시켜 층별 동선분리를 원활하게 하고 건물의 1층에서는 연구소의 행정지원을 위한 시설과 연구원의 식사 및 휴식을 위한 식당과 부속실 등 공용시설을 두고 개인 어학연구실은 2~5층에 계획하였다. 1층 식당의 물품반입을 위한 별도의 반입구를 두어 동선의 혼잡을 피하고, 두 곳의 필로티 공간을 두어 한 곳은 식당의 부속공간으로 장독대, 옥외조리를 위해 사용하고 다른 한 곳은 조경시설과 근접시켜 연구원의 친교,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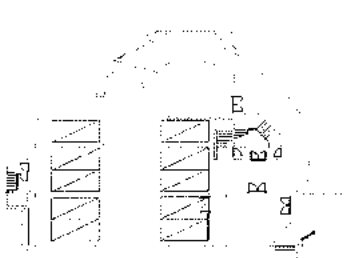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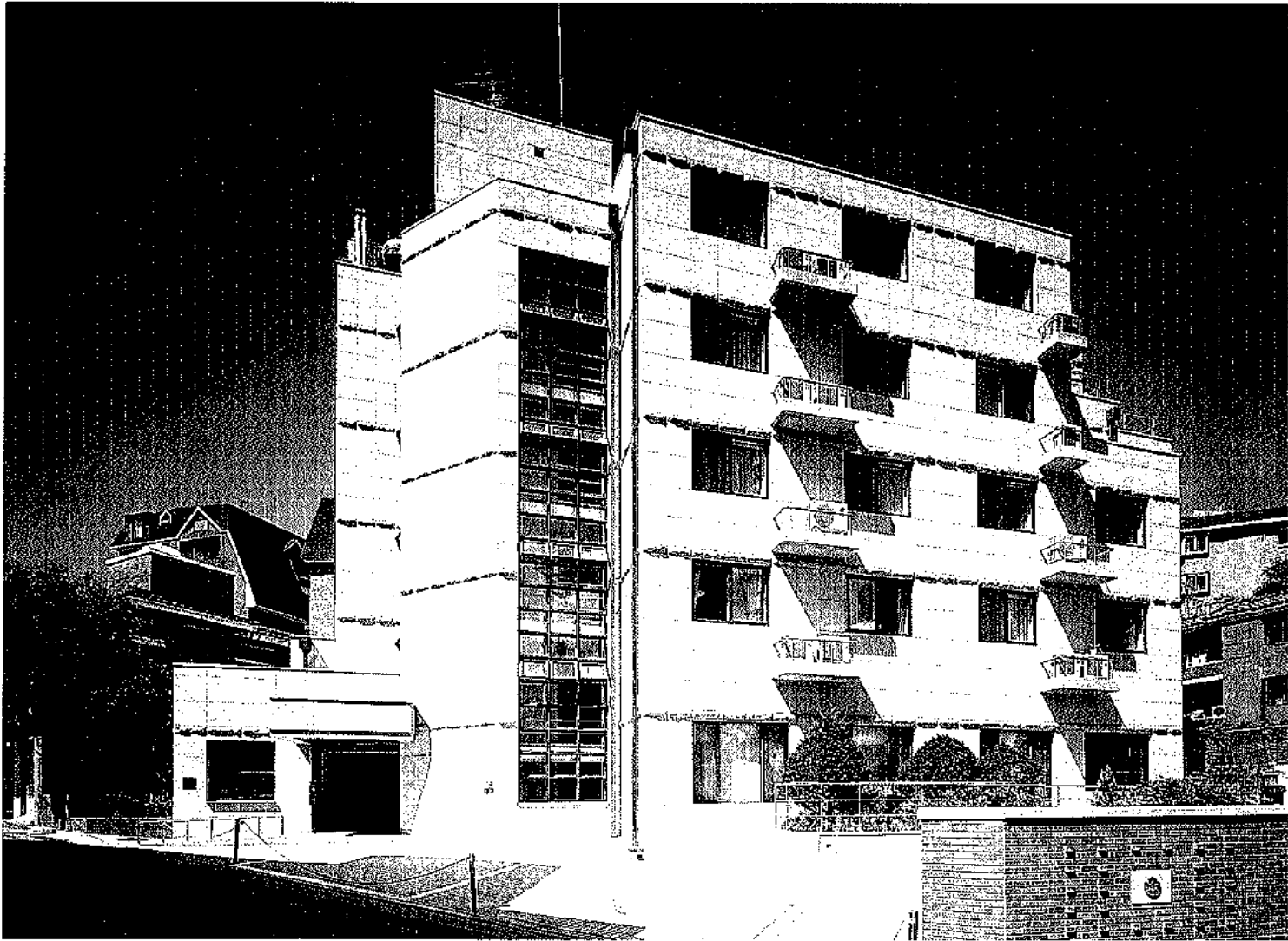
계획부지의 경사대지와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위하여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하고 평면의 점층적인 변화에 따라 지붕에 순차적인 변화를 줌으로써 건물의 매스가 갖는 무리함을 줄이도록 하였다. 각 층별로 외기와 친화할 수 있는 발코니를 두어 입면의 변화를 모색하고 건물의 기능을 일부 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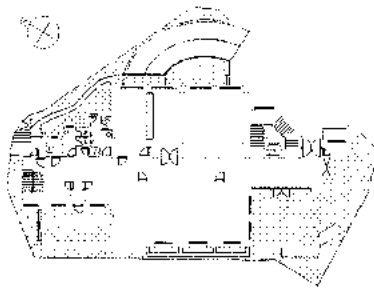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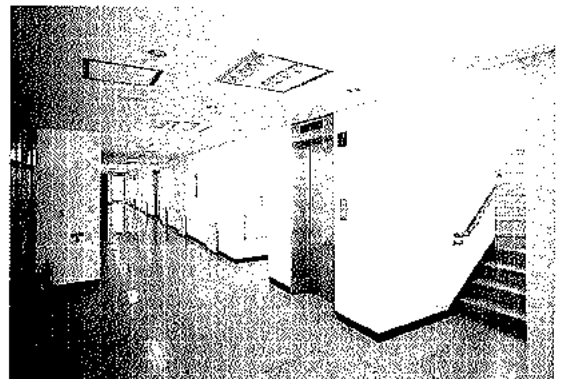
5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서교동 4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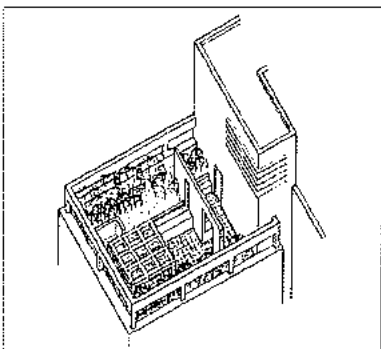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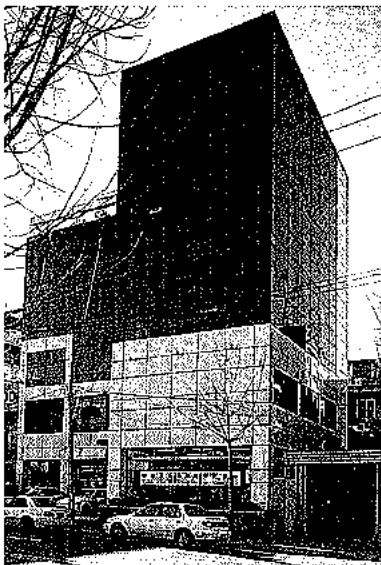
Sukyodong 466

한경호 · 김항년 / (주)에창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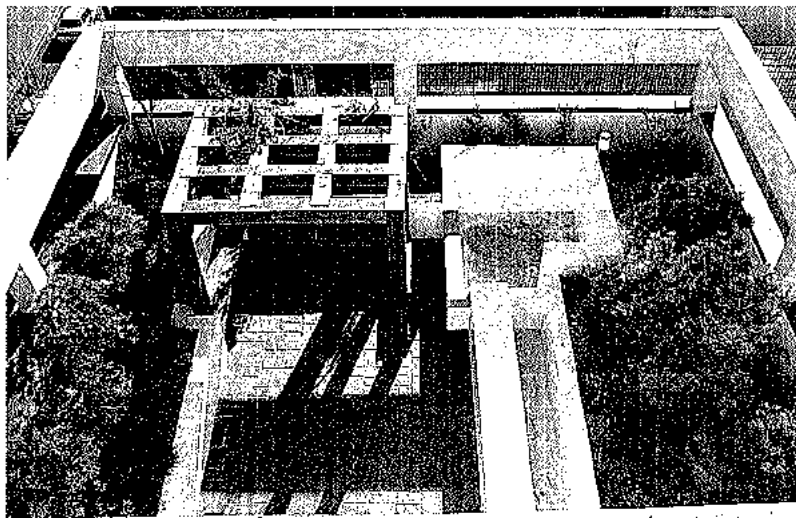
Designed by Han Kyung-Ho & Kim Hang-Nyeon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6-5
지역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411.60㎡
용도	근린생활시설
건축면적	231.56㎡
연면적	1,510.16㎡
건폐율	56.26%
용적률	300.81%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1층, 지상6층
최고높이	24.40m
외부미감	법랑페널, Glass Curtain Wall
내부미감	아크릴계 수성페인트



목상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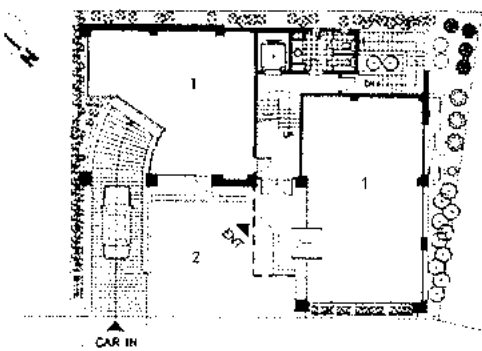


보통의 근생건물이 그렇듯이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정 최고 한도로 하여, 다른 건물보다 눈에 잘 띄도록 도로변으로 최대한 근접시켜 보행자에게 위압감이나 답답함을 안겨주고, 조경은 형식적인 식재로 인해 1~2년 후에는 고사하여 도시의 삭막함을 더해주고, 건물의 외관도 준공시의 그럴듯한 모습에서 불과 몇 달 후에는 간판을 위한 구조물로 변신을 하여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Project는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보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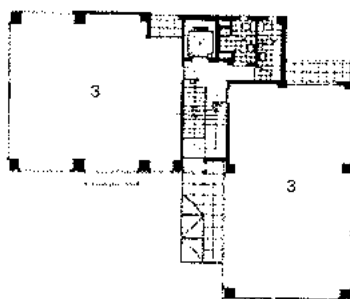
위치는 서교동의 번화가와 주택가 사이의 중간에 위치한 20m 도로변으로서 장소의 특성상 화려하고 복잡한 외관보다는 단순 명료한 외관인 유리 커튼월로 처리해서 투명성을 강조했다. 건물의 배치는 도로변으로 바깥 다리가기보다는 진입공간에 Open Space를 두어 보행자나 사용자에게 여유로움을 주고 싶었으며, Mass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30평 내외의 임대면적을 수용하여 2개로 분리시키고 중앙에 공용공간을 두었다.

지하주차장에서 1층으로의 통로는 외부계단으로 처리해 수목이 계단을 통해 1층으로 올라감으로써 지하에서의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자동차 배기가스에 오염된 지하층의 공기가 건물내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싶었다. 옥상정원을 6층 동쪽 옥상에 만들었다. 파고라, 벤치, 수목뿐 아니라 수공간까지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계획하여 건물 사용자들에게 신선한 쉼터로서의 장소를 제공하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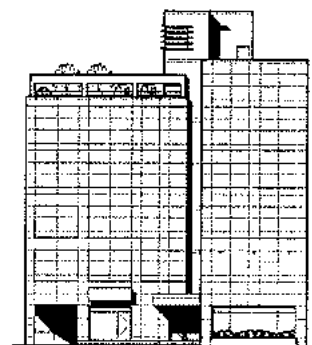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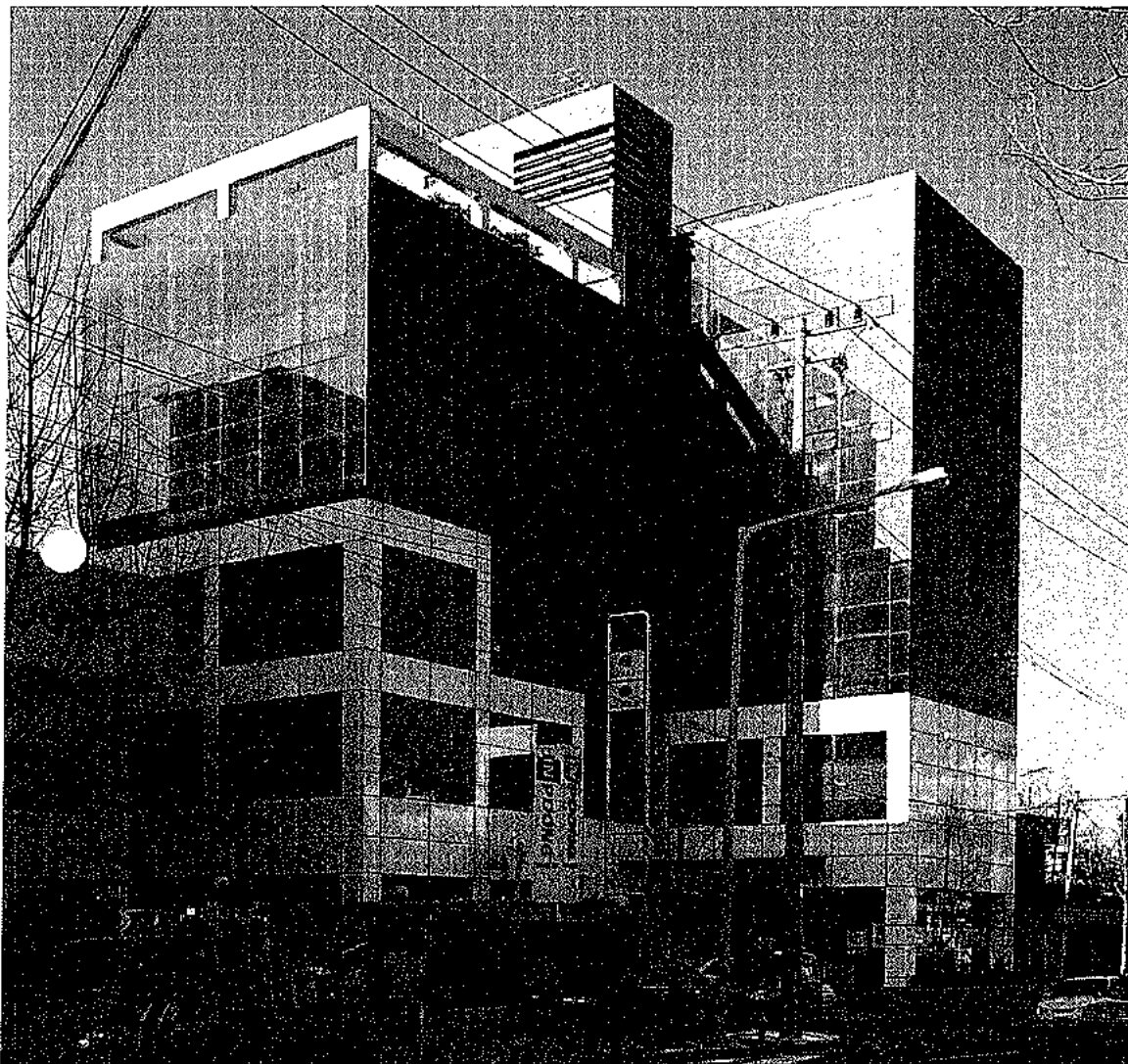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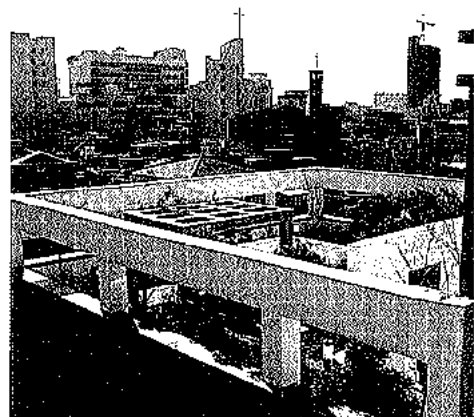
간판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역시 이 건물에서도 임대 후 불려야 할 간판들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이 골칫거리 간판들을 회피하고, 가리고, 못 달게 할 것이 아니라 오브제로서 수용할 수도 있다고 여겨서, 처음부터 간판의 영역을 염두에 두고 계획했다. 먼저 1층 상점의 광고를 위해 건물 2층 한면을 Solid로 만들었고, 기준층 입주자를 위해서는 옥외에 별도의 간판설치용 post를 설치하여 건물면에 간판이 난무하는 일은 없도록 배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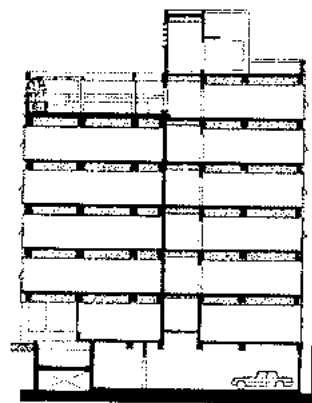
1층 평면도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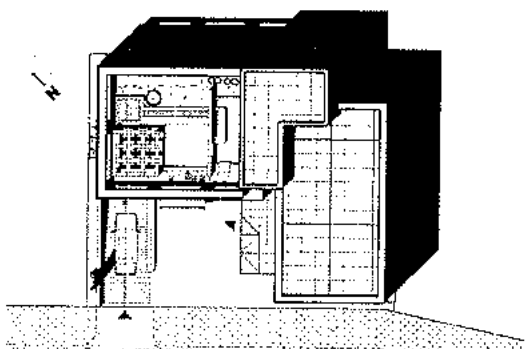


정면도



0 1 3 6 12m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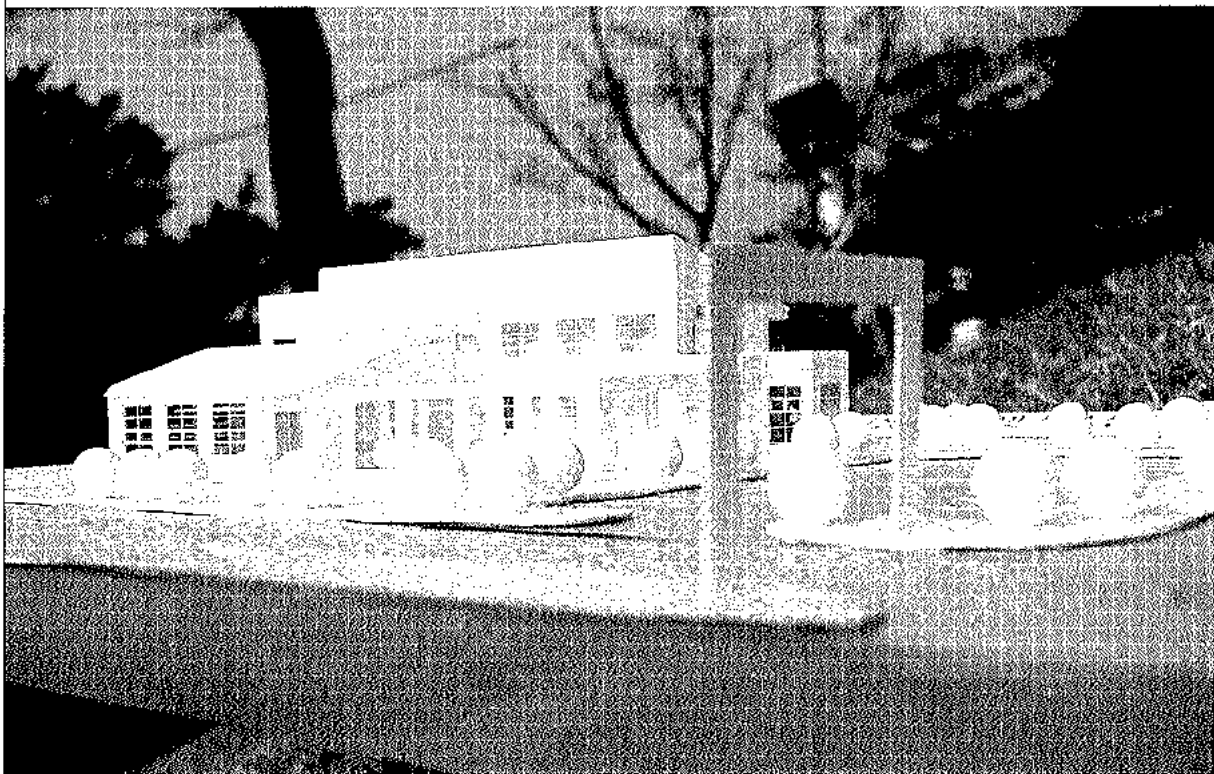


배치도



메디슨 기숙사 Medison Guest House

김상경 / (주)KSK건축사사무소
by Kim Sang-Kyung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주는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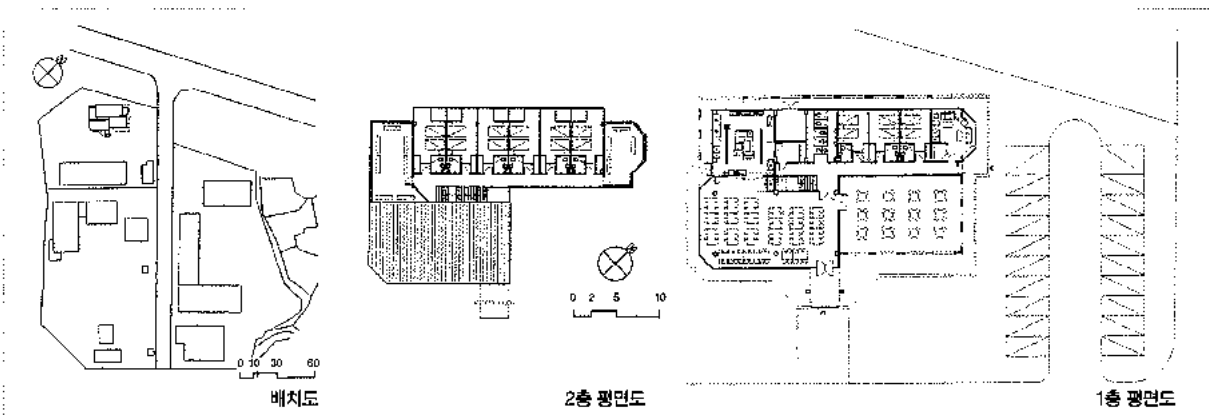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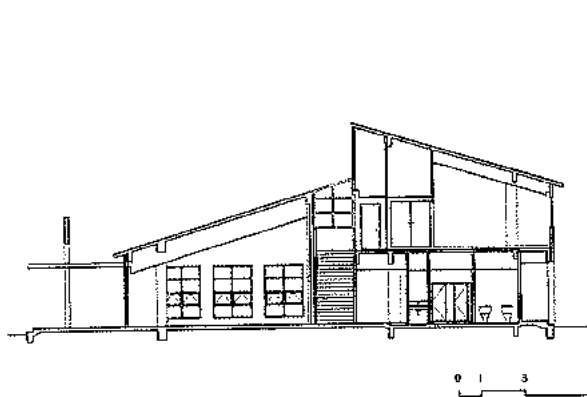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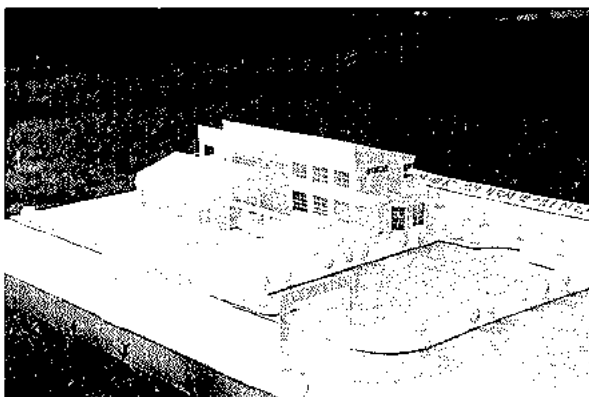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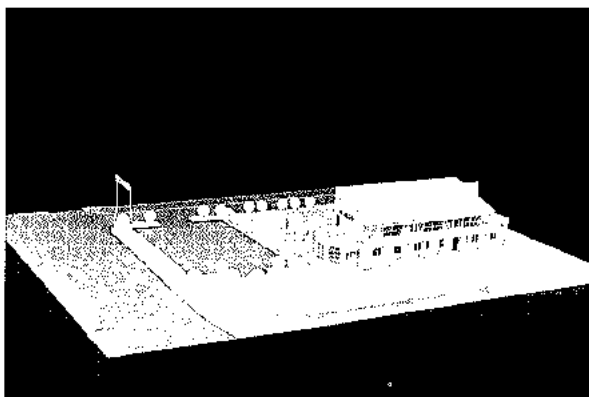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고부가가치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메디슨 공장부지내에 식당과 기숙사를 함께 수용하는 부대시설이다. 대명스키장으로 가는 강원도 홍천의 국도변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으로 낮은 산이 보이는 공기가 맑은 쾌적한 장소이다.

메디슨 공장의 첫인상은 기존의 공장환경으로써 우리가 늘 대할 수 있듯이 비교적 단조로운 건축환경이었다고 생각하던 차에 식당과 기숙사 기능을 수용하는 건축의 설계를 의료받았고 건축주는 전적으로 필자의 의사를 존중하였다.

어떠한 집을 만들어야 할까 하고 구상하

면서 비록 작은 집이라 하더라도 메디슨의 「Guest House」로써 식사, 기숙사, 휴게 기능을 수용하면서 외부 방문객들도 잠시 머무르며 휴식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고도의 의료기기를 생산하기 위한 정확하고 치밀한 작업을 하면서 경험하는 단조로운 일상생활 속에서 휴식 시간을 가지며 식사도 하고 잠도 자면서 자유스러움을 경험하고 활력을 다시 찾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으면 했다.

사실 우리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긴박하고 긴장하면서 살고 있는가? 긴장 속에서 일하는 시간이 있으면, 잠시 동안이나마 긴장을 풀고 마음껏 자연 환경속에서 쉬는 시간은 얼마나 통쾌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대하였고, 건축가로서 기여할 부분이 대단



히 크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디자인으로 발전시키면서 식사공간 앞의 전정을 가벽(Secondary Wall)으로 세워서 식당의 문만 열면 비교적 영역화된 알뜰한 외부공간이 있어서 함께 내외부공간의 비교적 넓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려고 하였다. 그리고 2층의 기숙사로 올라가는 동선을 기숙사 복도와 평행하여 갤러리(Gallery) 개념으로 동선의 유도를 분명하게 하면서, 2층의 기숙사 공간에 비교적 넓은 테라스 공간을 창조하여 바깥의 먼 산을 바라보면서 여유있는 한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전면의 식당과 후면의 기숙사 2개의 Mass를 계단 및 복도 공간의 매개로 분리하면서 단순화시켜 가급적 절제하였다. 건식공법 위 Plaster로 마감하여 특히 각 Mass는 색

상을 얹은 Gray(식당)와 짙은 Gray(기숙사)로 매스(Mass)의 처리를 차별화 하여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경사지붕의 실내천정은 그대로 내부의 경사천정으로 끌어들이면서 바깥의 풍경을 최대한 실내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내부에서도 시원하게 바깥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개방적인 형태로 처리하였다.

지금 한창 공사중이며 다가오는 가을에 건축이 완성되면 희망했듯이 기능적이지만 꼭 자유스럽고 여유가 생기는 집이 탄생할 것을 기대한다. 특히 건축가의 의지가 가능한 한 덜 보이게 하면서 자연스러운 환경과 조화되는, 마치 흘러가는 물과 같이, 가볍게 불어오는 바람과 같이 편안하고 가벼운 분위기의 집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기대가 성취된다면, 건축가로서 경험하는 최대의 행복이 아닐까?

복고주의(復古主義)의 두 얼굴(1)

Restoration with Two Faces(1)

박영호 / 의전 건축사사무소

by Park Young-Ho

새로운 세기, 새 천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문득 이 시점의 화두로 떠오른다. 내일도 그저 오늘 같은 하루다.

해묵은 분쟁으로 얼룩진 오늘의 현실을 지켜보며, 애써 장미빛 미래에 대한 꿈을 접어 둔다. 간절한 소망, 복고 열원은 쉽사리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다가 사무쳐 한이 된다면, 이들을 덮어 둔 채 그 무엇을 새롭게 맞이 한들 다시 아쉬움만 더할 뿐이라는 생각에서다. 돌이켜 지난 세기를 살펴 보는 기사를 대하노라면, 그 짧지 않은 기간이 복고 열풍에 휩싸여 왔음을 느끼게 된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은 20세기 가장 영향력이 컸던 인물 후보로 아돌프 히틀러와 마하트마 간디를 지목한다. 전자는 지구상에 유혈 참극을 일으킨데 대해서, 후자는 선(善)의 힘에 의한 영향력을 이유로 삼고 있다. 공교롭게도 필자의 눈에는 그들의 행위가 복고적이었던 점에서 양자 유사점으로 주목하게 되며, 그 내용과 결과에 있어서의 편이함을 인상깊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한편은 폭력에 의해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는 복고 열망이며, 다른 한편은 불복종 비폭력을 통하여 주권을 회복하려는 복고 열망이다. 결과에 있어서는 실패와 성공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타임이 한세기를 걸고 이들을 지목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그간의 수많은 분쟁과 저항이 그러했으며, 금세기가 다행히 가는 90년대 후반은 이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와 보이지 않을 만큼 복고 열풍이 붓물처럼 터져 나온데서 이해를 돕는다. 서문을 쓰는 요 며칠 사이에도, 해묵은 카슈미르 분쟁 재연이 관심을 돌우며, 체첸과 동티모르에 관한 기사가 이들을 거든다. 이런 이유에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마당에서 한번쯤 복고주의를 짚고 넘어갈 필요를 느끼게 된다. 반성과 그에 대한 대비를 통하어서, 또한 다음 세기를 맞는 마음의 준비로도 부담을 덜 것이다. 물론 분쟁을 관찰하는 것이 본 의도는 아니다. 전쟁과 같이 갖은 힘을 쏟아 붓는 바탕에는 그 사회 지도력이 결집되어 있을 것이며, 그 영향을 받게 되는 다른 부분의 복고 현상을 관찰하는데 도움을 주리라는 생각에서다. 건축물을 아무리 들여다 보아도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렇게 되게한 영향력이 건축 밖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있게 한 밖으로는 눈을 돌려 영향력을 행사한 대상을 주목하게

된다. 그 영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의 복고 열원은 지엽말단에 이르도록 한결 같으리라는 생각에서다. 표면적 차이는 있을 지언정 뜻하는 바 의지는 공통되리라는 기대를 거는 것이다. 만약에 음흉한 속내나 치욕이 있었다면 이를 통하여 그들에게 낯 간지러운 자초지종을 알려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된다.

이 글이 의도하는 바는 사회적 담론의 형성에 있다. 여러 사람들의 견해가 쌓이고 쌓여 다음 세기를 이끌어갈 밑거름의 담론이 된다면 새 천년의 원단이 한갓 12월 그믐 다음날일 뿐이라는 생각을 거두어 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 <필자주>

1. 복고주의 개관
2. 복고주의에 대한 일반 관념
3. 복고주의 유형
4. 복고주의 양면성, 숨은 의미 찾기
5. 역사상의 복고주의
6. 복고주의 반성과 진로

1. 복고주의 개관

• 과거를 회상함

가끔 우리는 자신의 지나온 날을 되돌아 보게 된다. 그리운 고향산천, 부모형제, 이웃의 얼굴들이며, 자라온 곳과 거기에 얹힌 즐거움, 때로는 아픈 추억들마저도 잠시나마 위안을 안겨준다. 옛날을 돌이켜 보며 그리워하고 안타까워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일까.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 수만리 먼 길을 회귀하는 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노라면, 인간마저도 본능에 관한 한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오히려 뚜렷한 자연과 기억을 가진 인간의 심정을 감안한다면, 지워 없앨 수 없는 사무친 것들에야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지난 날 어려운 시기에 자신을 돌봐준 이에 대한 감사와 보답하고픈 마음이나, 반대로 자신을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에 대한 미움과, 더 나아가서 증오심, 복수심 등 지난 일이 오매불망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며 잠재의식의 까마득한 저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기억이라는 것의 끈질긴 과거집착성을 대하며 새삼 놀라게 된다.

현재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분쟁들을 보노라면, 인간 기억의 과거 집착성이 얼마나 괴팍한가에 대한 실제 모습을 대하게 된다. 보스니아 내전에서 코소보 분쟁으로 이어지는 비극, 쿠르드족의 이픔, 평화협정에 이르기까지의 북아일랜드의 가나긴 분쟁,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많은 내전 등, 20세기 후반의 여러 비극은 인간 기억의 복고성이 자아낸 안타까운 예로 보여진다.

인간이 과거를 돌아다보지 않는다면 그런 비극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사람다움을 지닐 수 있었던가는 오히려 뒤를 돌아다 볼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으로 생각된다. 6·25때 포로가 되었던 국군이 북한을 탈출해서 가족의 품에 다시 안긴 감동적인 상봉 소식은 인간 기억이 얼마나 끈질기게 과거에 집착하는가를 말해주는 것으로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오히려 인간에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기억의 임무가 신비해 보일 뿐이다. 이러한 돌이켜 보는 복고적 습성으로 말미암아, 정신대 할머니의 일본에 대한 배상 요구가 가능하며, 나치의 만행에 대한 전범 처단의 정당성이 선다.

지난 일에 대해 반성하며, 기왕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전기도 여기에서 비롯됨을 보게 된다. 과거에 대한 회상은 좋은 면과 그렇지 않은 면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무엇이 복고인가

그러면 복고란 무엇인가. 단순히 과거를 회상

하는 것만으로 복고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에 가깝다 하여 복고적 또는 의고적(擬古的)과 같은 수식어는 불을지연정, 복고(Restoration, Revival, Archaic, Renaissance)의 글자 의미와 같이, 옛것을 재생하거나 옛체제로 돌아간다는 의미에는 미치지 못한다.

'재생' 이라든가 '부활' 이라든가 '회귀' 라는 의미는 실제로 있어서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게 된다. 시간과 세월을 돌이켜 과거로 거슬러 갈 수 없으며, 존재하지 않는 바로 그것을 가져올 수도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고의 현실적 의미는 오히려 의고적이라는 말이 뜻에 부합되어 보인다. -토인비는 Archaic이라는 용어를 쓴다.

자니깐 과거, 이미 죽어 없어진 것은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기억 속에서나, 기록으로, 유물로, 때로는 이상화된 환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현재에 유사하게 재현하게 되는 것이 복고의 실재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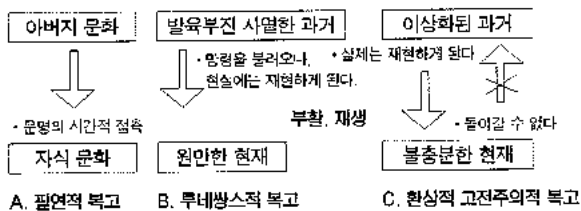
이리하여 영토의 복원, 권위의 복원, 제도의 복원, 인간 관계, 생태환경, 문예의 복원 등 수많은 복원이 복고의 의미로 다시 태어남을 보게 된다. 구체적 형태로 만들어져 복고로 태어나는 데는 과거에 대한 애착이 깊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왜 과거에 애착을 갖는지에 대한 여러 이유가 산견되는 터라, 차츰 밝혀져야 될 것이나, 바라는 아쉬움과 아쉬움에 처한 현재의 어려움에서 일차적인 이유를 쉰다. 어려움에 처해서, 지난 시절 잘 나가던 때를 생각함과 같은 이치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수많은 복고 행위가 계속해서 반복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어려워진다.

토인비(Arnold J. Toynbee)는 저서 '역사의 연구'를 통하여 복고주의에 대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다.

"그것이 아주 옛날이면 옛날일수록, 아주 애석하게 여기는 데다가, 더욱 이상화되어 보이는 과거의 보다 행복했던 상태중, 어느 한 군데로 복귀하려는 기도."라는 정의를 대한다.¹⁾

불란서 혁명후,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등장한 복고주의 경향이나, 1차대전후 베르사이유 체제하에서 독일이 보여준 것이나, 만네리즘시대를 벗어나려는 복고주의 징후 등은 그러한 예다. 근래 우리 사회에서 영웅 신드롬이 인다는 일부 보도는 IMF체제의 어려움 가운데서 서민의 의식을 읽어 내려는 눈치 빠름으로 비쳐진다.

1) A. J. Toynbee: A study of history. vol.6(Oxford 1973) p. 49. 현재의 처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Archaism이라는 표현을 쓴다.



해설1: 과거와 현재의 관계. (도면은 복고에서 르네상스를 구분해 설명한다.)
 *어떤 경우는, 과거로부터 될 가져온다.

• 회상이 현재에 작용함

‘드라나강의 다리’에서 “이 모든 것은 동짓달
 춥던 그날, 드라나강에서 소년이 느끼던 육체적 고통에 집약되
 었고, 생활양식과 종교와 이름과 조국을 바꾸어도 이것만은 그
 를 떠나지 않는다. 체내에 남은 고통의 자취만은 완전히 가시는
 일이 없었다. 가시는 커녕 세월과 더불어 늙어 감에 따라 고통
 은 더욱 자주 나타났다. 훗날 인생살이에서 얻은 병이나 고통과
 는 확연히 다른 것이었다. 그 고통의 어느 순간, 그는 생각했다.
 --- 가파른 독과 그 사이를 흐르는 드라나강에 다리를 놓아, 보스
 니아 동방, 다시 말하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과 살고 있는 고장
 (오스만 제국)을 영원히 연결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
 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해에 이 메메드파샤(오스만제국의 총리)
 의 명령 하에 드라나강에 다리를 놓는 대역사가 시작되었다.”³⁾

이 글은 이보안드리치의 ‘드라나강의 다리’
 (1961년 노벨문학상 수상)의 한 대목이다. --- 이 소설은 오스만
 트르쿠 정령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까지, 보스니아, 세르
 비아 주민들이 겪는 수난사로 유고의 400년 근대사이다. 그 이
 후 코소보 분쟁에까지 이어지는 현대사를 눈여겨 보며, 복고주
 의 역사를 관찰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보여져 인용한다.

정령에 대한 대가로 피의 공물이 되어, 오스만
 제국에 끌려간 세르비아 소년의 이야기다. 장성하여 침략국 오
 스만 제국의 총리가 된 후 끌려가던 때의 드라나강에서의 쓰라
 린 고통을 생각하며 그곳에 다리를 놓게 되었다는 사연이다.

과거지사에 대한 회상이 그로써 끝나지 않고
 현실로써 원가를 만들어 낸다. 어린 시절 망태기에 감혀, 처거
 운 겨울 강을 건너야 했던 그 자리에는 망태기도 나뭇배도 아
 닌, 엄청난 규모의 돌다리로 다시 태어난다.

흡사, 어린 시절 소 판 돈을 가지고 가솔했던

	메메드파샤	정 주 영
과거회상	동짓달 추운 겨울 망태기에 싹러 끌려가던 때의 추억	가난에 찌들린 살림에서 소판돈을 가지고 가솔하던 어린 추억
복고, 재생	망태기, 나뭇배 --- 돌다리	1마리 소 --- 1천 마리의 소
내재된 의미	이스탄불에서 보스니아까지 동서고통로, 침략과 통치 루트	금강산 관광, 그 이상의 사내지

해설2: 우리는 복고의 결과로서 그 행위가 지닌 유희성과 내재된 다른 의미도 주목해야 한다.

가슴아픈 추억이, 오랜 세월이 흐른 후, 1천 마리의 소떼를 물
 고 고향을 찾게끔한 정주영 스토리와 같은 것이다. 결코 회상이
 생각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져 복고를 감행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과거를 돌아다 봄은 자기애의 표현이다

인간이 자신을 아끼고 존중함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인간의 여러 행위가 자기를 아끼는 방향으로 이루어지
 리라는 것도 미루어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만, 본능적 행위란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예컨대 밥먹고 숨쉬는 행위가 자기 자
 신을 위하여 무슨 욕심이나 양탈을 부리는 것처럼 생각되지는
 않는다. 과거 회상이라는 것도 인간에게 기억이 있는 한, 돌
 아다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어서 생명현상을 두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논외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이 본능이라 하더라도
 남을 해쳐 뺏어 먹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때는 말썽이 되는
 것처럼 복고의 대상이 무엇이며, 어떻게 구체적 행위의 형태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문제는 달라 보인다.

복고의 근저에는 자기애(自己愛)라는 지극히
 당연한 인간 본성이 깔려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자기
 아낌의 깊이가 어떠하며, 그것을 어떻게 통정(統靜)하느냐에
 따라 남에게 미치는 영향도 달라 보일 것이다. 이 자기애를 어
 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자기애의 집단적인 발로는 인종청소(人種淸掃)
 라는 기행(奇行)으로도 변질된다. 히틀러 시대의 인종차별 정책,
 게르만 우월주의에서도 엿볼 수 있었으나, 90년대 보스니아, 코
 소보에서 일어나는 인종청소란, 그 지역 민족 간의 인구비례를
 과거로 되돌려 놓으려는 복고적 태도에서 연유된 것이다.

자기네 사람들이 많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아들
 이 벌이는 끔찍한 전쟁으로 비쳐진다. 그 원인이라 생각했던 조야
 한 민족주의(民族主義)장막을 걷어 내면 복고주의의 주책스럽
 고 끈질긴 자기애의 원초적 모습을 대하게 된다. 복고는 본능에
 가까워 민족주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층의 자기애의 병을 앓는다.

우리의 서양 클래식에 대한 복고 행위에 대해
 서는 호기심을 일으키거나, 그냥 장사 속으로 이해를 구하는 듯

2) A. J. Toynbee: 앞 책 p.4~5.

과거와 현재의 만남을, 부자관계의 만남, 복고주의, 르네상스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부자관
 계의 만남은 정상적이며 필연적인, 르네상스는 세구설을 할 수 있는 성장한 문명과 먼 옛날에 죽
 은 아버지 원령과의 만남이라 설명한다.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쾌한 오소가 발견됨을 지
 적한다. 복고주의는 과거로 되돌아 가려는 서도로 정의된다. 이런 경우는 없어진 것들을 가져올
 수도 되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어서, 재현, 복원, 회복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필자는 아들을 함께
 복고의 부류에 넣어 관찰한다. 성립과를 배제하기 쉬우며, 복고의 보편성을 관찰하기 쉬워진
 다. 아울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복고행위에 대한 그 이런 관점의 부담을 덜기에도 도움이 된다.

3) 이보안드리치: 드라나강의 다리(정화출판사) p.20.



코소보 피란민들 어디로 가나. (1999. 3. 동아일보)

하여 자기애의 깊이를 논하기 어려울 정도의 애교로 넘쳐진다. 그러나 나치 복장의 장난감 인형이나 전범의 이름을 딴 상가 간판 등 특별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반응을 일으킨다. 장난기에, 때로는 하찮아 보이는 것마저 다른 의미가 읽혀질 때가 있다. 일 의원들의 신사(神社)참배를 두고 동양 각국에 반응이 큰 것이나, 신나치주의자나 백인 우월주의자의 등장에 대한 우려도 평행적으로 느껴진다.

2. 복고주의에 대한 일반관념

• 선입관(先入觀)의 배제

나치 복장의 인형은 어떤가, 히틀러라는 강패라면 어떤가. 많은 사람들의 느낌이 그렇게 좋을리 없다는 추측을 하게 된다. 인형과 강패가 그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누구나 잘 아는 터이나, 사람의 감정이 어디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다. 나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지닌 사람이 과연 그 인형에 쉽게 접근, 호감을 갖겠느냐는 것은 일반의 관념이며 정서다. 그러나 관념에 사로 잡혀 일반의 정서에 이끌리어 사물을 바로 보지 못한다면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의외로 복고주의는 수많은 문제를 알고 있어서 일단은 사물을 직시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선입관을 제거하면 그만큼 현실을 직시하기 쉬워진다. 이런 것은 나쁘니까 나쁜 것에 대한 복고주의도 마찬가지로 지라든가, 복고주의의 좋지 않은 일면을 두고서 전체에 대한 부정 일반화로 보아 나가는 것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신을 거기에 대입해 본다. 히틀러의 복고주의 열망이 온 세상을 대전의 비극으로 몰아 넣었던 것에 반해, 우리는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어 영광된 조국을 찾아 부활 재생의 복고 의미를 만끽한다. 복고주의의 두 다른 모습을 대하게 된다.

대체로 일반인들은 복고의 달콤한 부분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다. 달콤한 부분이란 생활 주변에 가깝게 와 친숙해진 것을 말한다. 전통 한옥에서부터 한복이나 민예품, 목



1932년. 대중 앞에 선 히틀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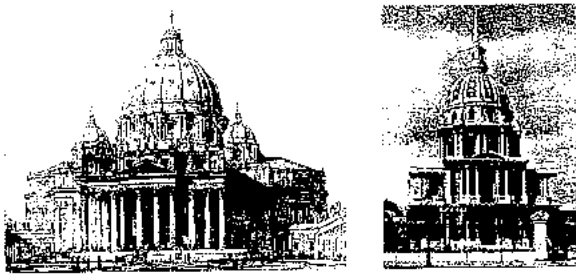
공기물에 이르기까지 비록 그 세가 미미할지언정,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 왔고, 누구나의 가슴 속에 동해되어 있는 것들이다.

복고가 죽어 없어진 것, 이미 화석화되어 있는 것에 활력을 넣어 보려는 작업임에 비해, 이와 같은 것은 전제가 상이한 이상, 그러한 수고로움에서 비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과거로부터 온 것이라 할지라도 현재까지 살아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는 우리의 전통이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있어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는다. 온몸방을 두고서 쌀을 주식으로 한다 해도 복고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이른바 전통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닌 이해와 호감을, 복고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는 데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 그렇다면 복고가 호감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서양(西洋)복고풍에 대해서도 친근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서양 클래식에 대한 동양인의 복고 행위는 시간적 접촉(接觸)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토인비는 어버이 문화와 자식문화의 관계처럼, 시대적으로 잇대어 내려가는 것을 시간적 접촉이라 부른다.⁴⁾ 그리스, 로마를 어버이 문화로 하여 르네상스, 신고전주의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자식문화 관계처럼 서양 복고에는 혈통(血統)이 있어 보인다.

자기애에 기초하여 자기의 과거를 더듬어 나간다는 복고의 특성과 비교할 때, 남의 과거를 살핀다는 것은 뒷조사에 다름 아니거나 호기심이나 동경심 때문이라고 여겨질 것이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서양 인형처럼 문화의 공간적(空

4) 토인비: 종사종 역, 역사의 연구, vol.2(동서문화사)p.442



S. Peter, Rome(1506~1626 건립부)과 The Dome of the Invalids, Paris (1680~1691): 이태리 르네상스와 프랑스는 상당한 시간차를 두고 있다. 알프스를 넘어 가는데 걸린 시간으로, 문명의 공간적 접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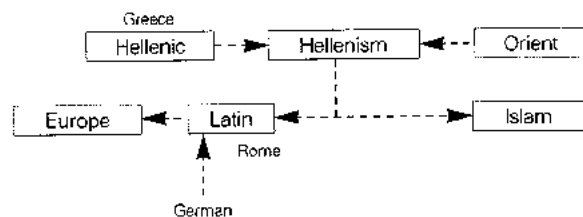
間的) 접촉을 통하여 이미 그들이 이루어 놓은 복고 행위를 흥내내어 가져오는 상행위로 이해된다. 따라서 호불호를 불문하고 이러한 복고 행위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 르네상스에 대한 일반 관념

우리는 르네상스에 대한 호감을 지니고 있다. 근세의 문화 혁명(文化革命)을 가리키는 말인데, 원어(原語)는 재생(再生, Renaitre: 불어)이라는 뜻으로, 고대 미술과 문화의 부흥을 의미한다는 주석은 여러 서양사에 살펴진다.

죽어 없어진 과거의 특정 사실을 현재에 부활 소생 시킨다면 그냥 복고에 그치겠으나, 그것이 성세하여 새로운 문화로 자리를 잡을 때 가히 르네상스적이라 부름과 같이 성공한 복고주의의 대명사처럼 불려진다. 그러나 몇몇 역사는 이러한 명칭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를 보이는데, 그 시기의 문명을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견해로 파악된다.⁵⁾

이태리 르네상스 미술 문화에 있어서의 인본주의(人本主義) 경향은 그 바로 앞선 시기의 문화, 예를 들면 고딕 건축에 내재된 그것과는 확실히 다른 것이어서, 이는 그리스 인본주의의 재생이라는데 대해 별 저항을 느끼지 않는다. 또한 그리스, 로마 건축의 고전적 건축 어휘가 사용되고 있음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 시기에만 한정된 것도 아니며, 그것이 르네상스 예술의 전부도 아닐 것이다. 아울러 오래 전에



해설 4: 유럽의 르네상스: 앞가까지 문화 전수 계통도.

사멸한 헬레닉 문명이 이 시기에 부활, 재생되었다면 거기에서 물려 받은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창조성과 독자성을 지닌 이태

리 르네상스를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는 것이어서 어휘 사용의 부적절을 뒷받침한다.

토인비도 같은 견해를 보인다. 이 말을 처음 사용한 프랑스 저작자 E.J드래클레즈를 소개하며, 이 용어가 그 시기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된데 대하여 의아해 한다. 따라서 그는 이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전 시대에 걸친 부활, 재생의 대명사로 사용한다.⁶⁾

이태리가 그리스, 로마 문화를 재생했다 치더라도, 알프스를 넘어 유럽 제국에 전파된 이른바 공간적 접촉을 통하여 이루어진 주변국의 르네상스에 대하여, 이마저 복고 재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더구나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리스, 로마를 고전으로 알고 이를 응용하려는 고전주의 노력은 서양 건축사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다. 기단, 기둥, 주두, 아취돔, 조각상, 부조 등 고전 건축의 어휘에 대한 끊임 없는 재생 노력이 시도 되는데, 유독 르네상스만이 그러한 시도를 했던 것으로 오해 될 수도 있다. 이태리 르네상스 예술의 천재성을 인정하면서, 자칫 복고주의 전반에 대한 찬사와 무조건적 수용으로 이어져서 불필요한 선입관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경계하는 것이다.

3. 복고주의 유형(類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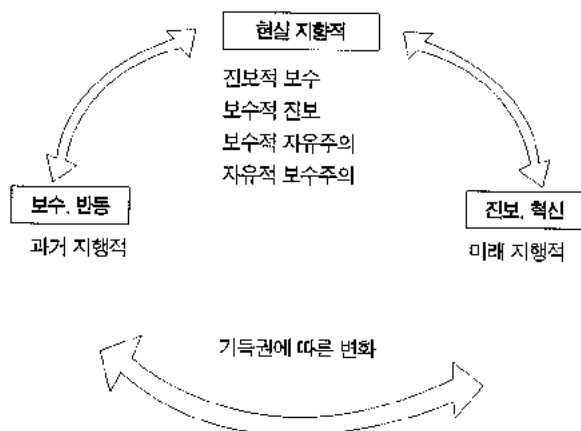
• 자신의 처지를 돕기 위해 과거를 빌어옴

한 집단의 활력을 가늠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그들이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어느쪽에 더 지향적이나에 따라 하고 있는 일의 활력 여부가 달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개발을 위한 모임이라든가, 그 반대를 위한 저지 모임, 또는 서로 돕기 모임이나, 장래를 준비하는 모임 등은 현재적이며, 미래 지향적(未來指向的)인 움직임으로 비쳐진다. 반면 기념 사업회나 추모회, 동호회, 종친회 등의 모임은 보수적이며, 과거 지향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특히 복고적 행위 가운데는 진보적, 혁명적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을뿐더러, 당초의 진보적 태도로부터 힘을 얻으면서 보수적, 민족주의적, 과거 지향적으로 바뀌어가는 추세도 감지할 수 있다. 때로는 대중의 복고적 향수(鄉愁)를 이용하여 호감을 사려하며, 나이가 일체감을 얻어내려는 저의로 비쳐져, 자신의 부족한 능력을 이로써 매우려 한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아들을 상행위로 접어 들 수도 있겠으

5) C.Brinton의 2인 양방위 3인역. A History of Civilization, Vol.3: 옥류문화사. 82) vol.2, p.2, 3

6) 토인비: 알력 vol.2, p.439



해설 5. 사람은 자기 처지에 따라 행동, 사고의 변화를 보인다.

나, 역사상 국론 통일을 원하는 지도자가 즐겨 써온 편법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 결과에 대해서 좋고 나쁘다는 일괄된 평가는 어려워 보이지만, 리바이벌 문화 상품의 세일즈맨이나, 궁지에 몰린 몇몇 전제적 지도자는 그 이름을 여기에 남긴다. 흘러간 음악, 영화 등을 리바이벌 하여 수입을 올리는 문화 상품 관련자도, 대중의 향수가 무엇인지를 알아 내는데 탁월한 재능을 지닌 복고 귀재들이다. '지중해는 우리의 것'이라는 무솔리니 구호나, 제3제국을 꿈꾸며 로마 제국으로의 복고 향수를 부채질 하던 나치의 행적은 그러한 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명분상 영토 회복을 노린 걸프전이나, 포크랜드 전쟁도 그런 점에서 다시 보게 되며, 아들 지도자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 대상을 제거하여 얻어지는 복고와 타협함으로써 얻어지는 복고

대상을 제거함으로써 원상 회복하려는 배척적(排斥的), 보복적 형태로 나타나는 복고주의 경향을 보게된다. 영토(領土)와 권위와 명예의 원상 회복을 노린 많은 분쟁과 오염된 문화의 정화를 위한 배척 운동은 여기에 속한다.

쾨르비아의 보스니아에서 크로아티아의 관계며, 코소보에서 알바니아와의 관계다. 르완다에서 후트족과 투치족의 보복을 주고 받으며 계속되는 학살 행위도 이러한 부류다.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시절의 영토(領土)와 영광을 회복하려 한다면, 이해 관계가 마주치는 상대방을 만나게 된다. 또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피해를 입혀 한이 맺히게한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는 데도, 당사자가 있기 마련이어서, 언제나 구제제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물을 보듯 뻔한 일이다.

탈냉전후의 많은 분쟁이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극으로 치달고 있는데 반해, 복고주의가 빚어낸 해묵은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반기는 소식들은 그나마 위안을 준다. 그것은 제거함으로써 가능한 복고가 아니라, 살려가면서 이루어지는 복고다.

그것은 상생(相生)을 염원하는 이들의 정신적 기반 위에서나 가능한 비극의 탈출구로 보여진다. 이해 당사자의 한편은 복고가 소중한 것이나, 다른 한편은 저주스러운 것이어서 어느 한편을 버림으로써는, 복고주의의 그 즐기찬 끈질김으로 미루어 볼 때, 그 해결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 진전이나, 가나긴 분쟁 끝의 북아일랜드 평화 협정, 교황(敎皇)과 이슬람 지도자의 화해, 만델라의 '진실을 위한 화해 보고서' 등의 소식은 바람에 선 복고주의에 안도의 숨을 안겨준다.

언어 복고운동(復古運動)이나, 외래문화(外來文化) 배척운동도 이와 견주어진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나 생활 문화의 오염된 부분을 제거하고 순수 원형을 찾아 과거로 복귀하는 경우다. 때로는 비운리, 부도덕, 타락한 도시 문명을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순수 생활 운동도 다른 의미로 비쳐진다(루소의 주장에 대한 토인비의 우려)⁷⁾

현재도를 폐지하고 구제도를 부활하려는 노력, 이른바 공화제(共和制)를 대신하는 황제의 부활과 같은 시도들은 제거함으로써 얻어지는 복고주의 또다른 모습들이다.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려는 의도에서 당초의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여 70여년을 거슬러 경복궁(景福宮)의 본모습을 회복하려는 행위는 어떠한가를 생각하게 된다.

• 숭배(崇拜)의 대상으로서의 과거와 에피소드로서 과거

존경과 숭배의 대상으로서 과거를 차용해 오는 경우와 비록 존경스럽다 하더라도 추억의 일화(逸話)로 접어 두어 흥미로운 과거자사로 대접하는 경우를 대비한다.

과거 지사는 유익한 교훈을 가지고 있다. 인류가 남긴 지식과 많은 경험을 통하여 직간접의 가르침을 받고 있어서 그 소중함에 쉽게 동의한다. 위대한 조상(祖上)을 모셔와 그 영광된 과거를 빌어 현재의 교훈을 삼아 어려움을 극복하지는 순수한 뜻에서야 더할 나위 없다.

불란서의 잔다르크, 영국의 넬슨, 우리의 이순신은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위인으로 손꼽힌다. 옛 성현(聖賢)의 말씀이나, 우리 귀에 익은 교훈적 격언은 여기에 속한다. 그러

7) 토인비, 앞책 vol.2, p.73



교황과 이슬람 지도자의 만남 (1999. 3. 12. 동아일보)

나 소견논거(所見論據)로서 기왕의 권위에 의지하여 소신을 펴려 함과 같이 자신의 입지를 넓히려는 의도에서 과거를 차용해 온다면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여 질 것이다. 현재가 어려울수록 그 과거는 더욱 영광스럽게 떠받들어 질 것이라는 암시를 받게 된다. 이 경우 대중의 호응을 얻어 자칫 지도자가 그 정서를 이 융합 경우는 앞서의 분류와 같이진다. 동구 공산주의 국가들이 줄줄이 몰락해 갈 무렵, 발굴한 단군릉을 복원하여 반만년을 거슬러 복고를 감행했던데는 어떤 저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600년전, 오스만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쉘르비아 10만 연합군의 결사 항전지를 민족의 성지(聖地)로 떠받드는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600년전의 항전 의지와 결사의 실천을 쉘르비아의 교훈으로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인종 청소라는 '제거함으로써 얻어지는 복고'와 연관 지워볼 때 일관된 정서를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 민족의 성지를 부인하려는 주변국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데서다.

존경과 숭배의 대상으로서의 복고 행위는 건축에서도 보여진다. 르네상스 건축 이론서를 보면, 그 시대의 사람으로 착각될 정도로 자주 오르내리는 인물을 접한다. 비트루비우스(Vitruvius)라는 기원전에 활동하던 로마 제국의 건축가다. 그의 저서, 건축십서(建築十書, De architectura)상의 건축 철학과 지침들이 1천 오백 여년이 지난 후 부활되어, 당대 건축가들의 건축적 사고에 격언처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 시절에 벌써 비트루비우스 아카데미가 창설되었고, 저서는 여러 사람에 의해 출판이 거듭되어 주변 유럽에 퍼져 나간다. 인체(人體)의 조화미(調和美)와 비례(比例)를 중요시 하는 비트루비우스의 생각이,⁸⁾ 르네상스 건축가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는 여기저기서 살피지는 저마다의 비트루비아노멘 - 최근, 유로화의 아태리축 동전에도 보인다. - 이나 라틴 십자형 교회당 평면 형태를 인간의 신체에 적용시켜 보려는 노력 등에서 실감하게 된다.^{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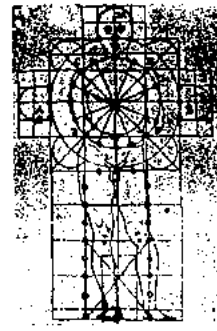
흥미의 대상으로서의 과거는 어떤가. 과거가 위대하고 영광스럽다 하나, 나 또한 못지 않으며, 이 시대가 만만치 않다는 자부심으로 가득차 있는 경우다. 가난해서 배운 것도 없는 어른이셨지만, 부지런하고 올곧으셨으며, 때로는 실수도 잦아, 어머님숙을 무던히 썩히셨다는, 조출한 추억 같은 것이다. 송덕비(頌德碑)나 동상을 세워 추모할 정도는 아니라고 잊지는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앞설 것이다.

마음 먹기에 따라, 과거는 달라 보일 수도 있다. 대단한 분으로 떠받들고도 싶지만, 남의 눈에 자의(恣意)로 비쳐질까봐 다소곳해지는 것인가. 자기애의 통정으로도 비쳐진다. 그러므로 과거지사는 역사의 기억으로 남아 주변에 친근하게 와 있을 뿐이며, 어느 누구에 의해 일방적으로 떠받들려 지거나, 폄하(貶下)되지도 않고, 저마다에 일화(逸話)가 되어 남는다. 때로는 반면교사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페러디 형태로 코메디화 되어 나타나기도 하며, 인습으로, 미신으로 따돌림 당하던 것들이 복고로 태어나 눈길을 끈다.

햄릿과 돈키호테의 동상을 나란히 대비함과 같이, 방자전, 놀부전으로 둔갑하여 마당놀이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패망 로마 제국의 잔영을 연상케 하는 코린티안 주두에 밑둥이 현대적으로 변형된 기둥 무리 들이나, 머리가 잘려 나간 그리스 조각상들의 재현은 이러한 시도의 하나로 보여진다. 그것은 하나의 과거지사에 지나지 않는다며 타이르는 듯 하다.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상 Fra Giocondo판 비트루비우스(베네치아)



교회평면과 인체의 관계 소모 Francesco di Giorgio

8) R.Wittkower: 르네상스 건축의 원리, 이대원 역(대우출판사) p.36-38

9) R.Wittkower: 앞책 p.39

10) R.Wittkower: 앞책 p.33

11) 문화일보: 99.2.24. 4. 19, 동아일보: 99.4.19

News Week(99.4.28.한국어판)-2차 세계대전 중, 의사당 전일 적전시의 전경사진(복구전의 모습이 보인다)이 게재되어 있어서, 지붕등 원형을 살펴 수 있다.

Benister Fletcher: A History of Architecture(Scribners,1975)p 1192

베를린 천도와 함께 99년 문을 연 독일연방 하원의사당의 새단장이 눈길을 끈다. 1894년 프러시아 제국에 의해 건축된 바로크식 건물이라 한다. 구 제국의회 의사당 (Reichstag Hall)이었으며, 나치 독일의 심장부로서 악역을 치른 곳이기도 하여 관심을 모은다. 서양 건축사는 돔(Dome)의 발달사로 보여질 만큼, 외내관이나, 기능에 있어서 돔의 역할이 중요한 것인데, 그 고전적 바로크 형태의 지붕을 철거하여 유리를 씌워 단장을 마감한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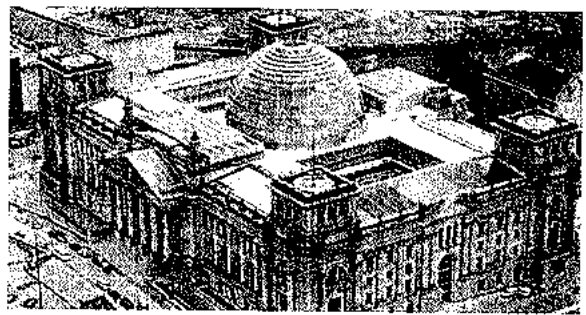
세상에 이름이 높으신 어른의 상투를 잘라 리본을 메드린 격이어서 놀람기도 하지만, 그 용단을 대하여 숙연해진다. 건축물을 인격체로 대하는 일반의 관념을 고려할 때, 과거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과 건물에 대한 단죄로 보여지기도 하며, 유리의 부박(浮薄)함을 마다 하지 않고 그 투명성을 이미 비로 가져옴에 강한 인상을 받게 된다. 일견, 코메디로 보여질 수도 있겠으나, 과거지사를 에피소드화하여 원상 복구하는 복고주의의 한 유형이다. 특히 포스트 모던 계열에 와서는 조상 우려먹기식 비아냥거림으로 비쳐지기 까지하여 과거를 회롱하는 듯한 방자함에 무척 당황하게 되나, 어딘가 자신감에 차 보임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유형 분류는 모든 복고 형태를 망라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또한 문제가 있어 보이는 복고행위만을 주제로 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도 지울 수 없으며, 인간의 행위로 나타나는 그 수많은 형태를 묶어 보려 함이 부질없는 생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고의 저변을 흐르는 행위 동기(動機)들은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 있음을 보게 된다. 이를테면, 나와 우리 집단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리하여 무엇을 이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들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며, 과거로부터 얼마나 거리를 두어야 지금의 우리를 부각시킬 수 있을까 등 그 동기들은 유형을 살피는데 주중한 기능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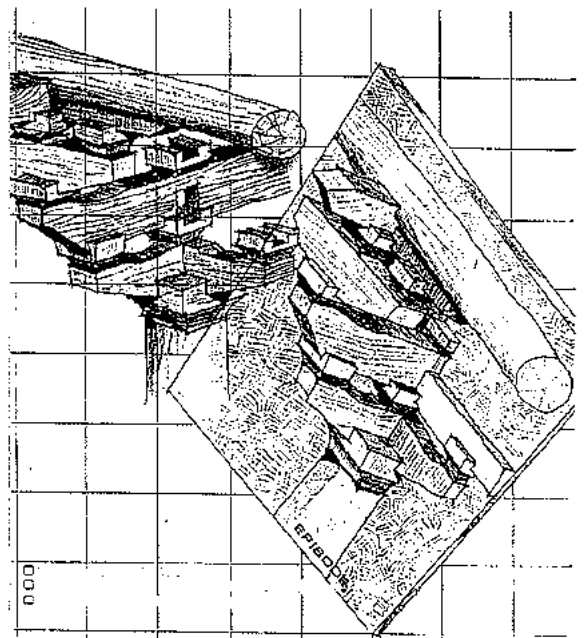
우리는 복고 행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그 행위의 영향을 받는 사람에 의한 반발의 정당성도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오랜 분쟁의 역사는 민족과 영토, 종교, 국가 건설에 관한 복고 행위가 복합되어 빚어진 결과들이어서 어느 누가 함부로 간여하거나, 의불의를 따지기도 어려울 것이다.

식민 지배하에서 피지배자의 반발이 한쪽에서는 영웅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테러리스트로 불려짐과 같은 경우이며, 조상의 일을 계승, 구현하다는 의도의 조형 행위가 다른 한편으로는 창의력이 부족한 디자이너로 비쳐짐과 같은 이치다.

복고 행위는 하나의 유형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두세개로 복합되어 연속되어 보이는데, 예를 들면 존경의



독일 연방 하원의사당(유리 돔으로 새롭게 단장됨. (99. 4. 19 동아일보))



과거에 대한 이해. 에피소드화함으로써 접근한다(필자 디자인, '건축과 환경 표지에서' (1985. 8.)

대상으로 과거를 가져와서 차츰 자기의 입지를 넓히는데 이용하더니 마침내 의도하던 복고를 완성하게 된다는 단계적 스토리와 같은 것이다.

그밖에 생태 환경의 복원, 문화 유산의 복원처럼 보존을 위하여 후세에 남겨 주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복고를 대한다. 학문 연구로써 고고학, 역사학, 전통 연구, 계승 등은 같은 줄기이며, 순수 목적이 손상되지 않는 한 여기서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 이상의 복고행위의 유형을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자신의 처지를 돕기 위하여 과거를 가져오는 경우
- 대상을 제거함으로써 얻어지는 복고
- 대상과 타협함으로써 얻어지는복고
- 존경의 대상으로 과거를 가져오는 경우
- 에피소드로서 과거를 가져오는 경우
- 보존의 대상으로 과거를 가져오는 경우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건축적 고찰

Architectural Consideration for Super Tall Building

여영호 /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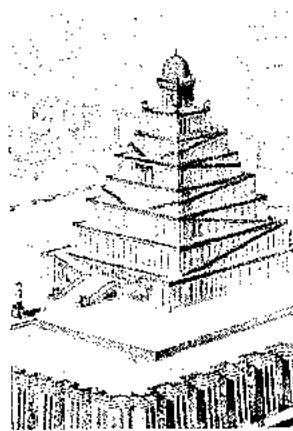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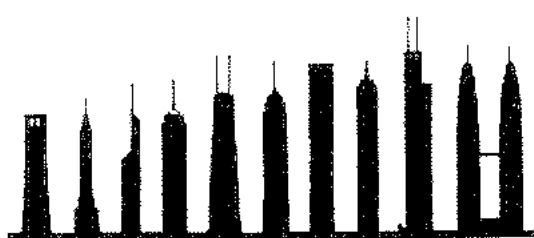
by Yeo Young-Ho

1. 초고층 건축물의 의미

인류의 문명역사를 볼 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사회의 힘과 시대정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건축물을 이용하여 왔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각 시대에 있어서 정치, 경제, 군사 그리고 종교적인 모든 사항들은 특별한 의미로서 한 국가의 시대적인 상징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데, 특히 대규모 구조물과 타워 등은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곤 하였다. 높아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독특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예를 들어 산의 정상과 같이 높은 어떠한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적인 긴장감을 유발시키게 되며 또한 평소에 접하지 못한 자연 경관을 대함으로써 특별한 영감을 가질 수도 있게 한다. 이처럼 높게 솟아오른 구조물은 심리적인 영향도 끼치지만 멀리서도 인지될 수 있는 물리적인 Landmark로서의 의미도 높다고 할 수가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타워와 같은 건축적인 상징성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Campaniles, Steeples, Spires, Cathedral Towers, Obelisks, Minarets, Ziggurats와 같은 건축물들의 위대하고 경이로운 변화가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가 있다. Giza의 Pyramid, Tower of Babel, Eiffel Tower, St. Mark's Campanile, Ulm의 Cathedrals, 유럽의 가장 높은 교회 타워인 Strasbourg와 같은 높은 건축물들은 그저 말 한마디 혹은 그 광경을 회상만 해도 경이롭기까지 하다.

뉴욕의 Empire State와 Chrysler Building, 시카고의 John Hancock과 Sears Tower와 같은 동서대의 고층 건축물은 산업사회의 강한 힘을 상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건축재료의 사용과 놀라운 기술공학의 도전정신을 나타내 보여 준다. 그러므로 높고 특별한 구조물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사회의 문화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위대한 기술력과 조직적인 자원이 존재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초고층 건축물은 사회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복합적인 의미를 띠게 되는데 Eiffel Tower와 Sears Tower 같은 초고층 건축물은 하늘로 끊임없이 치솟는 구조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공학적인 경이로움이라면, 미국 보스턴의 John Hancock Tower 같은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이 인지되는 모습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다.

또한 뉴욕의 MetLife Tower와 Empire State Building 그리고 Chrysler Building과 같은 건축물은 세계의 최고를 자랑하는 초고층 건축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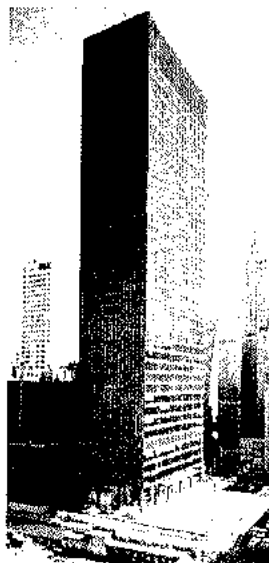
B.C. 2060년 왕의 Ziggur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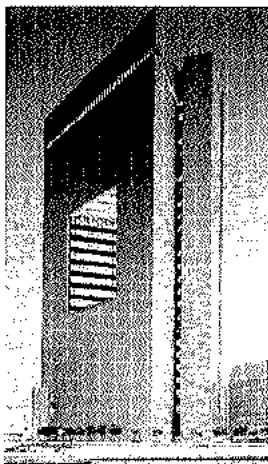
10세기 St. Mark 성당의 Campan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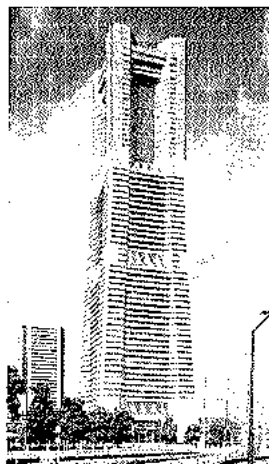
Chrysler Building, N.Y.
by William Allen



Seagram Building, N.Y.
by Mies van der Rohe



National Commercial Bank,
Jeddah by S.O.M.



Landmark Tower,
Yokohama by 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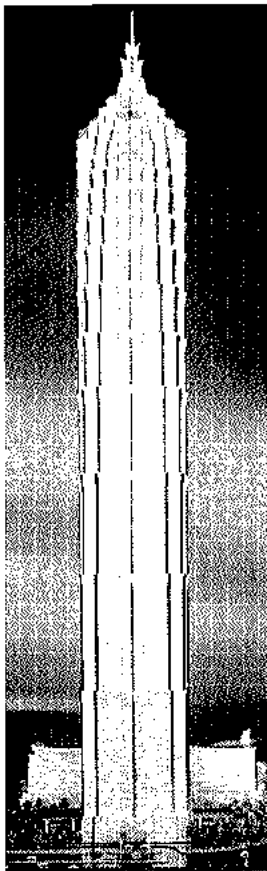
높이 경쟁의 시초였다고 할 수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Rockefeller Center, Seagram Building 그리고 AT&T Headquarters 같은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어서 스타일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이와 더불어 초고층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중요시하는 구조와 미학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초고층 건축물의 형태와 규모를 형성하는 사회, 경제적인 면, 도시 계획적인 면, 문화적이고 지형적인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뉴욕의 Barclay Veseley와 프랑크푸르트의 Messeturm 같은 건축물은 외적인 건축물 형태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도시계획에 관한 법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으며, Citicorp Center 같은 여러 건축물의 형태는 도시의 부동산에 관계되는 법에 의하여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사우디아라비아의 National Commercial Bank와 말레이시아의

Maybank Headquarters는 그 지역의 전통적인 건축과 특수한 기후적인 요소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일본 요코하마의 Landmark Tower 같은 건물은 일본의 국토계획상의 중요한 역할의 의미와 동시에 요코하마시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예라고 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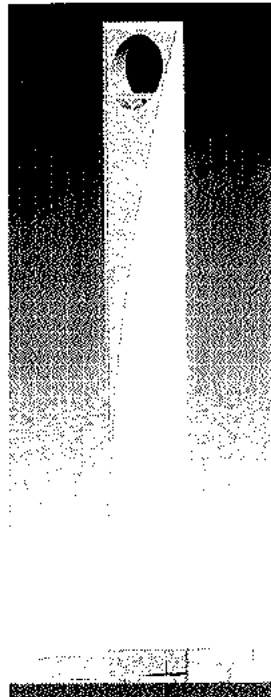
이와 같이 초고층 건축물은 사회, 정치, 경제 및 문화 등의 모든 분야의 영향을 망라한 건축적으로나 기술공학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복합적이며 첨단 구조공학의 결정체인 건축물로서 간주되어 왔다.

2. 초고층 건축물의 용도

이처럼 문화와 역사성을 가진 상징적인 의미로서도, 중요한 초고층 건축물의 실현에 있어서는 그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가장 필수적이다. 특히 현대에 있어서 사회의 분업화 및 인구증가의 밀집현상에 따른 도시 지역에 있어서 대지의 수용 한계성, 지가의 상승 등과 같은 사회, 문화 및 경제적인 요인은 새로운 기능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건축물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건물 유형으로서의 고층 건축물이 필수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산업혁명 전의 수세기 동안 사회 조직체는 생활공간으로써의 단일건물 속에서 작업과 매매 및 생활이 함께 이루어지는 일체 방식의 공간을 전개해 왔으나 19세기 초 새로운 토지이용의 패턴은 고층과 주거공간의 분리에 따르는 생활기능이 구별되는 형태를 파생시켰으며 그로 인하여 각 기능별에 따른 단일 용도로써의 건축물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처럼 단일 용도로서 발달하게 된 건축물들은 재료 및 공학 기술의 발달과 산업사회의 업무량의 증가와 그의 기능상 및 용도상의 특성에 따라 고층건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고층 건축물의 유형은 오늘날에 있어서 기능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주로 사무소, 호텔, 주거시설 등으로 발전되어 왔다. 개별 기능적인 단일 용도로서 보다 발전된 고층 건축물은 미국에 있어서 1960년대 말을 전후로, 도시 생활의 질과 국가적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같은 도시 영역 속에서 기능적인 행태가 이루어지는 사무소, 상업시설, 주거공간의 전반적인 분리경향에 대하여 의문을 야기시켰다. 이러한 의문점에 대한 사회 및 경제학자와 일반시민들의 관심은 도시 내의 기능에 있어서 새로운 이점을 재발견하게 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변화에 따른 대응은 결과적으로 고층 건축물의 복합화를 이루게 하였으며 이와 함께 복합용도 프로젝트는 경제적 측면과 시장성에 있어서 개발업자들에게 점차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 중심부



Jin Mao Tower,
Shanghai by S.O.M.



World Financial Center,
Shanghai by K.P.F.

에 있어서는 다양한 기능의 집중으로 인해 발생된 현대 도시생활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책이 현대사회의 고밀도 특성에 보다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기 위해 발전되어 왔다. 고밀화된 도시지역에서의 생활권에 대한 관심은 생활문화, 안전 그리고 자연환경의 보존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왔으며 이러한 관심은 편안하고 활동적이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보다 유리한 근무 및 주거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개발을 유도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복합용도로써의 개발은 상가, 사무실, 아파트, 호텔 및 오락시설 등의 단일 기능체의 공동이익을 위한 상호 의존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복합용도로써의 건축물은 각 건물 용도의 조화된 원활한 동선 이동을 통한 기능에 있어서의 물리적 조화를 이루하여야 하며, 사용상의 유형과 규모 및 밀도 등을 통한 합축된 플랜의 개발로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복합용도로써의 건축물은 점점 높아 가는 인구밀도와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초고층 건축물로서 계속 개발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복합용도로 개발된 초고층 건축물의 사례로는 L.S.D.H.사에 의하여 설계된 시카고의 Water

Tower Place(62층: 사무소, 호텔, 아파트, 상가), S.O.M.사에 의하여 설계된 중국 상해의 Jin Mao Tower(88층: 사무소, 호텔, 상가), 시카고의 John Hancock Center(100층: 사무소, 아파트, 상가)와 Olympia Center(63층: 사무소, 아파트, 상가), H.O.K.사에 의한 대만의 T & C Tower(85층: 사무소, 호텔, 상가), Stubbins Associates에 의한 요코하마의 Landmark Tower(70층: 사무소, 호텔, 상가), K.P.F.사의 중국 상해의 World Financial Center(94층: 사무소, 호텔, 상가)등이 있다.

3. 초고층 건축물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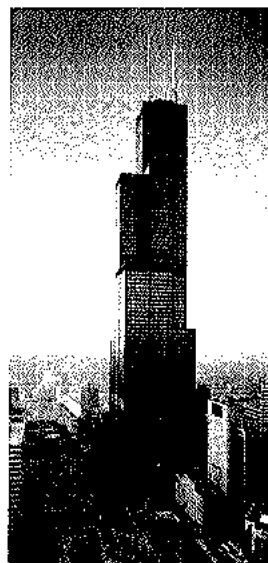
건축 기능 및 용도상에 있어서의 사회적인 요구에 의하여 나타나게 된 초고층 건축물은 특성상 구조적인 부분의 해결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공학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의 진행 과정은 건축 계획적인 문제에 대한 논리적인 해결책의 필요성 및 시장 경제성의 원리와 더불어 공학 기술 발전에 의한 지식의 축적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조적인 부분의 진행이 주도되어 왔음을 알 수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초고층 건축물이 단일 기능의 용도 즉 사무소, 호텔, 아파트 등의 단일 건축물로 이루어질 때 건축 계획적인 부분보다는 주로 구조적인 실행 가능성에 대하여 중요성이 강조되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초고층 건축물에 있어서 직접적인 요소로서 작용하는 구조적인 측면에 비하여 건축 계획적인 면에서는 체계적인 발전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시적인 컨텍스트에 있어서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고려되기보다는 고립된 거대한 매스로만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사회 환경의 변화와 도시 생활에서의 효율성에 따른 복합 용도로서의 초고층 건축물이 계획 발전되면서 구조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복합 용도건물의 건축 및 도시 계획적인 측면에 있어서 기능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보다 용이하게 사용되어지고 유지 관리 될 수 있는가 하는 점들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게 되었다. 초고층 건축물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기존 도시의 스카이라인과 랜드마크 등의 도시 형태를 형성하는 도구로서 특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으며 계속적으로 발전되는 도시속의 거주자에게 환경 및 생태학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좁은 의미에서는 사용자의 동선과 기능에 따르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시스템에 따르는 특성에 의해 사용자 혹은 거주자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행동반경을 가진 유기체로써 간주될 수가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의 초고층 건축물은 구조, 재료, 형태 그리고 스케일 등의 전반적인 특성들이 동일

건축물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기 위한 복합 기능 체로써 발전되었으며, 이러한 여러 기능들이 함께 연결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복합 기능이라는 의미는 기능 그 자체가 건물의 수행하는 업무에 관계 되어질 때에 보다 넓게 건축물에 적용 될 수가 있는데, 이 때 건축물은 보다 많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다 많은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복합 기능 체로서 도시의 형태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적 기능성을 살펴보면 구조적인 기능, 물리적인 기능, 심리화적인 기능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기능으로 설명되어질 수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첫째, 구조적인 기능은 그 건축물 속에 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구조 시스템의 행태가 재료와 시스템 방법에 의하여 나타날 때 실현 가능하며, 둘째, 물리적인 기능은 환경적 혹은 생태학적인 요인과 도시 시스템의 기능속에서, 건축물 자체가 목적하는 물리적인 면과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건축적으로 기능하게 된다. 셋째, 심리화적인 기능은 공간 및 형태 그리고 기능적 스케일에 따른 사용자의 지각력과 연결된 건축물의 감정적인 측면이 고려될 때 가능하며 넷째, 사회, 문화적인 기능은 특정한 시기의 사회, 문화적인 가치나 휴머니티에 대한 공간적이고 심리화적으로 통합된 가치가 서로 조화되어 구체화될 때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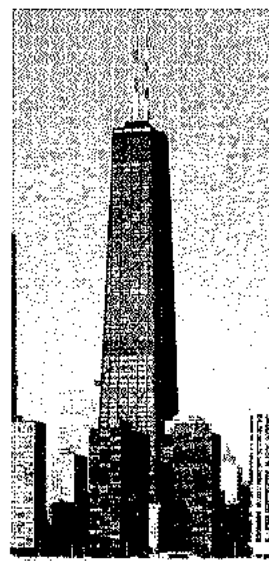
4. 초고층 건축물의 계획

구조적인 시스템에 의하여 형태 혹은 높이가 절대적 영향을 받는 초고층 건축물은 그에 따른 세장비 (Aspect Ratio: 높이/너비)를 고려하여 평면의 규모에 따른 높이가 계획되어야 한다. 초고층 건축물의 기능 및 용도상 필요한 리스 스패를 고려할 때에 평면 규모와 높이의 함수관계는 계획 시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구조적인 세장비는 초고층 건축물의 현재 실현 가능한 기준 예로서 살펴 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시카고의 Sears Tower의 세장비는 6.4 이며 Standard Oil Building은 6.0 그리고 John Hancock Center는 6.6 이다. 또한 뉴욕의 World Trade Center는 6.5 이며 휴스턴의 Allied Bank Plaza는 6.2 이다. 이와 같이 초고층 건축물에 있어서 세장비는 구조물의 Serviceability에 따라 실현 가능한 이론적 조건에 경제성이 고려된 주요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초고층 건축물은 평면자체의 규모도 높이와 연계된 상태에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의 계획적인 조건은 일반적인 건축물보다도 더욱 까다롭게 제약을



Sears Tower,
Chicago by S.O.M.



John Hancock Tower,
Chicago by S.O.M.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단일 용도로서의 초고층 건축물의 계획 시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이, 복합 용도로서 단일 건물 내에 계획되어질 때는 이러한 계획적인 조건들 상호간의 영향을 더욱 더 신중히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복합용도의 초고층 건축물의 계획요소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도시계획 및 교통영향에 따르는 도시적 맥락에서의 영향과 기후조건, 대지조건, 건축물의 위치, 각 기능별 요구에 따르는 시스템 조건에 의한 평면계획요소 그리고 기능분리에 따르는 건축 시스템 전환 층과 기능별 동선계획, 구조 시스템의 적절한 이용 및 구조적인 원리에 의한 전환 층과 기둥 간격 등을 들 수가 있다. 또한 각 사용 공간의 크기 및 용도별 리스 스패의 차이 그리고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층고와 그에 따르는 구조, 기계, 전기적인 시스템의 효율적인 계획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기능별 요구에 따른 모듈 계획과 내부 기둥간격의 고려, 모듈과 기둥간격에 따르는 외부 창문의 적절한 계획 등이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고려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단지내의 교통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초고층 건축물의 특성으로서 유발될 수 있는 대량 교통과 보행자 동선에 따른 해결책에 있어서, 도시 계획적인 차원에서 교통 체계 분석을 통하여 단지내의 차량 및 보행자 동선에 대한 원활한 계획을 이룩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려 사항으로는 차량 및 보행자 동선 문제, 차량 진출입, 주차 공간, Loading System, 대중 교통 및 주변 교통과의 연계 등을 들 수가 있다.

나) 평면계획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바닥 면(Floor-plate)이 각 층의 필요한 층고에 따라 수직으로 쌓여진 하나의 타워로 볼 수 있는 초고층 건축물에 있어서, 이처럼 반복되는 바닥 면에 공간 및 기능적인 효율성을 최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디자인 결정 요소는 매우 중요한 1차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으며, 이와 같이 내부공간의 기능적인 평면 계획에 의하여 형태가 거의 결정되어지는 초고층 건축물의 성공 여부는 유용한 평면 구성단위의 계획에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평면 구성단위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으로는 플래닝 모듈, 리스 스패, 임대자 특성, 사용자 밀도, 로비 부분의 동선 및 보안, 기준 층의 적절한 높이 등을 들 수가 있다.

다) 코어 시스템의 고려사항

코어는 건축물에서 수직 교통시설, 각종 설비 요소 등을 구조체내에 집중시켜 놓은 곳으로서 건축물의 효율성과 기능성을 극대화시켜 주는 수직동선 체계의 기본 요소이다. 이러한 코어 계획에 관계되는 요소로는 기준층의 형태, 규모, 층수, 구조방식, 설비방식 등으로 특히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의 배치 관계는 초고층 건축물의 주요 사항이다. 특히 엘리베이터 시스템은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세밀한 자료분석을 토대로 계획되어야 하지만 계획 초기단계의 규모에 따른 개괄적인 시스템의 결정이 중요하다. 이에 따른 고려 사항으로는 엘리베이터 시스템에 따른 Zoning 방식, Sky Lobby의 기능 및 효율성, 화물용, 소방 및 전방용 엘리베이터, Escalator 및 계단실, 화장실 및 기타 설비 부분 등이 있다.

라) 방재, 피난 및 보안에 대한 고려사항

건물이 고층화될수록 방재 및 피난 시설에 대한 설계는 더욱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방재와 피난에 대한 사항은 법규적인 차원과 기계, 전기적인 부분에서 많이 관계되지만, 건축 계획적인 측면에 있어서 공간 기능의 효율적인 배치와 그에 따르는 동선관계 그리고 건축 마감재료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부적인 고려 사항으로는 엘리베이터, 계단 및 Atrium에 있어서의 Stack Effect, 피난실 및 대피 관계, Smoke Window와 배연 설비, 옥상 부분의 대피용 Heliport, 비상 엘리베이터, 비상 피난계단 및 각 기능별 공간에 대한 보안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 등이 있다.

마) 외벽 부분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초고층 건축물에 있어서의 외벽은 건축물의 미적인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항이지만 건축물 자체의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풍력(Lateral Force)을 직접적으로 구조물에 전달해 주는 물리적으로도 엄밀한 고려가

뒤따라야 하는 부분이다. 특히 초고층 건축물의 외벽은 Curtain Wall 시스템으로서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구조 시스템과 건축 형태미에 따른 디자인에 대한 연구와 기술적인 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고려 사항으로는 Curtain Wall 시스템, 외벽 청소 시스템, 유지 보수관계, 시공 방법 등을 들 수가 있다.

바) 환경 및 미관적인 측면에서의 고려사항

도시 환경과 미관적인 측면에서의 초고층 건축물은 건물의 기능성 만큼이나 주요한 과제로써 인식되고 있다. 한 기업 뿐만 아니라 도시 및 국가의 상징물로써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초고층 건물의 지역성은 여러 가지 고려되어야 할 건축 계획적인 사항에서 간과될 수 없는 제일의 과제로써 대두되고 있다. 거대 구조물이 위치함으로써 파생될 수 있는 환경, 미적 및 심리적인 조건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방법론을 계획 단계에서 마련함으로써 보다 환경 친화적이고 미관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한다. 이에 대한 고려 사항으로는 기후조건 파악에서도 특히 초고층 건축물에 의하여 보행자공간에 야기될 수 있는 바람영향, 일조관계, Zoning 분석, 주변단지와와의 관계, 조경 및 공개공지, 스카이라인, 초고층 이미지, 사회, 심리학적 영향 등을 들 수가 있다.

사)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거대한 구조물로써의 초고층 건축물은 에너지의 대규모 소비원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이 초고층 건축물의 기술적인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건축 계획적인 부분과 연계하여 적용 가능한 사항으로는 Double Wall 및 Photovoltaic System, Solar Chimney, Wind Turbine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아) Marketing 측면에서의 고려사항

초고층 건축물은 도시 기능이 가지는 특성 속에서 상징성 혹은 Landmark로써의 자원활용을 기대할 수가 있다. 또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인구 밀도에 따른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구조물 사공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조건에 대한 장점을 파악한다. 고려 사항으로는 Feasibility 및 건설 가격에 따르는 초고층 건축물의 시장성, 전망대 및 스카이라운지 등의 관광자원으로의 이용, Telecommunication 및 방송을 위한 통신 시설의 임대 등을 들 수가 있다.

지역건축탐방 13 - 서울(상)

Visiting Regional Architecture / Seoul

서울은 6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우리 나라의 심장 이자 얼굴이 되는 도시이다. 그러나 지난 30년간의 급격한 개발시대를 거쳐오면서 고도(古都)로서의 문화적 향기를 상실하였고, 매력과 특징이 없는 도시로 빠르게 변해 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다가올 21세기가 서울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더욱 필요로 할 것임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은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급격한 변화를 보인 도시이다. 서울의 도심부를 둘러싸고 있는 북악, 안왕, 낙산, 남산은 옛 모습을 지니고 있으나 그 내부는 과거의 모습을 찾기 어렵고, 다만 현대적인 모습만이 흘러 넘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서울은 물리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여 그 경계를 찾기 어려운 도시가 되어버렸다. 따라서 서울은 밝고 번영하는 모습과 어둡고 불합리한 모습이 공존하는 이상한 도시로서 인식되고 있다.

서울을 현재의 모습과는 전혀 새로운 환경으로 개발하고 보존할 수 있는 대책과 계획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공공과 민간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여 600년 고도의 역사성이 드러나고 걷고 싶고 인간적인 분위기를 간직하며 다양한 기능과 형태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로 바꾸어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번 특집에서는 서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역사적인 흔적과 오늘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대안을 회고하고 진단하며 모색하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의 글을 마련하였다.

- 편집디렉터 손세관(중앙대학교 교수) -

Seoul is the capital of our country, the heart and face that has cherished a tradition and history for over 600 years. It is regrettable therefore that it has lost its cultural aura as an ancient city and changed into a city featureless and without charm as it has passed through its rapid period of development over the last 30 years. It is even more regrettable when we reflect on the fact that the 21st century may demand an identity and a character from Seoul more than ever before.

Seoul is an unprecedented city in this world in terms of its precipitously rapid change. Pukak, Inwang, Naksan and Namsan which surround the downtown area of Seoul still hold on to aspects of the past. However, it is hard to find these features of the past inside the city but so easy to find the modern features. Seoul has also accomplished enormous physical growth to the extent that it is hard to determine its boundaries. Accordingly, Seoul is recognized as a strange city in which bright and prosperous facets coexist with dark and unreasonable aspects.

This is the time when plans and countermeasures to develop and preserve the capital to realize a totally different environment from the Seoul of today are poignantly needed. We should put all our effort and wisdom into nourishing Seoul as a city where its 600 year history so evidently coexists in harmony with its functionality so that we might feel like cherishing its humanistic environment. In this special story, we have put together articles from many professionals in order to have an opportunity to review the past and the present, and to check alternatives for the future, under the common heading of Seoul.

- Editing Director Son-Sae Kwan (Professor, JoongAng Univ.) -

〈상편〉	북촌의 옛길과 도시 한옥 / 송인호	72
	서울의 강남: 새로운 도시구조와 건축 / 류중석	79
	서울의 근대건축(개화기~1945)탐방 / 김정신	85
	서울의 현대건축: 역사적 도시속의 새로운 건축문화 / 최왕돈	95

〈하편〉	서울 도시구조의 발자취 / 이상구
	서울의 가로공간: 다양한 시민 삶의 터 / 제해성
	미래의 서울 그리고 건축은 존재할 것인가 / 함인선

좌담: 서울, 도시와 건축의 미래

- 일시: 1999. 7. 23(금) 14:00~

- 장소: 대한건축사협회 회의실

북촌의 옛길과 도시한옥 The Old Streets of Pukchon(The North Village) and Urban Hanok(Traditional Korean Housing)

송인호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교수
by Song In-Ho / Professor, Seoul City Univ.

궁(宮)과 도시한옥(都市韓屋)

수선전도(首善全圖, 1840년경)나 한양도성도(漢陽都城圖, 19세기초)와 같은 서울의 옛 지도를 보면서 서울이 참으로 아름다운 도시라는 사실을 확인하곤 한다. 산수화 같기도 하고 개념도 같기도 한 그 옛 지도들은 서울의 구성과 아름다움을 잘 담고 있다.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백악(白岳), 인왕(仁王), 목멱(木覓, 남산), 낙타(駱駝, 낙산) 등 네 개의 산

The palace and the urban hanok

When we see the antique maps of Seoul we come to realize the fact that Seoul is a beautiful city. These old maps which look like a landscape painting and even a conceptual drawing, express the composition and beauty of Seoul. The four mountains surrounding Seoul and the walls of the castle that connect these mountains, form the boundaries. The water flowing from the valleys makes up a stream heading east. Inside the castle walls, palaces and roads can be seen. Large and small palaces and tombs, along with the Sajik and Jongmyo, are painted surrounding Kyunbok Palace and Changduk Palace. The road coming up from Namdaemoon and Jongro forms a T, and the road starting from Jongro heading towards Kyungbok Palace and Changduk Palace shapes up the skeleton of the urban streets. These streets are presented in three straight lines. Somewhat irregular roads cross these streets parallel to the water stream. The structure of old Seoul is read along with nature. It was organized by

圖全善首



수선전도(首善全圖, 1840년경, 김정호 제작, 출처:이찬/양보경, 「서울의 옛 지도」)

Susun-jundo, Kim Jung-ho, around 1840

과 그 능선을 잇는 성곽이 도성의 경계이다. 그리고 골을 따라 흘러내리는 물길이 개천(淸溪川)으로 모여 동쪽으로 흘러 나가고 있다. 도성 안쪽을 살펴보면 궁과 길이 보인다. 경복궁과 창덕궁을 중심으로 사직과 종묘, 크고 작은 궁과 묘들이 그려져 있다. 궁과 같은 주요시설들을 길이 잇고 있다. 남대문에서

layering palaces and streets upon the respected order and form of n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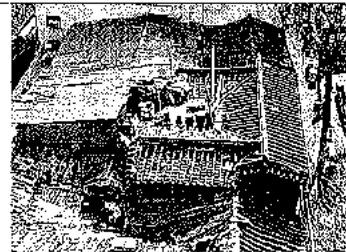
As a part of the Urban Modernization in the late sixties, the stream(Chunggae-chun) was covered up and the nature projected in Seoul rapidly drifted away. In the eighties, the small blocks and streets became occupied by high rise buildings, thus changing the sky lines and covering the mountains. The only remaining hanok reservation zone opened up in 1981, and multi-family housing buildings were vigorously built. It became harder to remember what the old Seoul had looked like. Few palaces, chopped up old roads, and the urban hanok area built in the thirties are all that is left. We will examine these remainders of Pukchon in this article.

Donhwamoon-ro

The street connecting Jongro and Donhwamoon has had much importance since the early Chosun Dynasty. As most of the kings lived in



돈화문로의 어가행렬
King's marching parade on Donhwamoon-ro



돈화문로의 이층한옥상가 흔적
Traces of a two story high hanok in Donhwamoon-ro

돈화문로의 도시조직(1929년 지적도) Urban structure of Donhwamoon-ro

위어져서 올라온 길과 동대문으로 나가는 종로가 정(丁)자를 이루고, 다시 종로에서 북쪽방향으로 경복궁과 창덕궁에 이르는 길이 도시가로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그 길들은 반듯하게 세 줄로 표현되어있다. 그 길을 중심으로 물길과 나란히 또는 교차하면서 불규칙해 보이는 길들이 보인다. 옛 서울의 구조는 자연지형과 함께 읽혀진다. 자연의 질서와 모양을 존중하면서 그 위에 궁과 길을 얹어 완성한 도시이다.

그런데 1960년대 말 이른바 강북근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청계천이 복개되고 세운상가가 건설되면서, 서울에 투영되어있던 자연은 빠른 속도로 지워지기 시작한다. 1980년대의 도심 재개발 사업으로 도심의 작은 필지와 길들은 지워지고, 거대한 고층건물 블록으로 바뀌게 된다. 스카이라인이 바뀌고, 산이 가려진다. 그나마 남아있던 북촌의 한옥 주거지마저 1991년 5월 1일 한옥보존지구가 해제되고, 다세대주택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서 그 경관이 무너지고 말았다. 한편으로 성벽을 복원하고, 조선총독부건물을 폭파하여 백악의 모습을 드러내었다고는 하나, 남아있는 것들로부터 서울의 옛 모습을 유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Changduk Palace throughout Chosun Dynasty, this street has much more symbolic meanings than Hwangtohyun, the street in front of Kyungbok Palace. Donhwamoon-ro possesses much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st. The original width has not changed and Donhwamoon still stands at the end of the road, notifying the roads historical meanings.

Donhwamoon-ro must be comprehended with the urban system surrounding it. If we look at its system, there lies a narrow and straight street parallel to it. To the inside a bent street passes by, and in the most inner part Jongmyo's wall can be seen. The first street in Donhwamoon-ro is a street that has the same function as Pima-gil which lies behind Jong-ro. The second is a waterway coming from Chanduk Palace. The third is the street made along Jonmyo's wall(this road is called Sunla-gil). The symbolic street to the palace(Donhwamoon-ro), the inside street(Pima-gil), the waterway, and Sunla-gil all lies in the north-south direction. These facts are good evidences from which we can identify the

거의 지워지고 망가진 듯한 서울, 이제 몇몇 궁궐만이 남아있다. 그리고 토막토막 난 옛길과 1930년대에 건설된 도시한옥주거지가 남아 있을 뿐이다. 이 글에서 북촌에 남아있는 옛길과 도시한옥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돈화문로(敦化門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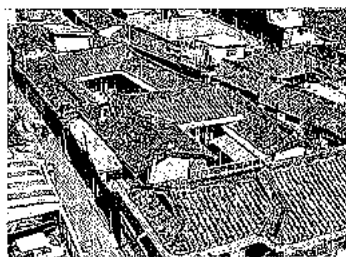
종로에서 돈화문에 이르는 길은 조선왕조 초기부터 매우 중요한 길이다. 조선왕조 대부분의 시기 동안 왕들은 창덕궁에 거했었기 때문에 경복궁 앞의 향토현(六曹거리)보다도 실제적으로는 더 상징적인 가로였으리라 생각된다. 이 돈화문로는 서울의 옛 길의 형태를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다. 길의 폭은 처음 계획되던 당시의 폭을 유지하고 있고, 길의 끝에 서있는 돈화문은 이 길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상기시켜 주고 있다.

돈화문로는 그 좌우의 도시조직과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돈화문로의 도시조직을 보면, 돈화문로와 나란히 좁고 반듯한 길이 보이고, 다시 그 안쪽으로 굽어진 길이 보이며, 가장 안쪽에 종로 담장을 따라서 길이 보인다. 돈화문로에서 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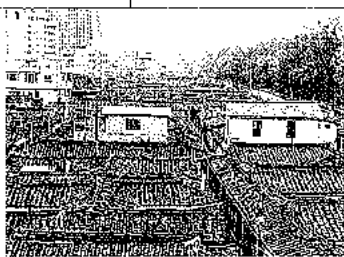
type of streets in old Seoul.

Let's look at the individual hanoks in each layer. The hanoks show the urban system's form which is possessed in each layer. The first layer in between Donhwamoon-ro and Pima-gil is mostly formed with two story high hanoks with commercial functions. When looked from the outside, the structure and form is hardly visible because of the sign boards. But when observed from a higher building near by, the traditional tiled roofing can be seen and the original 'ㄷ' shaped and 'ㄱ' shaped plan could be surmised. The second layer in between Pima-gil and the waterway has a width of one or two hanoks. The third layer is fairly wide where an urban hanok combined with three hanoks can be found. This type of housings has appeared in the course of modern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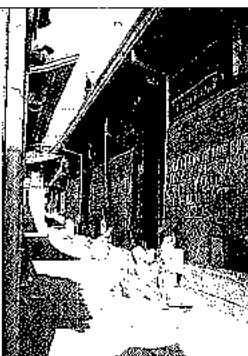
Donhwamoon-ro and it's surroundings are the areas where the urban system of old Seoul is fairly well preserved. The relationship with the streets can be understood and the urban hanoks remains in the area. At the same time ignorant and violent changes can be discovered. The plaza in



와룡동 45번지 한옥, 피마로와 물길
Hanok in Waryong-dong 45 bunji,
Pimasil and the waterway



봉익동 11, 12번지 주거지 전경(위)과 골목길(오른쪽)
Housing area in Bongik-dong 11, 12 bunji



번째 길은 종로 뒤편의 피마로와 같은 기능을 하던 길이다. 돈화문로에 면하여 장랑(長廊)이 서있었는데, 그 뒤편에 난 길이다. 두 번째 길은 물길이다. 창덕궁에서 흘러나온 물줄기로, 지금은 복개되어 굽은 모습으로 그 흐름을 읽을 수 있을 뿐이다. 세 번째 길은 종묘담길(순라길), 궁궐의 경계이다. 궁궐에 이르는 상정도로(돈화문로), 이면도로(피맛길), 물길, 그리고 종묘담길(순라길)이 남북방향으로 나란히 놓여있는 셈이다. 옛 서울에 있었던 길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텍스트이다.

이 지역에서 각 켜에서 한 채 씩 한옥을 살펴보자. 각 한옥들은 각각의 켜가 갖고 있는 도시조직의 형태를 드러내고 있다.

첫 번째 켜, 돈화문로와 피마로 사이에 있는 한옥은 이층한옥상가이다. 옛 장랑의 형태는 가능할 수 없고 그 폭만 확인할 뿐인데, 그 자리에 건축된 이층한옥상가가 몇 채 남아있다. 길에서 볼 때 간판 때문에 그 구조와 모습을 알아볼 수 없지만, 주변 건물의 옥상에서 내려보면 기와지붕과 원래의 ㄷ자형 또는 ㄴ자형 평면을 유추해볼 수 있다.

두 번째 켜, 피마로와 물길사이의 한 채 또는

두 채의 한옥이 들어설 만한 폭이다. 앞 페이지 하단 왼쪽 사진은 와룡동 45번지의 ㄷ자형 한옥인데, 피마로와 물길에 양날개가 면하면서 비스듬하게 남쪽으로 열려있다.

세 번째 켜는 그 폭이 제법 넓다. 위쪽 지역은 막힌 골목들이 불규칙하게 접속되어 가로망을 이루고 있고, 아래쪽 지역은 짧고 직선적인 골목들이 조합되어 가로망을 이루고 있다. 위쪽 지역은 조선후기까지 자연발생적으로 필지가 분화된 지역이고, 봉익동 11번지와 12번지와 같은 아래쪽 지역은 1930년대에 당시 큰 필지였던 땅이 주택개발업자에 의하여 필지가 분화되어 도시한옥으로 개발된 주거지이다. 그 중에 ㄷ자형 평면이 세 채 연결된 연결 ㄷ자형 도시한옥도 있다. 당시 근대화되어 가는 서울에 등장하는 새로운 도시주택유형인 셈이다.

이렇듯 돈화문로 주변은 옛 서울의 도시조직이 비교적 남아있는 지역이다. 옛길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길과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도시한옥들이 남아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지역에서는 새 서울의 무지하고 폭력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종묘앞 광장을 조성하면서 창덕궁에서부터 연속된 도시조직을 지워버렸고, 태화관로라는

front of Jongmyo, new roads damaging the original system, and hanoks randomly cut off are evidence of deformed old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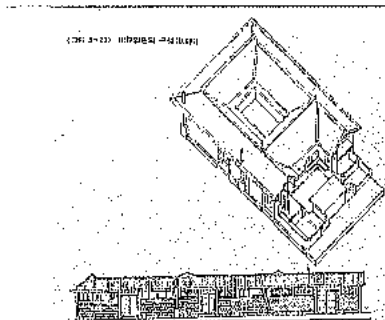
Kahwe-dong

The Kahwe-dong street normally passes by the front of Unhyun Palace and the east of Tapgol Park and leads to Jongro. It originally had a strong flow in the north-south direction but now the perpendicular Yulgok-ro is much stron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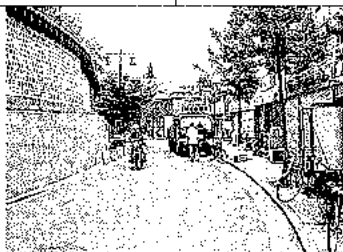
The original characteristics of Kahwe-dong has mostly vanished. It seems impossible to predict that this place was a traditional housing area. The construction of Hyundai building and the court started to destroy the area, and the cancellation of Kahwe-dong as a hanok reservation area encouraged destruction. Even at this moment a construction widening the streets of Kahwe-dong is going on.



Only the housings in Kahwe 11 bunji and 31,33 bunji remain as hanoks. These houses were built vigorously by housing companies starting from the late 1920's. They started to buy in the undeveloped lands and built highly dense housing areas with small to medium sized hanoks. These



연립 도시한옥 (봉익동 12-2번지) Connected urban hanok



순라길(종묘담길) Sunla-g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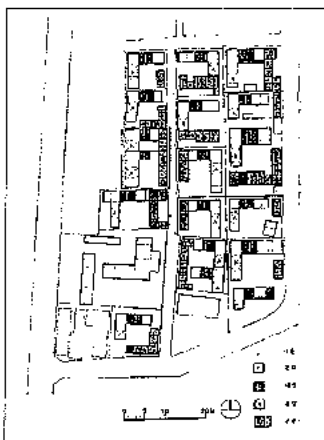
가회동 골목길 Alleys of Kahwe-dong

엉뚱한 길이 동서방향으로 관통하면서 남북방향의 흐름을 잘라 버렸다. 또 종모담길 따라 순라길을 정비하면서 그 길에 면한 한옥들을 기형적으로 잘라버리고, 울긋불긋한 알루미늄 패널로 덮어버렸다. 팔다리 잘린 모습으로 옛 서울의 단면이 드러나 있다.

가회동(嘉會洞)

옛 서울지도를 보면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몇 줄기의 물길이 남북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물길들과 나란히 혹은 엇갈리며 길들이 나왔다. 이 물길은 곧 골짜기를 의미하는데, 골을 따라 삼청동, 가회동, 계동, 원서동이 각각 능선을 경계로 남북방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가회동 길은 원래 운현궁 앞과 탑골공원 동쪽을 지나 종로에 이어진 길이다. 현재는 4차선 폭의 율곡로에 의해 끊겼지만, 원래는 남북방향의 흐름이 강했던 길이었다. 가회동의 옛 모습은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재동초등학교를 지나고, 가회동동사무소에 이르러도 이곳이 전통적인 주거지였다는 흔적을 확인하기 어렵다. 휘문고등학교가 떠난 자리



가회동11주거지의 골목길과 도시한옥

The Alleys and urban hanok in the housing area of Kahwe-dong

were reformed hanoks where new materials such as glass and sheet-zinc were used and the plans were simplified.

에 현대사옥이 들어서면서 망가지기 시작해서, 창덕여고 자리에 헌법재판소가 들어서고, 한옥보존지구가 해제되면서 급속도로 망가지고 말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거지 인쪽에 동서도로가 개설되면서 골을 따라 남북방향으로 형성되었던 동네의 영역성이 완전히 흐트러지고 말았다. 그리고 지금도 가회동 길을 두 배 이상 넓히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나마 남아 있는 한옥주거지는 가회동 안쪽의 11번지와 31, 33번지 일대의 도시한옥주거지이다. 192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주택경영회사들에 의하여 대규모로 공급된 이른바 집장사집이다. 그들은 1930년대 전후로 한 시기에 대형 필지나 주거지 안쪽에 남겨져 있던 구릉지를 매입하여, 그 자리에 고밀도로 중소규모의 한옥들을 집단적으로 건설하여 공급했다. 유리화 함석 등 새로운 재료가 사용되고, 평면이 단순화되고 표준화된 소위 개량한옥이다.

가회동 31, 33번지의 도시한옥주거지는 남사면에 형성된 주거지인데, 남북방향의 경사진 골목길을 중심으로 한옥들이 군집하고있다. 가회동 11번지는 서사면 주거지로, 경사와 나란히 난 남북방향의 골목길을 중심으로 한옥들이

The urban hanok area in Kahwe 31,33 bunji is formed towards the south and, in Kahwe 11 bunji, towards the west. In both areas the houses are gathered along the alleys in the north-south direction which are in connection with the housing system of pre-existing hanoks. Most of the plans of the hanoks in the area are 'ㄷ' shaped open to the south or east. Open 'ㄱ' shaped hanoks where 'ㄴ' shaped and 'ㄷ' shaped hanoks are placed together, with a slight opening on the edges, can also be seen. The north-south direction alley and the 'ㄷ' shaped hanok were constructed simultaneously, they go as a pair.

By this way the urban hanok is open to light and at the same time is able to possess a ma-dang closed to the street. The alleys of this area lies slanted towards the south or west formed by steep stairs.

We can experience the sectional changes of the streets and view the downtown area and Nam-san, when walking along the stairs. The topography reflected on the road system makes this experience possible.

가회동11주거지의
엑소노메트릭
(출처: 김영수, 경사지 도시
한옥의 주거지구조와 외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논문)

Axonometric drawing of
Kahwe-dong 11 bunji



가회동11주거지의
골목길
Alleys of Kahwe-dong
11 bunj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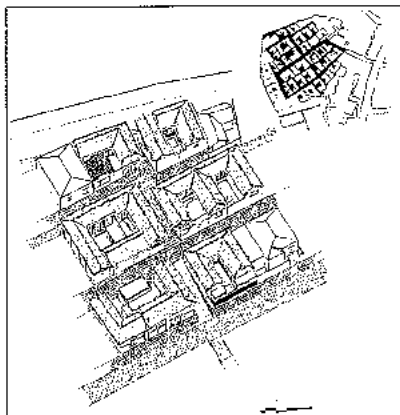


군집하고 있다. 이 주거지들이 주거지구조는 남북방향의 길을 중심으로 형성된 옛 주거지조직의 연장선상에서 완성된 것이다. 그 위에 놓인 도시한옥의 평면은 남쪽 또는 동쪽으로 열린 ㄷ자형 평면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경기지역의 전통적인 민가 평면유형에 바탕을 둔, ㄱ자와 ㄴ자가 마주보면서 양 모서리가 열린 ㄷ자형도 보인다. 남북방향의 골목길과 남쪽으로 열린 ㄷ자형은 동시에 건설된 것으로,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 도시 속에서 한옥이 향(向)에 대해 열려있으면서 길에 대해 닫혀있는 마당을 가질 수 있는 구성방식이다.

이들 주거지의 골목길들은 남사면 또는 서사면에 만들어지면서 경사졌거나 가파른 계단을 이루고 있다. 오르내리면서 가로공간의 변화있는 단면을 체험할 수 있고, 시내와 남산의 경관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한 체험은 지형이 투영된 가로공간에서 비롯된 것이다.

내수동(內需洞)

지금은 폭이 확장되고 다리(索橋)도 복개되어



내수동70번지의
역소노메트릭
(김영수 석시논문)

Axonometric
drawing of Naesoo-
dong 70 bunji

Naesoo-dong

Though it is hard to imagine what it originally looked like,

옛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지만, 사직단(社稷壇) 정문에서 종교교회를 거쳐 세종로에 이르는 길은 옛 서울에서 중요한 중로(中路)의 하나이다. 이 길 남쪽에 면한 내수동은 조선후기에서 1930년대에 이르는 도시조직의 흔적이 남아있는 동네이다.

내수동 70번지의 도시한옥주거지는 큰길에서 한 켠 들어서 있다. 원래는 한 필지였으나 앞서 살펴본 다른 도시한옥주거지와 마찬가지로 1930년대에 도시한옥주거지로 개발된 지역이다. 옛 경희궁의 북쪽 경계에 맞닿은 지역으로 가파른 서북사면에 입지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옛길의 모습이 가장 잘 남아있는 지역으로, 옛길의 다양한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육 미터 남짓한 폭에 한옥과 축대 위의 한옥이 마주보고 있는 길, 두 사람이 간신히 비켜 지나갈 만한 좁은 길, 한쪽이 축대에 면한 좁고 높은 길, 계단 길 등 여러 단면의 길들이 있다.

이 길들은 여러 가지 재료로 그 윤곽이 한정되어 있다. 거칠게 쌓아 올린 축대, 함석 차량의 날렵한 처마선과 그 아래의 짙은 그늘, 기둥을 드러내면서 불룩하게 내민 화장담, 사고석과 붉은 전돌을 쌓아서 만든 그 담장의 질감, 벽돌과 타일, 붉은 오지관으로 만든 굴뚝, 이러한 재료들이 드러내는 질감은

the street connecting the entrance of Sajik-dan and Saejong-ro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streets in old Seoul. To the south of this road is Naesoo-dong where traces of urban system of the late Chosun Dynasty to the 1930's remain.

The urban housing area of Naesoo-dong is one layer inside of the main street. As in Kahwe-dong this area was developed into a hanok area by housing companies in the 1930's. It lies in a steep hill on the west-north side touching the northern boundaries of Kyunghee Palace. Naesoo-dong is the area where the old streets are most well preserved, allowing us to study diverse styles of old streets. A road about six meters wide where hanoks are facing each other, a so narrow street that two person can hardly walk by, a narrow road where one side is a tall wall, stairways. All these are a part of the diverse styles of old streets.

These roads define its outline with different materials. Roughly stacked up foundations, The acute roof with sheet-zinc shades, the dark shadows below, the roughness of the walls, bricks and tiles, the chimney.



내수동70번지의 골목
Alleys of Naesoo-dong 70 bunji



내수동70번지의 골목
Alleys of Naesoo-dong 70 bunji

가회동11주거지의 계단 골목길 Stair alleys of Kahwe-dong 11 bunji

옛 한옥주거지만이 갖는 형태적 특질이다. 내수동의 도시한옥주거지에는 서울 옛길의 윤곽과 비례, 재료와 질감이 잘 남아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이른바 내수동 1, 2지구로 도시재개발 예정지구이다. 이제 내년이 되면 모두 헐리고 이 자리에는 십여 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미 몇 년 전에 집주인들은 다른 동네로 떠나고, 많은 집들이 빈 채로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다.

인사동(仁寺洞)

우리는 인사동을 서울의 가장 전통적인 거리로 인식하고 있다. 옛스러움과 옛 문화를 잘 간직하고 있는 거리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인사동에 가보면 옛 모습을 짐작하기 어렵다. 남아있던 조선시대 한옥들은 남산골 한옥촌으로 뿌리뽑힌 채로 옮겨졌고, 옛날 태화관이 있던 자리에는 이십층 짜리 고층건물이 솟아 있고, 안국동 로타리에서 탑골공원에 이르는 길도 삼사 층 짜리 콘크리트 건물들이 들어서 있으며, 지금도 국적불명의 건물들이 공사

중이다. 게다가 윤현궁 쪽에서 인사동을 관통하는 길이 새로 뚫리면서 도시조직은 결정적으로 망가졌다. 동서방향의 길은 가회동과 돈화문로에서 그랬던 것처럼 옛 도시조직을 일시에 파괴하는 주범이다. 가구 안쪽에 남겨져 있던 도시한옥들이 큰길에 드러나면서 더러는 잘리고 더러는 새 건물로 바뀌었다. 그나마 길 안쪽에 골목길 따라 도시한옥들이 남아있어 인사동의 옛 모습을 짐작케 해주는 것이 다행스럽고 감사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동의 도시공간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무엇인가. 귀금속 가공 공장으로 바뀌면서 망가지거나, 새 길이 나면서 잘리거나, 아니면 재개발을 기다리고있는 다른 한옥지구와 달리 그래도 인사동이 살아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물리적인 도시조직과 건물, 가로공간의 윤곽은 거의 망가졌지만 우리는 이 인사동에서 전통의 흔적, 옛 서울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도시한옥들이 화랑, 골동, 표구, 찻집, 한식집 등 전통적인 형식과 관련된 업종으로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다소 표피적일 지라도 옛스러움과 과 문화를 자랑으로 삼아 길의 독특한 분위

The tangibility by these materials is a unique feature that hanok housings have. In the urban hanok area of Naesoo-dong the outline and proportion, materials and their properties are preserved.

But this area is specified as an urban redevelopment zone, and next year all the hanoks are scheduled to be torn down and buildings about ten stories high are planned to take its place instead. Several years ago the residents have already moved out, and many empty houses are just waiting to be redeveloped.

Insa-dong

We think of Insa-dong as Seoul's most traditional street. As a street that has kept our culture and antiquity very well. But if we actually go there it is hard to say so. The hanoks that has remained from Chosun Dynasty has been totally removed to Namsan-gol hanok village, a twenty story high building

stands in the place where Taehwa-gwan used to be, three to four story buildings lie on the street from Anguk-dong rotary to Pagoda Park, and there are still buildings of unknown nationalities being constructed. Especially the street from Unhyun Palace to Insa-dong has definitely ruined the urban system. Streets that go in the east-west direction are, as in Kahwe-dong and Donhwamoon-ro, the main criminals that destroy the old Seoul's system. The hanoks in the inside became cut off or replaced with new buildings as it became exposed to the main street. It is very thankful that urban hanoks remain in the inner alleys and make it possible to presume what Insa-dong was like in the past.

Even the situation is so, why is the urban space, Insa-dong, so valuable to us? It is because we can sense the atmosphere of old Seoul even though the physical urban structures, buildings and streets have been destroyed. These urban hanoks transformed into businesses somewhat related to tradition, such as, galleries, antique shops, mount shops, tea shops, and traditional restaurants. It may be superficial but these shops help preserve



내수동 70번지의 골목
Alleys of Naesoo-dong 70 bunji



인사동 한옥상가와 고층빌딩 Commercial
hanoks and high rise buildings in Insa-dong



내수동 70번지의 골목 Alleys of Naesoo-dong 70 bunji

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인사동의 물리적인 모습을 재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꼭 민속촌처럼 전통한옥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옛것과 물리적으로 잘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을 유도해야 한다. 지키고 권해야 할 가로공간의 형태적 특성은 스케일과 질감이다. 이제라도 현재의 길 폭을 유지하고, 가능한 한 필지의 통합을 규제하고, 기존의 건축법을 넘어서 가로공간과 경관의 유지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필요하다. 그러면서 보다 문화적으로 성숙되고, 그리고 전통적인 분위기(Aura)를 느낄 수 있는 지역으로 진화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도시 가로공간

도시내의 네 지역을 살펴보면, 돈화문로에서는 서울 옛길들의 유형들을 정리할 수 있었고, 가회동에서는 경사진 대지 위에 만들어진 길들이 지형에 의하여 어떻게 힘을 얻고있는가를 볼 수 있었다. 내수동에서는 길의 윤곽을 이루는

the atmosphere of the street.

Though it may seem a bit late, we should put our efforts on the regeneration of Insa-dong's physical appearance from now. This does not mean that we should build another Minsok-cho, but induce designs that accord to the past physically. Scale and material property are characters of form that we should abide by and promote. Starting from now, we should maintain the street's width as it is now, prevent the lots from being unified, and make an institutional background that encourages the upkeep and regeneration of the street's scene and space. At the same time, it should be able to evolve into a culturally mature place where traditional aura floats in the air.

Urban street space

We have examined four areas within the walls of the castle. In Donghwamoon we studied the type of streets in old Seoul, Kahwe-

재로들에 주목했고, 인사동에서는 길의 분위기가 살아있음에 주목했다. 각각의 길들은 점점 잃고 있는 옛길들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도시공간들이다.

도시가로공간은 도시와 건축이 만나는 경계면이고, 그 경계에 관계가 표현된다. 남아있는 도시한옥들은 서울의 옛 모습(Configuration)을 보여주는 단서들이다. 1930년 서울이 근대화라는 몸살을 앓으면서 만들어낸 도시조직이다. 그 시대 서울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 도시한옥들에 의해 망가지고 있는 것을 걱정하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보면 그래도 그 변화는 옛 서울의 연장선상에서, 전통성을 잃지 않으면서 근대화된 도시에 적응한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도시한옥과 도시한옥주거지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근대적인 도시주택유형이다. 196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옛 서울은 파괴되고 있고 변화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우리가 생산해낸 도시건축유형과 도시가로공간은 어떤 모습인가? 이 시기는 그저 지우기와 망가뜨림으로만 기억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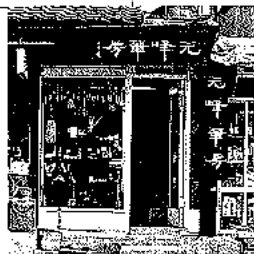
본문에 인용된 도면 중 자료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도면은 「도시형한옥의 유형연구」(송인호, 서울대 박사논문, 1990)에서 인용한 것임.

dong showed us how streets lying on a steep site acquire strength, the materials that form the streets are emphasized in Naesoo-dong, and Insa-dong showed the lively aura of the street. Each street is an urban space that awakes the significance of old streets which has been gradually fading.

Urban street space is the boundary where architecture and urbanism meets, and at the boundaries, lies the relationship. Remaining urban hanoks are clues to the configuration of old Seoul. They are the urban structures made in the 1930's, a period of struggle for modernization. At that time there were criticism that these urban hanoks were ruining the beautiful appearance of Seoul. But if we look now, the change at least lied on a linear line with old Seoul. It was a period of adjustment to urban modernization without loss of our tradition. Urban hanok and its housing area were the modern urban housing type made in this progress. Since the 1960's old Seoul is being destroyed rapidly. What kind of urban architectural form or urban street space have we made during this time? Is this period only going to be remembered for destruction and damage?



통인화랑의 중정
The central court of Tong-in gallery



인사동 한옥상가
Commercial hanoks in Insa-dong



인사동 길
Street of Insa-dong

서울의 강남: 새로운 도시구조와 건축
Kangnam of Seoul: New City Structure and Architecture

류종석 /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by Ryu Joong-Seok / Professor, Joongang Univ.

강남개발의 역사

세계의 수도를 살펴보면 예외없이 큰 강을 끼고 있다. 런던의 템즈강이 그러하고 파리의 세느강이 그러하다. 그러나 서울의 한강처럼 강을 사이에 두고 나뉘어진 두 지역이 도시구조와 성격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도시도 드물 것이다. 따라서 강남의 새로운 도시구조와 건축을

History of Kangnam Development

Almost all the capitals of the world without exception have large rivers, like the Thames of London and the Seine of Paris. However, it is very rare that the two regions of the city formed by the river's division show such striking difference in terms of structure and nature as those formed by the Han river of Seoul. Accordingly, it seems proper to examine the cause that brought about this difference, before mentioning the new city structure and architecture of Kangnam.

Kangnam was developed after the 1970's, which corresponded to Korea's period of rapid growth. In some sense, this region not only played a pivotal role that enabled our rapid growth, but also was home to some of the obnoxious practices that accompanied that rapid growth. Kangnam, which represents the growth legend of our country, was created as part of the Southern Seoul Development plan led by Park, Hyung Sik in the early 1980's. When this private-led plan was foiled, the city of Seoul temporarily constructed the third Hangang Bridge in 1966 and opened the Seoul-Suwon section of the Kyungbu

연금하려면 먼저 그 차이를 가져온 원인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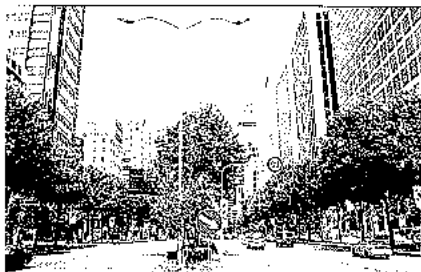
강남은 우리 나라의 고도성장기에 해당하는 1970년대 이후에 개발된 지역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견인차의 역할과 함께 고도 성장에 따른 각종 폐단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렇듯 우리 나라의 성장신화를 대변해주는 강남은 1960년대 초반 박흥식이 주도한 남서울계획안에서 태동되었다.

민간주도의 이 계획안이 좌절되자 서울시에서 1966년 제3한강교를 가설하고, 1968년 경부고속도로의 서울~수원간을 개통함으로써 강남개발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를 갖추고 본격적인 강남개발을 주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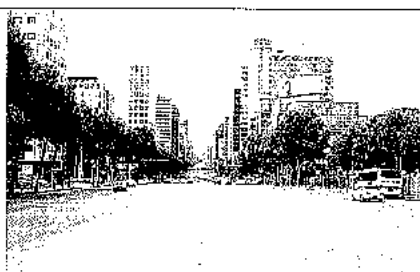
그 사발점은 70년대 초에 시작된 영동지구 구획정리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여의도의 10배가 넘는 약 900만평에 이르는 강남의 땅을 개발하는 엄청난 사업이었으며 당시 논밭이었던 이 지역이 우리 나라 신흥 업무중심지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된 역사적 사업이었다.

옛날에 서울로 진입하는 관문 중에서 과천을

Expressway in 1966, preparing the infrastructure for Kangnam's development and leading to full-blown development. The starting point was the Youngdong district arrangement project launched in the early 1970's. The project was a tremendous one which planned to develop the area of Kangnam, covering about 9 million pyung(1pyung=3,3058m²), more than ten times larger than the area of Yoido, and was a historical project attempting to convert this region, filled with rice fields and dry fields, into a newly emerging business downtown. This project also led to the real estate speculation on so called Maljuk Street(near Yangjae Station), famous as stopover point along the path from Namtaeryung to Kwachon, among the gateways to Seoul. In late 1970's, reclamation work in Jamsil district was conducted to create a new development area of 750,000 pyung, and the development of the east part of Kangnam was fully launched. Songpa district was developed as the Kwangju Large Complex Creation Work(Songnam of present) to move poorly-maintained house after war, and this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development of Jamsil. Jamsil new town, for which the development plan had been established in 1974, was designed to accommodate a population of 250,000



테헤란로는 업무기능 위주로 특화되어 있으며 도시설계
를 통한 계획적 가로경관의 조성을 시도한 지역이다.
Taeheran road specializes in business functions.



강남대로는 양재역, 강남역, 신사역 등 중요한 지하철역과 교차하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업 및 업무기능이 입지하고 있다.

거쳐 남태령을 넘어 오는 길과 함께 중간기착지로 유명했던 소위 말죽거리(양재역 부근)의 부동산 투기를 유발했던 사업이기도 하였다.

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잠실지역의 공유수 면매립공사가 시행되어 75만평의 신개발지가 조성되고 강남의 동쪽지역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된다.

전후 불량주택을 이전시키기 위하여 조성한 광주대단지 조성사업(현재의 성남)이 추진되면서 개발된 송파지역이 잠실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1974년에 계획한 이 수립된 잠실 뉴타운은 1100ha의 부지에 25만의 인구를 수용하도록 계획되었으며, 자동차 위함이 배제된 보행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녹지체계와 결합하는 등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근린주구 개념이 도입되었다.

그 이후 강남은 신흥 업무의 중심지역으로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다. 런던의 도크랜드 지구, 파리의 라데팡스 지구 등이 구도심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업무기능에 대한 신규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개발된 신도심이듯이 강남은 서울의 구도심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업무기능을

수용하는 서울의 라데팡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강남의 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포화상태에 도달한 강북의 인구와 각종 시설을 강남으로 이전하려는 강력한 정책의지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강남의 도시구조와 기능

강북과 대비하여 강남의 도시구조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격자형 가로망체계일 것이다. 격자형 가로망은 히포다무스(Hippodamus)의 영향을 받은 그리이스의 식민도시인 밀레투스(Miletus)에서부터 이미 도입되어 널리 활용되어 왔던 고전적인 가로망 계획기법이다. 당시의 강남개발을 담당했던 계획가와 행정관료들에게는 강북의 자연 발생적인 부정형 내지는 방사형상형의 가로망 체계보다는 격자형 가로망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했을지 모른다.

교통소통의 효율성 측면에서 격자형 가로망의 장점은 익히 알려져 있으나 방향감각의 상실과 장소성의 부재

in lots of 1100 ha. An epoch-making concept of green housing was also introduced such as a pedestrian system that eliminated pedestrian contact with cars in conjunction with the green belt system.

After that, Kangnam accomplished substantial growth as the central area of new business. As the dockland of London, and Ladepons district of Paris are the new downtowns that were developed to accommodate the new demand for business functions that the old downtown areas could not accommodate, so Kangnam strengthens its position as the Ladepons of Seoul. Behind the rapid promotion of Kangnam development in such a short period lies the strong commitment of the Seoul authorities to transfer various kinds of facilities and population of the Kangbuk area which had already reached saturation point at that time.

City Construction and Function of Kangnam

The most striking thing in the city structure of Kangn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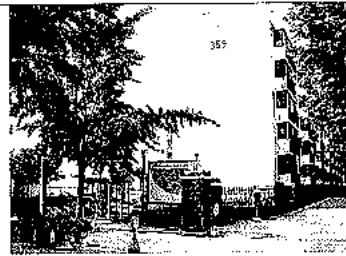
compared with Kangbuk, may be the lattice-type horizontal network. Lattice horizontal network is a classical horizontal network planning technique which was introduced in Miletus, the colonial city of Greece, by Hippodamus, and has been widely used in other countries. For the planners and administrative officials who took charge of Kangnam development at that time, it was a matter of course to introduce a lattice-type horizontal network, rather than a naturally generated indeterminate form or a circular type horizontal network of Kangbuk. The advantage of a lattice-type horizontal network in terms of effectiveness on traffic were widely known, but the weak points such as loss of a sense of direction and lack of locality were not known. Drivers who are not accustomed to the geography of Kangnam have no choice but to remember the first letter of the name of main roads extending east to west and north to south, or guess the direction they need to drive in Kangnam reg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Onjuro, the single curved road, is not confused with other main roads extending south to west, the lattice type horizontal network extending straight is considered to be a failure in terms of direction and locality, even though it may



젊은이 거리로 불리우는 강남역 주변
Around Kangnam station, it is called the street for the youth.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는 제일생명 뒷골목
Back street of Cheil Life Insurance is famous for densely populated amusement facilities.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잠실 아파트 단지
Apartment complex of Jamshil is going to be redeveloped.

등의 단점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강남의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운전자들은 어렵직직으로 방향을 가늠하기도 하고, 강남의 동서, 남북 방향으로 뻗은 간선도로의 이름을 첫글자만 따서 외우고 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남북방향으로 난 간선도로 중에서 유일하게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된 언주로의 경우는 남북방향의 다른 간선도로와 혼동되지 않는 것을 보면 직선으로 뻗은 격자형 가로망은 기능 측면에서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장소성과 방향성의 측면에서는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격자형 블록의 토지이용 패턴을 보면 외곽은 대부분 고층의 오피스들이 입지하고 있지만 블록의 내부는 음식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 및 유흥오락시설과 주거가 혼재된 저층의 건물들이 입지하고 있어서 겉과 속이 다른 전형적인 토지이용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토지이용 패턴은 간선가로의에서의 접근성이 좋은 블록외곽이 비싼 지대나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되고 그 내부는 자원기능이 입지하게 되는 고전적 입지론을 증명해주고 있다.

서울 강남의 지역별 도시구조와 기능을 살펴

be a success in term of function.

With regard to the land usage of lattice-type block system, a traditional pattern has emerged with different usage for the outside and inside. Most high-rise office buildings are located in the outskirts, while mainly low-rise buildings, used for residence, amusement facilities and daily facilities including restaurants, are located inside of the block.

This pattern of land usage clearly verifies the classical location theory in which the block outskirts with good accessibility to the main roads is used by those who can afford the high rents, while the support functions are located in the inside.

In order to explore the city structure and function per region of Kangnam, Seoul, it might be easiest to examine the main roads which have high recognition and commercial areas near important subway stations. First of all, large-sized offices are densely located on the Taeheran road, the center of the Kangnam business area, mainly from Kangnam Station to Samsung Station. This area marks itself as such an important business area

보기 위해서는 인지도가 높은 간선가로의 중요한 지하철역 주변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 가장 손쉬울 것이다.

우선 강남 업무지구의 중심인 테헤란로는 주로 강남역에서 삼성역에 이르는 구간에 대형 오피스가 밀집되어 있으며 이 곳의 오피스 공실률은 우리 나라의 경기를 대변해주는 바로미터의 역할을 할 정도로 중요한 업무지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테헤란로와 함께 강남의 동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가 바로 남부순환로(99번 도로)이다. 남부순환로는 김포공항에서 신림동, 봉천동을 거쳐서 양재동과 대치동에 이르는 그야말로 강남의 동서를 관통하는 도로로서 일반업무기능과 일반상업기능이 혼재된 토지이용 패턴을 보이고 있다. 남북으로는 강남대로와 영동대로가 그 넓이에 있어서나 기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로로 꼽힌다.

특히 강남대로는 경부고속도로의 시점이 되는 한남대교와 연결되어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기 위한 제1의 접근로이다. 강남대로는 양재역과 강남역 그리고 신사역 등 중요한 지하철역과 교차하면서 젊음을 위한 각종 시설들(카페,

that the office vacancy rate here is considered as a barometer to represent the Korea economy. The important road linking east and west of Kangnam along with Taeheran road is the Nambu beltway(No. 99 Road). The Nambu beltway passes through the east and west of Kangnam, from Kimpo Airport, Shinrim-dong, Bongchon-dong and Yangjae-dong. It shows a land usage pattern in which the general business sections and general commercial sections are mixed. Kangnam blvd. and Youngdong blvd. are considered to be the most important roads in terms of function and dimension. Especially, Kangnam blvd. is the access road to Kangnam from Kangbuk, via the Hannam Bridge, the starting point of Kyungbu Expressway. Dotted with important subway stations such as Yangjae station, Kangnam station and Shinsa s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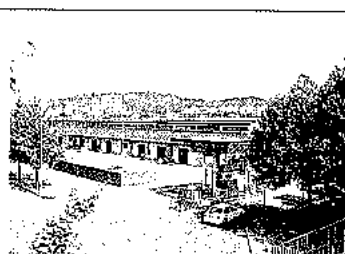
Kangnam blvd. has various kinds of facilities(cafe, movie theater, bookstore, record store, etc) for the youth along it, large scale amusement facilities centering on a back street of Cheil Life Insurance, the second amusement quarter of Kangnam, following Bangbae-dong, doing business with the company workers at the offices around it. Since there are the



아구정문화를 주도하는 패션상점들
Street where fashion stores that lead the Apgujeong culture are densely located.



고급아파트의 대명사였던 압구정 현대아파트
Hyundai apartment at Apgujeong-dong, the past symbol of high-class apartments.



주변의 아파트 및 오피스가 대변해 주듯이 이전 논의가 일고 있는 가락시장
The transfer of Karak market, a large downtown market, has been discussed.

극장, 서점, 레코드 가게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방배동과 함께 강남의 2대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제일생명 뒷골목을 중심으로 유흥위락시설이 대규모로 입지하고 있어 오피스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다.

이러한 유흥위락시설의 인근에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시설들이 입지하고 있어서 청소년 선도 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강남의 동쪽으로는 잠실역 주변의 주거기능과 잠실경기장, 롯데월드를 중심으로 한 위락시설과 올림픽공원과 석촌호수를 중심으로 한 공원녹지가 중심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잠실지구의 아파트 단지는 강남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한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어진지 30년도 안되어서 재개발을 논의해야 할 정도로 노후화되어 당시 우리나라 건축기술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역사적 장소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고급문화의 대표이며 신세대문화를 선도하는 압구정동은 서울의 압구정동이 아니라 전국의 압구정동이라고 할만큼 고급 옷가게와 고급백화점 등으로 특화된

지역이며 “압구정문화”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차별화된 지역이다. 특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하면 전국의 아파트 중에서 비싸기로 유명하며 이 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상류층일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다.

강남의 대부분은 고밀도의 토지이용을 보이고 있지만 주변의 개발압력을 견디면서 지금까지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두 개의 시설이 있는데 바로 양재동 꽃시장과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다.

가락시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외곽이전이 논의되어 왔던 시설로서 주변에 고층의 주거가 입지하고 있어서 악취, 교통혼잡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었던 시설이다.

양재동 꽃시장 주변도 최근에 대형 오피스가 입지하는 등 고밀토지이용의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외곽으로의 이전을 통하여 서울의 새로운 기능을 담을 수 있는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

many amusement facilities along it which attracts the youth, serious problems have emerged in terms of teenage guidance.

To the east of Kangnam, there are the residence areas around Jamshil station, amusement facilities centering on Jamshil Stadium and Lotte World, and green park centering on Olympic park and Sokchon lake. In particular, the construction of the apartment complex in Jamshil district can be considered as a historical event, acting a spearhead in the development of Kangnam, but also as a reminder of the then-present status of our architecture technology at that time because redevelopment had to be considered no less than 30 years after its construction, due to deterioration of the facilities.

As a representative of our advanced and leading culture of new generation, Apkujong-dong is a specialized area with high-class boutiques and department stores to the extent that it is called the Apkujong-dong of the entire nation, rather than just of Seoul as well as coining a new term “Apkujong-dong culture” Especially, “Hyundai apartment at Apkujong-dong” are notoriously expensive compared to other apartments nationwide, and even

there is a vague belief that all who live in this district must be upper c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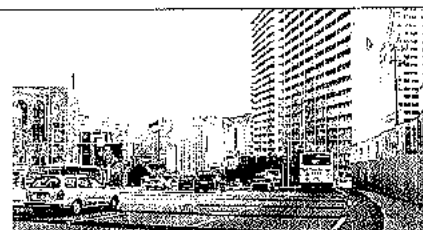
Most of the Kangnam area shows land usage of high density, but there are two facilities that still occupy a large space enduring all pressure for development. These are the Flower market at Yangjae-dong, and Karak-dong wholesale market of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As for Karak market, moving it to the outskirts has been discussed for some time now and many complaints of discontent by the public have been raised such as nasty smells, traffic congestion since high-rise resident buildings are located nearby. The flower market at Yangjae-dong recently succumbed to the trend toward land usage of high density including large scale offices nearby, attracting the attention as the right place to accompany new functions of Seoul by moving that facility to the outskirts.

City landscape and landmark

The city landscape of Kangnam is largely divided into two;



양재동 꽃시장도 주변에 대형 오피스들이 입지하게 되면서 이전의 압력을 받고 있다.
As large office buildings are located around it, the Flower market at Yangjae-dong increasingly gets pressure to move.



봉천동 구릉지의 재개발 아파트는 관악산의 수려한 경관을 차폐시키면서 삭막한 콘크리트의 숲을 이루고 있다.
Redevelopment apartment at the hills, Bongchon-dong blocks the fine scenery of Mt. Kwanak

도시경관과 랜드마크

강남의 도시경관은 과거 불량주거지역이었던 봉천동, 신림동의 재개발로 인하여 들어선 구릉지의 아파트 경관과 주요 간선가로를 중심으로 한 오피스 빌딩 등의 업무지구 경관으로 대별할 수 있다. 구릉지의 아파트 경관은 산꼭대기에 들어선 고층아파트로 인하여 주변의 수려한 경관이 차폐되어 거주민들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데는 많은 기여를 했을지 몰라도 도시경관 측면에서는 돌아킬 수 없는 실패작으로 기록 될 것이다.

강남개발 이후 제도적인 틀에서 도시경관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로는 도시계획법의 지역지구제도에 의한 미관지구 지정이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강남의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할 때, 지역의 여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미관지구의 지정만으로 도시경관을 형성하기에는 역부족이 었기 때문에 서울시 주요간선가로변 도시설계, 테헤란로 도시 설계 등을 통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시경관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비교적 통일감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한다는

a landscape with apartments on hills, constructed as a redevelopment of Bongcheon-dong and Shilim-dong, the poor residence area in the past, and a landscape of business district including office buildings centered around the main roads. A landscape with of apartments on hill may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in residence conditions, but it will surely be recorded as an irrevocable failure from the aspect of city landscaping as the high rise of the mountainside blocks the fine scenery around it.

After the development of Kangnam, the single method for controlling the city landscape at the institutional frame was to designate the fine scenery area in accordance with the district system of City Development Act. Taking various kinds of features of Kangnam into consideration, the designation of a fine scenery area was short of constituting a good city landscape, so that an attempt was made to create a city landscape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trict using a city design based around the Taeheran road and main roads. As a result, it was successful from the view of creating a comparatively unified street landscape, but it failed to create a differentiated city landscape for

측면에서는 성공하였으나 간선가로별로 차별화된 도시경관의 형성에는 실패하였다. 그래서 강남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거기가 거기 같은 방향 및 위치감의 상실을 경험하는 것이다. 다만 몇 개의 랜드마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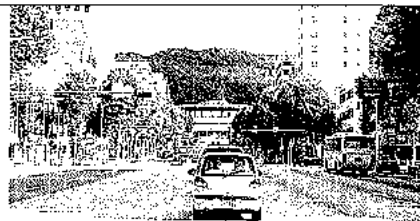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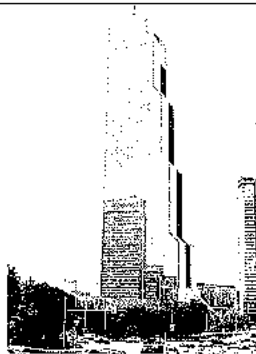
우선 높이와 형태에 있어서 주변의 업무용 건물과 차별화된 삼성동 무역회관, 그리고 높이에 있어서는 별로 눈에 띄지 않으나 형태와 재질감에 있어서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예술의 전당이 대표적인 강남의 랜드마크이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도시경관의 특징은 주로 미개발지나 시설이전부지를 활용한 새로운 도시경관의 형성추세이다. 특히 공군사관학교 이전부지를 활용하여 강남의 서쪽지역에 있어서 새로운 업무중심지로 개발한 보라매 주상복합타운은 도심속의 도시로 일컬어질 정도로 주변의 중저층 건물들과 대조되는 독특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도곡동 일대에 건설된 45층 높이의 대림아크로빌을 비롯한 도심의 초고층아파트들은 도심주거의 새로운 경향을 제시하면서 이 일대의 도시경관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each main road. That is why first comers to Kangnam lose their sense of direction and location, feeling as if the streets are all the same. However, several landmarks are noticeable. Representative landmarks of Kangnam are Samsong-dong Trading Center, which is differentiated from other business buildings around it in terms of the height and form, and the Art Center, which acts as a landmark in terms of form and material quality, even though the height is not that striking.

The recent modifications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ity landscape are the creation of a new landscape utilizing undeveloped sites or facility transfer sites. Especially, the Boramae resident and commercial complex town, developed by utilizing the site of the Air-force Academy, as a new business center to the west of Kangnam, creates a very unique city landscape compared with the middle and low height buildings, to the extend that it is called the city in a downtown. In addition, super high-rises downtown including the 45-story Daefim Acrovill, constructed around Dogok-dong, takes an important position in creating a new trend in downtown residence.

삼성동 무역회관은 재질과 형태 그리고 높이에 있어서 강남의 가장 중요한 랜드마크이다.
Samsong-dong Trading Center is most important landmark in Kangnam in terms of form, material quality, and height.



예술의 전당은 높이보다는 건물의 형태에 있어서 랜드마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The art center plays a landmark role, in terms of forms of building rather than its height.

맺음말

강남은 우리 나라의 고도성장을 대변하는 역사적 증거자다. 인구 천만이 넘는 거대도시 서울에 있어서 강남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 할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나라의 국력신장을 과시할 수 있는 잠실종합경기장과 코엑스 등 거의 대부분의 시설들이 강남에 있다. 강남의 도시구조와 건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과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강남의 대표적 기능인 업무기능은 주로 테헤란로와 강남대로, 그리고 영동대로 등 주요 간선가로를 중심으로 선적인 형태로 분포하고 있다. 특히 지하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유흥업소와 젊은이들을 위한 각종 시설들이 입지하고 있으며 블록의 외부는 업무기능의 대형건물 위주로 개발되고 블록의 내부는 주거와 근린생활시설들이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시경관에 있어서 타워형 초고층 주거의 도입은 새로운 랜드마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강남의 고지대였던

봉천동, 신림동, 사당동 등의 고지대 주거는 이제 우뚝 솟은 재개발 아파트로 대체되어 과거의 수려했던 구릉지 경관을 딱딱한 고층아파트로 대체시켰다.

강남도 이제 도심이라고 한다면 도심부적격 기능에 해당하는 대형시장들(양재 꽃시장,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입지하고 있어 교통난 등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이제 추가개발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볼 때 새로운 도시기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들을 이전하고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특히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서울의 미래상을 담기 위하여 이러한 부지는 정보화와 지식산업 등을 수용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시기가 아닐까?

Conclusion

Kangnam is historical evidence of the rapid growth of Korea. The role that Kangnam has in Seoul, a metropolitan city with a population of more than 10 million people, can not be underestimated. Most facilities that show off the improvement in our national power, including Jamshil Complex Stadium and COEX, are located in the Kangnam district, in some sense. The following features and tendencies are found if we look at the city's structure and the construction of Kangnam.

Business function, the most representative function of Kangnam, is linearly distributed centering around the main roads such as Taeheran road, Kangnam blvd, and Youngdong blvd. In particular, various kinds of amusement facilities for the youth are centered around the commercial area of the subways. The outside of the block is developed around large sized buildings for business function, and the inside of block is developed as a residence and green life facilities, showing mixed aspects. Introduction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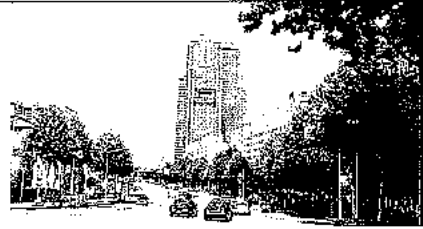
super high-rise residences of the tower type creates a new landmark in city landscape. Residence areas on the hill of Kangnam such as Bongchon-dong, Shilim-dong and Sadang-dong are being replaced by high rise redeveloped apartments, converting the fine landscape of the past into the rigid high-rise apartments.

Large sized markets(Flower market at Yangjae-dong, Karak-dong wholesale market of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which are inappropriately located if we take Kangnam to be the downtown area of Seoul, are located in the Kangnam district, causing various kinds of public discontents such as traffic congestion.

Considering that there is no more space for further development, there remains no other choice but to move these facilities and utilize the area in order to accommodate new city functions. Isn't it time that we consider the methods of utilization of these sites so they may accommodate information and knowledge industries in order to carry the future vision of Seoul into the new millennium?



보라매 지구는 오피스빌과 업무용 건물 그리고 주상복합 건물 등이 고밀도로 집적되어 독특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있다.
Borame district is highly populated by officetels, business building



도곡동의 초고층아파트는 도심주거의 새로운 시도를 보여준다.
Super high-rise apartments at Dogok-dong show a new attempt at residence at downtown

서울의 근대건축(개화기~1945)탐방

Architecture of Seoul in the Modern Era:
From the Early Modernization Period To 1945

김정신 /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Kim Jung-Shin / Professor, Dankook Univ.

역사적으로 한국건축은 근대이전의 목조건축에 속하는 전통건축양식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주택 등 민간건축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건축은 대원군의 경복궁 중건(1865-1868)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그 끝을 맺고 외세의 전파에 따른 여러 유입경로를 타고 서양식 건축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서울은 조선말기까지는 강력한 쇄국정책으로 말미암아 도성내 외국인의 거주가 금지되었으며, 궁궐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서 궁궐·저택·민가·가계(假家) 등으로 이루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discussions on Korean architecture were more or less confined to styles of pre-modern, timber frame structures. The rebuilding of Kyungbokgung(1865-1868) marked the end of such traditional style, and from that point Korean architecture in general, with the exception of housings and some others, has been built under western influence imported via various sources.

As the residence and commercial activities of foreigners became legal in the early 1880s, foreign diplomatic offices, housings, churches and trade centers, Japanese government agencies, schools and banks began to be built in this country, but a modern work with the connotation of rationalism and functionalism only came to be after the 1930s, some 50 years from then.

The following is an introduction to the remaining works of Korean modern architecture, from the early western imports to those of late modernism built in the closing years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어져 있었다. 그러나 문호개방으로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고, 1882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청·일 양군(兩軍)의 동시 주둔에다 구미(歐美) 각국인들의 내왕(來往)·거주(居住)·통상(通商)이 허용되면서 서양식건축물이 1880년대부터 하나둘씩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서양식 건축물이 유입되는 경로는 외국공관 계통의 건물, 교회 및 관련건물, 외국인 상사 및 주택, 일본인에 의한 관아건물, 학교, 은행 등 새로운 기능의 공공건물 등이며, 1930년대 와서야 비로소 합리주의와 기능주의를 근간으로 한 근대적인 건물들이 출현하게 된다.

개항 이후 유입된 서양식 건축에서부터 일제강점기 후반 근대건축물에 이르기까지의 현존하는 서울의 주요 근대건축물을 찾아가 본다.

정동(貞洞)의 근대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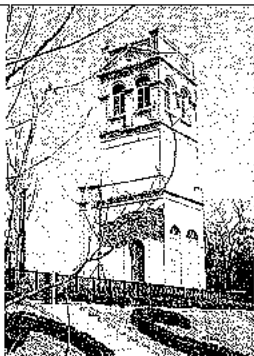
정동에는 조선조 말부터 구한말에 이르는 상당한 기간동안 정궁이던 덕수궁이 위치하였기 때문에 구미각

Modern Architecture of Jungdong

Jungdong, the region of the main palace of Duksoogung for a long period of the late Chosun Dynasty, had been the site for various foreign legations. At first, embassies were found using the remaining housings of traditional style, but from 1880 nations with diplomatic relations began to build their own new consulate and legations according to their own styles. In addition, buildings with commercial or missionary purposes, such as churches, schools, housings and hotels, also became popular around the district.

The American Embassy building, the first of its kind to be built in 1884, was a reworking on a traditional architecture, installing a westernized interior while preserving its old envelope. It remains in its site until today after several renovations and extensions. The only embassy that preserves its primary form to this date is the British Embassy(1892), a two-story brick house of Georgian style.

The arguably most beautiful western building of



러시아공사관 탑
The tower of the Russian Embassy

벨기에 영사관
The Belgian Embassy



국의 외교관저들이 이 주변에 밀집하여 있었다. 1880년대에 차례로 수교하게 되는 구미각국은 초기에 주로 한옥을 개수하여 사용하다가 정동알대를 중심으로 1890년대부터 본격적인 공사관, 또는 영사관을 짓기 시작하였다. 이곳은 외국 공관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사택, 호텔 등 외국상인, 선교사들의 시설물도 집중되어 일종의 치외법권지대가 되었다.

1884년 현재의 위치에 가장 먼저 들어선 미국 공사관은 전통 한옥을 개조하여 내부는 서양식, 외관은 한옥형태로 하였으며 지금까지 8차례에 걸친 보수·확장공사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시의 외국공관으로서는 온전하게 남아있는 유일한 영국영사관(1892)은 전(塼)과 벽돌을 섞은 2층의 온건한 건물로서 박공부분은 페디먼트로 하고, 그 아래로 상하층 2면 아치로 연속된 아케이드의 베란다가 가진 조오지안 양식이다. 정동교회 건너편 언덕 위에 6.25전란시 파괴되어 일부 탑옥(塔屋)만 남아있는 러시아공사관(1885, 사적 253호)은 러시아인 사바쾨의 설계에 의해 지어졌으며 ㄱ자형 평면에 전(塼)과 붉은 벽돌을 섞은 2층 건물의 일부에 3층 탑이 있는 장대한 외관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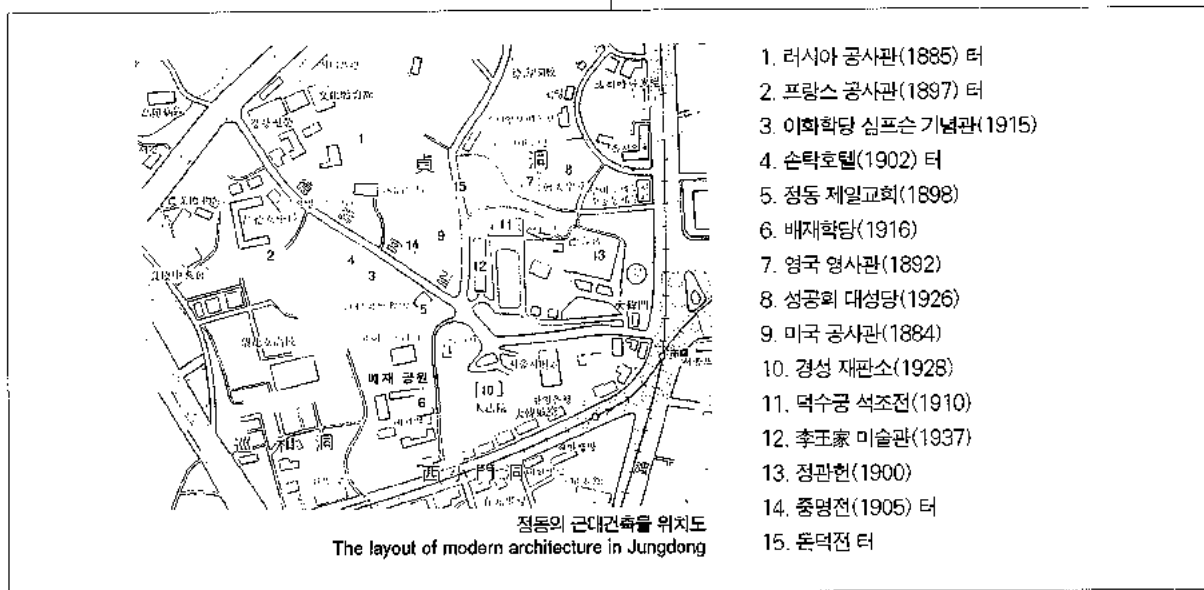
당시 정동의 서양식 건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

웠던 프랑스공사관(현 창덕여중 구내, 1897)은 프랑스인 기사 샬베르의 설계와 중국인의 시공으로 지어진 프렌치 바로크 양식의 벽돌조 2층 건물로 한쪽에 5층 높이의 탑을 두고 경사진 지붕에 변화있는 벽면과 정교한 세부장식을 가미했다. 후에 조선총독부가 매수하고 1935년에 철거되었다.

한편 회현동에 위치했던 벨기에영사관(1905, 사적 254호)은 벽돌조에 석조를 혼용한 고전주의 양식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이었는데 현재는 관악구 남현동에 이전 복원되어 상업은행 사료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공사관 건물들은 거의 적벽돌에 전과 석재를 혼용한 고전주의·바로크·조오지안양식의 건물들이었는데 더러는 동남아시아 유럽 식민지 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베란다를 정면 2층에 두었다.

정동은 근세기 동안 외교의 장소 뿐 아니라 선교의 장소이기도 하였는데 감리교, 성공회, 러시아 정교회 등이 이곳에 터전을 잡았다. 감리교의 정동교회는 처음에 한옥에서 예배를 보다가 1898년 일본인의 설계와 한국인 목수의 시공으로 지어졌다. 개신교 건물로서는 최초의 서양식 건물인



정동제일교회
Jeil Church of Jungdong

성공회 대성당
Grand Cathedral of the
Protestant Episcopal
Church



정동교회 구관(1898, 사적 256호)은 단순한 고딕풍아간 하나 매우 간결하고 소박하며, 빅토리아시대의 전원주택을 연상시킨다. 독립운동의 거점이기도 한 이 건물은 몇차례의 증개축을 하였으나 원형을 잃지않고 있으며, 주변의 신축건물(교육관, 신관)도 구관과 잘 조화되게 지어서 장소성을 살리고 있다.

덕수궁 옆의 성공회 대성당(1926, 서울시 유형문화재 35호)은 영국인이 설계하고 감독한 건물로 로마네스크양식에 충실하면서도 한국적 풍토와 전통에 어울리는 건물이다. 최근 원형계대로 증축하였다.

한편 구미의 선교활동이 근대교육의 전파와 외로사업과 함께 이루어졌듯이 근세학교의 출발이 이곳에서 있었고, 창덕여중과 이화여고가 아직도 남아있다.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학교교육은 개화파의 주도에 의한 관학(官學)과 민간자본에 의한 사학(私學) 및 서구 미션계 계통의 학교들이다. 처음엔 주로 한옥교사를 지었으나 1885년경에 설립된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은 양옥교사를 지은 바 있으며 합방후 학제의 개편과 교세의 확충으로 신교사를 차례로 짓게 된다. 현재 남아 있는 배재고등보통학교교사(1916), 이화학당의 심프슨기념관

(1915)은 모두 적벽돌 조적조 2층의 온건한 건물로 일본계통에서 설립한 관학의 위엄을 주로 한 교사와 대조된다.

또한 지금은 사라졌지만 서울 최초의 호텔인 2층 회색벽돌조 건물의 순락호텔(심프슨기념관 인접, 1902)도 이곳에 있었으며, 일부 고딕풍이 가미된 타일마감의 근대식 관청건물인 경성재판소(1928, 구대법원)는 서울특별시 시립미술관으로 개축공사가 진행중이다.

개화기 및 일제초기의 역사의 현장이 집중되었던 이곳은 근대건축물과 역사적인 장소가 그런대로 보존되고 있으며, 특히 배재고등학교가 강남으로 이전하면서 조성된 배재공원과 최근 서울시에서 조성한 덕수궁길 보행자 중심 녹화거리로 더욱 매력적인 역사 문화의 장소가 되고 있다.

덕수궁의 양식건축

을미사변(1895)과 아관파천(1896)을 계기로 실권을 장악한 친러시아 수구파들은 1897년 개화파의 협력하에 고종을 환궁시키고 연호를 광무(光武)로 고친 다음 국

Jungdong was the French Embassy, built in 1897, designed by a French architect but constructed by Chinese engineers. The French Baroque building, a brick house of two floors and a tower with the height of a five-story building on its side, displayed a slanted roof and subtle ornaments on its surface. The building was later seiz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demolished in 1935.

The classical-styled Belgian Embassy(1905, Historic Site no.254), on the other hand, was located in Hoihyundong, and was structurally a combination between brickwork and stone masonry. The building has been restored on another site in Namhyundong, and is now used as a center for historical records of a private monetary instit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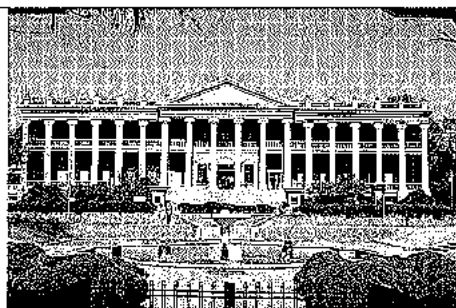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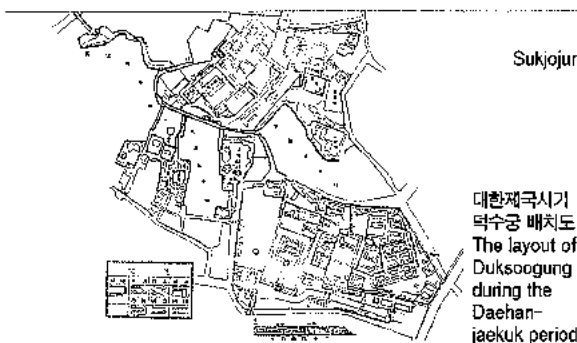
These legations were mostly a masonry building of red brick and stone, with the dominant styles of Classicism, Baroque, and Georgian. The method of placing the veranda on the second floor of the main facade, often employed in the European colonial offices in the southeast Asia, could also be found in some examples.

Jungdong was not only a place of foreign affairs - The

Methodist Church, the Protestant Episcopal Church, and the Russian Orthodox Church also initiated their mission from this region. Jungdong Cathedral of the Methodist Church was the first to be built in 1898, by Korean carpenters following the design of a Japanese architect. The churches of the Protestant followed - Its first western-style architecture was the old building of Jungdong Church(1898, Historical Site no.256), a Gothic yet simplistic work which recalled the country houses of Victorian era. It was later used as the headquarter for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under the oppress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ough it went through a number of renewals, still preserves its basic form.

The Grand Cathedral of the Protestant Episcopal Church(1926, Cultural Property of Seoul no.35), located next to Duksoogung, was built by an English architect following Romanesque principles, but nevertheless succeeded to be in consonance with the traditional buildings nearby, and was recently restored to its original form.

As in the west, missionary activities were accompanied by those concerning modern education and medical care - Many early



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치면서 자주독립을 재천명하였다. 이때 중건(1897-1904)된 덕수궁의 건축물들은 기본적으로 전통 한옥들의 배치로 이루어지지만 정관헌(靜觀軒), 돈덕전(惇德殿), 구성헌(九成軒), 환벽정(環碧亭), 중명전(重明殿), 석조전(石造殿) 등 6채의 양식건물도 있었는데 현재는 정관헌, 중명전, 석조전만 남아있다.

정관헌은 가장 초기의 것으로 고종황제의 연회장으로 쓰이던 곳인데 팔작지붕 등 동양적 요소를 많이 보이고 있는 양식건물로 채양지붕과 정교한 동재난간이 특색이다. 중명전(서울시 유형문화재 53호)은 수옥헌(漱玉軒, 현 미국대 사관저 서방에 있었던 전각의 총칭) 중 가장 큰 건물로 알현소, 연회장으로 사용되었으며 단순한 조오지안 양식의 2층 벽돌조 건물로 현재는 개인회사 사옥으로 사용되고 있다.

석조전(사적 124호)은 한일합방전의 건물로는 가장 규모가 크고(200평) 원성미를 갖춘 3층의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물이다. 영국인 재정고문 브라운의 발의에 의하여 착공되었고, 영국인과 일본인에 의하여 설계·시공되었다. 건물 앞의 정원과 함께 18세기 유럽 궁정건축을 모방하였는데 2층

에 접견실 및 홀, 3층에 황제·황후의 거실과 침실, 담화실, 옥실 등을 두었고, 기단부에 해당하는 1층엔 시종인의 거실을 두었다. 중앙부 파빌리온 상부 페디먼트에 황실문장인 이화(梨花)가 새겨져 있고 이오니아식 대(大)오더로 콜로네이드를 구성하여 기념비적인 감을 주고 있다. 고종이 퇴위하고 순종이 즉위한 뒤 경운궁은 덕수궁으로 개칭되어 태황궁의 역할만 하였으며, 고종황제 별세후 일제에 의해 폐궁화(廢宮化)되어 일본의 근대미술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으로 전락하였다. 석조전 앞에는 절제된 르네상스풍의 이왕가(李王家)미술관(1937)이 들어서서 석조전과 2층에서 교량으로 연결되어있다.

명동성당을 중심으로 한 명동의 근대 건축물

명동은 조선시대 행정구역상 한성부의 5부 중 남부에 속하는 주택지로서 북촌과 대별되는 남촌의 대표적인 주택지였다(49방(坊)의 하나인 명례방(明禮坊)에서 유래, 장락원(掌樂院), 명례궁(明禮宮)터, 원세기(元基) 등 위치) 약 100년간의 축적한 박해를 거친 천주교회는 실질적인 신앙의 자유

examples of modernized education facility, whether public schools founded by Enlightenment Party, private ones developed by non-government capital, or those established for missionary purpose, were located in Jongdong. After performing renewed schooling in traditional buildings were built western-style schools such as Baejae-hakdang of 1885 and Ewha-hakdang. Simpson Memorial Hall(1915) of the latter, and the lecture hall of Baejae High-level School, developed from the former, both stand against the Japanese-founded, authoritarian public education centers by the warmth of their red brick surface. Fortunately, both remains to this date.

The recent opening of Jungdong Park and the City's plans to create a pedestrian-only path along Duksoogung adds attraction to the region with such historical import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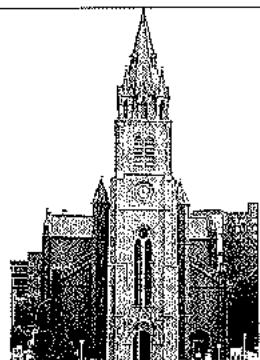
Architecture of Duksoogung Palace

The reestablishment of Duksoogung, which began in 1897

when the Russian-friendly conservative party gained control after a series of incidents and established the new National title of Daehan-jaekuk - the Empire of Daehan - resulted in 1904 with not only the renovation and restoration of traditional architecture but the addition of six western-style buildings.

Jungkwanghyun, the first of the six to be built, was used as the banquet hall of Emperor Kojong, and though basically western it featured traditional forms in its elements such as the roof. Joongmyungjun(Cultural Property of Seoul no.53), a simplistic Georgian brick building surviving as an office for a private company, was the biggest in scale among the palace mansions which were located in the west of where now the American Embassy stands.

Sukjojun(Historical Site no.124), a Neoclassical, three-story building, following the suggestion of an English financial supervisor with design and construction implemented by the English and the Japanese, was the largest(660m²) and most artistically accomplished work before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t featured the characteristics of a European Palace



명동 대성당
Myungdong Grand Cathedral



약현성당
Yakhun Church

가 주어진 1880년대부터 천주교의 발상지인 이곳의 종현(鐘峴) 언덕을 매입하고 교회의 터전으로 삼았으며, 일제때는 일본 상인들이 본정통(本町通; 현 충무로 2가)에 진출하면서 상업 지역으로 발전하였다.

천주교계통의 건축물은, 성당은 주로 고딕양식을 지향한 중세 로마네스크 또는 고딕 변형양식이고 사제관 등은 조조지안 양식이다. 그중 가장 먼저 세워진 것이 종현(명동언덕)의 구주교관(1890)과 용산의 신학교(1891, 사적 255호)이다. 이 두 건물은 프랑스인 코스트산부신부에 의해 설계, 감독된 2층 벽돌조 건축물로서 조조지안 양식의 단순한 서양식 건물이다.

착공 7년만에 완공된 명동 대성당(1898, 사적 258호)은 국내에서 가장 고딕양식에 근접한 건물이다. 라틴 십자형 3랑식 평면으로 제단부에는 반원형 돌출부인 앱스(Apse)와 그 주위에 보회랑(步回廊)이 나 있으며, 제단 하부에는 지하성당(Crypt)이 있다. 내부입면은 아케이드, 트리포리움, 크리어스토리로 구성되는 3층벽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장은 교차리브볼트이며 내부 열주는 로마네스크양식의 족주(族柱: Clustered Pier)로 되어있다. 간(間: Bay)으로 분절

된 내부공간의 구성은 각 창 의 스테인드글라스와 함께 고딕적인 공간을 빚어내고 있다.

명동성당 구내에는 구주교관과 대성당 외에도 조조지안 양식의 2층 벽돌조인 바오로 수녀원과 옛수녀원성당(1927), 옛명동 일본인성당(1928), 주교관(1927) 등 벽돌조의 초기 근대건축물들이 있다.

현 중림동 약현언덕에 위치한 약현성당(1892, 사적 252호)은 최초의 서양식 교회건축이자 본격적인 벽돌조 건축으로 내부열주에 의해 신랑(身廊: Nave)과 측랑(側廊: Aisle)의 구별이 뚜렷한 3랑식이며 정면 중앙에 8각 첨탑을 가진 종탑이 붙어있다. 로마네스크양식과 고딕양식이 혼합된 건물로 이후 반세기 동안 소형 성당건축의 모델이 되었다.

현재의 용산구 원효로 성심여자 중고등학교 구내에 있는 작은 양식 성당은 원래 가톨릭 신학교 전신인 예수 성심신학교 부속성당(1907, 사적 255호)으로 지어진 것인데 작지만 언덕의 지형을 잘 이용한 당당한 고딕양식의 건물이다.

가톨릭 성당건축의 특성은 구조와 시공의 수준은 못따랐으나 외장면에선 고딕양식을 충실히 추구하였다는



명동의 근대건축물 현황
The remaining modern architectures of Myungdong

1. 명동 대성당(1898)
2. 조선은행(현 한국은행 본점, 1907)
3. 조선 저축은행(현 제일은행 은행사 박물관, 1935)
4. 구주교관(1890)
5. 천주교 바오로수녀원(1900)
6. 경성 주식현물시장(현 제일투자금융, 1922)
7. 경성전기회사 사옥(현 한전플라자, 1929)
8. 三越백화점(현 신세계백화점, 1937)
9. 동경화재보험 주식회사(1933)
10. 제일빌딩(1935, 철거)
11. 明治座(구 명동국립극장, 1936)
12. 丁字屋백화점(현 미도파백화점, 1939)
13. 사보이호텔(1957)
14. 메트로호텔(1959)
15. 성모병원(현 가톨릭화관, 1961)
16. 오양빌딩(1962)
17. 한국전력 빌판(1964)
18. 유네스코회관(1967)
19. 중국대사관(1967)
20. YWCA 회관(1968)



원효로성당
Wonhyoro Church



번사창
Bunsachang, the modern weaponry factory

점이다. 즉 석조의 조각적인 디테일 표현을 위해 적색과 회색의 이형벽돌을 사용하였고, 보울트 천장을 비구조적인 목조 유사 보울트로 재현하였으며 삼랑식 평면에 공간과 입면의 위계적인 분절화를 추구하였다.

일본상인들의 진출로 발전하기 시작한 명동은 1930년대 정자옥(丁字屋: 현미도파)백화점이 생기고 명동성당까지 가로폭이 10m로 확장되면서 쇼핑과 유흥 오락 및 금융가로 발전하였으며, 6·25이후는 한국의 문학·예술의 메카였으나 1970년대 들어서면서 재개발과 자가당으로 이윤창출이 높은 고층 오피스, 호텔, 금융·보험, 대형백화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현존하는 명동의 주요 근대건축물로는 명동의 랜드마크인 명치좌(明治座: 구 명동국립극장, 현 대한투자금융, 1936), 삼월백화점(三越百貨店: 신세계백화점, 1937), 정자옥백화점(丁字屋百貨店: 현 미도파백화점, 1939), 최초의 증권거래소 건물이었던 근세 독일식의 경성주식현물시장(현 제일투자금융, 1922), 르네상스풍이 가미된 국내 최초의 미국 시카고파 사무소 건축인 경성전기회사 사옥(현 한전 플라

자, 1929) 등이 있다.

명동의 매력은 이러한 근대건축물 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지형과 다양한 경관요소, 다양한 양식의 건물들, 다양한 가구(街區)형태와 가로(街路), 다양한 기능,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인간적 스케일의 길과 건물들이며, 이러한 것이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잃어버린 명동을 명동답게 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을지로 2가, 퇴계로변, 충무로 1,2가의 대형 건물 위주의 개발과 그 여파로 기존의 획지(劃地)와 가구(街區)형태가 바뀌고 친숙한 도심의 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다.

새로운 관청 및 공공건축

관청건물에도 재래식 목조 기와건물이 아닌 새로운 구조와 모습이 번사창(翻沙廠), 전환국(典局) 등 새로운 기능의 건물들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번사창(유형문화재 51호)은 근대식 무기를 만드는 공장건물인데 흑회색 벽돌의 조적조에 왕대공 자붕틀로 짜여진 맛배 기와지붕으로 고층창을 두었다. 일본인이 지은 주화를 제조하는 전환국 역시

of the 18th century - Apart from the garden in front of the facade, the building consisted of a reception room and hall on the second floor, the living room, bedroom, bathing room for the Emperor and Empress on the third, and rooms for servants on the ground level. On the upper pediment of the central pavilion is sculptured the ewha, an insignia of the Emperor, and the colonnade comprising grand Ionic columns adds to its monumental value.

After the abdication of Emperor Kojong and the subsequent enthronement of Emperor Soorjong, the Palace lost its name of Kyungwoongung to the present title and was degraded by the Japanese into a museum for 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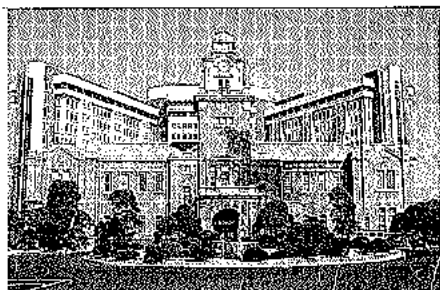
Myungdong Cathedral and Other Modern Architectures of Myungdong

Myungdong during the Chosun period was one of the five districts of Hansung, the old name of Seoul, which, in contrast to the northe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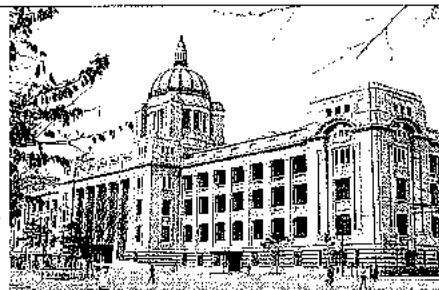
sectors, consisted mostly of residential areas. The Catholic Church, benefiting from the Nation's declaration on freedom of religion in the 1880s after a century of persecution, bought the hill of Myungdong, the Church's very ground of origin, as the site for its main cathedral. During the colonial period, Japanese merchants gathered and formed a commercial district in where now is Chungmuro.

The cathedrals of the Catholic Church were mostly modeled after the Romanesque or the Gothic, while the parsonages adopted the style of Georgian. Myungdong Grand Cathedral(1898, Historical Site no.258), which took seven years to complete, is a work of architecture closest to the Gothic style in Korea. The altar of the Latin-crossed plan features a half-circled apse, and its underneath is occupied by a crypt. The section of the interior display its division into arcade, trifonium and clerestory, while Romanesque clustered piers constitute the colonnade. The articulated space, along with the stained glass, create an overall atmosphere of the Gothic.

The first western church architecture, however, was the



대한의원 본관
The main hall of
Daehan-uiwon



총독부 청사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벽돌조건물이었으며 경복궁내 후원의 일각에는 러시아인 사바친에 의해 3층 벽돌조 건물의 관문축이 지어지기도 하였다.

20세기 들어와서 지은 많은 청사건물은 주로 탁지부 건축소(1906-1910)와 총독부 영선과나 철도국 공무과 등이 담당하였는데 서양 르네상스풍이나 바로크풍의 외관을 모방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주요 관청건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의원은 그 전에 있던 의료기관을 흡수, 통합하여 설립된 병원인데 그 본관(현 서울대학교 병원연구소, 1908, 사적 248호)은 중앙에 시계탑이 있는 적벽돌조의 네오 바로크양식의 건물이다.

공업전습소는 기술교육을 목적으로 건립된 곳으로 전한국시절부터 기계시험소가 있었던 이곳에 본관, 실습동 7개동, 기숙사, 부속관사, 기타관련시설을 포함한 방대한 교사군(校舍群)을 갖추었으며 1916년 이후 경성공업전문학교에서 사용하였었는데 그중 본관(1907, 사적 279호)이 현존하여 방충통신대학으로 쓰이고 있다. 목조 2층의 르네상스풍 건물로 외벽을 두터운 비늘판 불임에 페인트칠로 마감하였다.

철도의 개통에 따라 철도역사가 건립되었는데

Yakhyun Church(1892, Historical Site no.252), located at Joongrimdong, a brick building with interior space clearly divided into nave and aisles. A mixture between Romanesque and Gothic styles, the Church features a octagonal campanile in front of the facade and became an archetype for small-scaled churches for a half century afterwards. The Catholic Churches of this era, though not particularly advanced in structural or constructional terms, stands out in its careful adoption of Gothic style - red and gray bricks were jointly used to express the sculptural details of masonry, while vaults were reproduced with simulated, non-structural wooden vaults. Articulation of indoor spaces established hierarchy among its vertical and horizontal compositions.

The commercial district of Myungdong was primarily developed by the Japanese, and met a great expansion along 1930s' widening of its main road to Myungdong Cathedral. It later became, after the Korean war, a mecca of Korean art and literature, and since the 70s, went through various phases of redevelopment projects and established itself as the City's most high-priced (thus condensed) but profitable ground for banks, insurance companies,

대부분 목조의 간단한 건물이었으나 대도시에서는 서양식의 권위적인 형태로 지어졌다. 경성역(서울역사, 1925, 사적 284호)은 철근콘크리트구조에 벽돌모양의 타일과 화강석, 인조석으로 마감한 르네상스풍의 외관에 비잔틴식의 돔을 올린 건물이다.

총독부청사(1926, 1995 철거)는 일제 식민 통치를 가장 극명하게 상징한 건물로서 4층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석재로 마감한 르네상스풍의 권위적인 건물이었다. 경복궁의 장소성과 식민지 시대의 잔재론에 의해 존폐시비를 계속 해오다 철거되었다.

경성부청사(현서울시청사, 1926)는 3층 철근콘크리트조의 단조로운 절충식 건물로 이 건물이 세워짐으로써 서울역에서 총독부청사로 이어지는 남북 간선도로변의 식민통치시설이 하나의 축을 이루었다.

그밖에 관청·공공건물로는 경복궁 내의 총독부 박물관(1915), 정동의 경성재판소(구대법원청사, 1928), 태평로의 부민관(현 서울시 의회, 1935), 서양식 벽체에 일본식 지붕을 올린 소위 제관(帝冠)양식의 경복궁 내 총독부 미술관(1935) 등이 있다.

and grand-scale department stores.

Several buildings of the modern era that remains today are Myungchijwa(1936), the most well-known landmark of Myungdong which later was used as the Myungdong National Theatre and now is an office for a financial agency, department stores Samsung(1937) and Jungjaok(1939), now Shinsaegae and Midopa, respectively, and the first stock trade center of Korea, Kyungsung stock market building(1922, now the Office of Jeil Investment Finances), influenced by the early modernism of Germany. The office for Kyungsung Electronics, Co. of 1929 was the first to follow the principles suggested by the Chicago School with the additional touch of the Renaissance, and is still in use as the Hanjun Plaza.

New Government Facilities and Public Buildings

New structures and forms also replaced the traditional style in the field of government facilities. Bunsachang(Historical Property no.51),



서울역사
Seoul Station



공업전습소 본관
Gongup-Junsupso
(Industrial Training Center)

근대 학교건축

1886년에 설립된 이화학당은 이화여고보(梨花女高普)와 이화전문학교로 완전히 분리되고 1935년 신촌 현재의 캠퍼스로 이전하여 대학규모가 정착되었다. 보리스(W. M. Vories)의 마스터플랜을 근간으로 정문과 캠퍼스 뒷산의 주봉(主峰)을 잇는 선상(線上)을 축으로 하여 본관을 중심으로 앞에는 운동장, 좌우에 음악관과 체육관 등 좌우대칭되게 배치하였으나 엄격한 배치보다는 지형을 살려 분산배치하였다. 이 초기의 배치특성은 캠퍼스가 확장하면서도 나타나서 캠퍼스를 골격지우는 도로나 중심적인 건물이 없으며, 다양한 외부공간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캠퍼스의 문맥을 충실히 지키고 있어서 옛건물과 새건물이 잘 조화되고 있다.

가장 먼저 지어진 본관 파이퍼홀(1934)은 H자형 평면의 3층 석조건물로 중앙의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며 정면 출입구와 좌우 양익부(兩翼部)를 박공면으로 한 고딕양식이다. 보리스가 설계한 같은 시기의 케이스 홀(1934, 음악관)이나 유상하가 설계한 아펜젤러홀(1950, 과학

관), 강윤이 설계한 대강당(1956) 등도 모두 파이퍼홀을 규범으로 한 고딕양식이다.

1915년에 경신(敬新)학교 대학부로 발족한 연희전문학교는 1917년 현 위치에 캠퍼스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이 캠퍼스는 모악(母岳)을 주봉(主峰)으로 하고 양측은 구릉이 에워싼 지세로 일찍이 명당자리로 주목을 받았던 곳이다. 한국 최초로 마스터플랜에 의하여 중앙계곡에 중심도로(백양로)를 두고 주변에 운동장 및 교사동을, 중심도로 정점인 계곡의 북측에는 ㄷ자형으로 중심적인 건물을, 주변 고지대는 교수 사택 등을 배치하였다. 캠퍼스의 발전은 이 골격내에서 발전하였다.

중심도로(백양로)의 정점 중앙에 언더우드홀(1924, 사적 276호)을 남향으로 배치하고 좌우에 본관인 스텐슨홀(1922, 사적 275호)과 아펜젤러홀(1924, 사적 277호)을 ㄷ자형으로 배치하였는데 미국인 건축가 머피(H. Killian Murphy)가 설계하였다. 모두 3층(일부 지하)의 석조 건물로서 일부 베이 윈도우(Bay-Window)를 가지며 출입구를 튜더풍 아치로 한 단순한 고딕양식의 건물이다.

한편 1905년 보성전문학교로 출발한 고려대

a factory for manufacturing modern arms, was constructed of dark grey bricks, with traditional roofing which allowed the opening of clerestories. Junhwankuk, the Mint bureau, was also a brick building built by the Japanese.

Building government agencies in the early part of 20th century were under administrative guidance, and most were heavily influenced, especially in exterior form, by Renaissance or Baroque styles of the west.

Daehan-uivon was established as an integration of existing medical facilities, and its main hall(1908, Historical Site no.248, at present the research cente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is a neo-Baroque brick building with a tower clock.

Gongup-junsupso, or the industrial training center, was constructed with a practical purpose, adding to the then existent machine testing station a main hall, seven training centers, dormitory, and other supporting facilities, thus forming a huge group of buildings. After 1916, the center was used for the Kyungsung Industrial Education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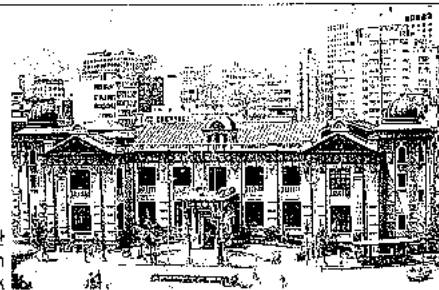
Unfortunately, only the main hall(1907, Historical Site no.279) remains today, a wooden, two-story building in Renaissance style, and is used as the University of Broadcast and Communications.

With the development of railways, train stations also became a new property of modern architecture. Though early buildings were simple wood structures, the ones in the cities began to adopt authoritative western forms - Kyungsung Station(1925, Historical Site no.284) was a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with finishings by brick tiles, granite and artificial marble, its Renaissance facade topped with Byzantine dome.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the hall for the colonial government, built in 1926, was the most colossal work of the period, most ambitious in its representation of the ruling authority. A concrete body of four stories was furnished with masonry sculptures in Renaissance style. Its ultimate fate was met in 1996 when it was decided, after years of debate, to be destructed to abolish remnants of the colonial period and restore the



배재학당
Baeje-hakdang



한국은행 본관
Headquarter of Korean
National Bank

학교는 1934년 현위치에 이전하여 새 캠퍼스를 조성하였는데 남동 경사면의 협곡을 주변 산을 깎은 흙으로 메워 넓게 터를 닦고 가장 높은 곳에 본관을, 좌우에 도서관과 강당을 건축하고 그 아래에 운동장, 운동장 주변에 교사동들을 배치하였다. 초기에 지은 본관(1934, 사적 285호)과 도서관(1937, 사적 286호)은 근대초기의 한국인 건축가 박동진의 설계와 한국인의 자본에 의해 건축되었다. 본관은 튜더양식을 따른 고딕풍의 석조건물이고, 도서관은 성관풍의 양식을 따랐는데 석조 외장 수법이 매우 세련되었다.

우월한 위치의 본관을 중심으로 좌우로 넓게 배치된 고려대와 긴 백양로를 따라 깊숙하게 배치된 연세대학은 그 건물들과 함께 캠퍼스의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1908년에 설립된 개동의 중앙학교는 본관(1934년 소실)을 중심으로 좌우에 동관(1921, 사적 283호)과 서관(1921, 사적 282호)이 건립되었는데 둘다 당시 한국에서 활동한 일본인 니카무라 요시헤이(中村興資平)의 설계로 적벽돌의 2층 건물이다. 새로운 본관(1937, 사적 281호)은 고려대 도서관과 같은 시기에 같은 건축가 박동진의 설계로 지

어졌는데 H자 평면의 2층 철근콘크리트조에 석조 마감이다.

경성제국대학은 1921년에 개교하여 동숭동 일대에 터를 잡고 여러동의 교사를 세웠다. 그중 외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문화예술진흥원청사로 쓰고있는 본부(1931, 사적 278호)는 3층의 철근콘크리트조 평층라브 건물로 외벽을 타일로 마감하였다. 박길룡이 설계한 이 건물은 관학(官學)건물의 기본 평면형을 골격으로 하고 있지만 당시 대학건물의 권위적이고 양식적인 표현을 벗어나서 비교적 자유롭고 경쾌한 근대주의 정신이 보인다.

근대 상업건축

조선정부가 외국 상인에게 개시(開市)를 허락한 곳은 양화진(楊花津)이었고 그후 용산으로 옮겼으나 일본 상인들은 이 개시장에 별로 모여들지 않았고 남산쪽인 진고개(현 충무로 2가)에 주로 자리를 잡았으며 청나라 상인들은 주로 수표교와 남대문 일대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하여 서울의 상가는 세 개의 중심지-종로를 중심으로 한 한국인 시전가(市

Kyungbokgung Palace to its original state.

Education Facilities of the Modern Period

Ewha-hakdang(1886), previously mentioned in this article, went through a separation process into Ewha Women's High School and Ewha Specialization Institute, where the latter moved, in 1935, to Shinchon and organized the present layout of the University, based on the plans by W. M. Vories. The main gate and rear mountain of the Campus form its central axis, on which the main hall stands, symmetrically surrounded by the music hall and gymnasium that follows the natural contour of the geography. The early masterplan was characterized by its absence of strong paths or landmarks, opening up the possibility for various outdoor spaces.

The first to be built was the main hall, or Piper Hall(1934), a masonry building of three stories with a symmetrical plan of an H-form. Its Gothic style became the model for future additions, such as the Case Hall of the same year designed by Vories, and the science center and grand auditorium of the 50s designed respectively by Korean architects Yu Sang-ha and Kang Yoon.

Yonhui Specialization Institute, on the other hand, was founded in 1915 and since then continued to fill its present Campus site of Yonsei University. The location, which has long been deemed an ideal site in respect to feng-shui, was ordered by the practice of the first masterplan in Korea - The center was placed with the main road, or Baekyangro, to which the sports field and lecture halls were placed along, and its northern edge became the ground for a central building. It was also the high ground of the overall Campus, and was supplied with the professor's residences. Future developments were built upon this main structure.

The center of the northern edge of Baekyangro was

occupied by the Underwood Hall(1924, Historical Site no.276), facing south, and to its sides were built the Stimson Hall(1922, Historical Site no.275) and Apenzeller Hall(1924, Historical Site no.277), both designed by an American architect H. Killian Murphy. All three are three-story masonry buildings with partial bay windows and Tudor-arched entrance in Gothic manner.

Korea University, initiated as Bosung Specialization Institute in 1905, established its present Campus in 1934, where the gully of the southeast was filled and occupied by the main hall, which was connected downwards to the library, auditorium, and the athletic field which was itself surrounded by lecture halls. The main hall(1934, Historical Site no.285) and the library(1937, Historical Site no.286) were designed by Park Dong-jin, one of Korea's first generation of modernized builders, and built by Korean capital. While the main hall is a stone masonry building following Tudor style, the library features refined touches on its facade's decorations.

The above mentioned Universities, with masterplans directed with a central axis, were influential to the planning of other Campuses which followed.

Commercial Architecture of the Modern Period

The district open by the government to foreign traders was Yanghwajin, which later moved to Yongsan, but the actual trading ground for the Japanese merchants was in Jingogae, near Namsan and currently sectioned as Chungmuro, while the Chinese engaged in the business around Supyokyo and a sector of Namdaemun. The two, along with the Korean market in Jongro, formed the three main commercial areas of Seoul, which actively encouraged the transformation of the City's traditional patterns.

It is true that architecture's most sensitive and reflective

廳街)와 남산 밑의 진고개에서 남대문에 이르는 일인상가, 소공동 일대의 청국인 상가로 나누어졌으며, 차츰 이들 상가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서울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세계의 건축사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타나는 것이 상업건축이다. 개화기에는 양식주의 건축이 많이 지어졌지만 20세기 초부터는 양식주의에서 탈피하기 시작하였으며, 1930년대 활발한 상업활동을 반영하여 합리주의와 기능주의를 바탕으로 한 모더니즘의 표현들이 나타났다. 이것은 건물의 용도가 권위를 내세우는 식민지 관청이 아닐뿐더러 설계한 사람들도 관 소속이 아닌 개인들이었고 또 당시 일본 국내에 조금씩 소개되기 시작한 서양의 근대건축운동의 영향이기도 하였다.

현존하는 주요 상업건축으로는 벽돌과 석재를 혼합한 절충주의 건물인 광통관(廣通館: 상업은행 종로지점, 1909), 일본인 다츠노 킨코(辰野金吾)가 설계한 유럽 성관풍 르네상스양식의 조선은행(현한국은행 본관, 1907, 사적 280호), 일민문화회관(현 동아일보사 사옥, 1926), 동경화재보험주식회사 경성지점(현 한국은행 별관, 1933), 조선저축은행(현 제일은행 은행사 박물관, 1935), 약초좌(若草座: 현 스카

라극장), 황금좌(黃金座: 현 국도극장, 1936) 등이 있다.

우리는 지난 20-30년 사이에 도시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또는 일제 전재의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개화기와 일제기의 수많은 건물을 헐어내고 전혀 낯설은 가로(街路)를 만들어 왔다. 이제 서울이 과연 조선왕조의 600년된 수도였던가 의심이 갈 정도로 완전히 옛모습이 없어졌으며, 불과 1세기 안된 사이에 개화기 이후 역동하던 역사의 산 증거물이던 근대건축물들이 거의 다 사라져 버렸다.

역사적 근대건축물은 전통목조건축과 달리 문화재적인 가치보다 잃어버린 도시의 아이덴티티와 문화적 연속성을 얻을 수 있고, 현실의 기능에 보다 쉽게 적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 경제적 가치가 높다. 따라서 다양한 수법의 보존과 활용이 요구되고 또한 가능하다. 비록 외세와 일제에 의한 서울 근대건축의 족적은 타력에 의한 것이었지만 이후 근대건축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근원이 되기도 한 것이며 근대건축물을 통해 서울의 개화사(開化史), 서울의 일제 침략사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20세기를 마감하는 우리는 남아있는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복원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type to the world's trend is the commercial facility. The early modernization period was crowded with stylistic architecture, which only began to perish in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opening way for the domination of rational, functional modernism in commercial architecture of the 1930s. Necessity for authoritative ambience were limited to colonial government buildings, and as the architects were unrelated to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their design could also be more open, perhaps to the modern architecture movement of the west, which had just begun to be introduced in Korea and Japan.

The remaining commercial buildings from the period include Hwangtongkwon(1909, currently the Jongro office of Commercial Bank), an eclectic work of bricks and stones, the Chosun Bank(1907, Historical Site no.280, now the headquarter of Korean National Bank) designed by the Japanese architect Tatsuno Kinko in European Renaissance style, and Kyungseung office of Tokyo Insurance Company, Ltd.(1935, now used as the Museum on the History of Banks, Jeil Bank). The buildings of cinemas Scara and Kukdo were also constructed in that era.

Through the past twenty to thirty years, with the intention of redeveloping the City's aged fabric and discarding undesired remnants from

the colonial period, historical vestiges of Seoul were carelessly demolished, producing a cityscape quite estranging even to the citizens of the Metropolis. In less than one sixth of Seoul's proud history of 600 years, the historical heritage of the modernization period, not to mention those which preceded it, became obliterated.

Architecture of the modern age are different from traditional wood structures whose value lie in their historical presence - They are the lost identity of this City which can provide a cultural continuity to this Metropolis, since they still maintain adaptability to the present functional needs. It is indeed true that they were heavily under the influence from the west and Japan, but this fact cannot eclipse our motivations and achievements in building a modern tradition of our own. From those which bore the roots of Seoul's contemporary architecture, we can be given a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City's process of modernization, which includes the unfortunate colonial period. Those who luckily endured and survived the hasty will to "cleanup" the City unquestionably deserve, from now on, our efforts of preservation and careful restoration.

역사적 도시속의 새로운 건축문화 New Architecture Culture in the Historical City

최왕돈 / 국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Choi Wang-Don / Professor, Kukmin Univ.

건축의 서울성은 있는가

지역건축탐방에서 서울의 건축을 논의함은 서울의 인문적, 자연적인 지역특질이 독립변수로써 건축에 작용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선 물리적인 '서울'의 실체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서울이란 경우에 따라서는 강남지역 11구, 강북지역 14구의 행정구역적인 개념이기도 하며, 서울의 사대문안과 기타 회교적인 흔적을

Is there any character to Seoul's architecture?

In discussing the architecture of Seoul in a Local Architecture Report, the premise should be made that the humanistic and natural regional characteristics of Seoul act as independent variables in the architecture. However, we can not proceed without closely examining what is the substance of the physical "Seoul". In some case, Seoul can be thought of as the administrative concept of the 11 districts of Kangnam and 14 districts of Kangbuk. This can be a narrow concept that includes four main gates and other historical traces inside it, or a broad concept that includes the satellite c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including Seoul. However, this is only part of various aspects of Seoul, and Seoul should be seen as something more than the mere summation of its parts.

The locality of Seoul may be taken to mean its physical,



참기미술관(우규송 作)
HWANGI Museum

포함하는 협의적인 개념일 수도, 혹은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 위 성도시를 포함하는 광역적인 개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서울의 다양한 측면들 중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며 서울이란 단순히 부분의 합이 아닌 보다 상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의 지역성이란 서울이라는 물리적, 사회 인문적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정체성이란 장소와 시간성의 집적을 통하여 형성된다. 따라서 서울건축의 지역성, 혹은 서울성의 존재는 당위성의 문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역건축탐방에서 어느 누구도 건축의 지역성이 제대로 표현되고 있는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섣뎌 내리지 못한 것 같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울건축의 지역성이 있기는 있는지, 있기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또 제대로 표현이 되고 있기는 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다. 서울건축의 지역성 표현문제는 극히 당연한 명제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는 까닭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서울이 대한민국 그 자체 혹은 축도인 것인 양 오해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지역건축이란 것이 존재한다면, 흔히 서울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에 의해 나누어지듯 그 지역건축의 대척점에 서울

social or humanistic identity. Here locality is created by accumulating the characteristics of times and locations. Accordingly, the existence of Seoul's character or the locality of Seoul's architecture are matters of course. However, no one seems to provide easily a positive evaluation of whether this locality of architecture has been properly expressed so far. More likely, there exists more negative viewpoints on what is the locality, if any, and whether this is properly expressed. The reason why we feel the problem of expressing the locality of Seoul Architecture is so problematic, even though it seems an extremely natural proposition at first sight, is that we have lived until now with the misunderstanding that Seoul is the Republic of Korea itself or its miniature. Accordingly, we should admit the fact that Seoul architecture is only one of several local architecture styles which constitute Korean architecture, rather than believing that Seoul architecture exists on a large scale and it is divided into Seoul and the provinces, if local architecture exist all.

Seoul character in architecture can be said to exist or not. When the inherent order of each building becomes the inevitable rather than the casual, thus being closely connected to the context of the city and holding a trace of accumulated time, this can be conceptualized as authentic architecture or architecture that properly realizes the meaning of locality. In addition, when these buildings accumulate one by one and finally constitute the whole, the local character of Seoul architecture, that is, the Seoul character in architecture, exist definitely. As to whether there exists architectural features coherent in Kangnam, Kangbuk and the new city, I think that there is no Seoul character, and further, the discussion on local architecture in Korea does not have a significant meaning. This article will explore the overall trend from the aspect of expression of locality and history character, rather than a separate discussion on the architecture built in Seoul in 1990's.

건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건축도 한국의 건축을 구성하는 하나의 지역건축이라는 점을 우선 인정하여야 한다.

건축의 서울성은 없다고도 할 수 있고, 혹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각각의 건물의 내재적 질서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 되며 따라서 도시의 문맥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누적된 시간의 흔적을 가지게 될 때 이를 진실한(Authentic) 건축, 장소성의 의미를 제대로 구현한 건축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러한 건물이 하나 둘 축적되어 큰 전체를 이룰 때 비로소 서울건축의 지역적 특성, 즉 건축의 서울성은 있는 것이요, 강남과 강북, 신도시를 일관하는 건축적 특질의 유무를 말하자면 분명히 서울성은 없으며 나아가 대한민국 내에서의 지역건축 논의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본 글에서는 1990년대에 서울에 지어진 건축에 대한 개별적인 논의보다는 시대성과 장소성의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개관하려 한다.

1990년대의 의미

서울의 현대건축에 대하여 몇 쪽의 글로 정

Meaning of 1990's

It is never easy to discuss the modern architecture of Seoul within a few pages, and this seems to be beyond my ability. It is not easy to review various kinds of architecture works built during 1 year, so it is beyond the realms of realism to summarize the whole content of modern architecture. Here, I will substantially reduce the scope and summarize the situation of 1990's for short, and limit the focus of most discussions to summarizing the architecture situation in 1990'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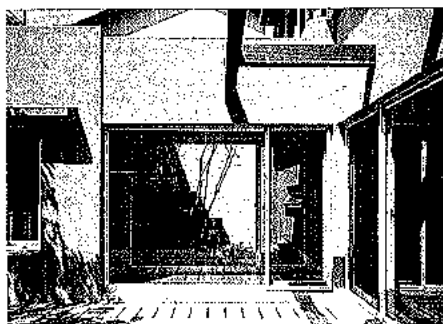
It can be assumed that 1950's is the exploration era of modernism architecture, 1960's is the period when the modernism architecture obtained universalism, 1970's is the period when the full-swing construction drive was promoted, leading to large scale investment, following 1960's. A sincere exploration of the Korean character of architecture was launched in this period. Those kinds of efforts can be glanced at in the National Museum(present National Folk Museum), National Theater, Space Group

리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필자의 능력으로 가능할 것 같지도 않다. 단 1년 동안 벌어진 다양하기 그지없는 건축작업들을 리뷰하기도 쉽지 않은 터에 하물며 현대건축 전반을 아우르는 글이라니. 여기에서는 범위를 대폭 좁혀 90년대까지의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대부분의 논의는 1990년대의 건축적 상황에 국한하여 그것도 단편적으로나마 정리하고자 한다.

1950년대는 모더니즘 건축의 탐색기, 1960년대는 모더니즘 건축이 보편성을 획득하는 시기, 1970년대는 60년대에 이어 본격적인 건설드라이브가 추진되면서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비로소 건축의 한국성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국립박물관(현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극장, 공간사육, 세종문화회관, 절두산 성당 등에서 그 고인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1980년대는 본격적인 다원성의 시대이다. 프로젝트의 대형화, 국가주도의 문예진흥정책에 의한 문예회관, 과천 현대미술관, 예술의전당 등의 문화건축, 영향력있는 재외건축가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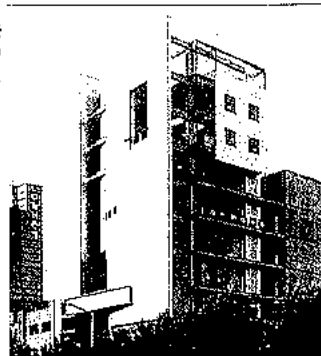
Bldg, Sejong Cultural Center and Jochusan cathedral. 1980's is the era of full-blown diversity. There was a trend toward larger projects and cultural constructions: the culture hall, Kwachon Modern Gallery and Seoul Art Center, a return of influential overseas Korean architects, emergence of Korean type Post-modernism, large scale construction activities accompanying the Asian Game and Seoul Olympic. Discussion on the locality or the Korean characters of architecture remained as it was, and was to become an obsession as we entered into the 1990's.

Our ten years corresponds to 100 years in other countries. This does not refer to the change in the economic index for sure. Rather, I mean we have experienced various kinds of ill-fated things, as the republic for the ordinary people became New Korea, and then the people's government. This can also be applied to the architecture industry, so we started with the boisterous noise from the housing construction site for 200 houses following Seoul Olympic, along with the fantasy and expectation of rainbow colors on the new millennium in 1990's. Metropolitan new cities including Bundang and Ilseon



수솔당(송효상 作)
Susoldang

바른손 사옥
(이종호+양남철 作)
Bareunson company Bldg.



귀국, 한국적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 수반된 대대적인 건축활동 등이 있게 되고 건축의 한국성, 혹은 지역성에 대한 논의가 제자리를 맴돌면서 하나의 강박관념으로 남아 90년대를 맞이하게 된다.

우리의 10년은 다른 나라의 100년 같다. 이것은 언필칭 경제적 지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의 공화국이 신한국이 되고 또 신한국이 국민의 정부가 되면서 사회, 정치, 문화적으로 참으로 다양하고 기구한 일들을 겪어서 하는 말이다. 건축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우리의 1990년대는 새로운 밀레니엄에 대한 무지갯빛 기대와 환상과 함께 88올림픽에 아온 200만호 주택건설의 요란한 공사장 소음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분당과 일산을 비롯한 수도권 신도시 는 불과 3,4년만에 '길 나와라 뚝딱, 집 나와라, 뚝딱' 지어졌으며 이곳 저곳에서 설계프로젝트가 엄청난 물량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 와중에 심품아파트,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획한한 대형붕괴사고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밟고 있는 총체적 지반의 강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하기 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IMF 관리체제라는 파국상황을 맞으면서 미래에 대한 낙관과

were constructed within only 3 and 4 years, like 'one pop up for a road and a house', and design projects poured in in large quantities. In the meantime, we started to fundamentally doubt the strength of the foundations that we stepped on through our experience of unusually large scale collapses such as the collapse of the Sampung Department store and Songsu Bridge. Facing the catastrophe of the IMF control system in the end, we have lost the optimism and hope for the future and remain hopeless with the desolate self-scom, computers and empty chairs without users. How could one ever experience the extreme end more painfully than this?



동송동 문화공간(송호상 作)
Dongsung-dong Cultural Hall

희망은 온데 간데 없고 쓸쓸한 자조와 체념만 설계사무소의 주인 잃은 빈 의자와 컴퓨터와 더불어 남았다. '극과 극 체험'을 이보다 더 절실히 할 수가 있을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올해 1999년이 건축문화의 해인 바에야 우리나라의 현대건축의 역사가 벌써 사, 오십년, 불혹이고 이림의 세월이다. 시행착오도 격을 만큼 겪었다. 이제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것을 세울 때가 되었다.

도시의 문맥찾기와 한국성의 탐구

90년대 초까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북촌 일대의 도시한옥들은 이제 그 흔적만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휘문고가 현대빌딩으로 바뀌고 창덕여고가 헌법재판소로 바뀐 마당에 공공부문의 대규모 지원이 전제되지 않은 채 주민들의 일방적인 회생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으리라. 7, 8년 전 이었던가. 가회동 일원에 대한 뜻 있는 건축가들의 의미있는 제안은 건축가라는 직능의 역할에 대한 면죄부 수여로 끝나고 공허한 안타까움만 남았다. 년전에 조성된 남산골 한옥촌은 옛

Ironically, 1999 is the year for architecture culture. Our 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 is 40 and 50 years old. We have experienced enough the trial and error approach. It is time for us to establish our own without shaking by draft.

Exploring the context of the city and Korean Character

The Korean style houses around Bukchon that had maintained their nominal existence until early 1990 have gone now, and only their traces remain. It might be unreasonable to force unilateral sacrifices onto the residents without giving large scale of support in the public sectors, such as when the Hyumun Highschool was changed to Hyundai building, and Changduk Girl's high school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is was 7 or 8 years ago. Meaningful proposals by architects who had wholesome plans for Kahoi-dong ended up granting them the indulgent role of architect. The Korean house village of Namsan Valley that was built a few years ago didn't have anything to do with old Namsan Valley, thus it remained as just a stage set. There is no alley filled with the mood of old Seoul, and no children playing in the alleys of the village. Old houses where no one lives are not architecture but merely stuffing. They may be meaningful as cultural assets or in history of architecture, but they do not show the relations with the city or life of the residents any more.

The cold logic of humble capitalism seems to swallow alleys, villages and important landmarks that remind us of the old aspects of Seoul in the four gates. As the South Gate shows diminutive aspects, surrounded by company buildings of conglomerates, so does the North Gate.

We lost the meaning and history for a modernized large scale market building. In addition, Boshingak was degraded into a miniature,

날의 남산골과는 아무런 관계성을 맺지 못하고 한낱 무대세트
로 남았다. 옛 서울의 정취 어린 골목길은 찾을 길 없으며 집
어귀에는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이 뛰어 놀지 않는다. 사람이 살
지 않는 옛집들은 건축이 아니고 박제일 뿐이다. 건축사적 의
미, 혹은 문화재로서의 의미는 있을지언정 도시와의 관계, 사
람들의 삶의 모습은 더 이상 보여주지 못한다.

천민자본주의의 냉혹한 논리는 사대문 안의
서울의 옛 모습을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랜드마크와 동네, 길
목들을 불원간 다 삼키고 말 기세이다. 남대문이 재벌사옥들로
포위되어 왜소한 모습을 보이듯 동대문도 마찬가지이다. 현대
화된 대형시장건물을 얻은 대신 역사와 의미를 잃었다. 또 그
런 식으로 제일은행 본점, 영풍빌딩, 화신백화점을 대신한 탑
클라우드라는 건물로 보신각이 미니어처로 전락하고 있다. 걸
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릴리푸트와 브롭딩내그가 서울에서 재
현된다고나 할까. 앞으로 우리는 공간사옥이 재벌사옥의 주차
장으로 바뀌지 않도록 또 얼마나 노심초사하여야 하는가. 최근
사대문안과 북한산 조망지역의 건물 층수와 스카이라인을 규
제한다는 당국의 발표는 만시지탄이나 서울의 미래에 대한 실

due to the building called "Top Claude" which replaced a headquarters of the
Korea First Bank, Youngpung Building and Whashin Department Store. It can
be said that Lilliput and Broodingnag in the book Gulliver's Travels are revived in
Seoul. How much we have to rack our brains not to have Space Group Bldg
converted into a parking lot for the company buildings of conglomerates in the
future. Recent announcement by the government to regulate the story of the
building and skyline in the four gates and the prospect areas of Mt. Pukhan,
gives us a bit of hope for the future of Seoul, even though it actually brought in
criticism from the public.

Meanwhile, instinctive nostalgia for our alleys and
gardens that have faded led many architects to make alleys and gardens in
their architectural works. The Baronson company building and Dongsung-
dong Cultural Hall might be good examples. Myungbo Theater and GlassForum
(new 'Space Group Bldg') can be regarded as representative works of 1990's
that exactly recognize the context of the city based on the exact understanding
on the city architectural character.

Visual success has begun to appear in an attempt to
find the Korean character of architecture, the subject that has continued to
suppress Korean architect for 50 years after Independence. One excellent
work in terms of interpretation of nature, relationships with construction
and composition of space inside and outside, is HWANGI Museum,
following Space Group Bldg and France Embassy in last generation.
Susoldang that embraced the Jungjong Korean houses in Seoul can be
regarded as an excellent piece of work that is faithful in exploring the
prototype of our resident architecture. Besides, many vigorous young
architects and leading architects devote themselves to translating the
traditional city residence into a modern one. We need to keep eye on the
result with ho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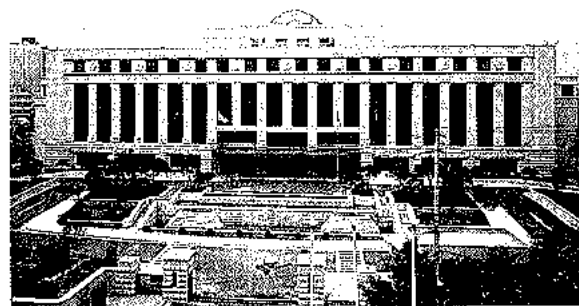
날같은 희망을 갖게 한다.

한편 사라지고 있는 우리의 골목과 마당에 대
한 본능적인 향수는 많은 건축가로 하여금 건축 내에 골목을
만들고 마당을 만들게 하였다. 바른손 사옥, 동숭동 문화공간
등의 건물이 그 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건축의 도시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근거하여 도시의 문맥을 정확하게 파악한 90년
대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명보극장, 공간신사옥 등을 꼽을 수
있겠다.

그런가하면 해방 후 50년간 한국건축가들을
옥죄어 온 회두, 건축의 한국성을 찾기 위한 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다. 이전 세대의 프랑크대사관, 공간사
옥의 뒤를 이어 자연의 해석, 건축과의 관계짓기, 내외부공간
의 구성 등에서 탁월한 작품으로는 환기미술관이 있다. 그리
고 우리 주거건축의 원형찾기에 충실한 작품으로는 서울지역
의 중정 한옥을 내화한 수족당을 꼽을 만하다. 그 외에도 많은
소장, 중견건축가들이 전통 도시주거를 현대적으로 변안하는
작업을 집요하게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희망을 가지고 지켜
봐야 하겠다.

New trend of Architecture

One of the most obvious phenomenon since 1990 is the
fact that foreign design offices have arrived in crowds in Korea as the new
world order of so called new liberalism came in to gear with the ostentatious
consumption psychology of the Korean architecture customer. The Kyobo
building, International Company building, 63 building of DLI, LG Tower, Lotte
Complex in 1980's, first on its list, Samsung Main Building renovation,
Headquarters of Kukmin Bank, Company building of Daewoo Electronics,
Itaewon Museum Complex and many buildings around Taeheran Road and
Kangnam Blvd. designed by foreign design companies have changed the
skylines in Kangnam, Chongro, Taepyungro in Kangbuk. Even though we can
not ignore the positive aspects of supplying cutting-edge architecture
technology and new architectural idea, and its stimulus on domestic architect,
these buildings disrespect our lifestyle by ignoring the interpretation of nature
and city and giving an impression of superficial understanding and a solution b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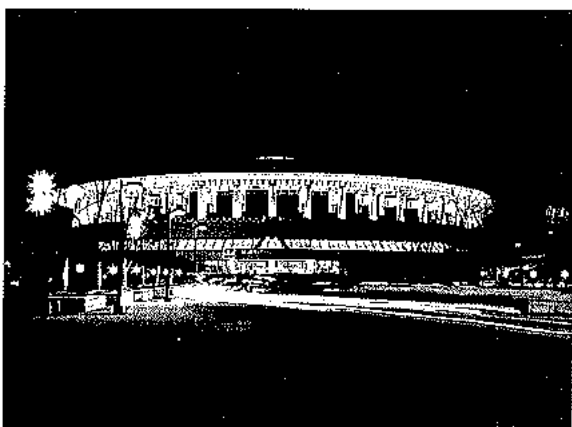
헌법재판소(김희수 作)
Constitutional Court

건축의 새로운 흐름

90년대 이후부터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 중의 하나라면 소위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가 한국건축주들의 과시적 소비심리와 맞물리면서 외국 설계사무소의 국내진출이 겹잡을 수 없이 활발해졌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80년대의 교보, 국제사옥, 대한생명, 럭키금성타워, 롯데 컴플렉스를 필두로 삼성본관 리노베이션, 국민은행 본점, 대우전자 사옥, 이태원 박물관 콤플렉스, 기타 상당수의 테헤란로와 강남대로변의 외국설계회사가 디자인한 건물들이 강남과 강북의 종로, 태평로 등지의 스카이라인을 바꾸고 있다. 첨단 건축기술과 새로운 건축적 아이디어의 공급, 국내작가에 대한 자극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우리의 자연과 도시, 감성의 해석을 외국건축가의 피상적인 이해와 표피적인 해결에 방기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경험과 무관한 건물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건축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결과물을 기대해보지만 결과적으로 건축주와 한국의 하청설계회사를 농락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식할 수 없다.

foreign architects. I can not let go of this suspicion despite the fact it may upset the customer and subcontracting company, even though our expectation of the result is a sincere reflection of the architecture

While most existing high-rises paid attention to the model of the frame, the new type of buildings represented by the Posco center successfully present the vision for the future and act as the symbol of the age. It might be outside the current discussion on the quality of architecture, but I would like to mention that a building like Technomart is the faithful reflection of a consumption culture in the late industrial society, and that we may see more and more huge and complex space in the foreseeable future. In the meantime, young architects studying architect overseas return to Korea one after another, constituting the fourth generation architect group along with local young architects, and launch aggressive activities, showing various trends of architectures. However, we should withhold the conclusion that their



예술의 전당(김석철 作)
Seoul Art Center



공간신사옥(장세양 作)
Glass Four

가존의 고층건물들이 대부분 스킨의 조형에만 관심을 기울인 반면 포스코 빌딩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유형의

meaningless form, abstraction and foreign tastes can successfully put down its roots in Seoul. Shouldn't we come up with, at least, quoting somebody's poignant comment, "the intellectual in a military campside town, or architect in military campside"?

Looking for new architecture culture in a historical city

In general, the architecture containing the locality should be closely linked to the detailed daily life of the people, and pivotal traces of time should remain within it. Old palaces isolated like island in the city, high-rise apartments mercilessly constructed on and around the mountains, rivers, and hills which remains just like the vestigial organ, as well as large sized building that destroy the continuity and scale of the city, make the name value of Seoul which has cherished a history of 600 years shameful.

Isn't there any means to cure Seoul who looks like a patient in the terminal stage of cancer? It may sound theoretically naive, but it is necessary to redesign the skyline and space structure linking the inside Four gates, each small downtown and Kangnam, and to prepare a detailed city design which has an identity by recognizing the inherent characters of each village and road, and further to draw support from the public sector in order to prevent this design from ending up as just another paper design. Architects should also share the understanding that anguish on the relations between context of city, Seoul, and detailed text, would prevail over the Tabula Rasa, architecture as fractionalized OBUJE.

Isn't it the architecture that shows the locality of Seoul, if it is the architecture resulting from the sincere anguish on the life of the people by firmly standing on one place, land of Seoul with two feet, and correctly understanding the history and locality of that land?

건물들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며 시대적 상징의 역할을 하는데 모자람이 없었다. 건축적 질에 관한 논의에서는 비켜나지만 테크노마트와 같은 건물은 후기산업사회의 소비문화의 충실한 반영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거대, 복합공간을 보게될 것 같다. 한편 외국에서 건축교육을 받은 많은 젊은 건축가들이 속속 귀국하여 신토불이 젊은 건축가들과 제4세대 건축가집단을 형성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함으로써 다양한 건축적 경향을 보인다. 다만 이들의 비의적 형태와 추상성, 미국적 취향이 서울에 얼마나 단단하게 착근이 될 수 있을 지는 결론을 유보하여야 할 것 같다. 누군가의 독설처럼 '기지촌의 지식인', '기지촌의 건축가'는 나오지 않아야 하지 않겠는가.

역사적 도시에서의 새로운 건축문화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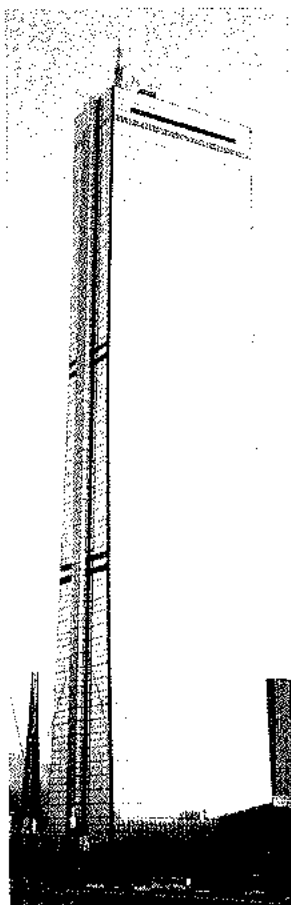
무릇 지역성을 담은 건축은 구체적인 사람들의 일상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중층적인 시간의 흔적이 오롯이 남겨진 것이어야 한다. 도시의 섬처럼 고립된 고궁과 흔적기관 같이 남은 서울의 산과 하천, 구릉지마다 무자비하게 올라가는

고층아파트, 도시의 스케일과 연속성을 파괴하는 대규모 건물 등은 6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서울의 이름값을 무색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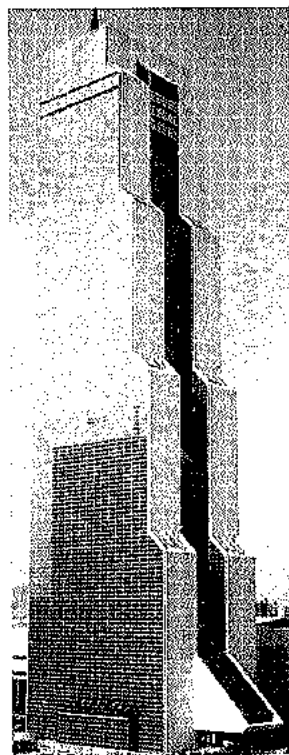
말기 암환자같은 모습을 보이는 서울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원론적이고 순진한 이야기이지만 거시적으로는 사대문안과 각 부심, 강남을 연결하는 서울의 공간구조와 스카이라인을 재편성하고 각 동네, 가로 별로 내재된 특성을 파악하여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도시설계가 있어야 하며 이것이 페이퍼 디자인으로 끝나지 않도록 대대적인 공공부문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건축가 역시 서울이라는 도시의 컨텍스트와 구체적인 텍스트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파편화된 오브제로서의 건축, 타블라 라사(Tabula Rasa)의 건축에 우선한다는 인식을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의 어느 한 곳, 대지에 두 다리를 굳건히 밀고 서서 그 땅의 역사와 장소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진실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로서의 건축이라면 그것이 바로 서울의 지역성을 나타내는 건축 아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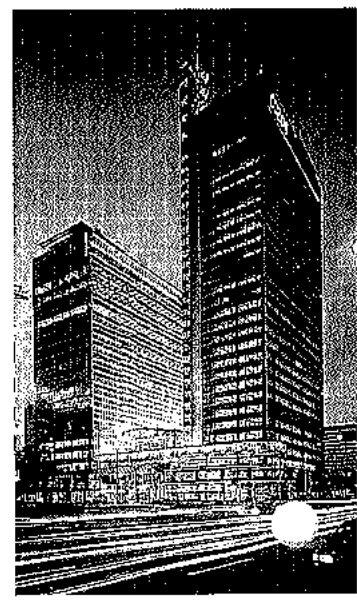
대한생명사옥
63 Building of DLI



한국종합무역센터
Korea Trade Center



LG 트윈타워
LG Twin Tower



포스코센터
POSCO Center

프랑스 건축이론의 전통과 20세기의 건축(7)

The Tradition of Theory in French Architecture and the Architecture of 20th Century

Jean-Jacques Lequeu의 건축

김미상* / 경기대 건축대학원 강사

by Kim Mi-Sang

목 차

1.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 ① 장식 (la Décoration)
2.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 ② 배치 (la Distribution)
3.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①
4.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②
5. C-N Ledoux의 건축이론 ①
6. C-N Ledoux의 건축이론 ②
7. J-J Lequeu의 건축이론
8. 고전주의 건축과 자주적 건축
(Architecture Autonome)
9. 고전주의 건축과 자주적 건축
(Architecture Autonome)
10. Beaux-Arts와 합리주의
11. Le Corbusier의 건축사상에 나타난
합리적 건축의 전통
12. Epilogue: 21세기와 건축이론

Jean-Jacques Lequeu(장-작고 르쵸)는 Rouen(루앙)에서 출생하였다. Lequeu는 가구제조인의 아들이었다.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보관된 Lequeu의 소장품 중 그의 아버지가 제작한 다음과 같은 몇 점의 그림들이 있다. 1745년이라는 연대가 기록된 Mantelpiece벽난로 장식, 1750년의 로코코식 찬장, 정원계획, 단형의 기념물 입면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항으로 볼 때 그의 아버지는 건축에 관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사가들은 추정한다. J-J Lequeu는 그의 아버지 뒤를 이어 다양한 활동을 하였지만 차츰 건축에 전념하게 된다. Rouen의 데생(Dessin)학교에서 Lequeu는 1776년과 1778년에 상을 수상하였다. 학교의 교장이자 화가인 Jean-Baptiste Descamps(장-밥띠스뜨 데캉)은 그의 재질을 발견, 인정하고 Paris에서 공부하도록 그를 부추겼다. 그리고 Descamps는 성직자였던 Lequeu의 삼촌을 설득하여 2년동안 연금을 주도록 하여 1779년에 Lequeu는 Paris로 상경하였다.

도착 후 이튿날 Lequeu는 소개편지를 Jacques-Germain Soufflot(작고-제르맹 수플로)에게 건네려고 하였지만 그가 외병 중에 있어 며칠 후에야 Lequeu의 편지를 접할 수 있었다고 한다. Soufflot는 Boullée의 친구이자 그 유명한 Les Ruines des Plus Beaux Monuments de la Grèce (가장 훌륭한 그리스 기념물의 폐허)의 저자인 Julien-David Le Roy(줄리앙-다비드 르 루아)에게 소개하여 Académie

* 본명 김원식

Mie royale(아카데미 르아얌: 왕립 아카데미)의 학생으로 받아들여졌다. Soufflot 또한 로마에서 갓 돌아온 자신의 조카 François Soufflot(프랑스와 수플로)와 함께 Lequeu를 자신의 아뜰리에에서 근무토록 하였는데 Lequeu는 Soufflot의 따뜻한 배려를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게 된다. 말년에 Lequeu는 Bibliothèque Impériale(비블리오텍 엠페리알: 황실 도서관)에 Soufflot의 판화들을 기증하면서 자기의 현사(獻辭) 역시 제출하고 있는데 자신을 그의 문하생으로 언급하며 스승에 관한 간략한 저서목록 역시 제출하고 있다. 그는 Descamps이 추천한 다른 예술가들 역시 언급하였다: 판화가 Cochin(코쎄), 회화학교의 간사, 조각가 Caffieri(까파에리)와 Gois(구와), 몇몇의 화가 그리고 건축가 Franque(프랑크)를 언급하고 있다.

Paris체류 초기 몇 년동안 Rouen에서 시작한 건축 사상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손으로 제작한 '애호가에게 알림(Avis Aux Amateurs)'이라는 광고 포스터 및 1777년부터 1784년에 걸쳐 정성들여 제작한 몇 개의 데생들은 그가 그림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1779년, 아마도 Paris로 떠나기 전, Lequeu는 대규모 건축작품인 Rouen의 시청사(Hôtel de Ville)안을 제작하였다. 이 작품은 훗날 그의 고장인 Rouen에 명성을 안겨 준다. 그 후 de Bouville(드 부우빌)공작과 함께 이탈리아 대여행을 떠나는 것은 1780년경이 거의 확실한데 그는 이 여행에 관하여 짧은 수기, 그리고 몇몇의 그림을 통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그 에피소드들은 그의 전기(傳記)와 일치한다. 그리고 프랑스혁명기간동안 Lequeu는 지도제작자로도 일을 했다.

Lequeu는 Salon으로 출입을 하거나 후원자를 두지 못한 점으로 보아, 그리고 선임 또는 그와 동시대의 건축가들과 잘 조화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타건축가들에 비교하면 자신의 입지를 확실하게 확립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그는 아마도 건축가로서는 최저의 생활을 일생동안 영위했을 것이란 가능성을 Anthony Vidler는 그의 책에서 비추고 있다.¹⁾ 그는 당시의 문필가들의 생활이 하층의 것이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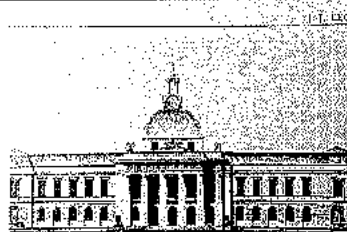
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도(製圖)를 생계수단으로 연명하며 은퇴할 때까지 근근히 사는 방법을 터득했던 것이다. 이런 제도사들의 계획안 가운데 Lequeu의 것은 가장 불만한 것이다. 그가 아직 학생의 신분이었을 때 그의 스승 Descamps은 Lequeu의 그림 재주를 인정하였다. 그를 Paris로 갈 수 있도록 한 것은 그의 제도 및 그림실력이었던 것이다. 그는 사망하기 바로 직전인 1825년 자신의 그림을 Bibliothèque Royale(왕립 도서관)에 기증하였다. 이 그림과 제도물은 그의 탁월한 솜씨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법의 면에서 볼 때 거의 완벽한 경지에 이르고 있다.

일생동안 그는 스스로 당시의 가장 훌륭한 건축가들과 비길 수 있는 건축가로 여겼다. 타인과 어울리거나 자기의 주장을 타인에게 펼치지 못한 그의 성격은 두 가지의 결과를 몰고 왔다. 과장된 편집성 및 그의 그림과 텍스트에 흐르고 있는 박해의 분위기가 그것이다. 계획안의 많은 부분들은 그보다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향한 앙갚음의 의도로서 고안된 것 같아 보인다. 동료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이 타고 태어난 재주를 기록하기 위하여 제작된 일련의 작품은 1789년부터 1825년 사이, 여가가 있을 때 그린 것들이다. 이 그림들은 정교한 정확성, 해부학적인 미, 역사적 표현, 그리고 그것들이 지닌 강박관념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관자로 하여금 그림 앞에서 입을 다물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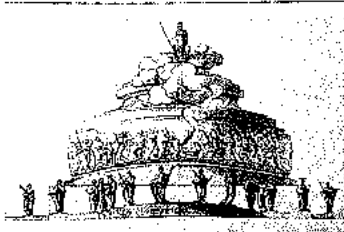
Lequeu의 작품세계

Lequeu의 건축적 발전단계는 3개의 시대로 구분한다. 젊은 시절에 그는 당시에 유행하던 후기 바로크와 와 출현하기 시작한 신고전주의를 떠났다. 그는 또한 낭만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중세의 건축에 많은 흥미를 갖기도 하였다. 두 번째의 단계는 그의 강한 개성이 확고해지기 시작한 때이다. Lequeu는 Ledoux보다는 덜 무모하게 과거의 형태를 사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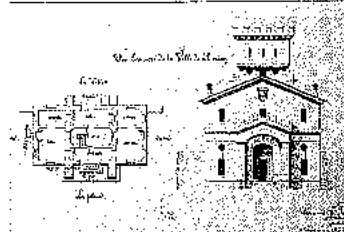
1) Vidler, Anthony: The Writing of the Walls: Architectural Theory in the Late Enlightenment,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ew York, 1987, p. 115.



Rouen의 시청(Hôtel de Ville)



아테네 기념탑 (Monument d'Athènes)



Rouen의 방벽 (Barrière pour Rouen)

었고 순수한 형태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가 사용하는 모델을 가장 대담하고 비길 데 없는 행동노선을 창조하였다. 세 번째 즉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러한 젊은 시절의 성급함, 과격성, 맹렬함과 혁명적인 열광은 사라지고 없다. Lequeu의 인생을 구분함에 있어서 연대기적으로 정확히 선을 그어 구분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첫단계로부터 두 번째는 1780년경,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1800년경으로 생각된다. 모든 단계는 절정, 퇴보의 단계, 그리고 환희 및 실망의 날들로 묘사되어 있다. Lequeu는 언제나 자기의 Dessin에, 아주 환상적인 계획안에 초치도, 학생들을 위한 긴박한 가르침을 첨가해두곤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주제에 관해 설명을 하고 싶을 땐 예술적으로 작성된 도해를 제작하였다.

Baroque와 고전주의

Lequeu가 아직도 학생이었을 때인 1776년에 제작한 Monument d'Athéna(모뉴멍 다테나: 아테네 기념탑)는 전형적인 후기 바로크 양식 또는 로코코 양식이다. 이 작품은 날씬한 곡선과 풍요한 장식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벽에 돌출새김(Haut-Relief)으로 새겨진 다수의 인물상은 그 장식이 새겨진 벽을 가득 덮어 거의 모두 가리고 있다. 구름은 그 정상부의 디테일을 얼버무려 처리하고 있다. 이 Dessin에선 많은 건축운동들의 요소가 발견되고 있지만 이미 유행하고 있던 엄숙한 고전주의는 발견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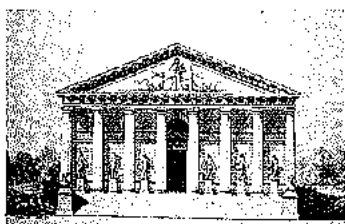
얼마 후 Lequeu는 Palais de l'Empereur(팔레 드 랑페르: 황제궁)에 세워질 화려한 Chapelle Sainte-Geneviève(샤벨 생트-쥬느비에브: 성 쥬느비에브 채플)를 계획하였다. 그는 도면 뒤에 이 계획안을 Soufflot와 왕에게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Rouen의 방벽은 이 계획안과는 매우 상이하다. 이 계획 내에 적힌 구절 하나는 이 Dessin이 Decamps(데강)에게 보내졌다고 정확히 기술하고 있다. 미성숙된 작품성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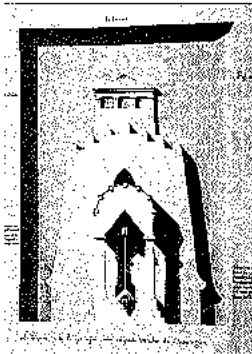
로 볼 때 우리는 Lequeu의 작품이 Descamps의 학생이었을 때, 또는 그보다도 훨씬 전에 그에게 보내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아마도 어린 Lequeu는 자기의 재능을 그의 스승으로부터 검증받으려 했을 것이다. 어느 정도 통견적인 느낌을 풍기는 Rouen의 방벽은 전기 낭만주의의 한 예가 된다. 현관은 중세 성의 방어용 벽과 같은 톱니모양을 하고 있는 기묘한 형태의 박공벽으로 끝나고 있다. 역시 톱니모양을 하고 있는 탑은 지붕 위로 솟아오르고 있다. Le Fortin(르 포르탱) 역시 중세의 성을 떠오르게 한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가스성으로 볼 때 이것은 그보다 후에 제작된 것임을 상상케 한다.

Lequeu는 1779년 Rouen의 시청사를 계획하였다. 그는 Académie d'architecture de Paris(아카데미 다쉬 아키텍튀르 드 빠리: 파리 건축 아카데미)의 임원이었던 Antoine Mathurin Le Carpentier(앙투안느 마튀랭 르 까르팡띠에)가 1758년에 제안한 계획에 대신하여 자기의 계획안이 채택되기를 열망하였다. Lequeu는 Louis 16세 스타일의 냉정하고 비개성적인 자기의 계획안을 Académie royale de Rouen(아카데미 루아얄 드 루앙: 왕립 루앙 아카데미)이 받아들였다고 자신의 입으로 언급하였다. 건물은 긴 파사드를 가지고 있으며 1층 벽은 거친돌 쌓기(Rustication)로 마감되었다. 1층의 창은 반원형 홍예창을 하고 있으며 2층은 사각형의 창을 채용하고 있다. 중앙엔 상부의 망사르식 지붕에까지 이르는 도리아식의 현관이 배치되어 있다. 양단에 배치된 Pavilion은 약간 외부로 돌출되었으며 상부에 뾰족돔이 위치하고 있다. 이 Pavilion들은 본 건물의 파사드 양단을 마무리짓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전체적인 배치는 Baroque적이지만 Baroque양식에서 볼 수 있는 활기넘치는 발견할 수 없고 고전주의적 예술에서 발견되는 정적인 분위기가 오히려 강하다. 파사드에서는 어떠한 운동성도 발견할 수 없으며 각 요소들은 마치 얼어붙은 정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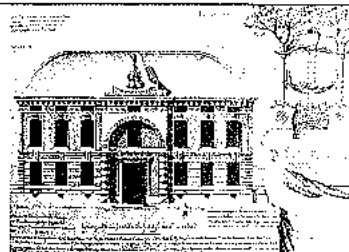
1786년에 건립된 Sgrawensel(스그라웬셀)의 Meulenaer(밀르나르)라고 하는 노파부의 Casino de Terlinden(까지노 드 테르렌든: 테르렌든의 카지노)계획에서



침묵의 사원 (Temple du silence)



소방펌프 (Pompe à feu)



선술집 (Guinguette)

는 주입구는 고대의 사원에서처럼 사각형 평면의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주입구의 뒤편엔 계단이 있으며 그 뒤편 2열로 방이 줄지어 있다. 평면은 Baroque에서 볼 수 있는 중앙성(中央性) 또는 주된 방위성(方位性)을 찾아보기 힘들게 고안되었다. 이 건물은 고대 사원을 모방하는 것을 겨냥하였기 때문에 중앙성을 전제사항으로 하는 배치를 채택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이 계획안이 유행하는 양식을 따라 제작되었음을 건축주가 흡족해하고 있음과 아울러 건축가는 이러한 배치를 입안할 자유가 없음을 알 수 있다. Baroque시대에는 오로지 전통을 빈틈없이 따른 계획안만이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이런 사항과 조건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절대로 지어질 수 없었다. 어찌되었든 Terlinden이란 일종의 '사원'처럼 계획된 것으로 당시에 방의 자유로운 배치가 선호되는 풍조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내부의 장식은 직선을 사용한 순수 Louis 16세 양식과 그리스 양식의 현관을 채택하였음을 보여준다. 정원에는 기념물로서 여성의 흉상이 있으며 Lequeu가 후에 창작할 작품들을 예시하고 있다. 그는 궁륭의 꼭대기를 장식하는 수직의 꽃줄장식 각 홍예의 옆에 배치된 부드러운 새의 날개 등의 기묘한 디테일들로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놀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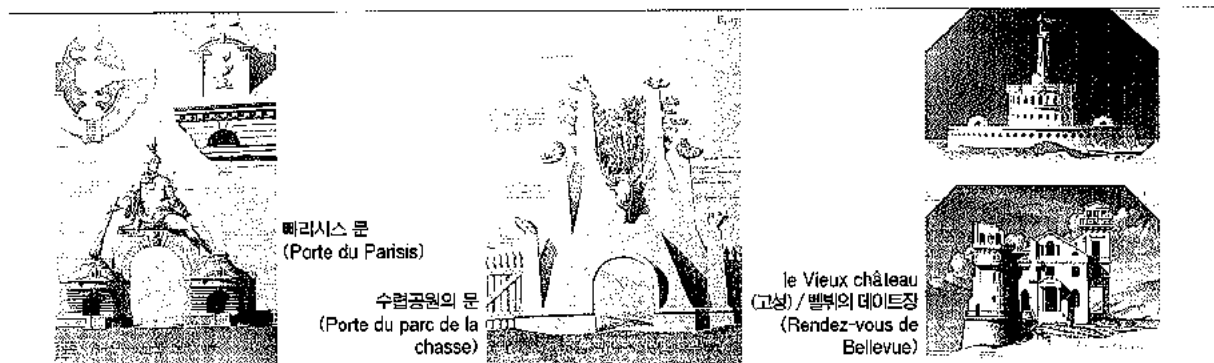
Portenort(포르트노르)근처에 위치한 Comte de Bouville(콩트 드 부빌: 부빌 백작)의 저택은 'Temple du silence (명찰르 뒤 실랑스: 침묵의 사원)'이라고 불리며 내부 및 외부 모두 Casino de Terlinden과 매우 유사하다.

혼종건축

프랑스 혁명 당시 Lequeu가 제작한 그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Rouen출신 Lequeu와 동향인인 Jacques-François Blondel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기술하였듯 Blondel은 저명한 교수이자 통찰력 있는 예술가였다. 그의 이론과 사상은 자기보다 2세대 또는 3세대 후의 건축가들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되었다. Blondel은 Lequeu

가 건축수업을 막 시작할 때 Louvre의 학교에서 숨을 거두었기 때문에 Lequeu의 dessin 및 작품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londel의 글 중 많은 부분은 Lequeu의 그림들을 삽화로 쓰면 어울린다고 여겨질 정도이다. 그리고 기묘한 Lequeu의 dessin들은 Blondel의 글을 채움하면 잘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질 정도로 두 사람은 비슷한 경향을 따르고 있었으며 그 내용이 서로 닮았다고 할 수 있다. Blondel이 1750-1760대에 따르던 경향은 Lequeu의 시대인 1780-1790경에도 항상 존속하였다. 이 당시의 다른 건축사상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Boullée와 Ledoux의 새로운 창안물들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Laugier의 Doctrine학설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Viel의 가시 돌진 비평 등을 참작하지 않는다면, 프랑스혁명 당시에 태어난 계획안에서 보여지는 생명력과 그 풍부함은 단지 Blondel과 Lequeu의 환상, 공상만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Lequeu의 계획안에는 Blondel이 그토록 반대한, 여러 나라 및 다양한 시대들로부터 차용한 양식들이 뒤죽박죽 혼합되어 있다. 이집트 스타일의 주택, 중국식의 주택, 터키식 주거, 작은 유대교회, 페르시아식 문, 페르시아식 지성소, 동방 모티브의 닭장, 동양식과 기하학적인 형태가 혼합된 압착장과 비둘기집 등의 계획안뿐만 아니라 유제품 판매점, 이시스(Isis)신전의 파사드 등과 같은 고딕식의 계획안들을 역시 찾아볼 수 있다. 이 계획안에서는 고딕 애호가들의 평범한 모방을 훨씬 넘어서는 독창성이 발견된다. 그런 독창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삽화의 설명문에는 여러 양식을 혼합하는 부조리성이 드러나고 있다: '갈(Gaule)족이 건설하고 François 1세가 보존한 이시스 신전에 웅용된 교회의 문: 이것은 그리스 건축을 revival한 것이다.' 공작의 채플은 명확히도 베니스 르네상스의 건축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지만 자연의 한 복판에 세워진 건물을 주변 환경에 통합하고자 하는 의도를 발견할 수 있다. 은자(隱者)의 정자, 사냥터지기의 초소는 나무껍질로 뒤덮이거나 통나무로 건설되었다. 이 그림들은 유쾌하고 낭만적인 여흥을 위한 건축물들처럼 보이지만 1800년경의 인간성의 자



각을 향한 정신의 개방을 예고하는 것이다.

Lequeu의 계획안에는 Blondel이 비난하던 또 다른 지나친 사항들이 발견된다. 공화정 제2년에 제작된 저명한 시들의 영광을 위한 기념물에서 발견되는 지나치게 많은 조각물, 지옥굴을 둘러싸는, 어느 양식에도 속하지 않는 이상한 형태의 원주, 복잡한 형태의 소방펌프, 화약가게 등 또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계획안들이다. 소방펌프와 화약가게의 지붕선은 매우 표현적이다. 등대를 감싸 도는 계단은 장식적이고 환상적 차원의 것이다. Lequeu는 가장 평범한 건축물을 전설된 예술품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찾아내고 하였다. 평범한 어떤 주제를 이상야릇하게 개작하는 것은 고전주의를 개작하는 것보다 그의 주의를 끌었고 그를 더욱 사로잡았다. 고전주의의 주제를 변주하는 것은 열성적인 단순 모방자의 세심한 모방을 훨씬 능가한다. 서커스의 개선장군의 개선문, 1813년에 사망한 Victor Moreau(빅토르 모로) 그리고 용감한 애국전사를 위한 개선문들은 선대 고전주의 작품들과 비교하면 공통점을 거의 찾을 수 없다. 나라를 위하여 죽은 용감한 시민들을 위한 기념물은 그리스 또는 이집트의 예술을 모방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Lequeu의 저명한 개인적 공헌을 이루도록 한 두 가지 문화의 영향을 합성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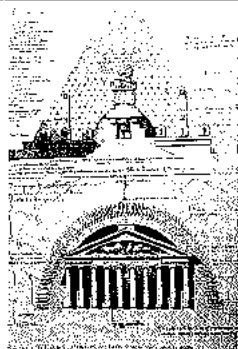
1785년에 제작된 Belvédère(벨베데르: 정자) 그리고 Maison de Plaisance(메종 드 플레장스: 즐거움의 집)는 규칙과 전통을 어떤 정도까지 바꾸어 놓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려고 하는 그의 열망은 영주(領主)의 법정안(法廷案)에서 드러난다. Voltaire를 위한 장제신전은 별난 형태의 아케이드를 구비한 다각형의 건물이다. 비록 깃털 그리고 기구 등과 같은 것은 명명백백히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세심한 성격에서 비롯된 그의 버릇에 따라 그림의 옆에 정확한 설명을 써 놓았다. Lequeu를 단적으로 정의한다면 그는 환상적인 예술가이자 하찮은 것을 캐기 좋아하는 지도제작사였다. 그의 이런 성격은 동일한 도면에 해시계와 벽감 내에 있는 아름다운 분수를 그려 놓도록 하였다. 아름다운 작은 숲속의 선술집은 전통적인 건축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의 건축세계에서는 정상적인 것이다. 이러한 특별한 예에서 보여지는 상대적인 예술적 질서는 미치광이 같고, 꿈 이상으로 놀라운 것이다. 여백에 그는 선술집의 간판에 새겨 넣을 십여 종류의 포도주 이름 목록을 작성하였고 오른쪽 상단에는 목가적인 풍경을 한 낙원의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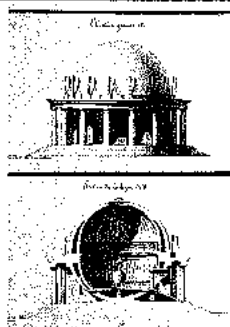
Architecture Parlante: Decadence

Porte du Paris(포르뜨 드 빠리시스: 빠리 시스의 문) 또는 Arc du Peuple(아르고 뒤 뽀플: 국민 개선문)은 Blondel이 평가하였으면 잘못 배합된 혼합물이라고 불렀을 법한 것이다. 육중한 문 위에는 프리지아식의 모자를 쓴 헤라클레스로 표현된 자유의 시민의상이 놓여 있다. 공화정 2년에 만들어진 평화의 법정 계획안은 파사드에 비하여 균형잡히지 않은 개구부들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의 두 가지 계획안은 각기 다른 설명을 할 수 있다. 첫 번째의 것은 작가의 목숨을 위협한 자기민족을 조롱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두 번째의 안은 근엄히 설계된 계획안이다. 그렇지만 구성의 방법은 동일하다. 지금까지 지켜진 법칙들을 무시하는 Lequeu는 이론가들이 원하는 비례체계로부터 도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이러한 계획안을 광인의 것이라고 말한다면 20세기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건축물 및 계획안들은 바로 그러한 광인의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불균형으로 인한 무한한 미학적 기능성의 기원은 프랑스혁명의 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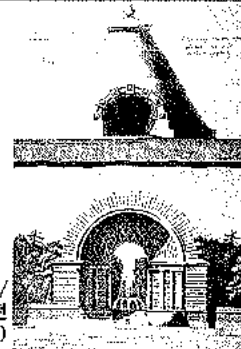
La Grotte de Cypris(라 그로뜨 드 시프리스: 아프로디테의 동굴), Le Temple au Dieu des Armées(르 땡뽀르 오 디유 데자르메: 만군의 주 신전), la Maison Astronomique(라 메종 아스트로노믹: 천문의 집), le Magasin Public(라 마가젠 뽀블릭: 공공 상점), 1791년의 la Tombe de Porsenna(라 톰브 드 뽀르센나: 뽀르센나의 묘) 등은 Blondel의 눈에는 괴물같이 보일 것이다. 이러한 계획안



조국을 위해 죽은 용감한 시민을 위한 기념탑
(Monument des braves citoyens morts pour la patrie) / 무명의 신을 위한 신전
(Temple du Dieu inconnu)



평등의 신전
(Temple de l'égalité)



빙고(氷庫 Glacière) / 요정을 모시는 신전
(Nymphée)

에서 그는 간결하고 Compact한 가소적 형태보다는 Monument d'Athéna의 예에서처럼 체계화되지 않은 유기적인 형태들을 조합하는 것을 즐겼다. Tombe의 구성, 환상적인 요소들은 바로 낭만주의의 다른 작품들과 다르긴 하지만 신 시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아주 이상한 창작물인 Porte du Parc de la Chasse(쁘르뜨 뒤 빠르끄 드 라 샤흐: 수렵공원의 문)는 사슴, 멧돼지, 개(犬)의 머리로 장식되어 있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구성은 고대 에트루스크적 미술로 화귀하는 고전작품으로 보아야 한다. Lequeu는 Architecture Parlante의 개념을 사슴 뿔 모양을 한 문, 그리고 머리에 단지를 이고 있는 황소모양의 축사를 계획하는 지점까지 이끌고 나갔다.

le Vieux Château(르 비유 샤토)에서는 구성 요소들의 독립성이 확증된다. 여기서는 원통형의 높은 집을 위에 얹고 있는 약간 낮은 높이의 원통형이 하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최상부에 깃대를 가진 다각형의 구조물을 갖추고 있다. 이 건물은 그것을 적시고 있는 소란스런 파도에 대항해 쫓겨서 서있는, 엄격하고 금욕적인 간소함, 장엄, 위엄 등으로 상징되는 봉건시대의 정신이 부자연스러움이 없이 반영된 건물이다.

La Tombe de Poesenna와 Vieux Château는 원형 돔, 반원형의 대문, 각주형(角柱形)의 익부, 그리고 전체를 뒤덮는 후광의 모양을 한 궁륭의 기하학적 형태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기하학적인 형태는 1738년에 계획한 Marseille(마르세이유) 소재 Eglise des Capucins de Marseille(에글리즈 데 까뽀쥘 드 마르세이유: 미르세이유 까뽀쥘 교단의 교회)에서 다시 나타난다.

Le Temple du Dieu Inconnu(르 땡뽈르 뒤 디유 앵끄누: 무명의 신을 위한 신전)은 바위를 판 동굴에 건설한 것으로 돌을새김을 한 흉어로 둘러 싸여 있다. 이 신전은 이 오니아식 주뿔을 정면으로 하고 있다. 어두운 동굴에는 나뭇가리는 불꽃이 담겨있는 구체가 발견된다. 숲 한가운데에 지어진 Nymphée(냉페에: 요정을 모시는 신전)의 벽감은 궁륭 천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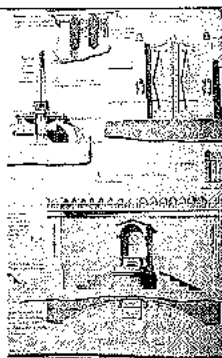
하고 있는데 그 내부에 분수가 있다. 무희들은 Temple de Terpsichore(땡뽈르 드 테르피코르: 테르프시코라신의 신전)의 Platform의 양쪽에서 왔다갔다하도록 되어 있다. Demeure de Pluton(드뽈르 드 뽈루똥: 플루톤의 거처)의 그림은 그 섬세한 색채, 대조가 강한 광선, 단순성이 예술적인 성공의 요인이 되었다. 공화정 1년의 La Porte Flamande(라 뽈르뜨 플라망드: 플랑드르식 문)는 어떤 정원을 위한 출입구 계획이다. Lequeu의 아주 꼼꼼히 제작된 이 dessin은 이 문을 Lequeu의 것 중 가장 훌륭한 반열에 두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유제품 판매점의 내부는 단지 목재와 기둥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에 Lequeu는, 예술적인 필요에는 완전히 부응하지 않는, 아주 평범한 그의 Dessin들로서 자기의 시대를 상징하려고 노력하였다. 1789년의 Palais National(팔레 나시오날: 국회)의 Salle des Etats(살 데제타: 국무실)의 상징적인 주식(柱式)은 귀족 또는 영주가 지지하는 Entablature를 제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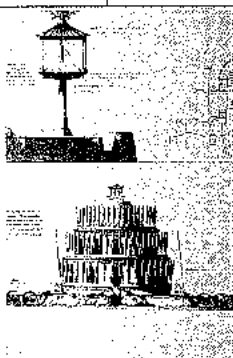
Place de l'Arsenal(플라스 드 라르스날: 병기고 광장)에 서있는 여러 혁명시민을 위한 기념물은 프랑스혁명의 상징들을 고전주의적인 방식으로 절렬하게 섞어놓은 것이다. 이것은 architecture parlante의 사상을 가장 저속하게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Prouy(프루아)의 혁명시민의 시골 집을 위한 오벨리스크는 '혁명시민 Le Queu'에 의하여 구상되었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앞의 예에 비하여 미소하나마 좀 더 나은 구성체계를 지니고 있고 자제된 양식으로 구성되었다.

Megalomania

그 후 과당한 짓, 기상(奇想), 어리석은 상징을 거부하면서 Lequeu는 세련된 단순성 및 놀라운 웅대성을 보여주는 몇 가지의 Dessin을 제작하였다. Le Temple de l'Egalité(르 땡뽈르 드 레갈리테: 평등의 사원)는 원형의 주랑 현관으로부터 구체가 솟아 오르도록 계획되었다. 내부에는 조각품을 지지하고 있는 작은 구체가 놓여 있고 이것은 내부의 하부공간을



플라망식 문
(la Porte Flamande) /
이랑그의 연단
(la Tribune des Harrangues)



수렵감시탑 (Observateur du garde-chasse)
/ Voorhout 근처의 묘지



사랑의 섬 (Ile d'Amour)

점하고 있다. 이처럼 작은 Mass는 궁륭의 거대성과 놀라우리만 큼 큰 대조를 이룬다. 이 Dessin은 공화정 제2년 당시의 혁명적 이상을 찬미하는 것이다. 이 작품들은 정치적인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구상되었지만 A la Sagesse Suprême(아 라 사제스 쉬프렘: 최상의 지혜에 부처)이란 설명문이 붙어있는 Temple de la Terre(땅블르 드 라 테르: 땅의 신전)에서처럼 정적이고 고상하며 당당하다. 그가 공화정 제 2년에 자신의 작품들을 전시했을 때 '영원한 평등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법을 조사하였다. 후에 이 dessin이 '평등에 적이 되는 프랑스인들에게는 정말 무익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결코 그의 동포들과 화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Dessin을 Père Lachaise(페르 라셰즈)공동 묘지에 위치한 Chapelle de Saint-Louis(샤벨 드 생 루이: 생 루이 채플)이란 제목으로 내무부장관에게 증정하였다. 이 두 가지 사원을 떠오르게 한 웅대성에 대한 감회는 공화정 3년에 제작한 의사당의 거대한 궁륭천장으로 증폭되어 가시화 되었다. 이 계획안은 당연히 Boullée의 거대한 도서관을 떠올리게 한다. 1800년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상징의 전부함이 지배한 이후, Lequeu가 자신의 작품을 가장 절도있는 형태를 가지고 풍요한 건축을 제안하는 능란한 솜씨를 볼 수 있다.

기하학을 사용하는 건물 및 거대성을 전제로 하는 건축은 프랑스 혁명의 건축가의 의도에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건축가들은 무엇보다도 아주 단순한 장식을 사용하였다. 1차의 순수한 선을 사용하는 기하학은 Vieux Château와 소박한 빙고(氷庫)를 고귀하게 처리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였다. 당시의 정치가들과 마찬가지로 건축가들은 건물의 웅대성에 관심을 쏟았고 품위있는 건축으로 표현하는 데에 관심을 쏟았다.

웅장성 및 현실과는 동떨어진 미의 개념은 몇 가지 대규모의 계획안에 스며들었다. La Tribune des Harrangues(라 트리뷴 데자랑그: 아랑그의 연단(演壇))는 공화정 제1년에 제작된 것으로 장중하고 단순한 것으로 검소한 고전주의의 작품이다. 연단은 만곡한 벽과 인상적인 대조를 이루며 벽으로부터 분리되고 있다. 그 중에 Palais Champêtre(팔레 샹페트르: 전원궁)는 Boullée가 Newton의 Cenotaphe(세네탕페)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계획된 것으로 상부의 디테일은 나무 등의 묘사, 나뭇잎을 덮고 있는 격자 등으로 어렵듯이 얼버무려졌다. Palais champêtre는 상부에 신전이 배치되었고 점차로 감소하는 원기둥으로 구성된, Voorhout(보오르후트)에서 가장 명석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묘지로서 하나의 거대한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보초를 기념물 양편에 세워 둔 것과 같은 모양의 오벨리스크는 단(段)에 심겨진 실편백 나무들을 가지고 있다. 이면에 적힌 글은 1785년에 Lequeu가 화란의 원

수에게 Dessin을 증정하였다고 적혀있다.

건축가이자 시인인 작가가 꿈꾸는 Ile d'amour(일 다루르: 사랑의 섬)은 색다른 건축적 변종이다. 최상부에 신전이 배치된 테라스들은 낮은 집들과 나란히 배치되었다. 여백에는 공원에서 볼 수 있는 분수, 화초, 조류 그리고 온갖 동물들을 묘사하여 그려 놓았다. Boullée의 엄격함이나 Ledoux의 조심성과는 달리 이처럼 광기어린 Lequeu의 공상은 그를 낭만주의자들에 가깝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처럼 동화같은 궁전들은 통해 Lequeu는 독창적이며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는데 대청에 신경을 쓴 점에서 낭만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아마도 유치하고 정신병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비대칭은 다른 두 개의 계획안에서 강조되고 있다: 좌측에 단지 하나의 탑을 가지고 있는, 맑은 물을 Sainte-Cité(생트 시떼)에까지 유도하는 수도교 그리고 Lequeu의 작품 중 가장 비범한 것이자 당시의 사회를 뒤흔들었던 혼란을 반영이라 할 수 있는 Rendez-vous de Bellevue(랑데부 드 벨뷰: 벨뷰의 데이트 장소)가 그것이다. 이 구조물은 완전한 대칭의 형태를 하고 있는 Vieux Château와 동등한 미적 가치를 지닌다. Rendez-vous de Bellevue계획안은 보정 또는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첫눈에 고대 그리스, 고딕 그리고 르네상스적 건축요소들이 이상스럽게 혼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조합방법은 의미로 충만한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오른쪽의 열린 최상부는 왼쪽의 거대한 누대에 의하여 보충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시각적 보충의 모티브는 후에 비규칙적, 비대칭적 형태를 하는 영국, 프랑스 그리고 유럽전체의 건축에서 지배적인 디자인 요소가 된다. 따라서 이것은 고래의 규칙이 사라져감을 의미하는 계획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단계 이후로 이제는 형태와 크기의 대비가 균형의 규칙보다도 더 중요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크기와 형태를 하나의 평면에 동시에 배치하여 대조의 효과를 꾀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이 계획안에는 이런 사상이 잘 반영되어서 그리스식의 사원이 상부에 배치된 탑, 천문대가 있는 누각, Venice식 창문내기, 고딕식의 문, 그리고 틀이 없는 문 등이 모두 병치되어 있다. 이러한 환상적인 집은 당시의 정신, 새로운 향을 향한 끊임없는 모색 그리고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과거에의 집착 등을 상징하는 것이다.

Lequeu의 말기 건축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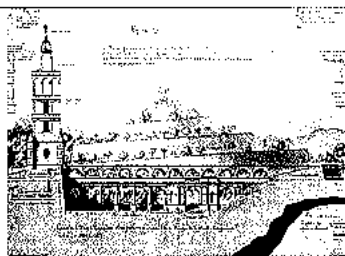
프랑스혁명 후 Lequeu가 밟고 있는 단계는 좀 더 현실적인 건축을 향한 진화와 발전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

준다. 공화정 1년하의 국민의 주권을 기념하기 위한 원형의 기념물은 기하학적인 형태가 가지는 모든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그리고 매우 정성을 들인 인도의 탑은 낭만적인, 꿈에 그리는 이국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먼 훗날 20세기에 등장할 미래의 계단형 건축을 예견하고 있기도 하다. 다음에 기술하는 2개의 Dessin 역시 미래를 예견한다. Louis 18세의 이름이 새겨진 별의 한 중앙에 세울 기념물, 그리고 장제 기념물은 과거의 건축을 본받은 것이다. 이미 여기서 우리는 모던 건축이 오랫동안 안 기다린 형태 및 장식의 간소함을 발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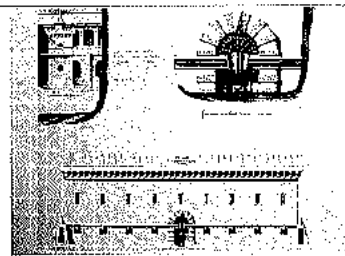
분리된 양식의 개념은 Terrasse sur le Bord du Fleuve(테라스 쉬르 르 보오르 뒤 플뤼브: 강변의 테라스)와 Temple à la vertu(땡뵈르 아 라 베르뵈: 덕의 신전)에서 나타난다. Casino à Partie(까지노 아 빠르티: 카지노 놀이장)는 단형의 정원을 제시한다: 이것에서 볼 수 있는 엄격한 정확성은 Monument d'Athene의 외양과는 사뭇 다르다. La Prison(라 프리죈: 감옥)은 가장 엄격한 단순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계획안은 Lequeu가 조용히 진정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Lequeu의 감옥은 Ledoux가 Aix(엑스)시를 위해 설계한 감옥보다는 덜 드라마틱하다. 대문의 거대한 Keystone은 Ledoux가 계획한 Paris의 방벽계획을 상기시킨다.

과장된 형태와 Baroque 말기에 보이는 허식의 세계를 거친 이후에, 그리고 고전주의와 이국성의 단계를

경험한 이후에 Lequeu는 비로소 초자연의 세계에 도달하였다. Boullée와 Ledoux는 20세기를 예견하며 기본 형태를 채용하는 건축에 머물렀지만 Lequeu는 자기의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질서의 세계로 전진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자기 이전의 두 전임자들이 하지 못한 감정과 환상을 건축에 붙여넣는 일을 한 것이다. 비록 그는 실질적인 건축계획에는 아무런 공헌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집념, 꿈은 당시의 예술개념의 발달상을 완전하게 구현하였으며 비록 그는 고대와 먼 아국으로 눈을 돌린 사람이었지만 19세기의 건축을 예고한 사람이었다. 불확실성과 혼란은 그에게 있어서 이상하고 번덕스런 작품을 양태하게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감정은 때때로 형태의 정확성보다 더 중요하였다. Lequeu의 건축을 20세기초와 연결지어 이야기하는 것은 1800년과 1900년에 있었던 사건을 단순히 비교하려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관건이 되는 중요한 사실은 동일한 사상이 두 시대에 흐르고 있었음을 밝히는 것이다. 불확실성 속에 자신들의 존재를 완성시키고 망각의 그늘 속에 잊혀졌다 새로이 연구의 대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Lequeu는 Caractère와 Architecture Parlante의 개념을 진부하고 저급한 수준으로 해석하였지만 그는 환상적이고 공상적인 건축가로서 따르기가 쉽지 않은 전례를 남겼다. 그의 상상력은 Ledoux가 그토록 갈구하였던 새로운 세계를 건축에 도입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수도교 (Arqueduc)



감옥 (la Prison)

협회소식 / 111

건축계소식 / 113

해외잡지동향 / 119

통계(설계도시신고현황) / 125

협회소식 KIRA news

ARCASIA FORUM 10, 9월 13일 개막

자격상호인정 등 공동관심사 논의,
회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 기대

우리 협회(회장 이의구)는 오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 : 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 소속 16개 회원국 대표단이 참가하는「제 10차 아카시아 포럼 (ARCASIA Forum 10)」을 개최한다.

「건축에서의 기술과 전통(Technology and Tradition in Architecture)」을 주제로 한 이번 국제포럼에는 약 7백여명의 각국 건축사와 협회관계자, 일반참가자 등이 참가해 최근 국제 현안으로 떠오른 건축사자격의 상호인정 문제 등 공동 관심사에 관한 깊이있는 논의와 함께 건축관련 정보 및 기술 교류를 갖는다.

또한 포럼기간중에는 아카시아 이사회(ARCASIA Council Meeting)와 아카시아 교육위원회(ACAEE Meeting) 워크숍 등의 정례회의가 개최되며 아카시아건축상 시상, 전시회, 친선의 밤, 건축시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함께 펼쳐진다.

건축분야에 있어 아시아의 입장을 대변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아시아건축사협의회(약칭: 아카시아)는 현재 한국을 비롯해 인도, 중국,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 등 아시아 16개국 건축사단체들이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협의체는 매년「아카시아 이사회」와「교육위원회」등 주요 의결기구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와 국제적 현안문제들에 있어 국제사회의 흐름에 대응하고 있다.

이번 포럼을 주관하고 있는 본 협회는 올

해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가 국내 건축계에 새로운 활력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한국건축의 위상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행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기간중에는 국제건축사연맹(UIA) 회장 등 건축계 유명인사를 비롯해 지명도 높은 외국 건축사들이 상당수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벌써부터 많은 건축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서울 국제포럼은 앞서 지난해 11월 스리랑카에서 열린 아시아건축사대회기간중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차기 포럼유치를 위해 열띤 경합을 벌인 끝에 99년 제10차 포럼을 한국에서 개최기로 아카시아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행사가 국내 경제의 어려운 여건하에서 개최되는 만큼 건축경기의 불황과 협회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행사를 치뤄야하기 때문에 부득이 부족분을 협찬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각시도건축사회 회장단에서 지원하는 후원금과 회원 개개인의 후원금 그리고 건축관련업체에서 지원하는 후원금 등이 있으나 보다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최근 우리 건축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간 건축사자격 상호인정문제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입장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와 함께 WTO 시장개방 체제에 대비한 각국의 정보교류 차원에서 치뤄지는 행사이니 만큼 이번 행사가 성공리에 치뤄질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그리고 많은 참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이번 포럼기간중 부대행사의 일환으로 COEX(강남구 삼성동소재) 전시장에서「99한국국제건축자재 및 설계장비기자재전」을 개최한다. 대한건축사협회와 코엑스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자재 전시회는 자재정보 및 기술교류를 통해 국내건축자재와 설계장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리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자재전의 수익금 일부를 포럼 개최 행사운영비로 충당키로 하였다.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한 후원금 모금 결과는 다음호(9월호)건축사지를 통해 게재될 예정이다.

이사회개최

99년 제2회 임시총회
오는 9월 14일 개최



이사회 광경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99년도 정기이사회가 지난 7월 13일(제7회), 8월 10일(제8회)에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업무보고에 이어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의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회

〈부의안건〉

- 제1회의안: 99년도 제2회 임시총회 개최일시 및 장소 결정의 건
- 개최일시: 99년 9월 14일(화) 16시, 장소는 회장에게 위임키로 함.
- 제2회의안: 예산목간전용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국가간 건축사자격 상호인정 대응방안 연구용역비 2천만원, 보조금→조사연구비).

○제8회

〈부의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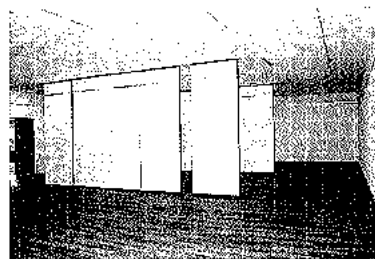
- 제1회의안: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카르텔일괄정리법 시행에 따라 모법인 건축사법 제 26조가 삭제되므로 정관 제5조 제1항 제15호의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의 제정조문 삭제 - 제2호와 제3호는 제1조의 추가부분이므로 제1조가 승인되므로 제2~3조가 같이 승인됨)
- 제2회의안: 윤리규약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회의안: 윤리위원회규정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회의안: 99년도 제2회 임시총회 의제 결정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제1회의안: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 제2회의안: 윤리규약개정(안) 승인의 건, 제3회의안: 윤리위원회규정개정(안) 승인의 건)
- 제5회의안: 추대회원 추대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김학경(서울, 한맥건축)외 18명)
- 제6회의안: 전시장 대관료 결정의 건
- 1일 5만원으로 결정.
- 제7회의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카르텔일괄정리법시행에 따른 건축사 보수비용에 관한 문제 등을 논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회장에 위임.

〈협의안건〉

- 제1호: 99년도 제2회 임시총회 임원 업무 분담에 대한 협의
- 건축사현장 낭독을 송기준감사가 맡는 등 임원업무를 분담키로 함.
- 제2호: 회원단체보험 협약에 대한 협의
- 회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교보생명(주)와 회원단체보험 협약을 체결하되, 가입은 회원 자율에 맡기기로 협의함.

우리협회, 전시관 개관

개관기념 「건축사작품 초대전」 개최



전시관 내부

우리협회는 지난 8월 10일 60평규모의 전시관, 아키텍트 갤러리를 신설 개관하고, 오는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사작품 초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아카시아포럼 참석차 내한하는 각국 건축계 인사 및 외국 건축사들에게 한국건축을 소개함과 동시에 건축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뜻깊은 전시행사가 될 것이다. 전시관은 최신 조명시설을 갖추고 이동식 백보드를 설치해 전시규모에 따라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임대료는 1일 5만원이다.
문의: 우리협회 총무팀(02-581-5711~4)

99건축사자격시험 접수마감

5,508명 신청, 9월 5일 시행

지난 7월 19일 마감한 99건축사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5천 5백 8명이 접수를 마쳤다. 이는 지난해 4천3백67명보다 26%가 늘어난 수치다. 이번 시험은 오는 9월 5일 실시되며, 응시장소는 8월 25일(수)에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건축사회, 「사용검사 특별검사원제」전담

8월 1일부터 시행

서울시건축사회(회장 우남용)는 4층이하 2천제곱미터이하 건축물의 사용검사시 특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용검사 특별검사원제」를 전담키로 하고,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7월 28일 우남용서울시건축사회장과 고 건설시장과 면담을 통하여 협의된 것이며, 서울시 건축조례의 개정에 따라 사용검사시 설계·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됨에 따른 것이다.

불교와 유교문화의 옛 건축을 찾아서 ARCASIA Forum-10 Post Forum Tour

금번 ARCASIA Forum-10 Post Forum Tour는 '99건축문화의 해' 행사와 일환으로써 한국방문 외국인 건축사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 기행은 한국건축사를 전공하는 학자들 및 국내건축사들과 자리를 같이 하여 현장에서 한국건축의 특성과 아름다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 기행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풍기 소수서원, 성리학을 대성시킨 퇴계선생을 모신 안동 도산서원, 주변 자연과 조화된 건축공간 구성으로 이름난 안동 병산서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인 안동 봉정사 극락전, 고건축의 전형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정자건축의 백미인 봉화 닭실마을의 청암정, 대표적인 사대부 가거지인 하회마을과 내암 의성김씨 종택, 대표적인 재실건축 형식을 보여주는 안동 능동재사 등이다. ARCASIA Forum-10 참가자 및 배우자들의 많은 참여 기대한다.

- 시행일시: 1999년 9월 18일(토)~19일(일)
- 기행장소: 안동 하회마을 병산서원, 봉정사, 능동재사, 내암 의성김씨 종택, 도산서원, 청암정, 소수서원, 부석사
- 출발시간: 9월 18일(토) 오전 7시 30분
- 숙소: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 지례예술촌
- 참가비: 6만원(USD80)
- 문의처: 거래문화답사연합
(02-708-4206)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
(02-762-8090~1)

건축계소식 archi-net

한국건축 100년전

8월 31일부터 10월 28일까지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와 국립현대미술관이 공동 주최하는 한국건축100년전이 오는 8월 31일부터 10월 28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제1, 제2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전시는 3부 11개 주제로 이루어지며, 개항시기에서 1999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대형 연표가 부착될 도입부를 시작으로, 1부는 개항 이후에서 한국전쟁 직후까지, 2부는 전쟁직후부터 현대까지, 3부는 미래를 내다보는 신사고 등으로 각각 구성된다. 이번 행사의 행사위원장인 방철린(인토건축)씨를 포함한 20여명의 행사위원들이 작품리스트를 취합, 주제에 적합하고 역사적으로 주목받은 건축작품들을 선정해 전시회를 구성하게 된다. 전시회에 출품될 작품들은 스케치, 패널 및 모형, 액자, 입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된다. 전시회와 함께 개막리셉션, 심포지엄, 작가와의 대화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치뤄질 예정이다. 문의: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 사무국(02-762-8090)

이종관 회원,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

범죄예방, 자원봉사 공로로



지난 7월 5일 중앙일보와 법무부와 공동 주최한 「99범죄예방 유공 정부포상 및 자원봉사상」 시상식에서 서울동부지역 범죄예방 활동에 주력해 온 공로로 이종관(한진종합건축)회원에게 국민훈장 목련장이 수여됐다. 우리 협회 이사를 역임하기도 한 이회원은 81년부터 비행청소년을 선도하는 일과 인연을 맺고 그동안 1백50여명의 비행청소년 선도를 위해 미달한차례 이상 상담하는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노력하는 한편, 비행청소년 20여명과 자매결연을 맺고 취업알선과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특히 불우청소년 3백여명에게는 사재를 털어 장학금과 생계보조비 1억4천여만원을 지원하는 등 불우이웃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앞장 서 왔다. 또 87년부터는 서울송파지역 범죄예방자원봉사대를 구성, 청소년 유해업소 주변의 범죄예방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이 범사회적 운동으로 자리잡는데 숨은 공로를 세우기도 했다.

김정철회원,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 신임위원장 임명

부위원장에 이명호(중앙대 교수),
이영희(희림건축)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는 지난 7월 23일 제7차 조직위원회 회의를 거쳐 김정철(정림건축)회원을 신임 조직위원장

서울건축사회, 「사용검사 특별검사원제」전담

8월 1일부터 시행

서울시건축사회(회장 우남용)는 4층이하 2천제곱미터이하 건축물의 사용검사시 특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용검사 특별검사원제」를 전담키로 하고,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7월 28일 우남용서울시건축사회장과 고 건설시장과 면담을 통하여 협의된 것이며, 서울시 건축조례의 개정에 따라 사용검사시 설계·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됨에 따른 것이다.

불교와 유교문화의 옛 건축을 찾아서 ARCASIA Forum-10 Post Forum Tour

금번 ARCASIA Forum-10 Post Forum Tour는 '99건축문화의 해' 행사와 일환으로써 한국방문 외국인 건축사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 기행은 한국건축사를 전공하는 학자들 및 국내건축사들과 자리를 같이 하여 현장에서 한국건축의 특성과 아름다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 기행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풍기 소수서원, 성리학을 대성시킨 퇴계선생을 모신 안동 도산서원, 주변 자연과 조화된 건축공간 구성으로 이름난 안동 병산서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인 안동 봉정사 극락전, 고건축의 전형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정자건축의 백미인 봉화 닭실마을의 청암정, 대표적인 사대부 가거지인 하회마을과 내암 의성김씨 종택, 대표적인 재실건축 형식을 보여주는 안동 능동재사 등이다. ARCASIA Forum-10 참가자 및 배우자들의 많은 참여 기대한다.

- 시행일시: 1999년 9월 18일(토)~19일(일)
- 기행장소: 안동 하회마을 병산서원, 봉정사, 능동재사, 내암 의성김씨 종택, 도산서원, 청암정, 소수서원, 부석사
- 출발시간: 9월 18일(토) 오전 7시 30분
- 숙소: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 지례예술촌
- 참가비: 6만원(USD80)
- 문의처: 거래문화답사연합
(02-708-4206)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
(02-762-8090~1)

건축계소식 archi-net

한국건축 100년전

8월 31일부터 10월 28일까지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와 국립현대미술관이 공동 주최하는 한국건축100년전이 오는 8월 31일부터 10월 28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제1, 제2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전시는 3부 11개 주제로 이루어지며, 개항시기에서 1999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대형 연표가 부착될 도입부를 시작으로, 1부는 개항 이후에서 한국전쟁 직후까지, 2부는 전쟁직후부터 현대까지, 3부는 미래를 내다보는 신사고 등으로 각각 구성된다. 이번 행사의 행사위원장인 방철린(인토건축)씨를 포함한 20여명의 행사위원들이 작품리스트를 취합, 주제에 적합하고 역사적으로 주목받은 건축작품들을 선정해 전시회를 구성하게 된다. 전시회에 출품될 작품들은 스케치, 패널 및 모형, 액자, 입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된다. 전시회와 함께 개막리셉션, 심포지엄, 작가와의 대화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치뤄질 예정이다. 문의: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 사무국(02-762-8090)

이종관 회원,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

범죄예방, 자원봉사 공로로



지난 7월 5일 중앙일보와 법무부와 공동 주최한 「99범죄예방 유공 정부포상 및 자원봉사상」 시상식에서 서울동부지역 범죄예방 활동에 주력해 온 공로로 이종관(한진종합건축)회원에게 국민훈장 목련장이 수여됐다. 우리 협회 이사를 역임하기도 한 이회원은 81년부터 비행청소년을 선도하는 일과 인연을 맺고 그동안 1백50여명의 비행청소년 선도를 위해 미달한차례 이상 상담하는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노력하는 한편, 비행청소년 20여명과 자매결연을 맺고 취업알선과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특히 불우청소년 3백여명에게는 사재를 털어 장학금과 생계보조비 1억4천여만원을 지원하는 등 불우이웃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앞장 서 왔다. 또 87년부터는 서울송파지역 범죄예방자원봉사대를 구성, 청소년 유해업소 주변의 범죄예방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이 범사회적 운동으로 자리잡는데 숨은 공로를 세우기도 했다.

김정철회원,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 신임위원장 임명

부위원장에 이명호(중앙대 교수),
이영희(희림건축)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는 지난 7월 23일 제7차 조직위원회 회의를 거쳐 김정철(정림건축)회원을 신임 조직위원장

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광노 전임 위원장의 사퇴에 따라 단행된 위원장의 교체와 더불어 부위원장 역시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인 이명호씨와 회림종합건축 대표 이영희씨로 교체됐다. 신임 위원장에 선정된 김정철씨는 현재 주, 정림건축의 대표이사과 회장으로 있고, 주요작품으로는 후암교회(1967), 서울대본관(1973), 청와대춘추관(1991), 예림교회(1994)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 용산에 짓고 있는 중앙국립박물관 설계의 총책임자를 맡고 있다.

김석철회원, 98대리석 국제건축대전 특별상 수상

건물외관 분야에서 '예술의 전당'으로

김석철(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반)회원이 이탈리아 해외무역공사와 대리석관련 기계협회인 IMM사가 공동주관한 98대리석건축대전에서 특별상을 받았다. 이번 건축대전은 건물외관, 인테리어디자인, 조경 등 3개 분야에서 작품을 공모했는데 김석철회원은 서울 예술의 전당을 출품하여 건물외관 분야에서 특별상을 받았다. 건축가들에게 석재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홍보행사로 열리는 대리석건축대전은 매년말 공모해 이듬해 수상자를 발표한다.

서울건축 김종성씨, 미국 FAIA로 추대

미국 건축계 최고의 영예

지난 5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달라스에서 'Think Big, Make It Happen'이라는 주제로 열린 AIA 총회에서 김종성

(서울건축)씨가 FAIA로 추대되어 원로(College of Fellows)에 임회하였다. FAIA는 Fellow of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라는 의미로서 AIA 회원중에서 우수한 건축작품활동을 하고, 사회에 공헌을 한 존경받는 건축가에게 부여되는 호칭으로 기존의 FAIA회원 5명의 추천을 받아 엄격한 작품 및 공적심사를 거쳐 추대되는 미국 건축계 최고영예의 자리이다. 지금까지 국내 4명의 건축가가 FAIA로 추대되었고, 2명의 건축가가 Honorary FAIA(미국이외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 수여)로 추대되었는데 김종성씨는 국내 처음으로 현재 활동 중인 건축가로서 정식으로 Fellowship FAIA(미국 국적을 가진 건축가에게 수여)로 추대된 것이다. 이번 심사대상작품으로는 역도경기장, 서울힐튼 호텔, 경주선재미술관, 아주대에너지연구센터, 아트선재센터 등이었다.

한양대, 통나무건축 교육생 모집

8월 16일부터 28일까지 접수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는 수공예 통나무건축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오는 8월 16일부터 28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업은 오는 9월 7일부터 15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2시부터 5시 50분(저녁 7시부터 8시 50분)까지 실시된다. 문의: 02-2290-1521

국민대, 목조건축 설계교실 수강생 모집

8월 20일까지 접수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목조건축디자인센터에서 제7기 목조건축설계 교실 수강생 30명을 8월 20일까지 모집한다. 문의: 02-2006-6212~3

대한목조건축기술인협회 창립

회장에 김낙중(중원건축)

목조건축인들의 연구모임인 대한목조건축기술인협회가 지난 7월 10일 창립되었다. 건축사와 각대학 건축과 교수 및 강사를 비롯한 목조건축 사공인 등 2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이 협회는 회원간의 교류 활성화, 목조건축의 자격증 제도 실시 및 목조주택 감독제도 실시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초대회장에 중원건축의 김낙중회원이 피선됐다.

서울건축학교, 99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추가모집

8월 28일까지 원서접수

서울건축학교는 지난 7월 24일에 이어 추가로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대상은 4년제 대학에서 교육을 이수한 국내외 학생들과 건축사사무소에서 일하는 젊은 건축가들이다.

• 원서교부: 1999년 8월 16일부터 8월 28일까지

- 원서접수: 1999년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 심사: 1차-1999년 8월 30일(입학지원서, 졸업증명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2차-1999년 8월 31일(면접)
- 합격자발표: 1999년 9월 1일
- 등록기간: 1999년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 문의: 서울건축학교 사무국(02-763-0471)

제1회 건축사진 강좌

청암건축사진스튜디오에서
9월 7일부터 11월 23일까지

청암건축사진 스튜디오(대표 임정의)에서는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실무과정 건축사진 강좌를 개최한다. 주1회씩 12주에 걸쳐 건축관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 이론과 실기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건축사진의 폭넓은 이해와 활용을 목적으로 10명내외의 인원을 모집한다. 소형카메라의 기초부터 모형촬영, 야외촬영, 인테리어촬영, 암실작업 등의 프로그램으로 개인작업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시간은 매주화요일 오후6시이며, 참가신청은 8월 20일까지다. 문의: 청암건축사진 스튜디오(02-667-2700)

월간 건축인 POAR, 제2회 NG포럼

『1999년 7월의 베를린현장건축 리포트』를 주제로

월간 건축인 POAR에서 주최하고 건축발전연구소에서 주관하는 'Negative

Thinking Forum'이 8월의 게스트로 삼우설계 박민철설장을 초대, 1999년 7월의 베를린현장건축 리포트를 주제로 8월 21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월간 건축인 POAR 사무실에서 열린다. 참가비: 15,000원, 선착순 20명, 당일 석식 및 음료제공, NG저널 1회 구독권 제공
문의: 건축발전연구소 02-2637-3890

제4회 목조건축학교 개최

실습 목조주택 한우리쉼터에 기증

미국임산물협회 한국사무소(대표 안경호)는 지난 7월 5일부터 18일까지 대전시 동구 한우리쉼터에서 제4회 목조건축학교를 개최했다. 2×4목조건축기술자 양성 프로그램인 이 행사에는 현직 대학강사, 건축가, 건축전공 대학원생 등 37명이 참가하여 숙식을 같이하며 이론강의와 실습, 그에 대한 토론 등의 교육을 받았다. 한편, 이번 목조건축학교에서 실습과제로 건축한 다락방을 포함한 40평규모의 지상 2층 목조주택을 지난해와 같이 택지를 제공한 장애인복지재단인 한우리쉼터에 기증하였다.

「공동주택 공사감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지난 7월 30일, 우리협회 대강당에서

한국건축도시법제학회(회장 최찬환)에서는 지난 7월 3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우리협회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공사감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건

설물량의 격감, 시장개방과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이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 잇단 규제완화조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대한 논란,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 등의 건설재해와 불법, 부조리 문제 등이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는 것과 아울러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 등에 따른 감리대상 범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것과 관련해 공동주택 공사감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관련업계와 소비자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최찬환(한국건축도시법제학회 회장, 서울시립대 교수)씨를 좌장으로 발표자는 김기철(동명건축), 김상식(부림건축), 장성수(주택산업연구원)씨가, 토론자로는 김영섭(건축문화), 김천주(주부클럽연합회), 이소원(삼성물산 주택개발부), 이종정(호암건축), 장철수(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장안종합건설), 조계환(로아건축), 최주호(소비자보호원 주택공산품)씨 등이 참석했다.

재독 건축가 이은영, 독일 주립중앙도서관 설계공모 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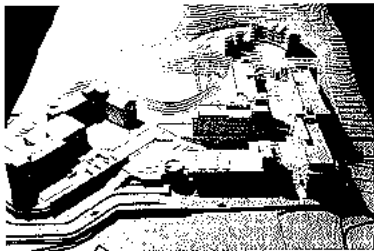
유리블록의 정육면체 건물

재독 건축가 이은영씨는 지난 7월 15일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신축중앙도서관 현상설계에서 유럽 각국에서 몰려든 235편의 경쟁작을 물리치고 1등으로 당선됐다. 이번 당선은 이은영씨가 한양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84년 독일로 건너간 뒤 15년만의 결실로 상금 8만5천 마르크(약5천2백만원)를 상금으로 받게 되었다. 아켄공대에서 디플롬을 딴 뒤 독일현대건축의 거장 O.M. 웅거스의 설계사무소와 J.쉬어만설계사무소에서 경력을 쌓고, 94년 쾰른에 자신의 이름으로 설계사무소를 열었다. 당선안의 내용은 중앙역사 구역의 문화적 중심건물이 될 중앙도서관으로 그는 주변 상업건축의 현란함과 구별되는 차분하고 단순한 건

축을 구상하였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40미터에 달하는 유리블록의 정육면체 건물속에 입방체의 중심공간이 복층아트리움처럼 들어있는 형태다. 도서관의 대열람실은 갤러리식으로 상층부를 향해 점점 확대되어가는 공간형태를 취했다. 도심의 오아시스와 같은 도시계획적 연출, 강인한 이미지의 단순한 형태는 아주 인상적이다. 인공호수에 정방형의 형태로 들어설 이 21세기 도서관은 2001년 착공해 2003년에 완공예정이다.

전주대 제2기숙사 설계경기 작품전시

9월 30일까지 대학본부 로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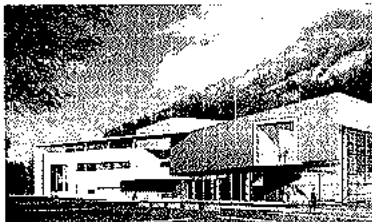


당선안

전주대학교에서는 제2기숙사 신축에 따른 설계경기를 실시한 후 작품전시회를 갖는다. 지난 7월 15일 총 18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경합을 벌인 이 설계경기는 특히 마지막까지 2등인과 당선안을 두고 심사위원들의 토론이 진지하게 이루어졌다. 투명성, 공정성의 문제에서 몇몇했다는 것이 주최측과 심사위원, 참가자 대다수의 심사후담이다. 이번 설계경기의 당선안은 우팀A&C건축(권연하)안, 2등안은 김종규(한국예술종합학교)+두하건축(김기택)안으로 선정되어 지난 7월 16일 발표했다. 심사위원으로는 김경수(명지대), 김광현(서울대), 최윤경(중앙대), 박광규(광주대), 이관석(한남대), 전정(전북대), 정재현(전주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8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학본부 로비(2~4층)에서 전시된다.

현상설계, 목포자연사문화박물관

당선, 금성건축+김현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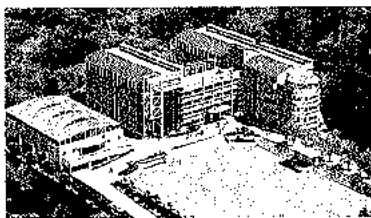


당선안

목포시청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시행하여 건축, 전시업체간의 컨소시엄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설계경기는 총 5개 작품이 참여, 금성건축+김현철(건축)+금강기획+시공테크(전시)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여 지난 7월 15일 발표했다. 갯바위 근린공원 내 문화의 거리에 위치하게 될 목포자연사문화박물관은 기존 대지내에 위치한 향토문화관과 연계하여 전시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해양유물전시관, 남동기념관, 목포문화회관 등 기존 문화시설과 함께 다양한 지역 문화행사와 관광종합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는 서해안권 관광과 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해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상설계, 와동중학교

당선, 윤건축(윤덕찬)



당선안

안산교육청에서 실시한 와동중학교 신축

을 위한 설계경기에서 윤건축(윤덕찬)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총 10개 작품이 응모한 이번 설계경기에서 우수작으로는 시공건축(우시용)안이 선정됐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윤건축안은 지형의 고저차가 심하다는 현 부지의 상황을 감안하여 경사면과 향을 고려하였으며, 입면도 전체의 주요외부미감재인 치장벽들의 단조움을 피하기 위해 진입부를 커튼월로 처리함으로써 개방감을 부여하였다. 심사는 문석창(대림대), 김정태(경희대), 윤동원(경원대), 김용승(한양대), 변태호(성균관대), 김대익(한경대)교수와 이종섭(안산교육청), 현순학(경기도교육청), 한성국(경기도교육위원회)씨가 맡았다. 경기도 안산시 와동에 지어질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와동중학교는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1월경 착공될 예정이다.

현상설계, 월곶중학교

당선, 원형건축(손광민, 최대성, 박희수)



당선안

안산교육청이 와동중학교와 함께 월곶중학교 신축을 위한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총 8개 작품이 참가한 가운데 원형건축(손광민, 최대성, 박희수)안을 당선작으로, 오채건축(김원배)안을 우수작으로 각각 선정하였다. 안산시청은 설계지침으로 중학교 신교육과정에 대응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설계로 미적, 기능적, 경제적인 현대적인 학교를 제시했다. 경기도 시흥시 월곶지구에 지어질 월곶중학교는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이며,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3월 착공될 예정이다.

현상설계, 전주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당선, 도연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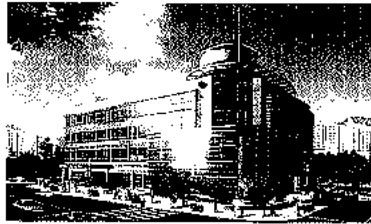
당선안

전주시는 완산구 중노송동에 자리할 전주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경기를 실시하여 도연건축의 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설계경기는 최첨단 멀티미디어 관련 장비를 설치하고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1층에는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사랑방, 오락실, 음악감상실과 같은 체험공간이, 2층에는 3D스튜디오, 가상현실스튜디오 등과 같은 최첨단 시설이 자리하게 된다. 3층에는 벤처사업지원시설이 들어서게 되는데 특히 2층에 설치될 각종 시설들은 회사별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장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당선작인 도연건축안은 외부에 스크린월을 설치하여 전시홍보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이하다.

현상설계, 제천우체국

당선, 엄이건축(이각표)

정보통신부 조달사무소는 제천우체국 개축설계와 관련해 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엄이건축(이각표)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엄이건축



당선안

안은 계획부지가 도로모퉁이에 위치한 점을 고려해 전면도로에서 건물이 잘 보이도록 모퉁이 부분에 부지형태와 맞추어 T자형태로 건물을 배치하였고, 수평면 위주로 입면을 처리하는 동시에 형태의 변화와 시각의 초점을 이룰 수 있도록 모서리부분에는 원통형을 강조하여 계획하였다. 제천우체국은 충북 제천시 청전동에 건축면적 1,189.40㎡, 연면적 4,736.30㎡,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들어서게 된다.

현상설계, 총신대100주년 기념교회당

당선, 정주건축(정시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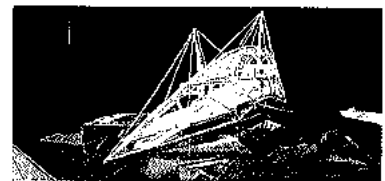
당선안

3개팀을 선정하여 지명설계경기 방식으로 치러진 총신대 100주년기념교회당 현상설계경기에서 정주건축연구소(정시춘)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정림건축과 하나그룹건축이 함께 참여한 이번 설계경기는 기념성과 상징성을 표현할 것, 건물과의 연계 및 조화를 고려하여 진입, 주차장, 부대시설, 옥외공간 등을 충족시켜 배치할 것, 경사지형을 고려한 단면 및 구조 계획으로 과도한 법면 노출이나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각 시설의 성격에 따른 조닝

및 효율적 연계가 가능한 배치를 할 것 등을 기본방향으로 제시됐다. 대지면적 약3천평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지어질 100주년기념교회당은 내년초 착공되어 2001년경 완공될 예정이다.

제2회 강구조건축물 설계공모전

최우수상에 '아쿠아파빌리온'
(이은령, 이택준, 박광수)



최우수상작

한국철강협회는 환경친화적 소재인 철강재를 사용한 강구조물의 건설을 유도하고, 공모전을 통해 강구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목적으로 지난해에 이어 강구조건축물 설계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강구조를 이용한 투명하고 개방적인 지역특정 생활문화시설 계획을 주제로 전문대이상 건축관련학과 재학생으로 개인 또는 3인이내의 공동작품을 대상으로 했다. 총50팀의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홍익대의 이은령, 이택준, 박광수의 「아쿠아파빌리온」이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최우수상에 선정됐으며, 우수상 3점에는 인하대건축대학원의 박정란, 박주혜, 강석윤의 「지형과 건축물의 상호조화」, 아주대의 정동훈과 아주대학원의 최영철의 「도시의 영상」, 한동대의 김도형, 김수보, 김태영의 「시간의 흐름」이 각각 선정되었다. 이외에 장려상 6점과 입선 20점이 각각 선정되었다. 심사는 계획 및 설계분야에 이특구(서울시립대), 박영기(연세대), 김진균(서울대), 동정근(인하대)교수와 김창수(삼우설계), 박영건(범건축), 장웅재(원도시건축)소장이, 구조분야에는 김규석(동국대), 김상대(고려대), 김종락(숭실대)교수 등이 참

여했으며, 김광일(강원산업), 장성수(동국제강), 한민수(인천제철), 신성수(포항제철), 이준기(한국철강협회)씨 등 협찬사와 주최측에서 참여했다. 시상식은 지난 7월 12일에 있었으며, 7월 12일부터 20일까지 포스코센터 다목적홀에서 입상작들에 대한 작품전시회가 열렸다.

건축신간안내

건강한 집 열 채
근대건축기행
알과 삶의 공간

◇ 건강한 집 열 채



이 책은 단독주택만이 가지는 특수해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주택이 왜 '삶의 그릇'이고 '살기 위한 기계'이며 건축의 영원한 명제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동안 단편적으로 소개되던 것과는 달리 주거에 대한 건축가의 가치관, 도시 읽기, 주어진 대지읽기 등의 문화적 경관에 대한 이해와, 건축주가 요구한 프로그램, 그것을 재해석한 내용, 개념도출에서부터 전개, 실현까지의 전과정 및 문재점, 자재선정, 건축주와의 만남에서부터 설계, 시공, 준공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스케치, 디테일 등의 도면과 풍성한 사진, 글로 상세히 다루고 있다. 재건축가와 작품: 김홍수(자명당), 우경국(문학재), 서혜림(동빙고동주택), 정진국(열린 집 하나), 이현재(서보 파운데이션), 조병수(평창동 일자 스튜디오주택), 김병윤(몽죽헌), 김 현(세렌디피티), 임재웅

(일산주택 I), 배병길(청담을 위한 집)
5×7배판/284쪽/3만2천원/도서출판
좋은건축(02-2237-0252)발행

◇ 근대건축기행



목원대학교 김정동교수가 한국근대건축에 관한 책을 냈다. 지금까지 한국의 근대건축은 다른 부분보다 도외시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저자 김정동교수의 한국건축 중 근대건축을 다루었다는 점은 무엇보다 의미있는 작업일 것이다. 특히 근대건축에 담긴 아름다움이라는 단원은 우리 건축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김종업의 작품 제주대본관, 부산대 본관, 유엔묘지 조형물과 함께, 절두산복자기념관, 강경북교교회, 성공회서울대성당, 그리고 아시아 근대건축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근현대건축의 다양하고 값진 아름다움을 짚어보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건축 취향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아시아 건축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20여년간 건축역사를 정리해오며 틈틈이 여러 매체에 글을 써온 저자는 건축의 대중화, 즉 많은 사람들에게 건축을 읽히게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일반대중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근대 건축사를 정리하였다. 또한 사회 속에 밀착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건축을 아쉬워하며, 이제 전문가의 손이 아닌 실제 수많은 건축물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책을 내놓게 되었다.

김정동지음/264쪽/9천원/도서출판 푸른역사(02-364-7817)발행

◇ 알과 삶의 공간



한국건축의 재발견 시리즈 중 1권인 「시대를 담은 그릇」에서 건축의 역사읽기를 시도하였다면, 2권인 「알과 삶의 공간」은 한국건축의 다양한 전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개인주택에서부터 마을까지, 석굴사원에서 정원까지, 10세기 초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한국건축의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정신과 다양한 기능들을 다루고 있다. 이 다양한 알과 삶의 건축들을 통해 한국건축의 풍부한 변용력과 끈질긴 생명력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전통에 대한 많은 책들이 출간되었지만 대부분 내용이 전문적이거나 어려워서 전공자 이외는 읽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건축의 재발견 시리즈는 건축인뿐만 아니라 문화인, 일반인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만큼 쉽게 써어졌다. 특히 각각의 건축을 발로 테마를 먼저 선정하여 구성되었기 때문에 한국전통건축의 전체 맥락과 구성,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의 정신으로 일맥 상통하게 집필되어졌다. 건축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흔재되어 있는 우리 문화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답사지에 대한 자세한 해석 그리고 주변 문화유산들을 동시에 볼 수 있는 한국건축의 재발견 시리즈 2권 「알과 삶의 공간」은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기 위한 우리건축을 총집대성한 것으로 문화로 담은 그릇으로서의 건축을 표현하고 있다.

김봉렬지음/335쪽/1만8천원/월간 이상건축(02-549-5383)발행

건축문화

a+u

신건축

World Architecture

domus

Architectural Record

건축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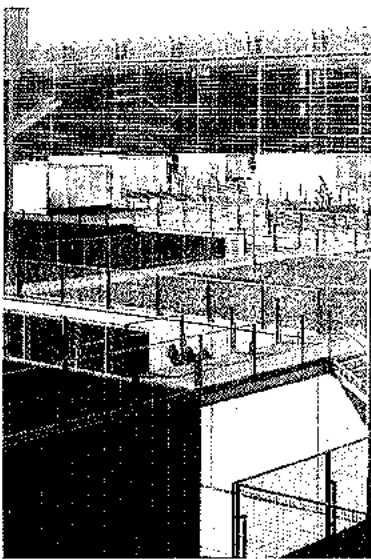
1999년 7월호

이번 호는 야마모토 리켄(山本理顯)의 사이타마(埼玉)현립대학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설계의 과정에



대한 작가의 설명과 대담, 비평 그리고 구조에 관한 에세이와 가구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사이타마 현립대학의 설계과정과 비평에 대한 총체적인 기술을 수많은 도면·사진과 함께 다루고 있다.

■ 특집 - 야마모토 리켄의 사이타마 현립대학



▶ 작가의 작품에 대한 설명: 네트워크의 건축 - 야마모토 리켄

1995년 3월 사이타마현 설계자 선정위원회로부터 설계요강을 전달받아 38개사가 참여하는 지명 콤페에 참여하게 되었다. 요구된 것은 간호·복지·의료에 관한 새로운 대학을 만드는 것으로 기존의 전문대학도 계획부지에 함께 이전하여 계획하는 것이었다. 부지는 주변이 끝없이 펼쳐진 논으로, 남측의 오래된 농가와 잡



목림, 동측에만 구획정리에 의한 2층짜리 목조주택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주위 환경으로부터 계획할 건물의 층수를 4층 이하로 해야 할 것 같다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섰다. 또한 대학이 품고 있는 성격은 각 학과간의 분리가 아닌 상호 관계에 있다는 것에 착안하게 되었고, 따라서 기존의 대학을 설계하는 방식인 분동형의 구성이 아닌 새로운 디자인이 요구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론은 분동형으로 할 경우 건물의 높이가 최소 5~6층에 달해, 전체 층수를 4층 이하로 하려는 의도와 상반된다는 사실과도 맞아떨어져 결국 지금과 같은 구성을 하게 되었다. 작가는 이러한 건축 구성을 '네트워크의 건축'이라고 부르고 있다.

▶ 건물의 개괄적인 형태 및 구조

50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프로젝트인 이 대학의 계획은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대지의 양 끝단을 가로지르는 기다란 4층 짜리 매스 두 개로 막고, 그 사이에 단층 짜리 실험 실습실들을 마련 그위를 옥상정원으로 꾸몄다. 기다란 두 개의 매스는 각각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강의실 및 본부가 되고, 이들 매스와 중앙의 정원이 만나는 곳은 4개층을 관통하는 오픈 스페이스(작가는 이를 '미디어 갤러리'라 부르고 있다)를 두어 이들 공간을 연결하는 매개공간이 되게 하고 있다.

건물의 구조는 단기하중은 코어가 담당하고 코어와 코어 사이에 설치되는 기둥

은 장기하중만을 담당한다. 이들 기둥은 최종적으로 600×200각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기둥으로 계획되었다. 프리캐스트 기둥을 씌우므로 공기의 단축과 전체 공간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 통합하여 정리하는 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기타

전체적인 설계와 구조 이외에도 가구디자인, 사인(Sign)의 디자인, 설비 등의 분야에 참여한 여러 전문가들이 디자인에 관한 설명을 해 놓고 있다. 가구와 사인의 디자인에는 아마자키 아카네(山崎あかね), 아마나카 준지(山中俊治), 쿠로카와 츠토무(黒川勉) 등 6명의 디자이너들이 참여했다. 설비의 계획에 대해서는 니시와키 야스오(西脇康夫)가, 구조계획에 대해서는 카네다 카츠노리(金田勝徳)가 설명하고 있다.

이 외에 아마모토 리켄과 건축가 아오키 준, 코지마 카즈히로의 본 작품에 대한 토론, 아마모토와 구조가 키무라 토시히코(木村俊彦)와의 인터뷰를 정리한 「구조재료로서의 PC의 가능성」 등이 게재되었다.

a+u

1999년 7월

이번 호에 소개된 작품들은 Future System, Michael McGarry & Siobhán NIÉ anaigh,

Shane de Blacam & John Meagher 세 개 팀만의 것으로, 각 팀당 3개에서 8개의 작품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번 호는 꾸며졌다. 이들은 모두 영국과 아일랜드의 건축가들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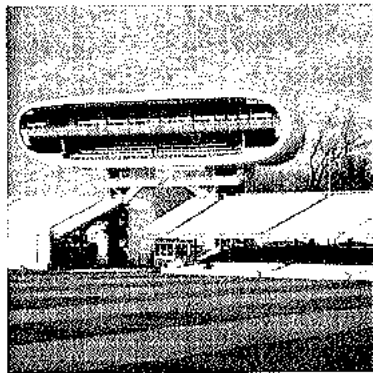


서로 각기 다른 성향을 보이는 그룹들이지만 서로 다른 해석 속에서 대지의 관심이 많은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눈에 띈다.

■ 작품 소개

▶ 퓨처 시스템(Future System)

체코출신의 안 카플리키(Jan Kaplicky)에 의해 1979년에 설립된 퓨처 시스템의 작품은 학생과 실무자들 모두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지금은 전설적인 것이 되어버린 카플리키의 「퍼너츠(the Peanut)」와 「小球(the Blob)」등의 포토몽타주는 넷웨스트 미디어 센터(NatWest Media Center)에서 사용된 아이디어와 기술의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1989년에는 아만다 레벤테(Amanda Levete)가 사무소의 파트너가 되어 퓨처시스템은 실제로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Hauer King House, Floating Bridge, House in Wales 등은 그들의 잘 알려진 작품들 중의 하나이다. 1997년에 넷웨스트 미디어 센터의 프로젝트 건축가인 데이비드 밀러(David Miller)와 앵구스 폰드(Angus Pond)가 퓨처시스템과 협력하게 되면서



넷웨스트 미디어 센터

실무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퓨처 시스템의 작품은 앞으로 완공될 Earth Center의 Ark Building을 계기로 그 규모를 더 키우고 지속 가능한 건축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앞장서고 있다. 넷웨스트 미디어 센터의 실현을 오랫동안 지녀왔던 (작품의)실현에의 꿈, 그리고 아이디어와 작품의 통합을 이루게 되었다.

소개된 작품은 House in Wales (1998), NatWest Media Center (1999), The Ark at the Earth Center(계획안, 2002) 등 3작품이고, 앵구스 폰드의 에세이 「이미지와 사물간의 관계」가 게재되었다.

▶Michael McGarry와 Siobhán NIÉ anaigh

모두 아일랜드 더블린 출신의 건축가들이다. 과장되지 않으면서도 내실있는 표현을 하는 것이 특징. 소개된 작품들로는 멜리폰트(Mellofont)수도원의 박물관, 포들(Poddle) 브릿지, 패럴렐 하우스(Parallel House), 스미스필드(Smithfield)광장 등이다.

▶Shane de Blacam과 John Meagher



아일랜드 더블린(Dublin)에 주요 작품들을 남기고 있는 이들 아일랜드 건축가들은 70년대 초 루이스 칸의 사무소에서 근무하였으며, 단기간이지만 로버트 벤츨리

의 사무소에서도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 현대 건축가에게 영향을 받은 아일랜드의 마지막 세대이기도 한 이들은 그 이후 세대가 유럽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복잡하고 여러 가지 참조사항을 갖는 것과는 달리 우아하면서 솔직한 경향을 지닌다. 그들의 작품에는 루이스 칸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칸 건축의 형태, 물질성, 빛 등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소개된 작품들은 주로 더블린에 소재한 1979년에서 9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작품들로, Firehouse의 교구교회(Parish Church), 더블린 대학 트리니티 컬리지(Trinity College)의 식당·아트리움과 베킷(Bekett) 극장, 復聖의 예배당, 코크(Cork)공업대학 도서관, 헤이즈베리 레인(Heytesbury Lane)의 뮤즈 하우스(Mews House), 리머릭(Limerick)대학 캠퍼스 입구, 베스버로우 퍼레이드(Bessborough Parade)의 주택, 캐슬(Castle)가(街)와 웨버러(Werburgh)가(街) 교차점의 복합건물 등이다.

신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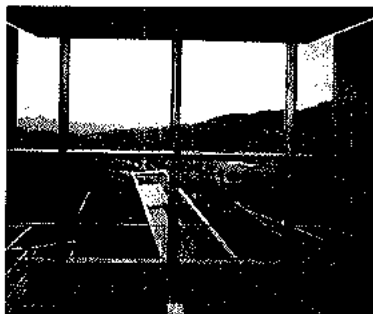
1999년 7월호

이번 호에서는 아마모토 리겐의 사이타마현립대학을 비롯하여,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gers)의 테크노 플라자, 안도 타다오(安 忠雄)의 엘리에어 마츠야마(Eileair 松山)게스트 하우스와 미나미테라(南寺), 하야카와 쿠니히코(早川邦彦)의 치토세(千歳) 온천 수영장, 코이즈미 마사오(小泉雅生)의 카비코우겐(吉備高原) 유치원 등이 소개되었다.



■ 작품

▶안도 타다오의 엘리에어 마츠야마 게스트하우스



건물의 부지는 크고 작은 500여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戸内海를 바라다보는 작은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부지 전체는 넓게 펼쳐져 이렇다할 특징은 없으나 주변에 펼쳐진 녹지와 바다를 바라다보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 요구된 프로그램은 게스트 하우스와 공공에 개방될 것을 전제로한 퍼블릭 스페이스를 함께 만드는 것이다. 공·사의 공간을 한 건물에서 엮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고, 이들은 기능별로 이루어진 매스들이 결합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졌다. 높이 솟은 게스트 하우스의 매스를 중심으로 각각의 매스와 선큰 가든, 수영장 등이 붙어나가면서 구성되어졌다.

▶안도 타다오의 미나미테라

이 건물은 이름에서 보여지듯 절(寺)은 아니다. 나옴시마(直島) Art House 프로젝트의 두 번째 작품으로 작은 미술관이다. 건물은 창이 전혀 나지 않고 모두 목재로 마무리된 평탄하고 작은 집으로, 내부의 전시실에 이르기 위해서는 비교적 길고 다양한 시퀀스를 거치도록 계획되어있다. 건물을 한바퀴 돌아 전실(前室)을 통해 이르는 작은 전시공간은 긴 여정의 끝에 도달하게 함으로서 그 가치를 더해주도록 의도되었다.

▶하야카와 쿠니히코의 치토세 온천 수영장

이 수영장의 계획은 기존의 수영장 맞은 편에 위치한 공장건물을 1990년에 설계하면서 2년 후인 1992년에 이 수영장도

함께 새로이 확장하기로 할에 따라 이루어졌다. 기존의 25m풀과 流水풀, 등의 프로그램에 건강증진 센터, 小체육관 등이 추가되었다. 외관에 곡선이 많이 첨가된 이 건물을 작가는 '물을 담은 그릇'이라 설명하고 있다.

▶코이즈미 마사오의 카비코우겐 유치원



다른 유치원과 다른 점은 실내를 점유하고 있는 목구조로된 격자 시스템이다. 전체 공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컨셉트이기도한 이 정글집과 같은 격자 시스템은 그 스케일이 성인을 위한 것이 아님을 찾는에 알아볼 수 있게 한다. 성인의 신장으로는 그 사이를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다. 유아의 스케일에 맞춘 이 격자 시스템은 건물 전체의 커다란 공간을 자유로이 점유하면서 유아들만의 공간을 제공하고 공간과 공간을 나누는 간막이 역할도 하고 있다.

■ 연재

연재물로는 『구조의 계보』제 22회 - 중력을 받친다는 것'과, '대담: 신세기를 향하여 - 인간을 주역으로 삼는 사회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提清二의 大江匠의 대담이 게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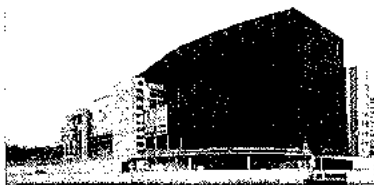
World Architecture

1999년 6월호

이번 호는 영국의 변화하는 건축환경을 특집으로 하여 최근에 주목을 받고있는 밀레니엄돔과 Jubilee Line 11개의 새로운 역 등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아점을 가지며, 감각적인 외벽을 만들어 낼 수 있는 Supershed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다.



■ 근작소개 - 빌바오, Euskalduna Congress와 음악센터



이 건물은 구겐하임 미술관에 의해 세계적인 지명도를 얻게된 빌바오시에 있어서 경제 문화적인 서비스 시설로서 기능을 하게 되며, 전략적으로 도시의 강변을 재생시키기 위하여 옛 조선소 자리에 지어졌다. 마드리드에서 활동하는 젊은 건축가 Federco Soriano와 Dolores Palacios는 개념적인 건축의 실험으로서 이 프로젝트에 임하여 설계경기에 당선되었다. 그들은 현재 스페인 건축계에서 유행하는 미니멀리즘적 경향과는 대조적으로 복잡한 형태를 선택하였다. 그들의 개념은 비건축적인 원기를 디자인과정에 적용시키는 것으로서, 기본적인 디자인 개념은 이야기와 같은 은유로부터 시작된다. 즉, 오디오리움은 옛 조선소의 거칠고 미완성된 이미지로부터 출발하였고, 그 껍데기는 해군의 건조기술을 사용한 이 지역 고유의 조선법에 의

해 지어졌다. Soriano는 이러한 은유는 실제 건물의 경험과는 별로 관계가 없으며, 이러한 은유로부터 얻어지는 형태적 대상에 그들의 관심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물리적 세계를 읽는 데에 영향을 주는 정신적인 이미지의 작용을 과소평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분야별 특집 - Supershed



책림록 공항터미널

Supershed는 공항 터미널, 배급센터, 공장 등의 대규모 건축물의 하중을 받지 않는 외벽을 말한다. 각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성격을 달리하는데, 공항터미널의 경우는 대규모의 건물을 단시간안에 지어야하는 문제에서 supershed를 사용하며, 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비용절감적인 면보다는 소비자들의 눈을 끌 수 있을 만한 파사드의 형성에 중점을 둔다. 홍콩의 책림록 공항 터미널 건물은 260,000㎡에 필요한 모든 시설-화물운송과 보관실, 사무실, 부속실 등을 수용하였다. 7층 높이의 이 건물은 중앙에 창고를 두고 주위에 양파와 같은 커로 이루어졌는데, 전체 시스템은 중앙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조절된다. 이 건물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2km가 넘는 길이에 있는데 화물 센터의 크기가 갈수록 접근이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 Regional Focus - 영국

단지 10년 전만 해도 정체상태에 있었던 영국 건축은 전례없이 활황기를 맞고 있다. Adam Mornement은 공공의 지원과 복권기금, 그리고 새 정부의 지원에 의해 가속도를 얻은 영국건축의 변화를 조망하였으며,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영국의 건축물- 밀레니엄 돔, 런던 Jubilee Line 11개의 새로운 역, 리차드 로저스의 Swindon 모토로라 본사, Benson+Forsyth의 스코틀랜드 박물관 등을 소개하였다.

■ 홀로코스트 기념공원 설계경기

홀로코스트의 유대인 희생자들을 위한 기념적인 건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하였다. Burandenburg Gate의 남쪽 대지에 지어지는 이 공원의 설계경기과정과 응모한 작품들을 소개하였다. 기념공원 성격을 전형적인 "기념비적 양식"으로 할지, 홀로코스트 연구센터와 결합된 형식으로 정해여되는지의 문제가 아직 결정나지 않은 채, 아이젠만의 수정된안이 당선되었다.

■ IIT 심포지움 - "기술과 건축"

런던에서 활동하는 건축가, Chris Wilkinson은 시카고 IIT에서, "기술과 건축"이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움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주요내용은 환경, 지속성, 신재료, 경량구조,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 디자인 도구로서의 컴퓨터의 사용 측면에서의 기술적 문제이었다. 이번 심포지움은 유럽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건축가들의 기술정보의 공유에 의의를 두었다.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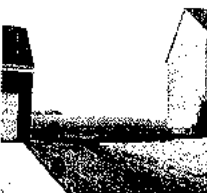
바닥과 천장에 있어서 일치되지 않는 각국의 표준 치수와 명칭들의 ISO 인증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다루었다.

Domus

1999년 6월호

근작으로 Bernard Tschumi의 콜럼비아 대학 Lerner 학생회관과 Asymptote Architecture의 뉴욕 증권

domus



거래소확장의 실제와 가상공간 디자인이 소개되었다. 미국의 건축과 디자인 특집으로, 실험적인 건축가들의 활동이 활발해진 미국건축계에 대한 컬럼이 실렸으며, 미국 산업디자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폴라로이드 카메라와 포드 자동차 디자인이 자세히 다루어졌다.

■ 근작소개

▶ Bernard Tschumi의 콜럼비아 대학 Lerner 학생회관



이 건물은 McKim Mead & White가 설계한 캠퍼스 마스터플랜과의 역사적인 관계를 고려하는 동시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따른 새로운 공간을 담아내야 했다. 결과적으로 뉴욕시 안의 컬럼비아 타운 내에 있는 새로운 학생들의 타운이라는 설정으로 디자인은 출발하였다. 외면적으로는 컨텍스트에 충실한 한적한 건물이면서,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복잡한 프로그램을 위한 활기가 넘치는 공간을 만들어내었다. Hub(바퀴살이 모이는 바퀴통)는 이 건물의 주된 순환체계로서 로비, 학생라운지, 게시판 600명 학생의 메일박스를 위한 랍프 등이 한곳에 집중되게 된다.

▶ Asymptote Architecture의 뉴욕 증권거래소 확장 및 가상 증권거래소



Studio Asymptote는 LED 메시지 보드를 따라서 60개의 모니터가 설치된 실제 증권거래소의 trading floor와 여기서 일어나는 상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가상 공간의 증권거래소도 함께 설계하였다. 강력한 시각적 공간을 형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와 재료, 그리고 기능적인 효율성을 고도의 기술과 결합시켰다. 뒤에서 푸른 빛이 나오는, 주름진 유리벽은 LCD 모니터들에 의해 데이터로 이루어진 커튼을 형성하며 그 앞에는 통신과 컴퓨터 장비가 설치된 이중 곡면의 금속 캐비닛을 두었다. 스테인레스 스틸이 상감된 에폭시로 바닥을 마감하였으며, 조각이 된 금속 천장에는 뒤로 후퇴된 반원형의 조명이 설치되었다.

3D Trading Floor는 가상현실의 건축 프로젝트 중 가장 큰 스케일에 속하며, Asymptote의 디자인과 개념화 기술을 SIAC와 RT-Set의 공학적인 기능성과 결합시켜 완성된 것이다. VRML과 고도의 CAD를 사용하여, 조명, 빛, 텍스처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으며, 네비게이션, 이동, 둘러보기 등 다양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였다. 그 밖에 ▶ 1992년 지진에 의해, 무너진 70년된 이집트식 극장대신 들어선 Hodgettes + Fung Design Associates의 Hollywood 아메리칸 극장 ▶Rick Joy의 아리조나 단독주택 등이 소개되었다.

■ 미국의 실험적 건축

미국의 지난해 건축과 예술에의 환상적인 기여는 대담하고 혁신적인 새로운 세계가 결국 눈앞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이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이라크계 건축가 자하 하디드의 Cincinnati 현대 미술관 설계경기 당선이나, 맨하탄 웨스트 사이드의 혼재된 도시 하부구조 구축등에 대한 실험적인 컴퍼티션등의 예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LA에서 활동하고 있는 Thom Mayne, Neil Denari, Eric Owen Moss등도 "새로운 사상가"들로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래에 대한 강한 낙관이 작용하여,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실험을 해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세기 초에 번성했던 미국 낙관주의의 전통적인 정신은 지금 부활하고 있다.

■ 미국의 산업 디자인

"사물의 역사"라는 시리즈의 일환으로 이번 호는 미국 산업디자인의 발달과정을 따라가보는 다소 맥락적 경로를 취하였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실용적인 사물들은 미국적 신화와 결합된 양상을 보여 주기도 한다. 상표의 로고에서부터, 패션, 오락, 생활전반에 이르는 가장 미국적인 디자인들을 소개하였다.

그 밖에 ▶수만명의 사진에 대한 생각과 사용에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점에서 폴라로이드는 사진기술의 혁신이며, 사회적,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산업 디자인 과정의 패러다임을 보여주며, 미국문화의 역사에 있어서 이정표가 되었던 폴라로이드 케이스 디자인과 ▶Ford Motor Company의 자동차 디자인 역사 등을 개관하였다.

이번호는 다가오는 밀레니엄 특집으로 첫 번째 밀레니엄에는 건축에 있어서 어떠한 큰 변화가 있었는지와 과거



의 영화나 건축이론가들이 그랬던 미래 사회 등을 주제로 다루었다. 또한 금세기의 가장 흔하게 쓰였던 건축 재료, 건축 상품 등을 소개하였다. 근작으로는 멕시코의 한 사업가의 투자에 의해 개발되는 복합단지인 JVC Center와 Asymptote의 가상 뉴욕 증권거래소 등이 소개되었으며, 건물유형연구에는 연구소가 다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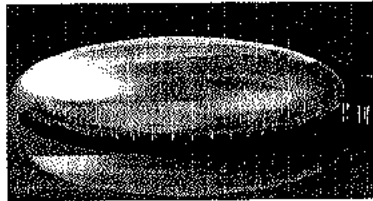
■ 밀레니엄 특집- 20세기를 되돌아 본다.

지난 1000년을 되돌아보는 기획으로 첫 번째 밀레니엄을 맞을 당시 건축계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로 시작하고 있다. Suzanne Stephens는 대변혁의 시기였던 서기 1000년을 재조명하기 위해 당시 유럽의 건축을 소개하였으며, 우리가 그로부터 얼마나 진보하여 왔는지를 상기시키고 있다. Michael Sorkins는 SF영화나 건축가들이 바라본 미래세계를 재조명하고 있으며, 유토피아에 대한 시각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때때로 거대한 계획들이 실현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던 것을 다행이라고 언급하면서 간접적으로 비판을 한다. 한편, N.J. Novitsky는 지어졌다면 걸작이 되었을 만한 건축작품들을 디지털기술에 의해 재연해 내었다.

■ 근작소개

▶ Gadajajara의 JVC Center

성공한 사업가인 John Vergara는 멕시



코의 Gadajajara 외곽에 문화, 상업 복합 시설과 주거, 오락 시설을 세우는 도시적 사업을 발주하여, 전 세계 10명의 스타 건축가들에게 주요 건물의 디자인을 맡겼다. 이 프로젝트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건축가들이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예산에 끼워 맞춰야 하는 대신에 초기단계부터 그들의 꿈을 펼 수 있었다는 것이다. TEN Architectos의 컨벤션 센터(그림5)는 중앙의 전시공간이 두어지고 그 주변에 동심원상으로 기능이 분배되어 있다. 첫 번째 링에는 회의실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다음 링에는 회전하는 램프가 각 층을 연결하고 있으며, 가장 바깥쪽에 로비가 놓였다. 그 밖에 Toyo Ito의 아트 뮤지움, Coop Himmelblau의 21세기를 위한 쇼핑센터, Daniel Libeskind의 대학교, Steven Holl의 주거단지, Tod Williams & Billie Tsien의 공연장, Philip Johnson의 어린이 박물관, Morphosis의 닭경기장 및 이벤트용 스타디움등이 소개되었다.

또한 ▶ Asymptote의 가상 증권거래소 확장안 및 가상 증권거래소 등이 근작으로 자세히 다루어졌다.

■ 사례연구 - 연구소



캘리포니아에 있는 Ricardo Legoretta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연구소들은 시악 선반들과 환기후드, 세척 스테이션 등 연구실에 필요한 공통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그들이 모두 같은 형태를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일례로 Rowan Hall의 Teaching lab은 시간대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쓰이게 디자인 된 반면에, MBT Architecture의 McKelvey

Federal Building은 단일한 실험이 몇 년 동안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특화된 실험실을 필요로 하였다. Lord Aeck & Sargent의 조지아 퍼블릭 건강센터와 Legoretta의 Chiron Life Science Center는 생물학에 중점을 두는 연구실을 모델로 삼았다. 두 연구소 다 자연조명을 최대한 고려하고, 실내에서 야외를 조망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의 편의에 신경을 썼다. 조지아 건강센터는 같고 낮은 건물로서, 많은 양의 실험 표본을 빠르고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되는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건물의 가장 큰 결정요인이었다. Chiron회사의 연구소는 수직적으로 조직되었는데, 약학과 생물학 각 타입의 실험실의 조합으로 구성하였다. 개별 건물들의 예로 ▶뉴저지 Glassboro, Rowan Hall 연구소 ▶캘리포니아 Emeryville, Chiron 회사의 Ricardo Legoretta 건물 ▶루이지애나 Lafayette, Estuarine Fisheries and Coastal Habitat Center ▶조지아 Decatur, 조지아 공공 건강센터 ▶수문학, 지질학, 생태계등을 연구하는 캘리포니아 Menlo Park, Vincent E. McKelvey 연방 건물 등이 소개되었다.

설계도서신고현황

99년도 6월분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6월분(98.6) 4백1십7만5백78㎡ 보다 54.5%(2백2십7만3천4백05㎡) 증가한 6백4십4만3천9백83㎡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6월 누계분 3천9십7만6천7백93㎡ 보다 13.1%(4백7만4백27㎡) 감소한 2천6백9십만6천3백66㎡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5월분(99.5) 5백2십만7백25㎡ 보다 23.9%(1백2십4만3천2백58㎡) 증가한 6백4십4만3천9백83㎡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

(단위/㎡)

구 분	1998년도	1999년도	증 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	2,595,380	3,787,927	1,192,547	45.9
부산	74,829	104,920	30,091	40.2
대구	82,794	164,501	81,707	98.7
인천	94,958	186,735	91,777	96.7
광주	24,515	190,471	165,956	677.0
대전	21,377	50,941	29,564	138.3
울산	21,509	185,018	163,509	760.2
경기	674,890	826,404	151,514	22.5
충남	85,405	169,356	83,951	98.3
전북	46,757	107,923	61,166	130.8
전남	37,252	159,373	122,121	327.8
경북	60,981	135,156	74,175	121.6
경남	82,606	147,052	64,446	78.0
제주	25,245	41,707	16,462	65.2
감소지역				
강원	123,881	73,401	(50,480)	-40.7
충북	118,219	113,048	(5,171)	-4.4
합 계	4,170,578	6,443,933	2,273,355	54.5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연면적 기준)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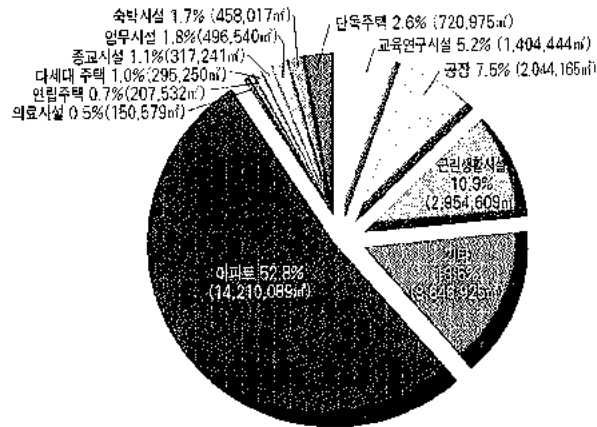
단독주택	146,926 (4.7%)	153,840
다세대주택	85,191 (32.2%)	112,596
연립주택	32,282 (113.4%)	68,875
아파트		2,893,452 (23.6%)
근린생활시설	631,133 (18.4%)	747,540
종교시설	59,591 (48.8%)	88,642
의료시설	21,155 (81.8%)	38,461
교육연구시설	276,384 (-6.2%)	259,354
업무시설	29,368 (514.2%)	180,378
숙박시설	29,646 (134.5%)	69,512
공장	433,022 (31.7%)	570,469
기타	562,575 (2.5%)	576,684

연면적 합계/ 5월: 5,200,725㎡
6월: 6,443,983㎡ (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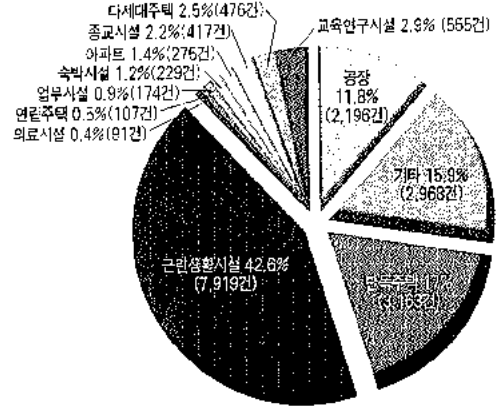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6월분)

구 분	1998년			1999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용도											
단독주택	351	373	77,629	636	669	153,840	285	296	76,211	98.2	
다세대주택	40	41	15,740	146	162	112,596	106	121	96,856	615.3	
연립주택	23	22	617,445	35	39	68,875	12	17	(448,570)	-86.7	
아파트	37	92	2,054,735	69	117	3,577,632	32	25	1,522,897	74.1	
근린생활시설	817	838	273,735	1,861	1,937	747,540	1,044	1,099	473,805	173.1	
종교시설	71	75	69,573	102	112	88,642	31	37	19,069	27.4	
의료시설	5	5	3,622	26	26	38,461	21	21	34,839	961.9	
교육연구시설	119	126	264,636	133	150	259,354	14	24	(5,282)	-2.0	
업무시설	38	38	170,208	37	50	180,378	(1)	12	10,170	6.0	
숙박시설	33	49	89,146	62	63	69,512	29	14	(19,634)	-22.0	
공장	227	294	205,511	574	721	570,469	347	427	364,958	177.6	
기타	524	603	428,598	710	800	576,684	186	197	148,086	34.6	
합 계	2,285	2,556	4,170,578	4,391	4,846	6,443,983	2,106	2,290	2,273,405	54.5	()=마이너스

용도별 구성비(1999년 6월 누계)



연면적 (총 26,906,366㎡)



건수 (총 18,570건)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6월분)

구분	1998년			1999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328	328	2,595,380	521	522	3,787,927	193	194	1,192,547	45.9	
부산	52	82	74,829	109	157	104,970	57	75	30,141	40.3	
대구	115	115	82,794	237	237	164,501	122	122	81,707	98.7	
인천	76	76	94,958	163	163	186,735	87	87	91,777	96.7	
광주	57	68	24,515	208	249	190,471	151	181	165,956	677.0	
대전	57	57	21,377	93	93	50,941	36	36	29,564	138.3	
울산	39	39	21,509	124	132	185,018	85	93	163,509	760.2	
경기	513	614	674,890	1,007	1,198	826,404	494	584	151,514	22.5	
강원	199	222	123,861	241	266	73,401	42	44	(50,460)	-40.7	
충북	164	196	118,219	227	255	113,048	63	59	(5,171)	-4.4	
충남	161	131	85,405	273	273	169,356	112	142	83,951	98.3	
전북	95	95	46,757	243	250	107,923	148	155	61,166	130.8	
전남	90	107	37,252	353	367	159,373	263	260	122,121	327.8	
경북	133	150	60,981	211	245	135,156	78	95	74,175	121.6	
경남	138	181	82,606	282	328	147,052	144	147	64,446	78.0	
제주	68	95	25,245	99	111	41,707	31	16	16,462	65.2	
합계	2,285	2,256	4,170,578	4,391	4,846	6,443,983	2,106	2,290	2,273,405	54.5	()=미아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6월 누계)

구분	1998년			1999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3,417	3,459	17,343,506	2,148	2,153	14,793,802	(1,269)	(1,306)	(2,549,704)	-14.7	
부산	1,082	1,951	1,727,175	839	1,160	812,244	(243)	(791)	(914,931)	-53.0	
대구	564	564	506,860	853	853	618,730	289	289	111,870	22.1	
인천	824	834	1,260,626	677	696	1,223,739	(147)	(138)	(36,887)	-2.9	
광주	563	697	374,697	736	861	500,062	173	164	125,365	33.5	
대전	528	528	474,045	499	499	294,440	(29)	(29)	(179,605)	-37.9	
울산	264	268	180,485	603	616	412,195	339	348	231,710	128.4	
경기	4,810	5,558	3,982,089	4,016	4,958	3,757,253	(794)	(600)	(224,836)	-5.6	
강원	1,204	1,362	741,013	980	1,077	354,581	(224)	(285)	(386,432)	-52.1	
충북	1,154	1,402	1,245,386	1,191	1,368	782,548	37	(34)	(462,838)	-37.2	
충남	997	857	571,269	1,099	1,099	605,274	102	242	34,005	6.0	
전북	470	470	373,371	756	770	384,725	286	300	11,354	3.0	
전남	599	669	342,208	1,095	1,136	499,619	496	467	157,411	46.0	
경북	1,043	1,175	601,766	1,114	1,298	801,171	71	123	199,405	33.1	
경남	1,274	1,592	1,106,874	1,487	1,706	887,065	213	114	(219,809)	-19.9	
제주	359	423	145,423	477	536	178,918	118	113	33,495	23.0	
합계	19,152	21,809	30,976,793	18,570	20,786	26,906,366	(582)	(1,023)	(4,070,427)	-13.1	()=미아너스